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博士 學位論文

中國 古代 帝國의 人力 資源  
편제와 운용

2020年 8月

서울대학교 大學院  
東洋史學科  
李 周 炫



# 中國 古代 帝國의 人力 資源 편제와 운용

지도교수 金 秉 駿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0年 4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東洋史學科

李 周 炫

李周炫의 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20年 7月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 國文抄錄

人力の 효과적인 운용은 權力の 창출과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中國 古代 帝國의 통치자는 일찍부터 제국 내 人力 資源의 편제에 주목해왔다. 광대한 영토와 수많은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 제국은 생산, 행정, 건설, 운송 등의 각 업무 항목에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가용 인력의 수량 및 종류는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중국 고대 제국의 인력 자원 운용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상은 곧 국가의 통치 방식·이념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本 研究는 이 점에 착안하여 戰國時代에서 三國時代까지 중국의 제국이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과 그 변천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戰國時代, 前漢 文帝 재위기, 後漢 말기의 세 가지 분기점을 기준으로 I, II, III장을 구성하였다. 隸屬 人力을 최대한 장악하는 秦의 인력 이용 방식은 전한 문제 13년(BCE 167) 이후 전환점을 맞게 되어 이후 인력 이용의 ‘외주화’가 나타나고, 후한 말기에 이르면 다시 인력을 최대한 편제하는 ‘재내주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戰國時代 이후 秦은 신분을 이용하여 인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특정 노동으로써 예속 인력의 신분을 명명하는 현상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秦의 徒隸인 隸臣妾, 城旦舂, 鬼薪白粲의 명칭은 특정 노동 종류 혹은 피예속민을 의미하여, 예속적 신분이 해당 노동에 대한 秦의 필요에서 탄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신분이 선형적으로 존재하여 이들에 특정 노동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 특정 노동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신분이 만들어진 것으로, 신분이란 인력을 편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秦은 먼저 제국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업무·노동을 설정하고 각 업무·노동의 성격에 맞추어 예속 인력을 배치하였다. 里耶秦簡 作徒簿와 秦 律令을 분석함으로써 관영수공업, 공전 경작, 행정 잡무, 군사 업무, 건설, 물자 운송의 여섯 가지 항목을 진의 핵심적 업무·노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진은 신분적 속성 및 성별·연령·신체 상태로부터 산출한 노동 比價를 고려하여 위의 업무·노동에 인력 자원을 편제하였다.

관영수공업, 공전 경작, 건설, 물자 운송에는 徒隸가 고루 동원되었으며, 도예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경우 居貲贖債, 卒, 黔首도 동원의 대상이 되었다. 첫째, 관영수공업에 투입된 인력 자원은 기술력을 지닌 이들이 주축이

되었는데, 수공업 기술을 보유한 徒隸는 工官에 예속되었으며 庶人으로 속면된 이후에도 工官에 예속되었다. 수공업 기술을 보유한 黔首 역시 工官에 소속되어 齊民과는 다른 계통으로 관리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점은 秦이 수공업 기술, 더 나아가 商工業을 장악하려 하였음을 의미하는 한편, 秦의 치밀하게 인력 자원을 편제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진은 공전의 개간과 경작에도 많은 인력을 동원하였다. 新縣이 건설되면 해당 縣의 畝는 그 이듬해부터 경지를 개간해야 했으며, 縣은 전체 보유 도예 중 일정 이상을 경작을 전담하는 도예[田徒]로 삼았다. 공전 경작에는 居貲贖債,卒이 투입되기도 하였으나 공전 경작의 중심 인력 자원은 도예였다. 도예를 먼저 운용하는 원칙은 시설물의 건설과 물자의 운송에도 적용되었다. 黔首는 방어 시설 및 거주지·경작지 내의 도로와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수리할 의무를 지녔으며,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물자를 운송하는 徭役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였으며, 특히 비정기적 물자 운송의 경우 도예 인력을 먼저 이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秦은 각종 육체노동 수요가 발생한 경우 도예를 최우선으로 이용하였다.

행정 잡무와 군사 업무에는 도예 일반을 광범위하게 동원하기보다 특정 인력을 이용하였다. 행정 잡무의 인력 수요는 도예로써 해결되었으나, 그중 官吏의 보좌와 심부름을 담당하는 직역(僕·養·走)에는 隸臣이 주로 동원되었고 隸妾·城旦舂·鬼薪白粲의 동원은 금지되었다. 이는 隸臣이 본래 가내 노예, 피예속민으로서 家나 國家의 잡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성된 신분인 것과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한편 도예는 병역·요역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군사 업무는 주로 검수가 담당하였다. 秦은 각종 업무·노동의 성격에 맞추어 여러 인력 자원을 빈틈없이 조직하였으나,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단연 도예였다. 도예는 秦 인력 자원의 중핵을 이루어 군사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노동에 우선 동원되었다.

그러나 진 제국의 인력 편제 방식은 자립 기반을 가지지 못한 대규모의 예속 인력을 근거로 하였다. 따라서 도예를 유지하기 위해 제국은 식비, 의복비, 기타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이는 곧 커다란 재정 지출을 의미하였다. 대가를 얻지 못하는 강제 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도예의 강제적 사역은 높은 생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종군, 건설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한 戰時나 개창기에는 다수의 예속 인력이 필요하나, 제국이 난숙하여 통치가 궤

도에 오르면 다수의 예속 인력은 점차 잉여 인력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秦~前漢 초기까지 赦免令이 수차례 내려졌으나, 도예는 肉刑, 無期 勞役刑으로 재생산되었으므로 사면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었다.

前漢 文帝 13년, 육형과 무기 노역형이 폐지되며 무기한 노역하는 도예는 소멸하였다. 문제 13년 이후에 존재한 도예는 정해진 刑期를 마치면 해방되는 유기 도예로, 후대까지 그 신분이 계승된 문제 13년 이전의 도예와는 구별되었다. 자연히 문제 13년을 기점으로 前漢의 예속 인력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생산·행정 잡무·건설·운송 등의 업무·노동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으므로, 비록 開創期보다 감소했을지언정 제국의 인력 수요는 여전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전한 중기 이후 예속 인력 이외의 인력 자원을 병용하여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는 방식이 시도되었는데, 당시 병용된 인력 이용 방식은 바로 민간인력의 고용이었다.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의식주를 비롯한 고정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었으며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수량의 인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희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前漢의 민간사회에는 인력 고용의 수요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전한 중기 이후 타지에 거주하는 客民이 증가하며 인력 고용의 공급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특히 전한 중기 이후 병역·요역의 대역이 이전보다 확대되며 인력 고용이 점차 보편화되어, 後漢에 이르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고용 노동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과거에는 인력 고용이 육체노동에 한정되거나 타인에 고용되는 일을 다소 부끄러운 일로 간주하였다면, 후한 이후에는 식자층이 타인이나 官을 위해 고용 노동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전한 중기 이후 민간사회의 인력 고용 확대는 고용 노동자의 증가를 가능하게 하여 前漢帝國의 민간인력 고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출토 문서는 前漢 중기 이후 官府가 운송, 건설, 경작에 인력을 직접 고용한 사실을 보여준다. 먼저, 운송 부문의 인력 고용은 ‘僦人’의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인이란 관부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물자를 운송하는 자들을 일컫는다. 추인은 적재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수령하였으며 운송 담당 吏의 관리를 받았다. 다음으로, 成帝의 능묘 건설에 고용 노동자를 투입한 기



록 및 관부가 경작을 위해 고용한 민간인에 임금을 지불한 기록으로부터 건설, 경작 부문의 인력 고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전한 중기 이후에는 官吏가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官屬이 직무를 대신할 인력을 고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관리의 보조자나 특정 직무를 맡은 관속은 원칙상 官府가 판단한 ‘적합한 인력’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희미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즉, 전~전한 초까지는 특정 직무에 특정 인력을 배치하는 체계가 존재했다면 전한 중기 이후로는 어떤 직무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민간인을 적당히 고용해 인력 수요를 충당해도 무방하다는 관념이 등장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전한 중기 이후 인력 운용에서 일종의 노동 ‘외주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後漢 말~三國時代 초에 이르러 전한 중기 이래의 인력 운용 방식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 후한 중기 이후 관부의 인력 고용은 감소하고 후한 말기에 이르면 직역마다 인력을 편제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官府의 고용이 감소하고 인력의 재장악이 시도된 배경으로는 후한의 재정 악화, 고용 노동의 약점, 하급 행정 인력의 수요 증대, 그리고 三國의 패권 경쟁을 들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고용 노동의 약점과 기층 행정 인력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인력의 고용은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나, 使役의 편의성 및 업무의 안정성이 낮다는 단점을 지녔다. 다음으로, 하급 행정 인력의 수요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전한 말 이후 郡 기능의 확대로 다수의 하급 행정 인력이 필요해졌으나 당시 사회에 만연한 하급 행정 인력에 대한 천시 풍조로 인해 식자층이나 재지 유력자는 하급 행정 인력이 되는 것을 기피하였다. 그러나 행정 인력을 충원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後漢은 강제적 수단과 임시 방법을 동원하여 하급 관리 혹은 그보다 하위의 행정 잡역 담당자를 충원하려 하였다. 즉, 인력을 유상으로 이용하는 대신 장악할 수 있는 인력을 가능한 만큼 장악하는 ‘再 내주화’가 등장한 것이다.

후한 말~삼국 초 인력의 편제 양상은 走馬樓吳簡과 문헌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戶 단위로 인력을 장악함으로써 해당 호에 특정 업무를 강제, 세습시키는 것이다. 走馬樓吳簡 중 里 집계 기록은 50개의 호로 구성된 里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담고 있는데, 1개의 里는 일반 요역을 담당하는 호[應役戶], 특수 직역을 담당하는 호, 免役戶로 구성되었다. 특수 직역 호의 직역은 호의 구성원에도 부과되었고 후대까지 세습되었으며,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의 각종 업무(관영수공업·둔전 경작·운송·관부 잡역)에 동원되는 호이다. 이 戶는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였는데 수공업이나 운송 등 특정 기술이 필요한 직무에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였으며 경작이나 관부의 잡역에는 주로 관부 소속의 예속민인 客, 叛走한 전력이 있는 자, 빈곤한 자를 투입하였다. 두 번째는 吏·卒 호이다. 吏·卒은 하급의 행정 담당 인력 자원으로서 행정 혹은 군사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吏·卒의 남성 가족은 행정 혹은 군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일종의 예비군으로 간주되었다. 이들은 특수한 세금인 限米를 납부하였고 전쟁에 종군하였으며 정식의 吏나 卒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 職을 임시로 수행하는 ‘給吏’, ‘給卒’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吏·卒의 남성 가족의 현황은 郡, 縣으로 보고되었고 질병에 걸리거나 도망을 친 경우에도 해당 호에 부과된 의무는 사라지지 않았다.

秦~三國時期의 인력 편제 방식은 ‘예속 인력 이용(내주화)→인력 고용(외주화)→戶를 이용한 民의 예속과 사역(再 내주화)’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인력 활용 방식은 해당 시기 국가권력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어떤 시기의 인력 이용 방식은 당대의 상황뿐 아니라 이전 시기로부터 이어져 온 인력 이용 방식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주요어 : 帝國, 人力 資源, 隸屬 人力, 徒隸, 編制, 財政, 雇傭, 外注化, 再內注化, 吏役, 職役

학 번 : 2011-30856



# 목 차

## 國文抄錄

서 론 .....	1
I. 秦의 人力 資源 掌握과 編制 .....	10
1. 戰國時代 이후 나타난 秦의 人力 資源 掌握 方式 .....	10
2. 人力 資源을 배치한 주요 항목 .....	19
3. 人力 資源의 실제 운용 양상 .....	31
1) 肉體勞動에 편제된 인력 .....	32
2) 행정 잡무·군사 업무에 편제된 인력 .....	57
소 결 .....	80
II. 前漢 中期 人力 資源 운용상의 변화와 人力 雇傭 .....	83
1. 隸屬 人力 유지의 재정적 부담과 그 영향 .....	83
1) 徒隸 勞動의 경제성 .....	86
2) 秦~前漢 初期의 徒隸 수량 조절 시도 .....	100
3) 文帝의 개혁 이후에 남은 예속 인력 .....	110
2. 民間社會의 人力 雇傭 .....	116
1) 人力 雇傭의 수요와 공급 .....	116
2) 前漢 中期 兵役·徭役의 代役 성행 .....	133
3) 後漢의 雇傭 勞動 확산과 분화 .....	142
3. 人力 雇傭에 대한 前漢의 인식 변화와 그 운용 .....	147
1) 새로운 인력 운용 방식의 모색 .....	147
2) 前漢의 인력 고용 .....	164
3) 官屬·吏의 개별적 인력 고용 .....	177
소 결 .....	186

Ⅲ. 後漢 末期~三國 初期 인력 자원의 再掌握과 職役의 등장 .....	188
1. 後漢 중기 이후 인력 운용 방식의 변화 배경 .....	188
1) 人力 雇傭이 가지는 한계 .....	188
2) 後漢의 행정 담당 인력 수요 확대 .....	197
2. 後漢 末~三國 初 특수 戶의 설정과 職役의 등장 .....	207
1) 肉體勞動과 特殊 職役 戶 .....	211
2) 행정·군사 업무와 吏·卒 戶 .....	229
소 결 .....	245
결 론 .....	248
參考文獻 .....	256
Abstract .....	271

## 서론

國家<sup>1)</sup>의 형성 과정에서 人力 資源<sup>2)</sup>의 동원과 배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란 사람들의 행위를 조직, 지휘하는 포괄적 정치 조직인 동시에 여러 구성원으로 구성된 사회 조직이므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재생산에 필요한 생산·행정·건설·운송 등의 諸 업무를 설정하고 여기에 인력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각각의 업무를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강력한 정치 권력의 형성이 각종 財貨의 생산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재화의 효율적 생산은 인력, 자본, 생산요소의 결합에 따라 가능하므로, 인력의 효과적 배치는 곧 국가의 존립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추구한 中國 古代의 帝王은 인력의 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가령 전국시대 전제 군주는 山林藪澤을 독점, 개발하고 公田의 개간을 시도함으로써<sup>3)</sup> 권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대단위의 인력이 투입될 때 가능한 작업이었으므로, 전국시대 이래 각국은 백성을 장악하고 力役의 이름으로 그 인력을 이용하였다.

秦의 編戶齊民體制는 장악한 인력을 통치자의 기호에 맞추어 치밀하게 재배치한 결과물이었다. 編戶齊民體制의 중핵을 이루는 授田體制는 인적·물적

---

1) 근대 이전의 國家에 대해서는 ‘군주가 일정한 영토를 지배하고 수도와 지방에는 정치를 담당하는 관리가 있고, 그 지배가 법률과 제도에 의해 규제되며, 피지배계급이 납부하는 조세와 노역에 의해 정치조직이 운영되는 상태’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전근대 국가는 씨족질서의 해체, 군주권의 확립, 영역의 존재, 관료·법률·지방행정을 전제로 한다. (김병준, 『국가의 성립과 발전』, 『동아시아의 역사 I (자연환경-국제관계)』,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p.176) 중국 고대에서 이러한 요소를 갖춘 ‘국가’는 戰國時代 이후 등장하는데, 本 研究에서 다루는 ‘國家’와 ‘帝國’은 모두 전국시대 이후의 산물로, 위에서 밝힌 요소를 갖추고 있으므로 위의 정의를 적용할 수 있다.

2) 本 研究에서 말하는 ‘人力’, ‘人力 資源’이란 곧 전근대 국가의 핵심적 업무인 생산(관영수공업·경작), 행정 잡무, 군사 업무, 경작, 건설, 운송 등에 투입된 인간 노동력의 총합을 의미한다. 노동력을 투입하는 방식은 대가를 받지 못하는 강제 노동과 대가를 받는 유상 고용 노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강제 노동’은 Keightley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신의 본성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 혹은 어떤 대상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David Keightley, “PUBLIC WORK IN ANCIENT CHINA: A STUDY OF FORCED LABOR IN THE SHANG AND WESTERN CHOU”, Dissertation of Columbia University, Ph.D., 1969, p.3)

3) 増淵龍夫, 『先秦時代の山林藪澤と秦の公田』, 『新版 中國古代の社會と國家』, 東京: 岩波書店, 1996.

자원을 인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가능하였고, 齊民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한 官營 産業은 수많은 인력의 강제 노동으로 뒷받침되었다. 관영 생산 조직에는 국가에 예속된 각종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이들은 강력한 통제를 받으며 노동에 종사하였다.<sup>4)</sup> 아울러 秦·漢 제국은 수리·관개시설, 도로·교량, 官廳·郵置, 군사 시설물 등을 건설하였는데, 이러한 유형의 건설은 대단위의 인력을 결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sup>5)</sup>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고대의 제국은 인력 자원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였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중앙집권화를 이루고 국가 체제를 유지하려 하였다.

효율적 인력 배치의 중요성은 널리 공감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식은 정치, 사회, 경제의 諸 조건 및 통치이념에 따라 상이하였다. 이를테면 秦은 균질한 民을 양산함으로써 영구한 황제지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므로 민간사회의 빈부 격차나 民의 零落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따라서 雜役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되도록 제국에 예속된 인력에 해당 잡역을 담당하도록 하여 民의 농경을 보호하였다.<sup>6)</sup> 즉, 秦 제국에 효율적 인력 배치란 예속 인력의 적극적 사역을 의미하였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인력 운용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각 시대의 인력 편제는 앞서 언급한 여러 요소가 작용한 결과이므로, 어떠한 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변화상을 짚어봄으로써 해당 시대의 사회·정치·경제적 조건 및 통치이념의 추이를 간취할 수 있다. 필자가 秦으로부터 前漢·後漢을 거쳐 三國時代까지 각 정치권력이 취한 인력 편제 방식을 살펴보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戰國時代 秦~三國時代까지 국가가 이용한 인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대별 이용 인력의 신분 및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즉, 인력 이용 방식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기보다 각 시기의 대표적 인력 자원과 그 제도의 특성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秦의 徒隸, 前漢의 戍卒·更卒, 三國~魏晉南北朝의 官府隸屬民이 주요 연구 과제가 되었다.

4) 李成珪, 『官營産業의 發展』, 『中國古代帝國成立史研究—秦國齊民支配體制的 形成』, 서울: 일조각, 1984.

5) 渡邊信一郎, 『漢代國家의 社會的勞動編成』, 『中國古代의 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2011.

6) 李成珪, 『數의 帝國 秦漢 : 計數와 計量의 支配』(대한민국학술원 학술연구총서 14), 서울: 大韓民國學術院, 2019, p.354.

秦 徒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秦이 이용한 인력에 관한 연구는 睡虎地秦墓竹簡 秦律<sup>7)</sup>의 출토 이후에야 가능하였다. 秦律에 등장하는 隸臣妾, 城旦舂, 鬼薪白粲, 司寇, 候의 명칭·복역의 성격·신분적 성격을 두고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으며<sup>8)</sup> 특히 도예 형기의 有無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sup>9)</sup> 이후 2000년대 張家山漢墓竹簡 二年律令이 출토되면서 秦의 도예가 모두 무기한 노역하는 官奴婢라는 주장은 정설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도예의 존재 양상을 보여주는 사료는 秦·漢律에 국한되었으므로 그 실제 운용 방식을 알기는 어려웠다. 다행히 2002년 湖北省 里耶鎮 우물에서 발견된 里耶秦簡이 2012년에 출판되며<sup>10)</sup> 秦始皇~二世皇帝 시기 遷陵縣이 도예를 운용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련 論稿가 발표되었다.

漢의 戍卒·更卒은 이른 시점부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1930년대 濱口重國이 『漢書』 및 주석의 내용을 기초로 踐更과 過更<sup>11)</sup>, 그리고 요역 제

7)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編, 『睡虎地秦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77. 본 연구는 1990년에 재출간된 版本의 釋文을 참고하였다.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編, 『睡虎地秦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1990. 이하 『睡虎地秦簡』으로 略稱) 한국어로 된 번역본은 수호지진묘죽간정리소조 편, 윤재석 역주, 『수호지진묘죽간 역주』, 서울: 소명출판, 2010를 참고할 수 있다.

8) 高恒, 「秦律中“隸臣妾”問題的探討」, 『文物』 1977(7), 1977; 徐鴻修, 「從古代罪人收奴刑的變遷看“隸臣妾”“城旦舂”的身分」, 『文史』 1984(5), 1984; 張金光, 「關於秦刑徒的幾個問題」, 『中華文史論叢』 1985(1), 1985; 堀敏一, 「雲夢秦簡にみえる奴隸身分」, 『中國古代の身分制—良と賤—』, 東京: 汲古書院, 1987; 靑山明, 「秦の隸屬身分とその起源—隸臣妾問題に寄せて」, 『史林』 65(6), 1982; 黃展岳, 「雲夢秦律簡論」, 『考古學報』 1980(1), 1980; A.F.P.Hulsewé, “The Ch’in Documents Discovered in Hupei”, *T’oung Pao*, Second Series, Vol.64, 1978.

9) 수호지진간 秦律이 출토된 이후, 高恒은 진률의 조문을 바탕으로 진의 도예(隸臣妾, 城旦舂, 鬼薪白粲)가 모두 관노비와 동일하였고 진의 도예에는 형기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高恒, 「秦律中“隸臣妾”問題的探討」, 『文物』 1977(7), 1977; 高恒, 「秦律中的刑徒及其刑期問題」, 『法學研究』 1983(6), 1983) 이후 林劍鳴, 若江賢三은 高恒과 달리 隸臣妾이 유기 형도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여(林劍鳴, 「“隸臣妾”并非奴隸」, 『歷史論叢』 3, 1983; 若江賢三, 「秦漢時代の勞役刑—ことに隸臣妾の刑期について」, 『東洋史論』 第1集, 1980) 도예 형기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었다. 국내 학계에서는 李成珪가 수호지진간의 秦律에 전착하여 隸臣妾, 城旦舂, 鬼薪白粲이 모두 경중이 다른 관노비임을 역설하였는데(李成珪, 「秦의 身分秩序構造」, 『東洋史學研究』 23, 1986) 2001년에 공표된 張家山漢簡 二年律令은 秦~漢初의 徒隸가 모두 무기한 노역하는 관노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현재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자는 秦의 徒隸가 속면되지 않는 이상 무기한 노역하는 존재였음에 동의하고 있다.

10)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里耶秦簡(壹)』, 北京: 文物出版社, 2012.

11) 濱口重國, 「踐更と過更一如淳注の批判」, 『東洋學報』 19(3), 1931; 濱口重國, 「踐更と過



도 전반<sup>12)</sup>을 새로 해석한 연구는 更卒 연구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1940~1950년대 일본학계에서는 漢의 병역, 요역에 관한 연구가 이어졌다.<sup>13)</sup> 중국학계에서도 1950년대 이후 更卒, 過更錢에 대한 초창기 연구<sup>14)</sup>가 발표되었으며, 睡虎地秦簡, 居延新簡, 江陵鳳凰山漢墓竹簡 등 각종 簡牘 사료가 출토된 이후 병역·요역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sup>15)</sup> 그러나 출토 자료와 『漢舊儀』, 『漢官儀』에 보이는 후대의 주석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연구는 한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다. 다행히 최근 출토된 前漢 武帝 시기 자료에 요역 징집의 단면이 드러나며 그간의 논의도 대부분 정리되었다.<sup>16)</sup>

後漢 말 이후 제국은 官奴婢도 編戶齊民도 아닌 새로운 인력 자원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곧 官府隸屬民이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민과 官奴婢 사이에 존재한 하층 신분으로서 국가의 職役에 활용되었는데, 이전에는 이러한 중간적 형태의 예속 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官府隸屬民의 종류, 형태, 법률상 지위 등의 측면에 주목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身分制, 良賤制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하였다.<sup>17)</sup> 단, 隸屬民의 직능이나 변화 양상보다는 제도의 측면에서 주목되었고, 학계의 관심도 사적 예속민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sup>18)</sup>

---

更一如淳注の批判 補遺』, 『東洋學報』 20(2), 1932. (→두 편의 논문 모두 濱口重國, 『秦漢隋唐史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6에 재수록)

12) 濱口重國, 『秦漢時代の徭役勞動に關する一問題』, 『市村博士古稀記念東洋史論叢』, 東京: 富山房, 1933. (→濱口重國, 『秦漢隋唐史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6에 재수록)

13) 漢代 병역, 요역에 관한 일본 측 연구의 흐름과 그 세부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金樺, 『漢代の 兵役 및 力役制에 관한 諸 研究에 대하여』, 『大邱史學』 11, 1976. (→金樺, 『中國古代의 政治와 社會—先秦·秦漢史 연구—』, 과주: 형설출판사, 2016에 재수록)

14) 韓連琪, 『漢代的田租口賦和徭役』, 『文史哲』 1956(7), 1956.

15) 1950~2000년대 중국 학계의 秦~前漢 병역, 요역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王彥輝, 『秦漢戶籍管理與賦役制度研究』, 北京: 中華書局, 2016, pp.223-224.

16) 李成珪, 『前漢 更卒의 徵集과 服役 方式-松柏木牘 47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09, 2009; 李成珪, 『漢代 閭年の 財政收支와 兵·徭役의 調整』, 『震檀學報』 109, 2010.

17) 堀敏一, 『六朝隋唐の新身分』, 『中國古代の身分制—良と賤—』, 1987; 尾形勇, 『中國古代の「家」と國家』, 東京: 岩波書店, 1979.

18) 官府隸屬民인 吏役, 吏役之戶나 雜戶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볼 수 있다. 辛聖坤, 『雜戶 身分의 變遷과 그 性格』, 『歷史學報』 115, 1987, pp.133-134; 辛聖坤, 『魏晉南北朝時期 吏役之戶의 등장 배경』, 서울大東洋史學研究室 編, 『分裂과 統合—中國 中世의

秦~三國時代의 시대별 인력 자원에 관한 선행 연구는 史料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인력 자원 운용 방식을 시대별로 꼼꼼히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국가의 필요에 따른 인력 편성’의 측면보다 동원된 인력의 신분이나 이들을 관리하는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9)</sup> 그 결과 인력에 대한 국가의 수요나 인력 需給의 문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경제적 비용이나 민간사회와의 관련성은 도외시되었다. 게다가 특정 시기의 특정 인력 자원을 분절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력 이용 방식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기 어려웠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일차적 원인은 史料의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력의 동원, 편제를 보여주는 사료는 전래 문헌보다 출토 사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20세기 이후 竹簡, 木牘이 출토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史料의 氾濫’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은 사료가 잇따라 등장하는 현재에도 인력에 관한 연구가 신분,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선행 연구의 한계를 단순히 史料의 문제로만 치환할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本研究는 새로운 각도에서 국가의 인력 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中國 古代 국가의 인력 이용을 살펴볼 때 신분과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의 ‘필요’ 혹은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물론 신분은 전근대 국가에서 중요한 요소였다. 주지하듯이 국가는 각 구성원에 사회적 지위인 신분을 부여, 고정함으로써 지배체제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sup>20)</sup> 또한, 신분은 인력의 특징과 한계를 규정하였으므로 국가가 인력을 선택할 때 신분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

諸相一』, 서울: 지식산업사, 1998; 辛聖坤, 『위진남북조시기 吏役之戶의 종류와 직역』, 『경상사학』 16, 2000; 唐長孺, 『魏晉南北朝時期的吏役』, 『江漢論壇』 1988(8), 1988; 高敏, 『試論漢代‘吏’的階層地位和歷史變遷』, 『秦漢史論集』, 中州書畫社, 1982.

19) 단, 국가의 인력 이용을 ‘노동의 수요’와 그에 따른 ‘인력의 장악’이라는 측면에서 풀어낸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 重近啓樹와 渡邊信一郎의 연구가 그것인데, 重近啓樹는 漢代의 요역 수요를 중앙의 徭役, 更徭, 雜役으로 삼분하고 그 추이를 설명하였다. (重近啓樹, 『徭役の諸形態』, 『秦漢稅役體系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1999) 渡邊信一郎은 노동의 수요를 郡縣, 中央, 여러 郡에 걸쳐진 영역적 수요로 삼분하고, 이러한 수요에 응하여 지방 혹은 중앙의 정부가 노동력을 조직한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요역이라는 ‘제도’에만 주목하면 노동 편성의 총체적 특질이나 인력 편성이 수행한 기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 (渡邊信一郎, 『漢代國家の社會的勞動編成』,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2011)

20) 堀敏一, 『中國古代の身分制—良と賤—』, 東京: 汲古書院, 1987, p.3.

용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분은 제국·국가 내부의 법, 질서, 관습에 의해 나타난 결과물로,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권력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선형적으로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인력 수요와 신분의 선후 관계 역시 동일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어떠한 신분이 먼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특정 직무에 배치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무를 담당할 인력의 필요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 걸맞는 신분을 만들어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中國 古代 帝國의 인력 이용에 끼친 민간사회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분, 제도를 중심으로 인력의 문제를 바라보는 경우 민간사회의 영향을 도외시되기 쉽다. 그런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제국·국가는 다양한 成員으로 구성된 사회적 조직이므로 민간사회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前漢 초기 이후 제국이 민간인을 유상으로 고용하거나 과거에 독점했던 산업이나 자원 일부를 민간에 이양해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sup>21)</sup> 이러한 현상은 秦 編戶齊民體制 하에서는 출현할 수 없었으므로, 사실상 전한 초기에 편호제민체제의 원칙이 유명무실해지며 제국이 민간의 자원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진의 편호제민체제는 계층 분화와 游民의 발생 여지 자체를 철저히 봉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완벽할 정도로 추진하였다.<sup>22)</sup> 그 결과 秦은 절대적 강자로 군림하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으나, 통일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통치 영역의 급속한 팽창은 편호제민체제의 구현을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진 제국의 성립 이후 편호제민체제는 사실상 변질되었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秦始皇 31년의 ‘使黔首自實田’<sup>23)</sup> 조치는 授田體制를 유지하면서도 실상 齊民의 계층분화, 대지주와 상인의 성장을 용인한 것으로 수전체제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sup>24)</sup> 그렇다면 秦의 제도를 계승한 전한 초의 제도는 변질된 편호제민체제였으며, 산업·자원에 대한 제국의 독점이나 財富의

21) 金秉駿, 『中國古代南方地域の水運』, 藤田勝久·松原弘宣 編, 『東アジア出土資料と情報傳達』, 東京: 汲古書院, 2011; 李周炫, 『漢簡からみた國家の物資輸送と雇傭勞動』, 伊藤敏雄·關尾史郎 編, 『後漢・魏晉簡牘の世界』, 東京: 汲古書院, 2020; 김보람, 『秦漢시대 馬政과 그 전개』, 『2019年 東洋史學會 春季研究發表會 論文集』, 2019.4.

22) 李成珪, 『中國古代帝國成立史研究—秦國齊民支配體制的 形成』, 1984, p.293.

23) 『史記』 卷6 『秦始皇本紀』, p.251, “三十一年【使黔首自實田也.】”

24) 李成珪, 『中國古代帝國成立史研究—秦國齊民支配體制的 形成』, 1984, pp.296-297.

완벽한 통제는 前漢 초기부터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전한은 이념적으로는 여전히 황제의 독재와 齊民體制를 유지하였으나, 제국이 독점했던 산업 중 일부를 점차 민간에 이양하였다. 이처럼 前漢이 민간사회의 물적 자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졌다면 인력 이용 역시 예외일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각 시기의 주요 인력을 분절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력 자원의 변천과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인력 자원의 운용 방식은 제국의 필요 및 선택과 밀접히 닿아 있는데, 이는 인력에 드는 재정 지출의 감축이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편제의 필요성 등 시대의 사회·정치·경제적 요소의 영향을 받았다. 국가의 인력 수요에 영향을 주는 시기별 요소들이 상이하였으며 후대의 인력 운용 방식은 전대의 인력 운용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기별 인력 운용을 살피는데 그치지 않고 그 현상과 배경을 통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분절성을 극복하려 한다.

최근 사료의 출토에 힘입어 각 시대의 주요 인력 자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시기마다 연구의 진행·축적에 편차가 나타나며, 정작 각 시기를 넘어 인력 이용 양상을 짚어낸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인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秦~漢初 혹은 魏晉南北朝 이후에 편중되어 있으며 前漢·後漢 시기 국가가 이용한 인력 전반에 관한 연구는 드물게 나타난다. 게다가 前漢·後漢의 인력 이용을 다룬 몇몇 연구도 그 前後에 국가가 이용한 인력과 연관성에 크게 주목하지 않아 연구의 단절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가 연구 대상 시기를 戰國時代 秦에서 三國時代까지로 설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前漢 文帝 13년(BCE 167)의 형벌 개혁이라는 사건이 존재하므로 秦과 前漢 사이 인력 자원의 변화에 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sup>25)</sup> 後

25) 文帝 13년의 형벌 개혁과 그 의미에 관한 최근의 국내외 연구는 다음과 같다. 李成珪, 「秦·漢의 형벌체계의 再檢討—雲夢秦簡과 <二年律令>의 司寇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85, 2003; 林炳德, 「漢代の 刑法改革과 刑罰體系の 整備」, 『人文學』 15, 1997; 林炳德, 「秦·漢 시기의 城旦春과 漢文帝的 刑法改革」, 『東洋史學研究』 66, 1999; 林炳德, 「진한의 노역형 형벌체계와 한문제의 형법개혁」, 『中國史研究』 9, 2000; 張建國, 「前漢文帝刑法改革及其展開的再檢討」, 『帝制時代的中國法』, 法律出版社, 1999; 陶安あんど, 「勞役刑體系の形成」, 『秦漢刑罰體系の研究』, 東京: 創文社, 2009; 富谷至, 「漢代の勞役刑—刑期と形役」, 『秦漢刑罰制度の研究』, 京都: 同朋舍, 1998; 初山明, 「秦漢刑罰史研究の現状」, 『中國古代訴訟制度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滋賀秀三, 『中國法制史論集』, 東京: 創文社, 2003.

漢에서 三國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나타난 인력 운용의 變遷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세 가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秦~三國時代 제국이 이용한 인력 자원과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인 동시에 각 시기의 인력 자원 장악 정도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먼저 I 장에서는 戰國時代 이후 秦의 인력 자원 장악과 편제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I 장 1절에서 戰國時代 이후 秦이 인력을 장악, 편제한 방식을 논술한 후, 2절에서는 진의 업무·노동 중에서도 여섯 가지의 주요 업무 항목을 분석하고 3절에서는 해당 업무에 어떤 인력을 투입하였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의 주요 인력 자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인력의 편제와 운용이 秦의 통치 방식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 장에서는 前漢 中期 人力 資源 운용상의 변화와 人力 雇傭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I 장 1절은 文帝 13년 이후 인력 자원 운용의 변화와 그 배경에 대해 논술한다. 진의 인력 이용 체계는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으나 비용의 측면에서는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윽고 秦의 제도를 계승한 前漢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1절은 이에 주목하여 예속 인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짚어본 후, 秦·漢 제국이 도예의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 시도한 여러 방법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문제 13년에 감행된 肉刑·無期 勞役刑(身分刑)의 폐지로 인한 徒隸의 대규모 삭감이 前漢의 인력 운용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II 장 2절은 前漢 중기 이후 민간사회의 인력 고용 확대에 대해 다룬다. 이 내용은 일견 국가의 인력 이용과 별다른 접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보이지만, 민간사회의 인력 고용은 II 장 3절에서 다룰 官府의 인력 고용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앞서 논술하려 한다. 私的 인력 고용은 戰國時代에서도 나타나나, 특히 전한 중기 이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兵役·徭役(力役)의 代役이 성행하였고 兩漢交替期를 지나며 민간사회의 인력 고용은 전성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피고용자로 활약하였고, 그 노동도 다각화되었다. 민간사회의 고용 노동 성행은 노동시장의 확대 및 제국의 인력 고용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Ⅱ장 3절에서는 전한 중기 제국의 인력 고용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文帝 13년의 형벌 개혁으로 도예가 대거 감소한 후, 전한은 새로운 인력 자원으로 민간인을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인력 고용은 경작, 운송, 건설 부문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전한이 인력 자원의 장악도를 낮추고 재정 효율을 추구한 증거이다. 아울러 전한 중기에는 官府가 직접 인력을 고용하는 것 외에도 吏가 행정 보조 인력을, 官屬인 司御가 대역자를 사적으로 고용하는 현상이 등장한다. 이는 비록 사적 고용에 해당하나, 해당 피고용자의 업무가 제국의 기층 행정이나 특수 직무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인력에 대한 관념 변화를 간취할 수 있다.

한편 後漢 중기 이후 제국의 직접 고용은 감소세를 보인다. 後漢은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일부 인력 자원을 장악하였는데, Ⅲ장 1절은 인력 자원 운용의 변화가 나타난 배경에 대해 다룰 것이다. 2절에서는 三國 魏와 蜀의 인력 운용을 바탕으로 인력의 재장악과 職役化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魏의 屯田 설치에서 볼 수 있듯이 삼국은 일부 백성에 정해진 업무를 강제하는 職役化를 도입하였다. 호마다 직역을 강제하는 현상은 長沙 出土 走馬樓三國吳簡 吏民簿의 里別 집계 기록에서 잘 드러나므로, 2절에서는 주로 走馬樓三國吳簡을 이용하여 특수 직역 담당 호의 종류와 직역의 내용을 분석하겠다.

文書 行政과 官僚制에 의한 중앙집권적 지배가 관철되는 한, 제국은 많은 종류의 업무와 노동을 주관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의 업무 외에도 관리를 보조하는 일이나 말단의 잡무 등 다양한 노동이 존재하였으므로 帝國은 필요한 수량의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가장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이용하는 주체는 바로 帝國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인력 관련 연구는 신분이나 제도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여 제국이 민간산업·인력을 이용하거나 인력 운용 방식이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秦~三國 시기 帝國의 인력 자원 이용과 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인력 이용 방식이 제국의 시대적 필요 혹은 지향에 따라 철저히 계산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인력 이용’을 주제로 삼아 秦~三國時期的 역사적 흐름을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中國 古代에서 中世로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I. 秦의 人力 資源 掌握과 編制

## 1. 戰國時代 이후 나타난 秦의 人力 資源 掌握 方式

國家의 존속을 위해 수많은 직무와 거대한 인력이 필요하며 통치의 성패가 인적·물적 자원의 적절한 분배에 달려 있다는 인식은 일찍이 古代 中國의 帝王과 사상가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sup>26)</sup> 특히 戰國時代 이후 제후국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며 필요한 인력을 장악함으로써 노동 수요를 충족하려는 풍조가 일었다. 그렇다면 전국시대 이후 秦은 어떠한 방식으로 인력을 장악하였을까?

戰國時代 각국의 군주는 邑을 이탈한 자를 장악하거나 傭客을 재판함으로써 인력을 장악하고 稅役을 부과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력을 장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는 바로 신분<sup>27)</sup>이었다. 신분은 국가의 노동을 담당할 인력의 필요에서 비롯되었으며 정확한 인력 배치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 전근대의 신분은 대부분 生得的 요소였으므로 신분의 기원에 대해서도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필요에 따라 국가나 정치권력이 신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 어느 시점부터 신분이 자연스레 나타나고 각종 제도가 이 신분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秦 徒隸<sup>28)</sup>의 탄생은 신분이 국가의 인력 수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26) 李成珪, 「計數화된 인간—古代中國의 稅役의 基礎와 基準—」, 『中國古中世史研究』 24, 2010, pp.6-9.

27) 身分이란 國家의 지배체제 속에서 법이 설정 혹은 규정함으로써 고정된 사회적 지위를 지칭한다. 신분은 근대 이전 여러 국가에 공통되는 특성인데, 국가는 각 구성원마다 지위를 확정함으로써 上下, 尊卑, 貴賤의 등급을 정하고 지배체제의 유지를 도모하였다. 신분은 대개 生得的 특성을 지니나, 귀족이나 관료의 위계처럼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신분도 존재하였다. (堀敏一, 『中國古代の身分制—良と賤—』, 東京: 汲古書院, 1987, p.3)

28) 本 研究에서 말하는 ‘徒隸’는 戰國 秦-漢 文帝 13년 이전까지 존재한, 肉刑·無期 勞役 刑(身分刑)을 받고 官에서 종신 노역하는 자이다. 이들은 대가 없이 국가의 각종 업무에 강제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官奴婢와 같지만, 도예는 죄에 저촉되어 해당 신분으로 격하된 자들인 데 비해 관노비 중에는 범죄 저촉과 무관한 자도 존재하므로 도예와 관노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편, 문제 13년의 형벌 개혁으로 육형·무기 노역형은 사라지고 일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기한 한정으로 노역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이 제도에 의해 관에서 노역한 자들을 ‘有期 徒隸’로 지칭하여 문제 13년 이전의 ‘徒隸’과 구분하였다.

보여준다.

秦의 徒隸는 肉刑과 無期 勞役刑이 결합하여 탄생한 신분으로, 강제 노동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官奴婢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秦의 도예는 隸臣妾, 城旦舂, 鬼薪白粲, 司寇, 候로 분류되었으며, 진에 필요한 업무·노동 대부분에 무상으로 동원되었다. 1977년 睡虎地秦簡 秦律이 발표된 후 도예에 관한 지식이 확장되며 도예 신분의 탄생을 노동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도 여러 편 등장하였다.<sup>29)</sup> 그러나 秦律의 조문을 바탕으로 秦 형벌 체계를 다룬 연구가 점차 심화하고 二年律令이 공개되며 학계의 관심은 법률에 보이는 도예의 성격이나 肉刑·身分刑이 法制史에서 지니는 의의 등으로 옮겨갔다. 현재 도예의 신분적 속성, 사회적 지위, 노동 내용이 어느 정도 밝혀졌음에도 그 등장 경위나 진의 노동 수요라는 측면에서 도예를 바라보는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현실에서 도예라는 ‘신분’을 만들어 낸 것이 법률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도예의 역할이 국가의 업무·노동을 처리하는 데 있었다면 도예라는 신분의 탄생은 결국 필요한 노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여겨진다.

秦 도예의 명칭은 도예 신분의 탄생을 위한 실마리를 던져준다. 『漢舊儀』는 각 도예의 명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城旦舂 : 城旦이란 성을 축조하는 것[治城]이다. 여자는 舂이라 하는데, 舂은 쌀을 빻는 것[治米]이다.<sup>30)</sup>

鬼薪白粲 : 鬼薪이란 남자가 鬼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薪柴를 벌목하는 것이다. 여자는 白粲이라 하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쌀을 고르는 것[精米]이다.<sup>31)</sup>

司寇 : 남자는 守備하고 여자는 司寇와 같이 作한다.<sup>32)</sup>

29) 徐鴻修, 「從古代罪人收奴刑的變遷看“隸臣妾”“城旦舂”的身分」, 『文史』 1984(5), 1984; 黃展岳, 「雲夢秦律簡論」, 『考古學報』 1980(1), 1980; 堀敏一, 「雲夢秦簡にみえる奴隸身分」, 『中國古代の身分制—良と賤—』, 東京: 汲古書院, 1987; 濱口重國, 「漢代に於ける強制勞動刑その他」, 『秦漢隋唐史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6. 濱口重國의 논저는 睡虎地秦簡이 출간되기 이전의 논고이나, 문헌을 중심으로 隸臣妾과 그 노동에 관해 논하였으므로 여기에 함께 인용하였다.

30) 『漢官六種』 『漢官舊儀卷下』, p.53, “城旦者, 治城也. 女爲舂, 舂者, 治米也.”

31) 『漢官六種』 『漢官舊儀卷下』, p.53, “鬼薪者, 男當爲祠祀鬼神伐山之薪蒸也. 女爲白粲者, 以爲祠祀擇米也.”



『漢舊儀』는 隸臣妾의 직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수호지진간이 공포되기 이전에도 그 字義를 단서로 예신첩이 官府의 雜務에 사역된 자들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하였다.<sup>33)</sup> 수호지진간이 공포된 이후, 예신첩이 雜役을 담당하는 도예로 그 명칭은 春秋時代 이전의 ‘罪隸’와 사노비를 의미하는 ‘臣妾’이 결합되어 탄생하였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sup>34)</sup> 아울러 수호지진간 진률에만 보이는 ‘候’는 『漢舊儀』에 등장하지 않지만 역시 그 字義를 근거로 斥候를 담당하는 도예로 추측하였다.<sup>35)</sup>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隸臣妾을 제외한 진의 도예는 모두 특정 업무·노동으로부터 명명되었다.

도예의 명칭이 업무·노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은 해당 신분의 연원이 특정 노동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戰國 秦은 특정 노동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신분을 만들어내고 이에 연동된 형벌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인력을 재생산한 것이다. 특정 노동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특정 명칭과 신분으로 편성한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굳이 城旦舂, 鬼薪白粲 등의 특수한 명칭을 붙여 구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필요한 노동에 인력을 편제하기 위해 ‘신분’을 만들고, 형벌로써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은 戰國時代 이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戰國時代 이전의 사료에는 이러한 현상이 보이지 않는데, 가령 春秋時代에 관청 소속으로 노역하는 隸, 皂隸, 隸圉가 존재하였으나<sup>36)</sup> 그 명칭에는 소속(‘皂’, ‘圉’)만 보일 뿐 구체적인 노역의 종류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 특정 肉刑의 受刑者가 특정 직무를 담당한다는 思考는 춘추시대에도 존재하였다. ‘墨刑을 받은 자는 門을 지키도록 하고, 劓刑을 받은 자는 關을 지키도록 하며, 宮刑을 받은 자는 宮의 내부를 지키도록 하고, 刖刑을 받은 자는 園囿를 지키도록 하며, 髡刑을 받은 자는 積을 지키도록 한다.’는 『周禮』의 기록<sup>37)</sup>이나 陝

32) 『漢官六種』 『漢官舊儀卷下』, p.53, “司寇, 男備守, 女爲作如司寇.”

33) 濱口重國, 『漢代に於ける強制勞動刑その他』, 『秦漢隋唐史の研究』, 1966, p.624.

34) 徐鴻修, 『從古代罪人收奴刑的變遷看“隸臣妾”“城旦舂”的身分』, 1984, p.22.

35) 黃展岳, 『雲夢秦律簡論』, 『考古學報』 1980(1), 1980; 徐鴻修, 『從古代罪人收奴刑的變遷看“隸臣妾”“城旦舂”的身分』, 1984.

36) 堀敏一, 『中國古代の身分制—良と賤—』, 1987, p.175.

37) 『周禮』 『秋官·常職』 “墨子使守門, 劓者使守關, 宮者使守內, 刖者使守園, 髡者使守積.”; 『漢書』 『刑法志』, p.1091, “昔周之法, 建三典以刑邦國, 詰四方: 一曰, 刑新邦用輕典. 二曰, 刑平邦用中典. 三曰, 刑亂邦用重典. 五刑, 墨罪五百, 劓罪五百, 宮罪五百, 刖罪五百, 殺罪五百, 所謂刑平邦用中典者也. 凡殺人者踣諸市, 墨者使守門, 劓者使守關, 宮者使守內, 刖者使守園, 完者使守積.”

西省 扶風縣 莊白家에서 출토된 刑刑奴隸守門鼎는 육형을 받은 자와 특정 노동 사이의 연결성을 보여준다.<sup>38)</sup>

이는 춘추시대의 국가가 사회로부터 추방하거나<sup>39)</sup> 異人化하기 위해 육형을 내리고, 육형을 받은 자들에 특정 직무를 강제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시 육형을 받은 자들이 ‘刑餘之人’<sup>40)</sup>, ‘刑危(跪)’<sup>41)</sup>라 명명된 것으로부터 이들이 아직 특정 신분으로 재편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刑餘之人’은 문자 그대로 肉刑을 당해 몸에 흔적이 남은 자를 의미하며 刑危(跪)는 월형을 받은 자가 걸어가는 모양이 위태로워 보이는 데서 붙여진 명칭이므로<sup>42)</sup> 형벌이나 형벌을 당한 후의 신체 상태를 묘사할 뿐 특정 명칭이나 신분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춘추시대에는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신분을 만들고 형벌로써 이를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受刑者를 특정한 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인력을 장악하는 방식은 戰國時代에 비로소 출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城旦舂 중 ‘舂’은 전국시대 이전에도 형벌로서 존재하였으나<sup>43)</sup> ‘城旦’이라는 표현은 전국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전국시대 이후 축성을 위한 인력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 명칭을 딴 형벌과 신분을 만들어낸 것이다. ‘隸臣妾’이라는 표현도 춘추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명칭과 신분은 모두 전국시대에 등장하였다고 추측된다.<sup>44)</sup> 즉 戰國時代 秦은 특정 노동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38) 堀敏一, 『中國古代の身分制－良と賤－』, 1987, p.59.

39) 滋賀秀三, 『刑罰の歴史』, 『中國法制史論集: 法典と刑罰』, 2002, p.312.

40) 『韓非子』『內儲說下』, “齊中大夫有夷射者, 御飲於王, 醉甚而出, 倚於郎門. 門者別跪請曰: 「足下無意賜之餘隸乎?」 夷射叱曰: 「去! 刑餘之人, 何事乃敢乞飲長者!」 別跪走退. 及夷射去, 別跪因捐水郎門霑下, 類溺者之狀. 明日, 王出而問之, 曰: 「誰溺於是?」 別跪對曰: 「臣不見也. 雖然, 昨日中大夫夷射立於此.」 王因誅夷射而殺之.”

41) 『韓非子』『外儲說左下』, “孔子相衛, 弟子子臯爲獄吏, 則人足, 所則者守門. 人有惡孔子於衛君者, 曰: 「尼欲作亂.」 衛君欲執孔子. 孔子走, 弟子皆逃. 子臯從出門, 則危引之而逃之門下室中, 吏追不得.”

42) 滋賀秀三, 『中國上代の刑罰についての一考察 —誓と盟を手がかりとして—』, 『中國法制史論集: 法典と刑罰』, 東京: 創文社, 2002, p.539.

43) 『漢書』『刑法志』, p.1091, “其奴, 男子入于罪隸, 女子入舂槁. 凡有爵者, 與七十者, 與未亂者, 皆不爲奴.”

44) 初山明, 『秦の隸屬身分とその起源—隸臣妾問題に寄せて』, 『史林』 65(6), 1982; 堀敏一, 『中國古代の身分制－良と賤－』, 1987, p.175. 隸臣妾의 유래에 관해 初山明과 堀敏一을 상반된 의견을 펼쳤는데, 먼저 初山明은 전국 사회의 계급 분화 결과 석출된 사노비, 즉 ‘臣妾’을 전제로 秦이 설정한 법적 신분이 곧 예신첩이라고 보았다. 반면, 堀

인력 편제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결과 신분을 매개로 각종 노동에 사역할 수 있는 인력을 장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처음 도예의 각 신분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노동과 인력을 결합하였을 때, 각 도예는 자신들의 신분(혹은 刑名)에 연동된 노동에 종사하였을 것이다.<sup>45)</sup>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이후 조금씩 희박해졌는데, 전국 말기~통일 진은 각 도예를 해당 명칭의 업무·노동 이외에도 운용하였다. 本章 3절에서 후술하겠지만 통일 전후 秦의 행정문서는 성단용과 귀신백찬이 築城·舂米, 伐木·精米뿐 아니라 농경, 건설에 고르게 종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城旦과 건설, 隸臣과 행정 보조의 관계처럼 여전히 특정 직무와 신분이 관계되는 경우도 존재하였으나 대부분의 도예는 해당 신분이 생성될 때의 노동 수요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가에 필요한 여러 노역에 폭넓게 동원되었다.

한편, 직무로써 명명한 城旦舂, 鬼薪白粲, 司寇, 候와 달리 隸臣妾의 명칭은 ‘피예속민’의 의미만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예신첩이 여타 도예와 구분되는 성격을 가졌다는 추측이 제기되어 예신첩을 둘러싼 논의가 촉발되었다. 현재 존재하는 사료로 예신첩이 구체적 직무로서 명명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전국 이후 秦이 노동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도예 신분을 만듦으로써 인력을 편제하였고 예신첩이 도예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였다면 예신첩 역시 업무에 이용할 인력을 편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여겨진다. 전술한 것처럼 예신첩은 특정 노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점은 오히려 예신첩이 築城·舂米, 伐木·精米, 守備(斥候) 이외의 다양한 업무에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관부의 다양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을 편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신첩이라는 신분을 만든 것이다.

춘추시대의 臣, 妾은 그 자체로 귀족의 정사와 시종을 담당하는 피예속자를 지칭하였고,<sup>46)</sup> 그 합성어인 ‘臣妾’도 人身이 예속되어 사역되는 노예<sup>47)</sup>를

---

敏一은 예신첩이 춘추시대의 예속 신분인 隸, 皂隸, 隸圉의 後身이라 간주하였다. 춘추-전국시대 사이의 사회 변동으로 위의 예속 신분이 사라지면서 이를 대신할 존재로 예신첩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예신첩이 전국시대 이후의 신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45) 高恒, 「秦律中的刑徒及其期間問題」, 『法學研究』 1983(6), 1983; 張金光, 「關於秦刑徒的幾個問題」, 『中華文史論叢』 1985(1), 1985.

46) 金裕哲, 「중국사에서 隸屬民과 身分制」, 역사학회 편, 『노비·농노·노예 : 隸屬民의 比較史』, 서울: 一潮閣, 1998, p.230.

의미하였다. 따라서 이로부터 명칭이 유래한 隸臣妾은 濱口重國의 지적처럼 국가의 각종 잡무에 이용하기 위해 탄생하였을 것이다. 秦 이외의 제후국도 雜役に 사역하는 인력을 특정 신분으로 편제하였는데, 가령 전국시대 魯의 白徒는 秦의 隸臣妾과 유사한 존재였다.

예전 魯의 法(에서 말하기를), “1~20錢을 훔치면 벌금 1兩을 부과한다. 20~100錢을 훔치면 벌금 2兩을 부과한다. 100~200錢을 훔치면 白徒로 삼는다. 200~1,000錢을 훔치면 倡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白徒라는 것은 지금의 隸臣妾에 해당하며, 倡은 城旦에 해당한다.<sup>48)</sup>

위 인용문은 『張家山漢墓竹簡』 『奏讞書』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漢初에 존재한 秦의 판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한 案例에는 魯의 法이 인용되었다. 밑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魯에서 100~200전을 훔치면 白徒에, 200~1,000전을 훔치면 倡에 처해졌는데 전자는 秦~漢初의 隸臣妾, 후자는 城旦에 해당하였다. 주목할 것은 ‘白徒’라는 명칭이다. 문헌 중 白徒가 어떤 신분, 계층을 지칭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管子』에서 이르는 白徒가 별다른 기술을 지니지 못한 兵卒인 것<sup>49)</sup>에 착안하여 魯의 白徒는 평소에는 잡무에 종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종군하는 존재로 추측하였다.<sup>50)</sup> 따라서 白徒는 여러 잡무에 종사하는 도예로 해석할 수 있는데 『奏讞書』가 白徒가 예신첩과 같다고 한 것도 그 형벌의 경중이나 담당 노역을 염두에 둔 서술일 것이다. 그렇다면 戰國時代의 魯도 관부의 잡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

47) 『春秋左傳』 『宣公十二年』, “孤不天, 不能事君, 使君懷怒, 以及敝邑, 孤之罪也. 敢不唯命是聽. 其俘諸江南, 以實海濱, 亦唯命, 其翦以賜諸侯, 使臣妾之.”

48) 『二年律令與奏讞書』(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p.372(案例 20), “●異時魯法: 盜一錢到廿, 罰金一兩; 過廿到百, 罰金二兩; 過百到二百, 爲白徒; 過二百到千, 完爲倡. 有(又)曰: 諸以縣官事訖(託)其上者, 以白徒罪論之. 有白徒罪二者, 駕(加)其罪一等. 白徒者, 當今隸臣妾; 倡, 當城旦.” (이하 出土 史料를 인용할 때 등장하는 기호는 모두 원문의 기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잔결이 있는 간문에서 보충한 글자. ( ) : 이체자, 가차자. □: 글자가 모호하나 몇 글자인지 알 수 있는 글자. ●: 원문에 기록된 원형의 흑점을 표시. 𠄎: 간문의 내용으로 보충할 수 있는 글자)

49) 『管子』 『七法』, “以教卒練士擊歐衆白徒, 故十戰十勝, 百戰百勝.”

50) 張全民, 「『白徒』初探」, 『社會科學戰線』 1997(5), 1997; 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 『二年律令與奏讞書』, 2007, p.373.

한 노동에 두루 종사할 수 있는 신분을 만듦으로써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였다고 볼 수 있다.

3절에서 후술하겠지만 秦律에 따르면 隸臣은 행정 보조 및 잡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선행 연구는 기층 행정의 측면에서 예신첩의 수요를 지적한 바 있다. 즉 예신첩은 주로 관부의 雜務에 동원되었으므로 전국시대 국가 기구가 확대, 증가하며 대거 증가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예신첩의 이용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수호지진간, 이년율령 중 유독 예신첩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51)</sup> 비록 최근의 출토 사료는 도예의 사역 비중이 반드시 律令의 출현 빈도와 일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지만, 선행 연구의 지적은 전국시대 이래 국가·제국의 노동 수요를 인력 편제의 중요 조건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상 秦의 徒隸를 통해 전국시대에 신분이 인력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진은 어떤 단계를 거쳐 장악한 인력 자원을 이용하였을까? 『荀子』 중 백성의 인력과 職事에 관한 기술은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衆庶 百姓은 곧 반드시 法數로 제어한다. 땅을 측량하여 國을 세우고 이익을 계산하여 民을 기르며, (백성의) 인력을 헤아려 職事를 주면, 백성은 반드시 職事를 능히 감당할 수 있어 職事로부터 반드시 이익이 나온다. 그 이익은 백성을 生長함에 족하여, 의식과 쓰임의 지출이 서로 맞아떨어져, 때에 따라 남는 것은 저장하는 것인데 이를 稱數라 한다.<sup>52)</sup>

荀子は 인력을 헤아려 職事に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곧 이익을 낼 수 있으며, 그 이익으로 백성을 기른다고 하였다. 곧 백성의 인력과 능력에 기초하여 노동에 동원하는 작업은 治民, 治國의 선결 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노동 능력을 계량하고 적절한 세역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로 인지되었고, 그 결과 통치자는 연령별, 남녀별로 노동 比價와 표준 계수를 확립함으로써 적절한 세역을 부과하고 노동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했

51) 堀敏一, 『中國古代の身分制－良と賤－』, 1987, p.175.

52) 『荀子集解』 卷6 『富國第十』, “由士以上則必以禮樂節之, 衆庶百姓則必以法數制之. 量地而立國, 計利而畜民, 度人力而授事, 使民必勝事, 事必出利, 利足以生民, 皆使衣食百用出入相揜, 必時臧餘, 謂之稱數. 故自天子通於庶人, 事無大小多少, 由是推之.”

다.<sup>53)</sup> 즉 개개인의 능력을 수치화하고 이를 근거로 세역을 부과하는 일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였다.

단, 인력을 배치할 노동을 분명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의 양을 계산하거나 세역을 부과하는 것은 空論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적·지역적 배경에 따라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핵심 업무는 달라질 수 있고 인력의 수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노동 중 어느 쪽에 인력을 투입할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이 수반되었는데, 가령 순자가 ‘백성의 인력을 헤아려 職事를 준다’고 한 대목에서도 국가가 필요한 ‘업무’를 설정한 후 필요한 인력을 계산, 배치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제국은 인력을 수치화하기 전, 인력을 투입할 업무·노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를테면 수자리를 설 백성을 징발하기 전, 어느 지역에 어떤 병종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 및 안배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우선 필요한 업무·노동을 선정한 후, 해당 업무·노동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총작업량을 계산하고 산출한 총작업량을 바탕으로 배치할 인력의 수량과 종류를 결정하였을 것이다. 秦 역시 위의 단계를 거쳐 인력 자원을 필요한 부문에 배치하였다. 특히 睡虎地秦簡 徭律은 총작업량의 계산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縣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하거나 (상부에) 보고한 후 해야 하는 경우, 吏는 工程을 추산해야 하는데 (추산이 잘못되어) 期日을 초과하거나 혹은 미치지 못한 (일수가) 이를 이상이라면 ‘不察’로 삼는다. 縣의 상부 기관이 요역을 일으켰는데 추산한 工程이 합당하지 않는 경우, 역시 縣(의 경우)처럼 (처벌)한다. 공정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司空이 匠과 함께 계산하게 하며 匠이 혼자 계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계산한 내용이 부실하면 계산한 자를 律로써 논죄하고 실제에 근거하여 요역에 복무할 인력을 계산하도록 한다. 徭律.<sup>54)</sup>

위에 따르면 공사를 주관하는 기관은 먼저 특정 노동의 전체 작업량을 계

53) 李成珪, 『計數화된 인간—古代中國의 稅役의 基礎와 基準—』, 2010, pp.40-50.

54)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22-124, “縣爲恒事及灋有爲毆(也), 吏程攻(功), 羸員及減員自二日以上, 爲不察. 上之所興, 其程攻(功)而不當者, 如縣然. 度攻(功)必令司空與匠度之, 毋獨令匠. 其不審, 以律論度者, 而以其實爲繇(徭)徒計. 繇(徭)律”

산한 후, 인원수와 표준 노동량을 이용해 작업 일수 및 일 의무 노동량을 산정하였다. 토목 공사를 시작하기 전 공사를 담당하는 吏는 작업량을 계산하여 보고하는데 만일 작업량을 철저히 계산하지 못하여 계획한 공사 기간과 실제 공사 기간 사이에 이틀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담당 吏는 ‘不察’로 처벌받았다. 작업량은 반드시 司空과 工匠이 함께 계산하도록 하여 工匠이 독단으로 계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工匠의 농간이나 실수를 방지해 정확성을 담보하였을 것이다.

총작업량이 확정된 후에는 표준 노동량을 적용해 공사 기간 및 필요한 인력의 양을 계산하였을 것이다. 秦은 성별, 연령, 혹은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 노동 능력에 차등을 두어 표준으로 삼았는데<sup>55)</sup> 노동의 조건에 따라서도 표준이 설정되었다. 예컨대, 인력을 징발해 물자를 운송할 때 수레에 물품을 가득 싣는다면 하루 60리를 이동하고, 수레가 비어있다면 하루 80리를 이동하며, 수레 없이 사람이 이동한다면 하루 100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규정<sup>56)</sup>은 운송 조건에 따라 운송 거리를 표준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秦은 이용할 인력을 결정할 때 그 수량뿐 아니라 종류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진이 장악한 인력 자원에는 徒隸 외에 卒, 居賞贖債, 黔首도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각 신분은 상이한 법률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투입 가능한 업무·노동의 범위, 한계, 성격도 달랐다. 예컨대 徒隸와 黔首를 같은 환경에서 같은 노동 강도로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노동 능력치가 같은 경우에도 秦은 ‘어떤 노동에 어떤 성격의 인력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종합하자면, 전국시대 이후 秦은 身分을 만들고 이에 연동된 律令을 이용하여 필요한 노동에 이용할 인력을 장악하였으며 이러한 인력 편제 방식은 도예의 탄생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국가·제국의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업무·노동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존재하였으므로, 진은 이 점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하였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총 작업량을 철저히 계산한 후, 각 인력 자원의 신분적 속성이나 노동 능력치를 고려하여 인력 자원을 배치하는 과정이 뒤따랐을 것이다. 그렇다면 秦이 인식한 ‘주요 업무와 노동’은 어떠

55) 李成珪, 『計數화된 인간—古代中國의 稅役의 基礎와 基準—』, 2010, pp.40-41.

56) 『嶽麓書院藏秦簡(肆)』(朱漢民·陳松長 編,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5, 이하 『嶽麓秦簡(肆)』로 略稱) 簡248, “● 繇(徭)律曰: 委輸傳送, 重車負日行六十里, 空車八十里, 徒行百里. 其有□□□□”

한 것이었으며 실제 인력 운용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출토 사료를 근거로 실제 秦이 인력을 주로 배치한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人力 資源을 배치한 주요 항목

秦은 어떠한 업무에 인력 자원을 주로 투입하였으며 각 업무와 담당 인력은 어떠한 상호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본 연구는 睡虎地秦簡 秦律, 湖北省里耶鎮에서 출토된 秦始皇~二世皇帝 시기의 행정문서인 里耶秦簡<sup>57)</sup>, 2015~2019년에 공표된 秦 律令<sup>58)</sup>을 이용하여 진 제국 시기 인력 편제 방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里耶秦簡은 秦 遷陵縣의 행정문서로, 천릉현의 부서가 현 소유의 徒隸를 사역한 기록인 作徒簿<sup>59)</sup>를 포함하고 있다. 작도부는 日, 月, 年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네 가지 항목(①도예를 사역한 부서와 기간 ② 사역한 도예의 신분과 인원 ③업무별로 이용한 도예의 수와 이름 ④부서의 長이 이상의 내용을 천릉현에 보고하는 文言)으로 구성되었다.<sup>60)</sup> 작도부를 작성한 주체로는 倉, 司空, 尉, 畜官, 田官, 庫, 少內, 鄉(都鄉·貳春鄉·啓陵鄉)이 보이며, 이 중 도예를 주관한 창과 사공이 작성한 작도부는 그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다. 따라서 창, 사공 및 기타 부서의 작도부를 참고함으로써 도예의 투입량과 진이 생각한 업무·노동의 輕重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창과 사공의 작도부를 바탕으로 천릉현이 도예 인력을 투입한 업무를 확인해 보자.

57)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里耶秦簡(壹)』, 北京: 文物出版社, 2012;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里耶秦簡(貳)』, 北京: 文物出版社, 2017; 里耶秦簡博物館 等 編, 『里耶秦簡博物館藏秦簡』, 上海: 中西書局, 2016.

58) 朱漢民·陳松長 主編, 『嶽麓書院藏秦簡(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5; 陳松長 主編, 『嶽麓書院藏秦簡(伍)』,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7; 陳松長 主編, 『嶽麓書院藏秦簡(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9.

59) 里耶秦簡의 도예 사역을 집계, 보고한 문서는 대개 ‘作徒簿’로 기록되어 있지만, ‘徒簿’로 기록된 경우(『里耶秦簡博物館藏秦簡』 10-1170, “卅四年十二月倉徒簿取”)도 눈에 띈다.

60) 高震寰, 「從《里耶秦簡(壹)》“作徒簿”管窺秦代刑徒制度」, 『出土文獻研究(第十二輯)』, 北京: 中華書局, 2015, p.135; 沈剛, 「《里耶秦簡》(壹)所見作徒管理問題探試」, 『史學月刊』 2015(2), 2015, p.23.



[표 1] 업무별로 배치된 城旦, 鬼薪, 隸臣繫城旦, 隸臣居貲의 인원<sup>61)</sup>

(단위: 人)

경작	건설·보수	행정 잡무	채집	수공업	운송	기타
田官(23) [小]田官(6)	作園(2) 作廟(3) 繕官(5) 治邸(6) 治觀(1) 除道沅陵(5)	與吏上計(8) [小]與吏上計(1) 上省(9) 守府(4)	取簋(1) 伐槩(2) 伐材(2) 捕羽(8) [小]捕羽(1)	作務(2) 爲筍(2) 爲炭(1) 學車酉陽(1) 市工用(7)	傳送酉陽(1)	徒養(2) 削廷(3) 與吏上事
29	22	22	14	13	1	5

\*상세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파견: 貳春鄉(5), 尉(3), 段倉守(3), 少內(2), 庫(2), 畜官(2), 倉(2), 都鄉(2), 啓陵鄉(1)

[표 2] 업무별로 배치된 舂, 白粲, 隸妾繫城旦, 隸妾居貲의 인원<sup>62)</sup> (단위: 人)

경작	채집	수공업	건설·보수	운송	행정 잡무	기타
田官(24) [小]田官(3)	取芒(2) 取簋(7) 捕羽(6)	爲筍(1) 爲席(1) 治臬(3) 槩(5) 作務(1)	作廟(1) 作園(1) 除道沅陵(2)	傳送酉陽(2)	上省(2)	徒養(4) [小]徒養(1) 守船(1) 舂司寇?(3)
27	15	11	4	2	2	9

\*상세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파견: 貳春鄉(4), 尉(3), 倉(3), 畜官(2), 都鄉(2), 少內(2), 啓陵鄉(2), 庫(2), 邑(혹은 囚)(1)

61) [표 1]의 수치는 『里耶秦簡牘校釋(第一卷)』(陳偉 主編,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2, 이하 『校釋(一)』으로 略稱)에 수록된 9-2289+9-2305+8-145번 목록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62) [표 2]의 수치는 『校釋(一)』에 수록된 9-2289+9-2305+8-145번 목록의 내용을 기초로 집계하였음.

[표 3] 업무별로 배치된 隸臣의 노동량<sup>63)</sup> (단위: 積人)

행정 잡무	감시	수공업	운송	건설·보수	사육	기타
吏養(420) [小]吏走(330) 行書守府(18) 廷走(30) 上省(26) 與吏上計(16) 與史具獄(30) 廷守府(30)	牢司寇(72) 守囚(4)	庫工 (34)	輸鐵官 (30)	除道通食(30)	養牛 (10)	居貲(150) 穀城旦(90) 亡(90) 會逮他縣 (30)
積900	積76	積34	積30	積30	積10	積360

\*상세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과건: 司空(積30)

[표 4] 업무별로 배치된 隸妾의 노동량<sup>64)</sup> (단위: 積人)

경작	행정 잡무	채집	운송	수공업	사육	건설·보수	기타
助田官穫 (440) 田官 (510)	行書廷 (60) 行書西陽 (7) 與少內殷買徒衣 (29) 與吏上計 (23) 與庫佐牛取漆 (30)	求菌 (90) 取薪 (6)	輸服弓 (16) 輸馬? (39)	市工用 (44)	牧雁 (30)	除道通食 (30)	穀舂 (145) 居貲司空 (310) 居貲臨沅 (90) 居貲無陽 (30) 會逮他縣 (60) □人他縣 (60) 守□(30) 作□(33)
積950	積193	積96	積55	積44	積30	積30	積758

\*상세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과건: 門淺(660), 司空(積360), 啓陵鄉(積60), 貳春鄉(積44), 畜官(積36), 庫(積30)

<sup>63)</sup> [표 3]의 수치는 『里耶秦簡博物館藏秦簡』 10-1170번 목록의 내용을 기초로 집계하였음.

<sup>64)</sup> [표 4]의 수치는 『里耶秦簡博物館藏秦簡』 10-1170번 목록의 내용을 기초로 집계하였음.

[표 1]은 남성 도예인 城旦, 鬼薪의 1개월 노역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표 2]는 동일 기간 여성 도예인 舂, 白粲의 노역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sup>65)</sup> 각각의 수치는 里耶秦簡 9-2289+9-2305+8-145번 목록의 내용에 기초한 것인데, 해당 목록의 제목은 “진시황 32년 10월 을해일에 司空守 園이 작성한 作徒簿(卅二年十月己酉朔乙亥司空守園徒作簿)”이다. 즉 목록의 내용은 진시황 32년(BCE 215)에 천릉현의 사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예들에 노역을 시킨 내역이다. 작도부에는 城旦·鬼薪·舂·白粲, 隸臣妾 중 賞罰을 갚기 위해 노역[居賞]하는 자, 그리고 隸臣妾 중 繫城旦, 繫舂의 처분을 추가로 받은 예신계성단과 예첩계용을 기록하였으므로 사공의 관리 대상이 성단용, 귀신백찬과 죄를 지은 예신첩임을 알 수 있다. 성단용, 귀신백찬이 천릉현의 타 기관에 파견되어 노역할 때 작도부에 ‘司空에서 받았다[受司空]’<sup>66)</sup>고 명시한 점이나 司空의 업무를 기록한 司空課志에 사망한 城旦이나 舂의 출산 내역을 적은 장부가 존재하는 점<sup>67)</sup>도 사공이 성단용, 귀신백찬의 주관 부서였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사공의 월 단위 작도부인 9-2289+9-2305+8-145번 목록을 통해 성단용, 귀신백찬이 배치된 항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 3]과 [표 4]는 각각 隸臣, 隸妾의 1개월 치 누적 노동량을 정리한

65) 鬼薪은 남성 도예, 白粲은 여성 도예로, 성단용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上造(남성) 및 上造 妻(여성) 이상 유작자에 대한 신분형이다.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編著, 北京: 文物出版社, 2001, 이하 『張家山漢簡』으로 약칭) 『二年律令』 簡82, “上造·上造妻以上, 及內公孫·外公孫·內公耳玄孫有罪, 其當刑及當爲城旦舂者, 耐以爲鬼薪白粲.”) 위 규정을 보면 귀신백찬이 성단용으로부터 감형을 받은 상태로 양자 간에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鬼薪白粲刑의 죄목은 城旦舂刑의 죄목과 동일할 뿐 아니라, 귀신백찬은 주인을 대신해 城旦으로서 居債하는 사노비와 동등한 취급을 받았으므로 그 신분은 사실상 성단용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李成珪, 『秦의 身分秩序構造』, 『東洋史學研究』 23, 1986, pp.54-55) 이아진간의 작도부나 秦·漢律에서 귀신백찬이 항상 성단용과 병렬되거나 같은 범주로 묶이는 점 역시 양자가 동급의 대우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嶽麓書院藏秦簡(伍)』 簡24-25, “或能捕若調告從人·從人屬·舍人及挾舍匿者, 死臯一人若城旦舂·鬼薪白粲臯二人, 購錢五千.”) 다만 성단용과 달리 귀신백찬은 형구를 차거나 붉은색 수의를 입는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점이 양자 간의 차이일지도 모른다.

66) 대표적으로 다음의 작도부를 참고할 수 있다. 『校釋(一)』 8-196+8-1521, “卅一年五月壬子朔丁巳, 都鄉□□ 受司空城旦一人·倉隸妾二人”; 8-686+8-973, “廿九年八月乙酉, 庫守悍作徒薄(簿): 受司空城旦四人·丈城旦一人·舂五人·受倉隸臣一人. ●凡十一人”; 8-2034, “卅一年後九月庚辰朔壬寅, 少內守敞作徒薄(簿): 受司空鬼薪”; 8-1207+8-1255+8-1323, “卅三年正月庚午朔己丑, 貳鄉守吾作徒薄(簿): 受司空白粲一人, 病.”

67) 『校釋(一)』 8-486, “司空課志 □爲□□□ / □課 / 城旦死亡課 / 舂產子課 / □船課 / 黔首□課 / 作務□□”

것으로, 그 수치는 『里耶秦簡博物館藏秦簡』에 수록된 10-1170번 목독의 내용에 기초하였다. 10-1170번 목독에 적힌 “卅四年十二月倉徒簿取(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서는 진시황 34년 12월 1개월 동안 倉이 도예를 사역한 내역을 모두 종합한 작도부이다. [표 3], [표 4]에 기록된 도예는 모두 隸臣妾이다. 隸臣妾은 성단용, 귀신백찬에 비해 가벼운 죄를 지은 자들이 받는 신분형으로<sup>68)</sup> 이들을 주관하는 부서는 倉이다. 倉 외의 다른 부서가 예신첩을 받아 노역시킨 경우, ‘倉에서 받은[受倉] 예신첩’<sup>69)</sup> 등으로 그 내역을 기록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즉 성단용, 귀신백찬, 예신첩 중 죄를 지은 자는 사공이, 예신첩은 창이 각각 관리하는 체계가 존재한 것이다.

앞의 9-2289+9-2305+8-145번 목독이 1개월 동안 각 노역에 한 번이라도 복역한 도예의 수를 적은 것과 달리, 10-1170번 목독은 1개월 동안 노역에 투입된 누적 노동량[積]을 기록한 장부이다. ‘積’은 前漢의 행정 문서<sup>70)</sup>에도 보이는 표현으로, 한 사람의 1일 노동을 1개 단위의 노동량으로 간주하여 일정 기간의 노동량을 모두 더한 것이다. 따라서 월 작도부에 기재된 ‘積 300’은 30일간 도예 10인이 매일 노역한 노동량일 수도 있고, 20일간 도예 15인이 매일 노역한 노동량일 수도 있다. 천릉현의 倉은 도예의 인력을 ‘積’으로 환산함으로써 도예의 노동 상황을 파악할 뿐 아니라, 1개월 동안 각 부문에 필요한 노동 총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표 4]는 다른 성별, 다른 신분의 노역 내역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각 표마다 보이는 주요 업무는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많은 인력이 투입된 업무를 중심으로 경향성이 나타나므로 업무별 수요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인력이 배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력이 동원된 순위를 살펴보면 성단·귀신은 <공전 경작, 건설·보수, 행정 잡무>, 용·백찬은 <공전 경작, 채집, 수공업>에 주로 종사하였고, 예신은 <행정 잡무, 감시, 수공업>, 예첩은 <공전 경작, 행정 잡무, 채집>에 주로 종사하였다. 이로부터 천릉현이 ①공전 경작 ②행정 잡무 ③관영수공업의 세 가지 항목에 도예를 집중적으로 투

68) 『睡虎地秦墓竹簡』『法律答問』簡124, “捕賞罪, 即端以劍及兵刃刺殺之, 可(何)論? 殺之, 完爲城旦; 傷之, 耐爲隸臣.”

69) 『校釋(一)』 8-142, “二月辛未, 都鄉守舍徒薄(簿) 受倉隸妾三人·司空城 凡六人. 捕羽, 宜·委·□”; 『校釋(一)』 8-686+8-973, “廿九年八月乙酉, 庫守悍作徒薄(簿): 受司空城旦四人·丈城旦一人·春五人·受倉隸臣一人. ●凡十一人.”

70) 『居延漢簡(參)』(簡牘整理小組 編,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16) 278.11, “始元三年六月甲子朔以食戍田卒四人盡癸巳卅日積百廿人, 人六升”

입하였고, 그 외 ④건설·보수 ⑤운송에도 인력을 할애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작도부 중에는 공전 경작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창과 사공이 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도예를 파견할 때 가장 많은 인력을 보낸 기관은 田官<sup>71)</sup>이었다. 다른 기관에는 1~5인 내외의 도예가 파견된 데 비해, 田官에 파견되거나 전관의 일을 돕는 데 이용된 도예는 29인(성단·귀신), 27인(용·백찬)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田官에 임시로 조달한 인력의 수량이 상당하였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최근의 출토 사료는 공전 경작을 위해 현의 도예를 분배, 파견하는 일이 秦令에 명시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吏는 관례에 기반하여 일정 수의 도예를 경작에 동원해야 했는데, 만일 吏가 이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도예를 이용한다면 그 죄는 ‘大犯令’으로 처벌되었다.<sup>72)</sup> 즉 경작을 위해 도예를 전관에 파견하는 일은 常例化되어 있었다. 또한, 田官은 경작을 위한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구류 및 기타 이유로 縣 田官의 田徒가 부족하여 수확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 縣官이 執灋에 요청하여 필요한 수량의 도예를 조달받도록 한 令<sup>73)</sup>은 바로 현의 경작을 위해 일정 수의 인력이 상시 배치된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천릉현 작도부를 근거로 秦의 주요 업무를 ①공전 경작 ②행정 잡무 ③관영수공업 ④건설·보수 ⑤운송으로 정리하고, 공전 경작이 가장 우위에 있었다고 이해해도 좋을까? 이야진간의 작도부는 천릉현의 도예 인력 운용 현상을 잘 보여주지만, 이를 근거로 진 제국의 인력 운용을 단언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첫째, 천릉현이라는 지역의 상황만으로 진 제국을 설명

71) 田官은 縣의 公田 경작을 주관한 부서로 여겨진다. 천릉현 내 경작 관련 부서로는 ‘田’과 ‘田官’이 존재하는데, 田官守가 ‘官田自食薄(簿)’에 대해 보고한 점(『校釋(一)』 8-672, “卅年二月己丑朔壬寅, 田官守敬敢言[ ] 官田自食薄(簿), 謁言秦守府[ ] 之. [ ]”)으로 보아 전관은 民田이 아닌 공전을 담당하는 부서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선행 연구는 田官舊夫는 공전 및 漆園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戶曹에 통속된 田舊夫는 민전의 생산을 관리, 독려하는 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이해했다. (李成珪, 『秦帝國 縣의 組織과 機能-遷陵縣 古城遺址 출토 里耶秦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第 53輯 1號, 2014, p.29)

72) 『嶽麓書院藏秦簡(陸)』(陳松長 主編,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9, 이하 『嶽麓秦簡(陸)』으로 약칭) 簡240-242, “·縣官田有令, 縣官徒隸固故有所給爲, 今聞或不給其故事而言毋徒以田爲辭及發[ ]徒隸, 或擇(釋)其官急事而移佐田及以官威徵令小官以自便其田者, 皆非善吏毀(也), 有如此者, 以大犯令律論之. ·縣官田令甲十八”

73) 『嶽麓秦簡(陸)』 簡228-229, “·廿【七】年十二月己丑以來, 縣官田田徒有論毀(繫)及諸它缺不備穫時, 其縣官求助徒穫者, 各言屬所執灋, 執灋[ ]爲調發.”

하기 어려우며, 둘째, 작도부는 도예 외의 인력 운용에 관해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秦의 인력 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律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인용문에는 진시황 34년에 통용된 令이 수록되어 있다.

(1) 진시황 34년 6월 甲午朔 乙卯日, 洞庭太守 禮가 遷陵丞에 고한다: “丞이 도예가 田作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상주하기를 ‘司空嗇夫 厭 등은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며 모두 다른 죄가 있으니 耐하여 司寇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令이 규정하기를, ‘㉠吏僕, 養, 走, 工, 組織, 守府門, 飭匠 및 기타 급무가 있어 田作을 시킬 수 없는 자들을 (제외하고) 徒 6인당 4인에게 田을 부여하여 (경작시키고) 徒가 적거나 없으면 治虜御史에게 장부를 보내라. 치로어사가 적절히 (도예를) 보낼 것이다.’라고 한다. ㉡지금 遷陵이 25년에 縣이 되었는데, 29년에는 公田을 경영하였고, 26년에서 28년까지 마땅히 공전을 경영해야 함에도 사공색부 염 등의 과실로 공전 경작을 명하지 않았다. 공전 경영을 시키지 않은 것은 도예가 있어도 하지 않았고, 도예가 적은데도 (보충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74)</sup>

(1)은 洞庭郡 太守 禮가 遷陵縣丞의 보고에 답한 문서이다. 이 중 ㉡에 따르면, 新縣이 설치된 이듬해부터 해당 현은 반드시 公田을 개간, 경작해야 하며, 공전의 경작에 투입되는 인력은 도예였다. 禮는 도예가 부족한 경우 治虜御史에 문서를 보내야 하는데도 천릉현의 司空嗇夫 厭이 도예의 부족을 보고하지 않고 공전 경영을 게을리했다며 힐난하였다. ㉠과 동정태수의 말은 秦이 경작을 중요한 업무로 분류하였음을 명시한다.

단, ㉠의 令으로부터 도예가 경작 외 다른 업무에 우선 동원되는 사례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에 따르면 ‘吏僕, 養, 走, 工, 組織, 守府門, 飭匠’ 및 기타 급무에 종사해야 하는 도예는 공전 경작에 종사하지 않았다. 공전 경작이 秦의 중요 업무 중 하나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은 때로는 중

74) 『校釋(一)』 8-755+8-756+8-757+8-758, “卅四年六月甲午朔乙卯, 洞庭守禮謂遷陵丞: 丞言徒隸不田, 奏曰: 司空厭等當坐, 皆有它罪. 耐爲司寇. 有書, 書壬手. 令曰: 吏僕·養·走·工·組織·守府門·飭匠及它急事不可令田, 六人予田徒四人. 徒少及毋徒, 薄(簿)移治虜御史, 御史以均予. 今遷陵廿五年爲縣, 廿九年田廿六年盡廿八年當田, 司空厭等失弗令田. 弗令田卽有徒而弗令田且徒少不傳于奏.”

요 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吏僕, 養, 走, 工, 組織, 守府門, 飭匠’에 종사하는 인력을 유지하려 한 상황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진은 ‘吏僕, 養, 走, 工, 組織, 守府門, 飭匠’ 업무에 일정한 인력을 투입해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업무는 어떠한 업무일까?

첫째, 工, 組織, 飭匠은 관영수공업 종사자를 가리킨다. 관영수공업 전반 및 그 생산액에 대한 관리 규정인 ‘工律’, ‘工人程’이 존재하므로, 工이 관영수공업 기술자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다. 組織은 방직 혹은 의복을 짓는 일을 지칭하는 듯한데, 여성 도예의 사역 기록인 8-1531간에서 歐와 婁 2인이 동원된 ‘織’<sup>75)</sup>은 組織과 같은 유형의 업무일 것이다. ‘男耕女織’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 중국 사회에서 방직은 여성의 일반적 노동으로 여겨졌으나, 진은 의복 제작 능력이나 수예 기술을 수공업 능력으로 인정하였다. 옷에 수를 놓을 수 있는 자는 技能을 보유한 자로서 工과 동급으로 인정되었고<sup>76)</sup> 의복을 지을 수 있거나 수예 솜씨가 좋은 여성 도예는 다른 도예와 달리 속면될 수 없었다.<sup>77)</sup> 飭匠은 匠의 一種으로 여겨지는데 ‘飭’이 의미하는 바는 불명확하지만 수공업 기술자의 일종으로 추측된다. 선행 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秦은 관영수공업을 상당한 정도로 발달시켰는데, 그 원인은 관영수공업을 확충함으로써 稅收 외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사회의 수공업 발전을 억제해 제민지배체제를 저해하는 부호의 성장을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sup>78)</sup> 즉, 관영수공업은 통치체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진이 결코 경시할 수 없는 基幹 산업이었다.

둘째, 僕·養·走는 부서나 일정 秩級 이상의 吏를 보조하는 자들이다. 僕은 수레를 끌거나 잡무를 처리하는 자, 養은 취사 담당자, 그리고 走는 ‘輕足’과 유사한 존재, 즉 빠르게 문서를 전송하는 자로 추측된다.<sup>79)</sup> 이들은 吏가 업무상 다른 관청으로 이동하거나<sup>80)</sup> 家에 귀환할 때<sup>81)</sup> 동행하며 吏의 편의

75) 『校釋(一)』 8-1531, “二人織: 歐·婁”

76) 『嶽麓秦簡(伍)』 簡316. “諸樂人及工若操緇紅<sub>レ</sub>, 有技能者皆毋得爲臣史·佐吏書<sub>レ</sub>. 年不盈六十者毋得守鐘<sub>レ</sub>、鼎<sub>レ</sub>、守內爲”

77)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62, “女子操敗紅及服者, 不得贖. 邊縣者, 復數其縣. 倉”

78) 李成珪, 『中國古代帝國成立史研究—秦國齊民支配體制的 形成』, 서울: 일조각, 1984, pp.182-185.

79) 王煥林, 『里耶秦簡校詁』, 中國文聯出版社, 2007, p.33.

80) 『嶽麓書院藏秦簡(伍)』(陳松長 主編,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7, 이하 『嶽麓秦簡(伍)』로 약칭) 簡257-258, “●令曰: 諸乘傳·乘馬·傳(使)馬傳(使)及覆獄行縣官, 留過十日者,

를 도왔다. 僕·養·走는 기층 행정의 담당자는 아니지만 吏를 보좌하여 원활한 행정을 도왔다는 점에서 하급의 행정 잡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僕·養·走는 律令에 의해 吏마다 지급되었는데 예컨대 ‘令史 畸가 마땅히 走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走가 없다’<sup>82)</sup>, ‘律令에 따라 (令史에) 養을 대여해야 한다’<sup>83)</sup>는 내용으로부터 令史級의 吏도 동급의 吏와 僕·養·走를 공유할 수 있었고 이 내용이 법률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令史 이상의 吏가 존재하는 이상 행정 잡무를 담당하는 僕·養·走의 수요도 끊임없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셋째, ‘守府門’은 府門을 지키는 것이다. 보통 守府, 府는 군 태수부를 지칭하지만, 이야진간 중 府가 縣府의 의미로 쓰이는 용례<sup>84)</sup>도 존재하므로 위의 府가 縣府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守府門은 태수부, 현부의 守役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수비 업무로도 볼 수 있으나 보통 군사 업무보다는 행정 잡무로 분류되었다. 다만 ‘守府門’은 縣廷이나 군 태수부의 출입구를 지킨다는 점에서 비교적 중요한 잡무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관영수공업, 행정 잡무, 守府門에 종사하는 도예는 공전 경작에 동원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1)-㉠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노동마다 우선순위가 존재하였고 이에 따라 인력을 이용하는 체계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행정 잡무, 관영수공업, 守府門에 도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전 경작에 앞서 도예를 투입한 것이다. 이 점은 특히 관영수공업에서 두드러졌는데, 가령 기술을 보유하여 工으로 삼을 수 있는 隸臣을 僕이나 養으로 삼을 수 없다<sup>85)</sup>는 조항을 볼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수의 吏가 존재하는 이상

皆勿食縣官，以其傳稟米，段(假)鬻飢炊之，**圜【有】**圜僕·司御偕者，令自炊。其毋(無)走僕·司御者，縣官段(假)人爲炊而皆勿給薪采。它如前令。 ●內史倉曹令”

81) 『里耶秦簡牘校釋(第二卷)』(陳偉 主編,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8, 이하 『校釋(二)』로 略稱) 9-600, “令史□自言: 爲遷陵吏, 去家過千里, 當以令益[僕]錢…… 屯它郡縣, 盡歲不來…… 三月辛丑日入, 守府□行。”

82) 『校釋(一)』 8-1490+8-1518, “廿八年六月己巳朔甲午, 倉武敢言之: 令史敝·彼死共走興。今彼死次不當得走, 令史畸當得未有走。今令畸襲彼死處, 與敝共走。倉已定籍。敢言之。”

83) 『校釋(一)』 8-1560, “卅一年後九月庚辰朔辛巳, 遷陵丞昌謂倉嗇夫: 令史言以辛巳視事。以律令假養, 襲令史朝走啓。定其符。它如律令”

84) 이야진간 9-2314간은 遷陵縣이 閬中縣으로 발송한 문서인데, 문서 전달자는 ‘守府印’으로 되어 있다. 맥락상 守府가 천릉현에서 守의 업무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므로, 여기의 府는 곧 縣府에 해당한다. (『校釋(二)』 9-2314, “卅三年五月庚午己巳, 司空守取敢言之: 未報, 謁追。敢言之。/敬手。/六月庚子朔壬子, 遷陵守丞有敢告閬中丞主: 移爲報, 署主倉發。敢告主。/橫手。/六月甲寅日入, 守府印行。”)



僕養의 인원도 일정 이상 필요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僕養의 인력 충원은 경작 인력 충원보다 우선되기도 하였다. 물론 기술력을 가진 도예가 존재한 경우 僕養·走 및 경작 인원의 多寡와 무관하게 곧바로 수공업 기술자로 삼을 수 있었다. 단, 관영수공업 기술자로 충원되는 도예는 어디까지나 기술을 지닌 자들에 한정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도예가 가장 흔히 동원되는 업무는 경작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作徒簿와 秦律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의 도예는 ①관영수공업 ②공전 경작 ③행정 잡무 ④건설 ⑤물자 운송에 주로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 진은 행정 잡무를 담당하는 도예의 수량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므로 행정 잡무에 종사할 수 있는 도예가 존재한다면 공전 경작보다 우선하여 행정 잡무에 동원하였다.

한편 작도부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秦律은 군사 업무, 물자 운송, 건설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였다. 특히 군사 업무는 거의 黔首가 담당하였는데, 作徒簿 중 군사 업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도예에 兵役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도부에 투입된 인력만을 살펴본다면 도예가 동원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동원된 업무를 간과할 수 있다. 특히 律令은 黔首가 군사, 물자, 건설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諸 규정을 포함하므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때 검수의 인력을 어느 수준까지 이용하였는지 알 수 있다.

먼저, 군사 업무 대부분은 黔首가 담당하였으며 도예는 거의 동원되지 않았다. 작도부 중 ‘守門’ 업무는 엄밀한 의미에서 군사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군사 업무의 핵심을 이룬 戰鬪·戍邊에는 검수 신분의卒이 투입되었다. 진이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오랜 기간 戰時 상황이 이어졌으며, 중국 통일 이후에도 옛 六國의 경계를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이 이어졌다. 통일 이후에 편찬된 진 율령이 옛 경계인 ‘故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허락 없이 故徼를 넘는 일을 극히 경계하거나<sup>85)</sup> 고요 바깥으로 도망친 노비를 가중 처벌한 것<sup>87)</sup>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85)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簡113, “隸臣有巧可以爲工者, 勿以爲人僕·養. 均”

86) 『嶽麓秦簡(肆)』 簡132-134, “●尉卒律曰: 緣故徼縣及郡縣黔齒<首>、縣屬而有所之, 必謁于尉, 尉聽, 可許者爲期日. 所之它縣, 不謁, 自五日以上, 緣故徼縣, 賞一甲; 典、老弗告, 賞一盾. 非緣故徼縣毆(也), 賞一盾; 典、老弗告, 治(答)□□.”

87) 『嶽麓秦簡(肆)』 簡100, “奴婢從誘, 其得徼中, 黥(顏)顏; 其得故徼外, 城旦黥之; 皆畀主.”

특히 ‘新地’의 경우 군현이 설치된 이후에도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한 동안 계속되었다. 예컨대 천릉현은 진시황 25년에 설치되었으나 그 이듬해에는 城邑을 근거로 한 越人의 반란이 일어났다.<sup>88)</sup> 이민족이나 反秦 세력과 군사적 마찰은 작게는 蠻夷가 검수나 도예를 도적질하는 정도에 그쳤지만<sup>89)</sup> 크게는 吏卒이 전사하는 정도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sup>90)</sup> 이는 비단 천릉현의 문제가 아니었다. 진시황 24년, 26년의 기록 중 ‘新地에는 盜가 많다’는 내용이 보이거나 新黔首를 이용해 지역에 출몰한 反盜를 토벌하려 한 것은<sup>91)</sup> 新地의 치안이 상당히 불안하였음을 의미한다. 자연히 통일 이전에도 통일 직후에도 軍隊, 兵士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존재하였으며 군사 업무에 적절한 인력을 충당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秦의 군사 업무에 배치된 인력은 보통 ‘卒(혹은 戍卒)’로 명명되었다.卒은 대개 郡治, 縣治, 城을 중심으로 배치되었으나 離鄉이나 치안 거점인 亭, 鄣도 적의 공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을 갖추어야 했다.<sup>92)</sup> 특히 신설 군현의 경우 특히 많은 수의 수졸이 파견되어 수변 업무를 수행하였다. 천릉현의 亭이 尉에 추가 병력을 요청한 사실<sup>93)</sup>은 縣城 외 각종 치안·방어 시설에도 적지 않은 병력이 주둔하였음을 보여준다. 군사 업무는 주로 검수의 징발로 해결되었으나 죄를 지어 수변하는 罰戍, 適戍나 자원한 冗戍도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건설·보수에 동원하는 인력도 상당한 수량에 달하였을 것이다. 중국 통일 이후 진이 함양에 궁, 누각, 도로를 대거 건설하고<sup>94)</sup> 阿房宮과 驪

88) 『里耶秦簡博物館藏秦簡』 12-10, “廿六年六月癸丑, 遷陵拔訊蠻·衿□ 鞠之: 越人以城邑反, 蠻·衿·害弗智(知)□”

89) 『校釋(二)』 9-557, “□首皆變(蠻)夷, 時來盜黔首·徒隸田藺者, 毋吏卒□”

90) 『校釋(二)』 9-2287, “廿六年五月辛巳朔壬辰, 西陽騎敢告遷陵主: 或詣男子它, 辯曰: 士五(伍)居新武陵駐上, 往歲八月數(擊)反寇, 遷陵屬邦候顯·候丞【不】智名與反寇戰, 丞死, 它獄遷陵, 論耐它爲侯, 遣它歸.”

91) 尹在碩, 『秦의 ‘新地’ 인식과 점령지 지배』, 『中國古中世史研究』 46, 2017, p.122.

92) 『校釋(二)』 9-32, “●問之: 反寇攻, 離鄉亭鄣吏·卒各自備守, 反時□□者盡死亡, 各不能相智(知). 卒史□□卒史襄□□”

93) 『校釋(二)』 9-1112, “【廿】六年二月癸丑朔丙子, 唐亭段(假)校長壯敢言之: 唐亭旁有盜可卅人. 壯卒少, 不足以追. 亭不可空. 謁遣[卒]索(索). 敢言之. /二月辛巳, 遷陵守丞敦狐敢告尉·告卿(鄉)主, 以律(정면)令從吏(事). 尉下亭鄣署, 士吏謹備. 貳卿(鄉)上司馬丞. /亭手. /即令走涂行. 二月辛巳, 不更輿里戍以來. /丞半. 壯手. (배면)”

94) 『史記』 卷6 『秦始皇本紀』, p.241, “焉作信宮渭南, 已更命信宮爲極廟, 象天極. 自極廟道通鄴山, 作甘泉前殿. 築甬道, 自咸陽屬之. 是歲, 賜爵一級. 治馳道.”

山陵의 조영에 70만여 인의 刑徒를 징발한 일<sup>95)</sup>은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 통일 직후에는 郡縣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건설 인력 수요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진은 주요 시설물의 건축, 보수 및 그 완성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9월에 도로 및 비탈을 보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0월에는 교량을 건설하고 波隄와 津梁을 보수하도록 하였다.<sup>96)</sup>

건설·보수에는 도예, 검수 인력이 모두 이용되었는데, 여기에 동원된 검수는 윤번으로 요역에 징발된 검수였다. 예컨대 요역을 일으켜 邑中에서 담장을 축조하였는데 담장이 1년 이내 붕괴한 경우, 축조를 담당한 검수에 재차 담장을 축조하도록 하고 담장을 다시 축조한 기간은 요역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조항<sup>97)</sup>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黔首의 거주 지역인 邑中의 건설에는 요역에 징발된 검수의 인력을 이용하였다. 도예와 검수는 모두 건설에 동원되었으나 검수는 경작의 의무를 지냈기 때문에 秦은 일정한 범위와 규정을 만들어 건설에서 차지하는 양자의 비중을 적정선에서 조정하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官 물자의 운송을 들 수 있다. 통일 이전 六國과 전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軍糧과 兵器의 운송이 중시된 것은 물론이며, 통일 이후에도 內史와 각 郡縣, 그리고 지방의 군현과 군현 사이의 물자 운송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특히 군현에서 거둔 租稅와 각 군현의 庫에서 제조한 兵器는 정기적으로 內史로 이송되었는데, 운송 노동에는 도예(隸臣妾·城旦舂·鬼薪白粲·司寇·隱官)와 居貲贖債, 官 소유의 車牛가 빠짐없이 동원되었다.<sup>98)</sup> 비록 도예보다 후순위로 동원되었으나 검수 역시 운송 인력의 한 축을 이루었다. 秦은 검수의 ‘田時’를 빼앗지 않기 위해 원거리 운송에 도예를 이용하였으

95) 『史記』卷6『秦始皇本紀』, p.256, “三十五年, 除道, 道九原抵雲陽, 塹山堙谷, 直通之. (….) 作宮阿房, 故天下謂之阿房宮. 隱宮徒刑者七十餘萬人, 乃分作阿房宮, 或作麗山.”

96) 『散見簡牘合輯』(李均明·何雙全 編, 北京: 文物出版社, 1990) 604(青川木牘 田律), “二年十一月己酉朔朔日, 王命丞相戊·內史區民臂更修爲田律. (….) 九月大除道及阪險, 十月爲橋, 修波隄, 利津梁, 鮮草離. 非除道之時, 而有陷敗不可行, 輒爲之. (正面) □一日 □一日 幸一日 壬一日 亥一日 辰一日 戌一日 □一日 (背面)”

97)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徭律』簡116-121, “興徒以爲邑中之紅(功)者, 令結(婢)堵卒歲. 未卒堵壞, 司空將紅(功)及君子主堵者有罪, 令其徒復垣之, 勿計爲繇(徭).”

98) 『校釋(二)』 9-2283, “廿七年二月丙子朔庚寅, 洞庭守禮謂縣嗇夫·卒史嘉·段(假)卒史穀·屬尉, ‘令曰:『傳送委輸, 必先【行】城旦舂·隸臣妾·居貲贖責(債). 急事不可留, 乃興繇(徭).』’; 『嶽麓秦簡(肆)』簡148-150, “給邑中事, 傳送委輸, 先悉縣官車牛及徒給之, 其急不可留, 乃興繇(徭)如律; 不先悉縣官車牛徒, 而興黔首及其車牛以發繇(徭), 力足以均而弗均, 論之.”

나, 지역 내의 官 물자 운송은 검수의 요역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점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이상 作徒簿와 律令에 근거해 秦이 인력을 중점적으로 이용한 항목을 대략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여섯 가지 항목인 ①관영수공업 ②공전 경작 ③행정 잡무 ④군사 업무 ⑤건설 ⑥물자 운송은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노동으로 인식되었으며, 秦 제국은 이상의 노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력을 적절히 안배, 투입하였다. 그렇다면 秦은 이상의 업무에 어떤 인력을 배치하고 사역하였을까? 다음 절에서는 이 질문에 답해보도록 하겠다.

### 3. 人力 資源의 실제 운용 양상

秦이 장악한 인력 자원은 신분을 기준으로 검수와 도예로 大分할 수 있다. 병역과 요역을 매개로 업무·노동에 동원된 黔首는 주로 일반적인 編戶民이었으나, 犯罪·自願·기술력으로 인해 관부에 소속된 黔首도 존재하였다. 賁·贖金과 債務를 갚기 위해 官府에서 기간 한정으로 복역하는 居賁贖債, 범죄로 인해 수번하는 罰戍·適戍, 수번을 자원한 冗戍, 그리고 工·樂人·船人 등 특수 직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바로 후자였다. 한편 도예는 다시 隸臣妾·城旦舂·鬼薪白粲·司寇<sup>99)</sup>로 분류되었는데, 각 신분형에 해당하는 도예 사이에는 이동 범위, 복역 방식, 대우 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서는 업무마다 적합한 종류의 인력을 안배하거나 중심 인력과 보조 인력을 구분하는 작업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후술할 隸臣과 행정 잡무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업무에 걸맞는 인력을 활용하는 원칙을 가장 잘 보여준다. 본節에서는 진이 인력을 투입한 여섯 가지 항목을 그 성격에 따라 肉體勞動(①관영수공업 ②공전 경작 ③건설 ④물자 운송)과 행정 잡무·군사 업무(⑤,⑥)로 나누어 진이 인력을 편제한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99) 本章의 첫머리에서 소개한 ‘候’는 司寇와 유사하되 사구보다 한 등급 가벼운 형벌로 추측된다. 그런데 候는 수호지진간의 律令에만 등장할 뿐, 龍崗秦簡, 里耶秦簡, 嶽麓秦簡의 律令 및 판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統一 秦 시기에 이미 폐지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水間大輔, 『秦漢刑法研究』, 東京: 知泉書館, 2007, p.58) 候가 실제 사역되는 양상이나 투입된 업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불가피하게 候를 생략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하 ‘도예’를 지칭하는 경우 그 범위는 예신첩, 성단용, 귀신백찬, 사구로 한정된다.

## 1) 肉體勞動에 편제된 인력

### [관영수공업]

秦은 대규모의 관영수공업 조직을 운영했다. 출토된 秦의 刻字와 銘文에 少府, 寺工의 명칭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위 기관이 황실에 납품하는 공예품 및 屬邦에 보낼 兵器를 제작하는 수공업 작방을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sup>100)</sup> 관영수공업의 운영은 관부의 물품 조달뿐 아니라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관부는 수공업품을 비롯한 각종 생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는데, 관부가 ‘作務’한 것을 판매해 수령한 동전을 향아리[鈔]에 보관하고 한 달 단위로 縣廷에 올리라는 규정은<sup>101)</sup>은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이다.

그렇다면 진의 관영수공업 조직은 어떤 인력으로 구성되어 어떤 기관에 속하였을까? 관영수공업 조직 내의 統屬 관계는 현존하는 사료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작방에는 吏 이하 명확한 통속 관계가 존재하였고 工은 여기에 편제된 인력 중 하나였다. 秦의 수공업 작방은 작방의 책임자인 工師와 작방을 담당하는 관리인 丞, 그리고 복수의 工으로 구성되었으며, 工은 다시 반장인 曹長과 일반 공인인 徒로 구분되었다. 工의 우두머리인 工師는 물품의 품질과 관련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나 개개의 수공업 작방은 관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생산물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작방의 담당 관리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생산품의 품질이 나쁜 경우 工師, 曹長, 徒는 순차적으로 일정한 처분을 받았으며, 담당 관리인 丞 역시 曹長과 동일한 등급의 벌을 받았다.<sup>102)</sup> 또한 漆을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무자인 工뿐 아니라 그를 통솔한 吏 또한 貲刑에 처해졌다.<sup>103)</sup>

100) 李成珪, 『秦의 山林藪澤開發의 構造—縣廷 畜夫組織과 都官의 分析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29, 1989, p.123.

101) 『嶽麓秦簡(肆)』 簡121-123, “●金布律曰: 官府爲作務、市受錢, 及受賈、租、質、它稍入錢, 皆官爲鈔, 謹爲鈔空(孔), 嬰(須)毋令錢能出, 以令若丞印封鈔而入, 與入錢者叁辨券之, 輒入錢鈔中, 令入錢者見其入. 月壹輸鈔錢, 及上券中辨其縣廷, 月未盡而鈔盈者, 輒輸之, 不如律, 貲一甲.”

102) 『睡虎地秦簡』 『秦律雜抄』, 簡17-19, “省殿, 貲工師一甲, 丞及曹長一盾, 徒絡組廿給. 省三歲比殿, 貲工師二甲, 丞·曹長一甲, 徒絡組五十給. 非歲紅(功)及毋(無)命書, 敢爲它器, 工師及丞貲各二甲. 縣工新獻, 殿, 貲畜夫一甲, 縣畜夫·丞·吏·曹長各一盾.”

103) 『睡虎地秦簡』 『效律』, 簡46-48, “工稟鑿它縣, 到官試之, 飲水, 水減二百斗以上, 貲工及

다만 그간의 사료 부족으로 정작 縣의 工官이 縣 내 어떤 기관에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縣의 수공업 생산이 중앙 조정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알기 어려웠다. 다행히 악록진간 秦律과 이야진간이 출토된 후 그 一端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야진간에 수록된 다음 문서는 工人이 병기를 제조한 사실을 전해주는데, 이 작업에는 庫의 耆夫와 佐과 관여하였다. 이 점은 庫와 工 사이의 관계성을 보여준다.

(1) 銅 8兩을 지출하여 斬負環 4개를 만들. (二世 皇帝) 元年 辛丑日이 朔日인 5월 경술일(10일), 庫耆夫 平, 庫佐 狐, 工 夷이 負環을 만들. 令佐 章이 확인함. 총… …가 기록.<sup>104)</sup>

(2) (二世 皇帝) 元年 庚午日이 朔日인 8월 신미일(2일), 庫耆夫 平, 庫佐 狐, 工 獎. 令佐인 贛이 監. 4尺 ½寸 크기의 牛의 膝革 1매를 지출하여 逆… 4개를 만들. 車計의 前에 붙임(?) (革?) 2兩 20銖를 들여옴.<sup>105)</sup>

(1),(2)는 庫가 보유한 물품의 출납 기록으로, 庫가 銅과 피혁을 지출하여 갑옷 혹은 병기를 제작한 사실을 명시한다. (1)의 ‘斬負環’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불명확하지만, 말 혹은 사람의 등 부분을 보호하는 일종의 갑옷으로 추측된다.<sup>106)</sup> (2)는 문자가 잔결되어 제작한 물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여기에 이용된 ‘膝革’으로 수레의 부속을 만든 다른 기록이 보이므로<sup>107)</sup> (2)의 제작품도 수레의 부속품으로 추측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병기의 원재료를 지출하고 병기를 제작하는 일을 庫가 주관하고, 원재료의 지출이

吏將者各二甲; 不盈二百斗以下到百斗, 賞各一甲; 不盈百斗以下到十斗, 賞各一盾; 不盈十斗以下及粟繫縣中而負者, 負之如故.”

104) 『校釋(二)』 9-89+9-739, “出銅八兩爲斬負環四. 元年五月辛丑朔庚戌, 庫平·佐狐·工夷出爲負環. 令佐章視平. 計□. □手.”

105) 『校釋(二)』 6-23+9-2049+9-2164, “元年八月庚午朔辛未2일, 庫平·佐狐·工獎. 令佐贛監. (I 行) 出牛膝革一枚, 四尺半寸, 以爲逆□四. 付其車計前. 二兩廿朱(銖), 入. (II 行)”

106) 陳偉 主編, 『校釋(二)』, 2017, p.65.

107) 동일한 재료로 수레 부속품을 만든 기록은 다음의 9-2058簡이다. (『校釋(二)』 9-2058, “元年八月庚午朔辛未, 庫平·佐狐·工獎. 令佐義監. 出中膝牛革一枚, 以鞵車二乘之轅寇寇厄(軛)麗衡, 付其車計前. 一斤五兩.”) 여기에서 제작한 물품은 鞵, 轅, 軛, 衡이며, 『校釋(二)』의 정리자에 따르면 鞵은 수레를 덮는 장식품, 轅은 수레와 牛馬를 연결시키는 끝채, 軛는 멍에, 衡은 끝채의 앞쪽에 위치하는 가로로 긴 형태의 가름대이다. (陳偉 主編, 『校釋(二)』, 2017, p.412)

나 병기 제작 상황을 증명할 때 工이 배석한 사실이다. 이로부터 庫에서 수공업품 제작이 이루어졌고 工이 庫에 소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工官이 생산한 물품 중 兵器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일 것인데, 후대의 사레이지만 前漢 哀帝 때 堂邑縣의 工을 ‘庫工’으로 표기한 것<sup>108)</sup>은 진 이후에도 縣의 工이 庫의 관리를 받은 사실을 보여준다.

『校釋(一)』이 정리한 庫의 作徒簿(8-1069+8-1434+8-1520)에 수레[輿] 및 활의 絃을 제작하는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校釋(一)』의 출판 이후 庫가 병기의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109)</sup> 단 庫에 工이 직속한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1),(2)를 통해 庫가 복수의 工을 거느리고 병기를 제작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庫는 수공업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工用]를 보유하면서 때마다 이를 지출하여 물품을 제작하였다. 예컨대 진시황 34년 천릉현 庫 工用計는 갑옷, 활 제작의 원재료로 추정되는 馬革·馬筋·馬旅筋·馬陽筋의 재고를 기록하였다.<sup>110)</sup> 또한, 庫의 工用計 중에는 貳春鄉으로부터 받은 漆과 그 중량이 기록되어 있다.<sup>111)</sup> 漆은 보통 漆器 제작에 이용되므로 庫가 칠기를 생산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庫가 무기의 생산 및 보관과 관련된 점을 상기하면 庫가 보유한 漆을 수레나 투구의 제작에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천릉현이 제작한 兵器와 일부 기물은 중앙으로 보내졌는데 예컨대 진시황 35년 천릉현 少內嗇夫가 중앙의 內官에 여러 등급의 화살[鏃]을 보낸 사실<sup>112)</sup>을 볼 수 있다. 이야진간 중에는 少府의 工室이 발송한 문서도 존재하며 이 중 ‘校券’이라는 글자가<sup>113)</sup> 보이기 때문에 소부 공실과 천릉현 사이에

108) “庫工七十人”(青島市文物考古研究所等, 『山東青島土山屯墓群四號封土與墓葬的發掘』, 『考古學報』 2019(3), 2019, p.428)

109) 李成珪, 『秦帝國縣의 組織과 機能-遷陵縣 古城遺址 출토 里耶秦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2014, pp.51-53.

110) 『校釋(二)』 9-172, “卅四年, 遷陵庫工用計 匚(I 行) 馬革一件 匚(II 行) 馬筋一件 匚(III 行) 馬旅筋一件 匚(IV 行) 馬陽筋一件 匚(V 行)”

111) 『校釋(二)』 9-1124+9-2064, “卅七年遷陵庫工用計, 受充庫工用計: 漆卅斗, 斗飲(飲)水十四斗, 乾重十.”; 『校釋(二)』 9-1136, “卅七年遷陵庫工用計, 受其貳春鄉鬻 漆(漆)三升, 升飲(飲)水十一升, 乾重八.”

112) 『校釋(一)』 8-1457+8-1458, “卅五年正月庚寅朔甲寅, 遷陵少內壬付內官 匚 (정면) 翰羽二當一者百五十八銀, 三當一者三百八十六銀, ●五當一者四百七十九銀, ●六當一者三百卅六銀, ●八當一者五匚 ●十五當一者匚 (배면)”

113) 『校釋(二)』 9-116, “少府工室發”; 『校釋(二)』 9-332, “匚府工室校券匚匚”

물품이 오가고 그에 대한 증명서를 제작, 대조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천릉현이 3,500개의 鍬를 少府 工室에 헌상한 것으로 추측되는 문서나<sup>114)</sup> 천릉현이 지체 없이 工室에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거나 납입을 재촉하는 내용의 문서도<sup>115)</sup> 발견된다. 이는 천릉현의 수공업 작방이 중앙의 工室로부터 지시를 받아 병기나 기물을 제작, 수송하였음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천릉현의 工은 衷, 獎 단 두 명만이 확인되나 수레·병기 제작은 많은 인력과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衷, 獎 외에 다수의 工, 徒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律令과 銘文은 공관에 工隸臣妾<sup>116)</sup>, 工城旦<sup>117)</sup> 등 수공업 기술을 가진 도예가 소속된 사실을 전하며, [표 3]의 ‘庫工’ 항목을 통해 천릉현에도 공관에서 수공업에 종사하는 隸臣이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工을 도와 兵器, 輿<sup>118)</sup>, 車<sup>119)</sup> 등 복잡한 공정을 요하는 기물을 제조하였을 것이다. 또한, 공관의 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수공업 생산도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천릉현의 도예는 종종 돛자리[席], 벽돌[塹], 질그릇[甄] 등 간단한 물품을 제조하는 데 투입되었으며, 후술할 이춘향의 질그릇 작방은 도예를 이용해 기물을 생산한 一例이다.

그렇다면 秦은 수공업 기술자들을 어떻게 편제, 관리하였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고도의 기술에 대한 선망은 오늘날에도 고대에도 같을 것이며 선천적으로 기술을 지닌 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수공업

114) 『校釋(二)』 9-1696, “[其三千五百鍬少府工室, 少府工室]”

115) 『校釋(二)』 9-1755, “[遷陵勿留, 須以與工室]”; 『校釋(二)』 9-1914+9-1990, “[實不入, 少府工室曰: 亟]”

116)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簡156, “工隸臣斬首及人爲斬首以免者, 皆令爲工. 其不完者, 以爲隱官工. 軍爵”; 『嶽麓秦簡(伍)』 簡92, “●工隸臣妾及工當隸臣妾者亡, 以六十錢計之, 與盜同灋, 其自出毆(也), 減罪一等.”

117) 工官에서 제작한 물품이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 城旦 출신으로 工이 된 자는 100대씩 매를 맞도록 한 다음의 조항은, 城旦 신분의 기술자가 존재했고, 이들이 숙면되어 비도예 공인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睡虎地秦簡』『秦律雜抄』, 簡19-20, “縣工新獻, 殿, 賞畜夫一甲, 縣畜夫·丞·吏·曹長各一盾. 城旦爲工殿者, 治(笞)人百. 大車殿, 賞司空畜夫一盾, 徒治(笞)五十.”

118) 『校釋(一)』 8-1069+8-1434+8-1520, “卅二年五月丙子朔庚子, 庫武作徒薄: 受司空城旦九人·鬼薪一人·春三人; 受倉隸臣二人. ●凡十五人. 其十二人爲黃[輿]: 獎·慶忌·馱·馱·船·何·取·交·頡·徐·娃·聚; 一人絨: 竄.”

119) [표 1]은 천릉현 사공에 속한 성단 혹은 귀신이 ‘學車西陽’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는 西陽縣에서 車를 제조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의미인 듯하다. 후술하겠지만 성단이나 귀신은 僕, 御者가 될 수 없었으므로 ‘學車’는 기술의 학습 외의 다른 의미를 상징하기 어려울 듯하다.



기술력이 ‘利’와 직결된다면, 소수의 기술자를 국가가 조직, 편제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강제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진은 수공업 기술을 가진 도예 및 검수를 통제하고 이들이 ‘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먼저, 기술을 가진 도예가 도망한 경우의 조항을 살펴보자.

(3) 工隸臣이 (전투에서 적의) 머리를 베거나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하여 (적의) 머리를 베어 신분을免한다면 모두 工으로 삼도록 한다. (肉刑을 받아 신체가) 불완전하다면 隱官工으로 삼는다.<sup>120)</sup>

(4) 工隸臣妾, 혹은 工으로서 隸臣妾이 되어야 하는 자가 도망치면 (하루) 60錢으로 계산하여 절도한 경우와 같은 법으로 처벌한다. 자수하는 경우 罪 1等を 감한다.<sup>121)</sup>

(3),(4)로부터 수공업 기술력을 지닌 도예를 장악하려는 秦의 의지가 엿볼 수 있다. 일반적인 隸臣妾이 군공작을 반납하여 庶人으로 속면된 후에는 기존 소속 官署와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sup>122)</sup>과 달리 (3)의 工隸臣은 군공으로 속면이 된 후에도 여전히 工에 예속되었다. 工에 예속된 이상 기존의 수공업 업무는 여전히 부과되었을 것이다. 또한 (4)는 기술을 지닌 도예의 도망을 엄격히 단속하였음을 보여준다. (4)의 ‘工으로서 隸臣妾이 되어야 하는 자’란, 工으로서 예신첩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나 아직 工隸臣妾이 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들은 도망친 경우 하루 일 60전을 흠친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비록 완전히 공예신첩 신분이 된 것은 아니나 공예신첩과 동등하게 처리되었다. 반면 ‘隸臣妾이 되어야 하는 자가 도망치면 하루 60錢으로 계산하여 절도한 경우와 같은 법으로 처리하는’ 嶽麓秦簡의 律<sup>123)</sup>에서 볼 수 있듯이, 예신첩이 되어야 하는 자<sup>124)</sup>가 도망친 경우 罪의 환산가

120)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簡156, “工隸臣斬首及人爲斬首以免者, 皆令爲工. 其不完者, 以爲隱官工.”

121) 『嶽麓秦簡(伍)』簡92, “● 工隸臣妾及工當隸臣妾者亡, 以六十錢計之, 與盜同灋, 其自出毆(也), 減罪一等.”

122)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簡155-156, “欲歸爵二級以免親父母爲隸臣妾者一人, 及隸臣斬首爲公士, 謁歸公士而免故妻隸妾一人者, 許之, 免以爲庶人.”

123) 『嶽麓秦簡(肆)』簡17-18, “及諸當隸臣妾者亡, 以日六錢計之, 及司寇冗作及當踐更者亡, 皆以其當冗作及當踐更日, 日六錢計之, 皆與盜同灋.”

124) 아직 예신첩이 되지 않았으나 예신첩이 되어야 하는 자로 ‘收人’을 상정할 수 있다. 『張家山漢簡』『二年律令』簡435, “諸收人, 皆入以爲隸臣妾.”

는 (4)의 1/10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엄격한 규정은 바로 ‘工’의 유지를 위한 장치였을 것이다. 工隸臣과 隸臣이 받은 신분형은 같지만 그 직능으로 인해 실제 인식된 ‘신분’은 전혀 달랐고 그 결과 도망 시의 처벌까지 달라진 것이다. 秦은 이러한 율령을 근거로 기술을 지닌 도예를 최대한 장악하였다.

다음으로, 기술을 가진 검수 역시 별도로 관리되었다. 선행 연구는 秦律의 속면 규정에 근거하여 工이 신분상 齊民과 동등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sup>125)</sup> 秦은 군공작 2급을 반납하는 대신 예신첩 신분이 된 친부모 중 1인을 속면하는 행위 및 군공으로 公士 爵을 지닌 예신이 작을 반납하는 대신 옛 처인 예첩 1인을 속면하는 행위를 허락하였다.<sup>126)</sup> 즉, 도예를 속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예가 가진 노동력보다 2배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조항과 이어지는 工隸臣의 속면 조항은 타인 혹은 공예신 본인이 首級 1급을 벤 경우 工隸臣을 工으로 삼을 것을 규정하였다.<sup>127)</sup> 즉 工隸臣의 工으로의 속면은 일반 규정의 절반에 불과한 爵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렇다면 工은 신분상 齊民보다 하위에 존재한 셈이 된다. 그러나 工은 도예처럼 범죄에 의해 탄생한 신분도 아니고 신분형도 아니다. 따라서 선행 연구는 工이 부당하게 ‘謫民’과 같이 취급받은 점에 주목하여, 秦이 이들을 강력히 장악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상의 조치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였다.<sup>128)</sup> 秦의 工은 검수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현실에서는 ‘검수’로 분류되었다기보다 그의 직능으로 분류, 인식되었으며 강한 통제를 받은 것이다.

이처럼 기술력을 최대한 보유하려는 국가의 강한 의지가 존재하였다면 工은 국가가 원하는 기물 제작에만 종사하고 업무량·업무 강도도 자율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sup>129)</sup> 따라서 그 생활 기반은 授田 경작에 있지 않

<sup>125)</sup> 李成珪, 『秦의 身分秩序構造』, 1986, pp.37-38.

<sup>126)</sup>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55-156, “欲歸爵二級以免親父母爲隸臣妾者一人, 及隸臣斬首爲公士, 謁歸公士而免故妻隸妾一人者, 許之, 免以爲庶人.”

<sup>127)</sup>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56, “工隸臣斬首及人爲斬首以免者, 皆令爲工. 其不完者, 以爲隱官工. 軍爵”

<sup>128)</sup> 李成珪, 『秦의 身分秩序構造』, 1986, pp.38-39.

<sup>129)</sup> 大車를 수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脂膠의 양과 工匠의 계절별 작업 의무시간과 작업량이 律令으로 규정된 사실은 工官의 工匠에 자율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계획에서 벗어난 제작 활동이 봉쇄되었음을 보여준다. (金垆吾, 『古代 中國의 工匠과 技術 통제 - 分業 생산과 工官 조직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17, 2011, p.12)

았을 것이며, 官府로부터 기물 생산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받아 생활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少吏인 牢監과 倉佐가 倉으로부터 稻 2석을 받은 것<sup>130)</sup>에서 볼 수 있듯이 관부 소속으로 복무하는 경우 식량을 받을 수 있었다. 工은 吏는 아니지만 국가의 각종 기물 생산에 관여하고 있었고 국가 역시 이들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강했던 만큼, 工의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생활 기반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 [공전 경작]

秦이 경작과 개간을 중시한 사실은 『商君書』 「墾令」이나 律令의 조항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秦은 검수에 일정 수준 이상의 농업 생산량을 내도록 강제하였을 뿐 아니라<sup>131)</sup> 여러 인력을 이용해 公田을 경영하였다. 里耶秦簡과 睡虎地秦簡·嶽麓秦簡의 秦律은 성단용·귀신백찬·예신첩과 거자속채, 때로는 수졸까지 공전 경작에 동원된 사실을 전한다. 이 중 隸臣은 행정 잡역에 동원되는 일이 많았으나 공전 경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매월 2石의 식량을 받는 隸臣이 田作할 경우 농번기 동안 월 0.5石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규정<sup>132)</sup>은 예신이 공전 경작에도 동원된 사실을 전한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隸臣은 僕·養·走에 빈번히 동원되었으므로 실제로 예신이 경작에 종사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표 3]의 작도부를 비롯한 이야진간의 여러 작도부에 예신의 경작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원인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성단용·귀신백찬·예첩은 별 제약 없이 공전 경작에 동원되었는데, 이는 [표 1], [표 2], [표 4]로 뒷받침된다. 천릉현의 작도부에는 공전을 경작한 도예들에 대해 ‘付田官’ 혹은 ‘助田官獲’했다고 기재하였는데, ‘付田官’이란 곧 해당 인력을 전관에 보내준 것 즉 전관으로의 파견을 뜻한다. ‘助田官獲’은 이야진간 외 용례가 없으나 문자 그대로 전관의 수확 노동을 보조한다는 의

130) 『校釋(一)』 8-45+8-270, “稻四。卅一年五月壬子朔壬戌，倉是·史感·粟人出稟牢監襄·倉佐□。四月三日。令史尚視平。感手。” (두 문서의 칠합은 何有祖, 『里耶秦簡牘綴合(七則)』,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簡帛網>, 2012.5.1. 참고. 이하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簡帛網>은 <簡帛網>으로 약칭)

131) 『史記』 卷68 『商君列傳』, p.2230, “僇力本業，耕織致粟帛多者復其身。事末利及怠而貧者，舉以爲收孥。”

132)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52, “隸臣田者，以二月月稟二石半石，到九月盡而止其半石。”

미로 파악된다. 각 표의 하단에는 다양한 파견처를 표기하였는데, 이 중에서 실상 가장 많은 도예가 파견된 곳은 공전 경작을 주관하는 전관이였다. 전체 파견 인원 대비 전관 파견 인원을 계산하면, 성단·귀신은 약 56.8%, 용·백찬은 56.2%, 예첩은 약 44.3%에 이른다. 게다가 전관에 보내진 인원은 파견된 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司空, 倉에서 노역하는 도예보다도 많다. 이 점은 예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예가 공전 경작에 집중적으로 동원되었음을 의미한다.<sup>133)</sup>

물론 田官은 경작 외의 업무도 관장하였으므로 田官에 보내진 도예라 해서 온전히 공전 경작에만 동원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遷陵縣의 田官이 遷陵縣丞에 ‘作務産錢’할 도예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사실<sup>134)</sup>은 전관이 ‘作務産錢’, 즉 무언가를 생산, 판매하여 수익금을 산출하는 행위<sup>135)</sup>에 도예를 이용하였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전관에 파견된 도예 중 일부는 경작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관에 파견되는 도예 중 ‘作務産錢’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보유한 도예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이고<sup>136)</sup> 田官이 여타 업무도 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여전히 경작임<sup>137)</sup> 상기하면 전관으로 파견된 도예 다수는 공전 경작에 중

133) 특히 이러한 경향은 小城과 小春의 사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9-2289+9-2305+8-145간에 따르면 小城은 9인 중 6인은 田官에 파견되었고, 小春 5인 중 3인은 田官에 파견되었다.

134) 『校釋(二)』 9-710, “卅一年十二月甲申朔朔日, 田量敢言之: 泰守書曰: 『爲作務産錢自給.』 今田未有作務産□徒, 謁令倉·司空遣 □田, 敢言之. (正面) □甲申朔乙酉, 遷陵丞昌下倉·□空亟遣傳書. / 狂手. / 十二月乙酉水十一刻刻下二, 隸臣□行倉. 十二月乙酉水十一刻刻下四, 佐敬以來. / 狂發. 敬手. (背面)”

135) 본래 作務는 수공업 생산을 의미하나, 선행 연구는 이야진간 중의 作務를 각 부서에서 생산한 결과물 및 그것을 판매하는 행위로 보았다. 그 근거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야진간에는 司空, 倉, 田官, 少內에서 作務 관련 使役に 도예를 동원한 기록이 존재하지만 이 ‘作務’가 실제 수공업 제작이었는지 불분명하며, 모든 기관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수공업 작방을 두었던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作務는 종종 産錢, 受錢과 연관되는데 이것이 결국 생산품의 판매를 의미한다면, 作務란 2차 산업의 생산품 및 이를 판매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李成珪, 『秦帝國 縣의 組織과 機能-遷陵縣 古城遺址 출토 里耶秦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2014, pp.37-39) 필자 역시 위 논지에 동의하여 우선 作務를 물품 생산 및 판매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136) ‘作務産錢’의 ‘作務’가 반드시 수공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産錢’이 가능한 정도의 물품 생산은 결국 기술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秦이 기술력이 있는 도예의 속면을 금지하거나 속면 후에도 工官에서 工으로 일하도록 강제하는 등, 工官 외부로의 기술력 유출을 극히 경계한 점을 상기하면, 기술을 가진 도예는 이미 工官에 소속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137) 이야진간 중 遷陵縣 田官守가 상부에 올리는 문서는 대부분 墾田課, 黔首의 墾田과

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첩·성단용·귀신백찬은 모두 공전 경작에 동원되었으나, 전관 파견 비율을 보면 성단용·귀신백찬이 공전 경작에 동원되는 비중은 예첩의 동원 비중보다 높다. 이는 예첩보다 무거운 죄를 지었고 대부분의 노역에 동원될 수 있던 성단용·귀신백찬이 경작에 우선 동원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다음에 인용한 이야진간의 문서는 성단의 일종인 從人城旦이 여타 도예보다 공전 경작에 먼저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진시황 28년 정월 辛丑朔 丁未日, 貳春鄉 敬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從人城旦이 모두 筓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마땅히 縣의 官府에서 사역할 만합니다. 바라건대 從人으로 하여금 모두 관부에서 노역하거나 (질그릇의 제작에 필요한) 흙을 지거나[負土] 질그릇을 만드는 일을 돕게[佐甄] 해 주시고, 본래 흙 지는 것을 돕던 남자 (도예)들은 모두 경작에 종사하도록 해 주십시오.<sup>138)</sup>

‘從人城旦’이라는 신분은 이 문서에서 처음 보인다. ‘完城旦’, ‘黥城旦’의 구조에서 앞의 형벌(完, 黥)이 뒤의 城旦을 수식하여 성단 중 완형 혹은 경형을 받은 자를 가리키므로, ‘從人城旦’은 성단 중 從人인 자들, 즉 從人 출신으로 성단이 된 자를 의미할 것이다. 종인은 옛 六國 출신 주요 인사로,<sup>139)</sup> 秦이 잡지 못한 從人の 성씨, 연령, 외모를 구체적으로 적어 縣·道官에 보내고 잡은 후에는 매우 혹독한 노역을 시킨 점, 그리고 이들을 숨겨주면 동일 죄목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점<sup>140)</sup>으로 볼 때 진에 끝까지 반항하였거나 지위가 높은 자였던 듯하다. 본래 진은 적군이 투항하면 隸臣으로

---

관련되어, 전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역시 경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校釋(二)』 9-1865, “元年八月庚午朔庚寅田官守濯敢言之: 上狼田課一牒, 敢言之。 (正面) 八月庚寅日入濯以來。 / 援發。 濯手。 (背面); 『校釋(二)』 9-2344, “卅三年六月庚子朔丁巳, [田]守武爰書: 高里士五(伍)吾武[自]言: 謁狼(墾)草田六畝武門外, 能恒藉以爲田。 典繆占。 (正面) 九月丁巳, 田守武敢言之: 上黔首狼(墾)草一牒。 敢言之。 / 銜手。 □月丁巳日水十一刻刻下四, 佐銜以來。 / □發。 (背面)”

138) 『校釋(二)』 9-22, “廿八年正月辛丑朔丁未, 貳春鄉敬敢言之: 從人城旦皆非智(知)筓田毆, 當可作治縣官府。 謁盡令從人作官府及負土·佐甄, 而盡遣故佐負土男子田。”

139) 『嶽麓秦簡(伍)』, 2017, p.74.

140) 『嶽麓秦簡(伍)』 簡19-20, “諸治從人者, 具書未得者名族·年·長·物色·疵瑕, 移讓縣道, 縣道官謹以讓窮求, 得輒以智巧譖(潛)訊。 其所智(知)從人·從人屬·舍人, 未得而不在讓中者, 以益讓求, 皆捕論之。 敢有挾舍匿者, 皆與同辜。”

삼았으나<sup>141)</sup> 종인은 이보다 무거운 完城旦의 형을 받고 巴縣의 鹽官으로 언행되어 고된 노역에 종사하였다. 秦令 중 도망치기 어렵고 노역이 고된 洞庭郡에 종인성단을 보내 사역하라는 내용이 보이므로<sup>142)</sup> 이 조치에 따라 천릉현에도 종인들이 대거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에서 貳春鄉 향색부 敬이 從人城旦이 簍田의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田作 대신 縣의 官府에서 부리거나 질그릇 제작에 이용해야 한다고 청한 것은 성단과 경작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敬의 말에는 본래 성단 신분은 경작에 동원되어야 하나, 이들이 천릉현의 경작 방식인 ‘簍田’을 알지 못하니 차선책으로 관부의 다른 노역에 이용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簍田’은 천릉현에서 행해지던 전통적인 경작 방식이기 때문에<sup>143)</sup> 타지에서 온 종인성단을 바로 경작에 투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부과해야 할 경작노동 대신 다른 노동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마침 질그릇작방이 있던 이춘향<sup>144)</sup>은 경작에 투입할 수 없는 종인성단을 흙 나르기[負土], 질그릇 제작 보조[佐甄]에 배치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즉, 종인성단의 노역과 관련하여 경작을 가장 먼저 언급한 사실은 당시 성단용·귀신백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경작이자, 이들을 이용한 노역에서 경작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방증한다.

141) 『睡虎地秦簡』, 『秦律雜抄』, 簡38, “寇降, 以爲隸臣”

142) 『嶽麓秦簡(伍)』, 簡13-18, “●段(假)正夫言: 得近<從>人故趙將軍樂突弟 舍人昭等廿四人, 皆當完爲城旦, 輸巴縣鹽. 請: 論輸<輸>昭等【廿四人, 故】代齊從人之妻子·同產·舍人及其子已傳嫁者, 比故魏·荊從人. ●御史言: 巴縣鹽多人, 請令夫輸<輸>昭【等廿四人, 故】代[代]齊從人之妻子·同產·舍人及其子已傳嫁不當收者, 比故魏·荊從人之【妻】子同產·舍人及其子已傳嫁者, 已論輸<輸>其完城旦舂洞庭, 洞庭守處難亡所苦作, 謹將司, 令終身毋得免赦, 皆盜戒(械)膠致桎傳之. 其爲士五(伍)庶人者, 處蒼梧, 蒼梧守均處少人所, 疑亡者, 戒(械)膠致桎傳之, 其夫妻子欲與, 皆許之. 有等比. ●十五”

143) 簍田은 ‘槎田’으로도 표기하며, 미개간지를 불태우고 밭을 만드는 일종의 화전 농업으로 秦代 천릉현에서 행해졌다. “이 지역의 습속은 해를 번갈아 槎田하니 中縣과는 습속이 다르다”는 기록은 바로 화전의 특성인 休耕을 가리킨다. (『校釋(一)』 8-355, “『墨』首習俗好本事不好末作, 其習俗槎田歲更, 以異中縣.”; 『校釋(二)』 9-1754, “『墨』俗簍田歲更以異中縣.”)

144) 천릉현 이춘향은 질그릇[甄]을 제조하는 작방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질그릇 제조 공정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 이춘향의 문서에서만 보이는데, 이춘향이 진시황 30년 8월에 사역한 도예의 노동 총량을 기록한 문서(8-1143+8-1631)는 이춘향이 성단용, 귀신백찬을 이용해 그릇을 빚는 흙을 나르고 가마를 만들어 질그릇을 제조한 사실을 보여준다. (『校釋(一)』 8-1143+8-1631, “卅年八月貳春鄉作徒薄(薄). 城旦·鬼薪積九十人. 伏城旦積卅人. 舂·白粲積六十人. 隸妾積百一十二人. ●凡積二百九十二人. 卅人甄. 卅六人佐甄. 卅廿二人負土. 卅二人□瓦.”)

수호지진간 진률이 출토되기 이전, 연구자들은 ‘城旦舂’, ‘鬼薪白粲’의 字義 및 『漢舊儀』의 서술에 근거하여 성단용과 귀신백찬의 직무를 각각 築城·舂米, 伐木·精米로 한정하였다.<sup>145)</sup>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처음 이 신분들은 해당 노동 수요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며 신분이 탄생한 시점에는 업무와 명칭이 일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sup>146)</sup> 그러나 수호지진간과 이야진간이 기록된 전국 말 시점에는 성단용과 귀신백찬이 ‘고유의 업무’에만 투입되는 대신 국가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였고<sup>147)</sup> 그중에서도 공전 경작에 다수 투입되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공전 경작은 도예가 담당하였고 이 중 성단용·귀신백찬이 큰 비중을 점하였으나, 도예 이외의 인력이 공전 경작에 투입된 사례도 보인다. 바로 居貲贖債와 戌卒이다. 이들은 黔首 신분에 해당하나 전자는 貲罰·贖刑·債務의 상환으로 인해, 후자는 병역 징발로 인해 국가의 인력 자원으로 장악되어 공전 경작에도 동원되었다. 다만 거자속채·수졸의 노역 사례가 적고 천릉현이 이들의 경작 노동을 직접 묘사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遷陵縣 田官과 거자속채·수졸 사이의 관계를 통해 경작 사실을 유추할 뿐이다. 다음은 거자속채가 전관으로부터 식량을 대여한 기록이다.

(5) 徑廩의 粟米 4 $\frac{2}{3}$ 斗. 31년 임오일이 朔日인 6월 삭일에 田官 守인 敬과 田官 佐인 郃, 稟人인 姪이 居貲인 士五(伍) 巫縣 南就里的 路에 五月 乙亥日(24일)부터 辛巳日(30일)까지의 7일간의 식량을 出貸함.

令史 逐이 視平함. 郃가 기록함.<sup>148)</sup>

(6) 徑廩의 粟米 1石 9 $\frac{1}{3}$ 斗. 31년 계미일이 朔日인 4월 (乙?)未日에 田官 守인 敬과 田官 佐인 壬, 稟人인 姪이 居責(債)인 索縣 武昌里的 士伍 摯에 出貸함.

令史 逐이 視平함. 壬가 기록함.<sup>149)</sup>

<sup>145)</sup> 陳 直, 『關於兩漢的徒』, 『兩漢經濟史料論叢』,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0, p.249.

<sup>146)</sup> 富谷至, 『秦漢刑罰制度の研究』, 京都: 同朋舍, 1998, p.134.

<sup>147)</sup> 陶安あんど, 『秦漢刑罰體系の研究』, 東京: 創文社. 2009, pp.66-67.

<sup>148)</sup> 『校釋(二)』 8-1014+9-934, “徑廩粟米四斗泰半斗. 卅一年六月壬午朔朔日, 田官守敬·佐郃·稟人姪出賃居貲士五(伍)巫南就路五月乙亥以盡辛巳七日食. 令史逐視平. 郃手.”

(5)는 居貲에, (6)은 居債에 식량을 대여한 기록으로 대여 주체는 모두 田官이다. 居貲 路에 대여한 粟米가 4%斗이므로 路는 일 %斗씩 7일치 식량을 빌린 셈이다. (6)의 居債 摯가 路과 같은 양의 식량을 소비했다면, 摯는 총 29일치 식량을 빌린 것이 된다. 路와 摯가 전관에서 식량을 대여한 것은 곧 이들이 전관에서 복역하였음을 암시한다. 만일 이들이 다른 기관이나 縣廷에서 복역하고 식량만 대여하고자 했다면 해당 기관 혹은 倉에서 대여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sup>150)</sup> 따라서 전관이 거자속채에 식량을 대여한 기록은 거자속채가 전관에 파견되어 경작이나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추측하게 한다.

아울러 다른 사료를 통해서도 거자속채의 공전 경작을 추측할 수 있다. ‘黔首 중 抵罪한 자’가 笮田할 줄 안다면, 상부 기관이 이들을 경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참작하여 많이 파견해 달라는 요청<sup>151)</sup>은 거자속채가 경작에 종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笮田은 천릉현 일대에서 성행한 화전 농법이다. 비록 이 문서는 거자속채의 경작 사실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죄를 지었으며 아직 검수 신분이고 관부가 노역을 강제할 수 있는 자라면, 거자속채 이외 특별히 상정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것이다.

물론 거자속채가 공전 경작에 종사한 예가 보인다고 해서 이들이 예첩·성단용·귀신백찬과 같은 비중으로 공전 경작에 동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자속채는 자신이 범한 貲罰·贖刑 혹은 관부에 진 債務를 錢納하지 못해 노역으로 대신 갚는 자들이었다. 이들에 지나치게 가벼운 일을 시킨다면 국가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형벌을 경시하는 풍조

149) 『校釋(二)』 9-901+902+960+1575, “徑廡粟米一石九斗少半. 卅一年四月癸未朔□未, 田官守敬·佐壬·稟人姪出貲居貲索(索)武昌士五(伍)摯. 令史逐視平. 壬手.”

150) 관 소속자는 주로 倉에서 식량을 수령하거나 대여했다. 가령 司空에 소속한 성단용에게 식량을 지급할 때도 사공이 창으로부터 식량을 수령하는 과정이 선행되었다. (平曜婧·蔡萬進, 『里耶秦簡所見秦的出糧方式』, 『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5(4), 2015, p.81) 아울러 이야진간의 식량 지급 기록을 통해 독자적으로 식량을 반출할 수 있는 기관은 倉과 田官 두 곳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吳峻錫, 『秦代 縣廷의 재정운동과 회계처리—里耶秦簡을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 45, 2017, p.106) 위의 거자속채가 전관에서 식량을 받았다면 그는 전관 소속이거나 혹은 전관에 파견되어 종사하였을 것이다.

151) 『校釋(二)』 9-22, “及乘城卒·諸黔首抵臯(罪)者皆智(知)笮田, 謁上財(裁)自敦遣田者, 毋令官獨遣田者. 謁報. 敢言之.”



가 만연하였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과중한 노역을 부과하여 거자속채가 병이 들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齊民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자속채에 부과된 경작 노역은 도예 인력을 보조하는 정도 선에서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戍卒 중 일부는 田官이나 尉에서 공전을 경작했다. 주지하듯이 수졸의 주요 업무는 방어와 치안 확보였지만, 천릉현 尉 課志는 ‘졸의 경작 내역을 기록한 課[卒田課]’를 포함하고 있다.<sup>152)</sup> 課志는 관청별로 작성하는 통계 기록이자 고과와 관련된 공식 장부이므로 ‘卒田課’의 존재는 곧 수졸이 일상적, 정기적으로 경작에 동원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천릉현의 수졸 중 屯戍는 田官에서 식량을 공급받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해당 屯戍 역시 거자속채와 마찬가지로 전관에 직접 소속되거나 혹은 파견되어 경작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153)</sup> 아래의 [표 5]는 둔수가 전관으로부터 식량을 받은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遷陵縣 屯戍의 관적 및 식량 지급처 (\*未詳인 경우 빈칸으로 처리)

	貫籍	식량 지급처	爵	성명	출처
1	孱陵縣 咸陰里	倉	士伍	敝臣	『校釋(一)』 8-1545
2	襄縣 完里	田官	簪褭	黑	『校釋(一)』 8-1574+8-1787
3	胸忍縣 松塗里	田官	士伍	增	『校釋(一)』 8-1574+8-1787
4	閭中縣 下里	田官		孔	『校釋(二)』 9-552
5	江陵縣 戲里	貳春鄉	司寇		『校釋(二)』 9-761
6	巫縣 狼旁里	田官	士伍	久鐵	『校釋(二)』 9-762
7	安陵縣 昌甚里	田官	士伍	廣	『校釋(二)』 9-174+9-908
8	巫縣 狼旁里	倉	士伍	久鐵	『校釋(二)』 9-2334

전술하였듯이 자체적으로 곡창을 가진 기관에 소속하지 않은 이상, 관으로부터 식량을 받을 경우 倉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54)</sup> 실제로 [표 5]에

152) 『校釋(一)』 8-482, “【尉】課志: 卒死亡課, 司寇田課, 卒田課. ●凡三課.”

153) 이러한 이유로 屯戍를 屯田卒로 이해하기도 한다. (周德貴, 『秦簡所見“更戍”和“屯戍”制度新解』, 『蘭州學刊』 2013(11), 2013, p.53) 그러나 이 기록만으로 屯戍=屯田卒이라고 확증하기 어렵다.

154) 平曜婧·蔡萬進, 『里耶秦簡所見秦的出糧方式』, 『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5, p.81.

는 倉에서 식량을 받거나 빌린 屯戍도 보이므로, 만일 屯戍가 전관에서 일한 대가로 식량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전관에서 식량을 받은 사례를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田官의 업무는 공전 경작과 약간의 생산 업무(2차 생산)로 구성되었으므로 전관에 파견된 戍卒도 경작 업무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尉 課志의 卒田課를 다시금 상기하면, 수졸 중 일부는 경작에 동원되었음이 분명하다. 다만 유념해야 할 점은 이야진간이 ‘新地’인 천릉현의 행정문서라는 점이다. 수졸의 주둔률이 높은 변경지역이나 新縣의 경우 수졸이 개간·경작 업무에 종사하는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內史나 다른 內郡에서는卒의 경작 노동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건설·보수]

건설·보수에 배치된 인력은 도예와 검수로 구성되었다. 예신첩, 성단용, 귀신백찬, 거자속채 등은 모두 건설·보수에 동원되었으나, 그중에서도 많이 동원된 신분은 단연 城旦인데, [표 1]과 나머지 표의 ‘건설·보수’ 항목을 비교함으로써 성단과 나머지 도예 사이의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sup>155)</sup> 물론 전국 말 秦에서 성단의 노역은 건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단은 공전 경작이나 운송 등 국가의 여러 업무·노동에서도 활용되었는데, 성단이 기타 노역을 하는 경우 일 2斗의 식량을 받지만 담장을 쌓거나 그와 동등한 노역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식량(5斗)을 지급한 것<sup>156)</sup>, 성단이 쉬운 일을 하였는데도 식량을 더해주면 솜을 범한 것으로써 담당 吏를 논죄한다는 내용<sup>157)</sup>은 성단이 건설 외의 업무에도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 1]~[표 4]는 성단이 다양한 업무에 골고루 투입되는 와중에도

<sup>155)</sup> [표 3]과 [표 4]에 보이는 예신, 예첩의 건설·보수 총노동량은 각 積30이다. 10-1170은 1개월(30일) 동안의 노동 총량[積]을 기록한 것이므로, 해당 업무에 투입된 인원을 확실히 알 수 없다. 단, 노동 총량을 노동 일수 30으로 가정한다면 실제 투입 인원은 각 1인일 가능성이 크다.

<sup>156)</sup>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簡55-56, “城旦之垣及它事而勞與垣等者, 旦半夕參; 其守署及爲它事者, 參食之. 其病者, 稱議食之, 令吏主. 城旦舂·舂司寇·白粲操土攻(功), 參食之; 不操土攻(功), 以律食之. 倉.”

<sup>157)</sup>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簡57-58, “日食城旦, 盡月而以其餘益爲後九月稟所. 城旦爲安事而益其食, 以犯令律論吏主者. 減舂城旦月不盈之稟. 倉.”

여전히 여타 도예보다 건설·보수에 빈번히 동원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신분형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인 城旦의 특성 및 城旦의 신분형이 건설·보수 담당 인력에 대한 수요로부터 탄생한 점과 관계될 것이다. 즉 성단이 반드시 건설만을 담당하지는 않아도 사역 시의 관례가 성단의 사역 규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가령 아래의 秦 徭律은 성단과 건설·보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縣은 감히 멋대로 관의 숙소[舍], 官府 및 縣廷(의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어서는 안 되며, 허물고 다시 짓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부에 여쭙어야 한다. 城旦를 이용하여 公의 舍, 官府를 증축하거나 수리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되 상부에 여쭙지 말라.<sup>158)</sup>

인용문의 의미는 매우 명확하다. 본래 縣은 관리의 숙소나 건물을 자의적으로 개축할 수 없지만, 성단용을 징발하는 경우에는 개축, 보수를 허락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도 불필요하였다. 이 조항은 秦이 縣이 성단용 외의 인력, 즉 黔首, 卒, 그리고 隸臣妾·居貲贖債·司寇를 자의적으로 징발하는 행위를 경계하였음을 의미하나, 반대로 생각하면 縣마다 소속된 성단용은 언제든지 현이 자의적으로 징발, 이용할 수 있는 인력 자원으로서 인식되었고 縣 역시 이들을 동원함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이 자체적으로 토목 공사를 벌이거나 인력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당연히 성단용을 우선 이용했을 것이다. 예컨대 현이 독자적으로 관부를 개축하는 경우에는 성단용을 주로 이용하고, 郡級 이상의 허락이 필요한 개축에는 성단용을 포함한 여러 도예를 이용하는 방식이 취해졌을 것이다.

한편 城塞, 陞, 鄣 등 방어 관련 시설이나 邑·田部의 시설물을 건설·보수하는 경우에는 검수도 대거 동원되었다. 진은 몇 가지 조건을 지키는 선에서 건설·보수에 검수를 사역하였는데, 아래의 두 인용문은 건설에 검수 인력을 이용할 때의 조건을 잘 보여준다.

158)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21-122, “縣毋敢擅壞更公舍官府及廷, 其有欲壞更殿(也), 必瀆之. 欲以城旦舂益爲公舍官府及補繕之, 爲之, 勿瀆.”

戌律 曰：城塞，陞，鄣 중 무너져 고치지 않은 곳이 많은데도 徒隸가 적어 수리하는 데 부족하다면 1년에 한 차례, 농한기에 大夫 이하 (검수)로 弟子와 復子에 이르기까지 요역 면제[復除] 여부와 관계없이 동원하여 각 열흘씩 수리하도록 하라. 열흘이 다 되었는데 수리함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인력의 총 수량을 소속 (행정구역)의 尉에 말하라. 公士·公卒·士伍에 감히 다른 일을 시키지 말고 반드시 城塞 수리만 시키라. 매년 성단용, 거자속채, 예신첩이 城塞를 보수한 일수, 이용한 도예의 수 및 보수에 이용한 검수의 수를 尉에 보고하며 計偕하라. 보수하는 데 인력이 충분하였는데 하지 않았거나, 인력이 부족했는데 보고하지 않았다면, 縣丞·縣令·令史·尉·尉史·士吏는 각 貲 2甲에 처한다.<sup>159)</sup>

첫째, 城塞, 陞, 鄣을 수리할 때 도예의 인력만으로 부족하다면 1년에 1번 검수를 동원할 수 있는데, 이때 검수의 동원 범위는 병역·요역의 일반적인 징발 범위보다 넓었다. 본래 요역은 不更 이하를 동원하도록 규정되었으며<sup>160)</sup> 弟子에게는 병역·요역의 의무가 없었다.<sup>161)</sup> 復子 역시 본래 어떠한 이유로 復除를 받은 사람이라고 추정된다.<sup>162)</sup> 따라서 “大夫 이하 (검수)로 弟

159) 『嶽麓秦簡(肆)』簡188-191, “●戌律曰：城塞陞鄣多陝(決)壞不脩，徒隸少不足治，以閒時歲一興大夫以下至弟子、復子無復不復，各旬以繕之。盡旬不足以索(索)繕之，言不足用積徒數屬所尉，毋敢令公士·公卒·士五(伍)爲它事，必與繕城塞。歲上春城旦、居資續<贖>、隸臣妾繕治城塞數、用徒數及黔首所繕用徒數于屬所尉，與計偕，其力足以爲而弗爲及力不足而弗言者，貲縣丞、令、令史、尉、尉史、士吏各二甲。”

160) 『嶽麓秦簡(肆)』簡253, “繇(徭)律曰：發繇(徭)，自不更以下繇(徭)戌，自一日以上盡券書，及署于牒，將陽倍(背)事者亦署之。”

161) 秦律의 ‘弟子’는 ‘人屬弟子’의 약칭으로, 문면 그대로 누군가를 스승으로 섬기는 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律의 규정을 초과해 제자에 일을 시키거나 매질한 경우 貲 1甲을 부과한다는 除弟子律은 당시 제자가 실제로는 피예속민의 성격을 가졌음을 잘 보여준다. (『睡虎地秦簡』「法律雜抄」簡6-7, “當除弟子籍不得，置任不審，皆耐爲侯(候)。使其弟子贏律，及治(笞)之，貲一甲；決革，二甲。除弟子律。”)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弟子는 일반적인 병역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 듯하다. 누군가를 弟子로 만들어 병역을 피하는 일을 縣이 좌시해서는 안 되며, 만일 그러한 일이 생길 경우 尉의 책임자를 처벌, 면직한다는 규정은 弟子가 병역, 요역에서 면제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睡虎地秦簡』「法律雜抄」, 簡7-8, “●縣毋敢包卒爲弟子，尉貲二甲，免。”)

162) 復子가 지칭하는 대상은 불명확하다. 단, 여타 徭律에 ‘人復復子’가 보이기 때문에 이 律의 復子를 人復復子の 약칭으로 간주하여 각각 타인에 예속된 사람과 요역을 면제받은 자의 자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縣이 자의적으로 사역할 수 없었으며 만일 현이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들을 사역할 경우 恒色부와 담당 관리는 貲 2甲에 처해졌다. (『嶽麓秦簡(肆)』簡147-148, “繇(徭)律曰：興繇(徭)及車牛及興繇(徭)而不當者及擅傳(使)人屬弟子、人復復子、小敖童、弩，鄉嗇夫吏主者，貲各二甲。”)

자와 復子에 이르기까지 요역 면제[復除] 여부와 관계없이 동원한다”는 규정은 大夫 이하 검수는 사실상 특수 신분, 요역 면제권과 무관하게 모두 城塞, 陞, 鄣 수리에 동원되었음을 의미한다. 앞서 秦 제국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군사 업무를 꼽았는데, 수비 관련 시설인 城塞, 陞, 鄣의 수리 시 본래 요역에 징발되지 않는 검수들까지 이용한 것은 군사 업무가 중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검수의 과도한 징집이 농업생산성에 끼칠 영향을 秦이 간과했을 리 없다. 따라서 검수의 수비 시설 수리는 세 가지 조건(도예가 부족한 경우, 1년에 1회 농한기에 한정, 10일 이하 노역)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락되었다. 특히 작이 없거나 하위의 爵을 지닌 公士·公卒·士伍가 징집 후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 것도 편호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둘째, 邑과 田地 인근의 도로, 교량, 각종 시설물의 건설·보수는 검수의 몫이었다.

徭律 曰: 邑院을 보수하는 일, 田部의 도로·교량을 수리하는 일, 陂池를 뚫는 일, 奴苑을 파는 일은 모두 縣의 검수가 이로운 것이니 不更 이하(의 검수) 및 都官 소속이거나 기타 일을 하는 자들, 八更과 畋老로 모두 更에 (복역)하지 않는 자들 모두 그 일을 한다. 冗宦, 冗官에게는 시켜서는 안 된다.<sup>163)</sup>

위의 徭律 중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邑中, 田部 시설물의 보수가 縣의 검수에 이로운 일이라는 점을 굳이 부기한 것이다. 이것은 검수를 징발해 해당 건설·보수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邑은 검수의 거주·생활 공간이며 田部는 검수의 경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邑院, 田部의 도로·교량, 陂池, 奴苑은 모두 검수의 거주지·농지에 위치하여 검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었을 것이다. 秦은 이를 명분으로 삼아 평시의 요역에 동원하는 검수보다 더 많은 인력을 邑, 田地 시설물 건설에 동원하였다.<sup>164)</sup> 그 결과 邑中の 각종 건설에는 본래

<sup>163)</sup> 『嶽麓秦簡(肆)』 簡151-153, “● 繇(徭)律曰: 補繕邑院、除田道橋、穿汲<波(陂)>池、漸(塹)奴苑, 皆縣黔首利殿(也), 自不更以下及都官及諸除有爲殿(也), 及八更, 其畋老而皆不直(值)更者, 皆爲之, 冗宦及冗官者, 勿與。”

<sup>164)</sup> 李成珪, 『數의 帝國 秦漢 : 計數와 計量의 支配』, 2019, p.380.

요역 징발 대상인 不更 이하 검수는 물론이고, 요역이 부과되지 않는 八更, 都官 소속인 자, 畹老까지 동원되었으며 오직 冗宦, 冗官만이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冗宦은 황제를 모시는 散官, 冗官은 특별한 직무를 가지지 않는 散官이므로<sup>165)</sup>, 사실상 邑中, 田部 시설물의 보수에는 대부분의 검수가 동원되었다고 보아도 좋다.

음, 전지 근처의 도로, 교량, 제방을 정비하는 시기는 월별로 규정되어 있었다. 진은 9월에는 대대적으로 도로와 비탈을 정비하고, 10월에는 교량을 손보는 한편 波隄, 津梁을 수리하도록 하였다.<sup>166)</sup> 따라서 위의 律이 존재하는 한, 검수 대부분은 9~10월에 건축·보수 업무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시설물이 패여 있어서 이용하기 어렵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바로 수리해야 하는 규정이 보이므로 현실에서는 건축·보수를 위한 비정기적 요역도 종종 나타났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건설·보수는 성단용, 특히 성단의 주요 업무로 분류되었으나 그 종류에 따라서 검수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단, 검수의 건설·보수 노역은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이 戌律, 徭律에 명시된 점은 건설·보수 인력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단용 등 도예가 먼저 동원되었음을 시사한다.

### [물자 운송]

秦은 국가가 장악한 인력자원을 이용하여 官의 물자를 운송하였다. 물론 秦代 민간 사회에 민영 운송업의 수요, 공급이 없던 것은 아니다. 전국 말진에서는 수레를 빌려주거나 혹은 수레를 이용해 타인의 운송을 대신하는 僦人이 활동하고 있었다.<sup>167)</sup> 예컨대 아래의 조항도 秦의 중국 통일을 전후한

<sup>165)</sup> 李成珪, 『數의 帝國 秦漢 : 計數와 計量의 支配』, 2019, p.381.

<sup>166)</sup> 『散見簡牘合輯』(李均明·何雙全 編, 北京: 文物出版社, 1990) 604(青川木牘 田律), “二年十一月己酉朔朔日, 王命丞相戊·內史區民臂更修爲田律. 田廣一步袤八則爲畛, 畝二畛一百道, 百畝爲頃一千道, 道廣三步封高四尺大稱其高掇, 高尺下厚二尺以秋八月修封掇正疆畔及登千百之大草 九月大除道及阪險, 十月爲橋, 修波隄, 利津梁, 鮮草離. 非除道之時, 而有陷敗不可行, 輒爲之. (正面) □一日 □一日 幸一日 壬一日 亥一日 辰一日 戊一日 □一日 (背面)”

<sup>167)</sup> 『商君書』『墾令第二』, “令送糧無取僦, 無得反庸, 車牛輿重設必當名. 然則往速徠疾, 則業不敗農, 業不敗農, 則草必墾矣.”

시점에 민영 운송업이 성행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검수가) 縣에 가서 남의 수레를 세내 (물자를 운송하)거나 자신  
이 직접 해야 하는 운송 요역을 타인에게 넘길 경우 律으로써 논죄  
한다.<sup>168)</sup>

위의 律에 따르면 운송 요역을 직접 담당하는 대신 타인의 수레를 빌려  
물자를 운송하거나 타인을 고용해 대역하도록 하는 경우 처벌받았다. 이러  
한 처벌 규정은 당시 律文에 적힌 행위를 하는 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였  
음을 암시한다. 즉 縣治가 있는 곳에는 대금을 받고 물자를 대신 운송하는  
민영 운송업자들이 존재하였고, 일부 검수는 이들의 힘을 빌려 운송 요역을  
회피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민영 운송업자가 존재했으나 秦이 이들을 운송에 이용  
한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무기·곡식·동전 등과 같은 관의 물자는 관에 직속  
한 徒隸·車牛, 그리고 징발된 검수를 이용해 운송하였다. 예컨대 앞의 [표  
1]~[표 4]로부터 남녀 도예 모두 輸鐵官, 傳送西陽, 輸服弓 등의 운송 작업에  
징발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도예보다 비교적 가벼운 업무에 종사한 거자속  
채도 물자 운송에 투입되었다. 진시황 27년 11월 천릉현 사공이 黔首 貲인  
大男子 4인을 사역한 작도부 중 2인이 곡식을 ‘載粟’하였다고 하는데,<sup>169)</sup> 도  
예 노역 내역 중 ‘載粟+타 지역명’<sup>170)</sup> 혹은 ‘載粟輸’로 기재된 사례가 보이  
기 때문에 載粟은 곡식을 싣고 타 지역으로 운송하는 노역으로 이해된다.

운송에는 비교적 다양한 인력이 동원되었으나, 해당 인력은 일정한 원칙  
에 의해 배치되었다. 秦은 官 물자를 운송할 때도 자의적으로 인력을 끌어  
다 쓰지 않고 令에 규정된 우선순위를 따랐다.

168) 『睡虎地秦簡』『效律』, 簡49, “上節(即)發委輸, 百姓或之縣就(僦)及移輸者, 以律論之.”

169) 『校釋(一)』은 8-1665간을 “廿七年十一月乙卯, 司空昌【薄(簿)】□ 黔首□大男子四人.  
□ 其□人載粟. □”으로 석독하였으나, 『校釋(一)』의 석독을 담당했던 何有祖는 이후  
“廿七年十一月乙卯, 司空昌【薄(簿)】□ 黔首貲大男子四人. □ 其二人載粟. □”로 補  
釋했다. (何有祖, 『讀里耶秦簡札記(一)』, <簡帛網>, 2015.6.17.) 이 문서에는 비록 ‘居’  
가 보이지 않지만, 장부의 기재자가 사공인데다 작도부에 黔首居貲라는 표현이 다수  
보이므로 ‘黔首貲’가 검수거자 외의 존재를 지칭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70) 예를 들어 ‘載粟沅陵’, ‘載粟門淺’의 예(『校釋(二)』 9-1479 “二人與□□□倍載粟沅陵五  
月□ 十人與佐崎倍載粟門淺四月□□”)와 8-162의 ‘載粟輸’를 들 수 있다. (『校釋(一)』  
8-162, “●小城旦十人. 其八人付田官. 二人載粟輸.”)

(7) (진시황) 27년 2월 丙子朔 庚寅日, 洞庭太守 禮가 縣齋夫·卒史 嘉·假卒史 穀·屬尉에 이른다. “습에서 말하기를 ㉠‘委輸, 傳送할 때 반드시 城旦舂·隸臣妾·居貲贖債를 먼저 동원한다. 급한 일로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로소 徭를 징발한다.’”고 한다. 지금 洞庭郡의 兵器를 內史로 수송하며 巴郡·南郡·蒼梧郡은 甲兵을 보내니, 전송해야 하는 것이 많다. 곧바로 전송하되, ㉡반드시 乘城卒·隸臣妾·城旦舂·鬼薪白粲·居貲贖債·司寇·隱官 중 縣에서 踐更하는 자를 먼저 동원하라. ㉢경작하는 시기[田時]이므로 검수를 동원하기를 원치 않는다.”<sup>171)</sup>

위 문서는 진시황 27년 2월에 洞庭郡이 屬縣의 齋夫, 卒史 嘉, 假卒史 穀, 그리고 尉에 보낸 문서이다. 당시 동정군과 인근의 군은 병기와 병사를 內史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태수는 습을 인용하여 운송에 투입할 인력의 우선 순위를 밝혔다. 인용문 중 (7)-㉠은 기존의 습이고 (7)-㉡은 동정군의 태수 禮의 명령으로, 양자는 내용 상 서로 조응한다. 습에 따르면 물자를 委輸<sup>172)</sup>하거나 傳送할 때는 반드시 도예를 먼저 투입해야 하는데, ‘성단용→예신첩→거자속채’의 순서로 기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무거운 신분형의 도예를 먼저 동원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동정군 태수는 인력 동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데 그 순서는 ‘乘城卒→도예(隸臣妾·城旦舂·鬼薪白粲)→거자속채→縣에서 교대로 근무 중인 司寇·隱官’에 해당하였다.

현재는 경작하는 시기이므로 검수를 동원하기 원치 않는다고 한 (7)-㉢은, 물자를 운송할 때 원칙상 검수도 동원될 수 있었으나 농번기에는 동원을 최소화하고자 한 秦의 입장을 보여준다. 또한, 태수부의 문서를 받은 卒史 嘉·假卒史 穀·尉가 ‘관할하고 있는 縣卒, 徒隸, 居貲贖債, 縣에서 踐更 중인 司

171) 『校釋(二)』 9-2283, “廿七年二月丙子朔庚寅, 洞庭守禮謂縣齋夫·卒史嘉·假(假)卒史穀·屬尉: ‘令曰: 『傳送委輸, 必先【行】城旦舂·隸臣妾·居貲贖債(債). 急事不可留, 乃興繇(徭).』 今洞庭兵輸內史, 及巴·南郡·蒼梧【輸甲】兵, 當傳者多. 節(即)傳之, 必先悉行乘城卒·隸臣妾·城旦舂·鬼薪白粲·居貲贖債(債)·司寇【隱】官踐更縣者. 田時殷, 不欲興黔首.’”

172) ‘委輸’란 각 군현이 소유하고 있는 물자인 委積을 수송하는 것을 가리킨다. (『漢書』 卷72 「鮑宣傳」, p.3090, “龔勝爲司直, 郡國皆慎選舉, 三輔委輸官不敢爲姦, 可大委任也.” 【師古曰: 「委輸謂輸委積者也」.】) 이야진간 9-2283에서 委輸와 傳送은 모두 물자의 운송을 의미하지만, 양자가 병렬된 점으로 보아 양자 간에는 물자 운송 방식의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傳送은 직행이 아니라 전하여 보내다는 의미인데다 『史記』 「平準書」 중 “京師에 平準署를 두어 천하로부터 委輸를 받았다”(『史記』 卷30 「平準書」, p.1441, “置平準于京師, 都受天下委輸.”)는 내용이 존재하므로, 委輸는 지방 군현이 중앙으로 물자 직송을 의미하는 듯하다.



寇·隱官의 簿를 조사한 결과 縣이 동원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검수를 동원한 경우가 있으니 곧바로 탄핵하여 縣으로 문서를 이송하겠다<sup>173)</sup>고 답신한 대목으로부터 물자 운송 시 국가에 직속한 인력을 검수보다 먼저 동원하였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문서에서 가장 먼저 거론한 ‘乘城卒’은 ‘城에 오르는卒’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城을 수비하는 직역의卒을 가리킨다. 단, 동정군의 문서를 받은 嘉穀尉의 문서는 징발 대상자를 縣卒→도예→거자속채→縣에서 교대로 근무 중인 司寇·隱官으로 기록하였으므로, 승성졸은 곧 縣卒에 해당할 것이다. 즉 승성졸이란 윤번으로 징발되는 戍卒이 아니라, 장기간 縣城에서 복무하는 직업군인으로 추정된다.<sup>174)</sup> 그렇다면 관의 물자를 옮길 때 ‘직업군인(郡縣의卒)→도예→거자속채→교대 근무 중인 司寇·隱官→검수’의 순번으로 인력이 동원된 셈이다.

관부의 물자를 운송할 때 검수를 줄, 도예의 후순위로 이용한 것은 소농민 경제의 보호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秦이 검수를 운송 요역에 동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원활한 물자 운송은 제국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秦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검수를 동원해 운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특히 곡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검수를 대거 동원하였는데, 심지어 현이 함부로 징발해서는 안 되는 미성년의 敖童과 史子도 곡식 전송에 한해서는 동원되었다.<sup>175)</sup> 다만 검수의 운송 동원은 건설 동원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가능하였다.

첫 번째 원칙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예나 官의 車牛를 먼저 이용한 후, 부족한 경우 검수를 징발하는 것이었다. 아래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자.

邑中の 일을 처리하거나 委輸, 傳送할 때는 먼저 縣官의 車牛 및

173) 『校釋(二)』 9-2283, “嘉穀尉各謹案所部縣卒·徒隸·居賞贖責(債)·司寇·隱官踐更縣者簿, 有可令傳甲兵, 縣弗令傳之而興黔首, 興黔首可省少弗省而多【興者】, 輒劾移縣, 縣亟以律令具論當坐者, 言名·决(決)泰守府. 嘉穀尉在所縣上書嘉穀·【尉】.”

174) 천룡현의 승성졸이 식량을 자급하지 않고 관부로부터 수령한 기록도 승성졸의 장기복무를 추측하게 한다. 『校釋(一)』 8-1452, “廿六年十二月癸丑朔己卯, 倉守敬敢言之: 出西廩稻五十□石六斗少半斗輸; 案粟二石以稟乘城卒夷陸士五(伍)陽□□□□. 今上出中辨券廿九. 敢言之. □手.”

175) 『嶽麓秦簡(肆)』簡157-158, “凡免老及敖童未傳者, 縣勿敢傳(使), 節載粟乃發敖童年十五歲以上, 史子未傳先覺(學)覺(學)室, 令與粟事, 敖童當行粟而寡子獨與老父老母居,”

도예를 모두 (이용해) 처리하고, 급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律과 같이 徭를 동원하라. 縣官의 車牛와 도예를 먼저 모두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검수나 검수의 車牛를 동원하여 요역을 일으켰다면 인력이 충분하여 알맞게 (인력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알맞게 (인력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논죄하라.<sup>176)</sup>

위의 徭律은 운송 시 인력 동원의 원칙을 매우 분명하게 전하는데, 위에서 인용한 (7)-㉠의 습과 일치하며 (7)-㉡의 동정태수의 명령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물자를 委輸하거나 傳送할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인력은 현 소유의 車牛와 도예이고, 상황이 급하거나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검수를 징발할 수 있었다. 縣의 도예와 車牛만으로 운송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검수를 동원하였다면 해당 업무를 주관한 吏는 처벌받았다.

두 번째 원칙은 농번기에는 가급적 검수를 징발하지 않는 것이었다. 즉 (7)-㉢ 동정군 태수의 명령은 태수 개인의 지시가 아니라 律令에 근거를 둔 것인데 이러한 원칙은 秦 徭律이 요역을 징발할 때 농번기에는 부유한 자가, 농한기에는 가난한 자가 요역에 종사하도록 순번을 조정한 것<sup>177)</sup>에서도 확인된다. 이 규정의 기저에는 농번기에 요역을 강제할 경우 소농민인 검수가 경작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는 관념이 깔려 있다. 검수가 농업에 집중하지 못할 경우 농업 생산력과 납세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지나친 요역 징발로 인해 검수가 본업과 거주지에서 유리된다면 곧 국가의 방어 체계에도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진은 가급적 농한기에 검수를 징발하려 하였다.

이상 운송 업무의 인력 동원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보이는 徒隸, 居貲贖債, 卒, 黔首는 운송 업무에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직위가 곧 운송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秦에는 운송만을 전담한 인력도 존재하였는데, 바로 船人이다. 선박을 조종하는 기술을 가진 船人은 관에 직속된 존재로 수공업자인 것처럼 담당 업무에만 종사하였을 것이다. 중국 고대의 물자 운송은 주로 陸運을 이용하였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水運을 이용하기도

<sup>176)</sup> 『嶽麓秦簡(肆)』簡148-150, “給邑中事, 傳送委輸, 先悉縣官車牛及徒給之, 其急不可留, 乃興繇(徭)如律; 不先悉縣官車牛徒, 而與黔首及其車牛以發繇(徭), 力足以均而弗均, 論之.”

<sup>177)</sup> 『嶽麓秦簡(肆)』簡244-245, “繇(徭)律曰: 歲興繇(徭)徒, 人爲三尺券一, 書其厚焉. 節(卽)發繇(徭), 鄉嗇夫必身與典以券行之. 田時先行富有賢人, 以閒時行貧者,”

하였는데, 水系가 발달하고 평지가 많은 남방에서는 선박의 이용 빈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단 水運의 경우 水沒, 溺死의 위험성이 늘 병존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운송을 위해 전문적 인력이 요구되었다.

秦의 船人은 官에 소속한 운송 기술자로서 물자나 사람을 나르는 일에 종사하였다. 秦의 船官, 船人은 二年律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기록은 선인의 편제나 조직을 직접 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록 후대의 기록이지만 二年律令의 船 관련 규정을 통해 秦의 선인 관리 방식과 선인의 성격을 추론한 후, 船官 운영 방식을 확인해 보겠다.

船人이 사람을 건너게 하다 떠내려가서 익사하게 했다면 耐刑에 처하며, 船齋夫와 담당 吏는 贖耐에 처한다. 떠내려가서 牛馬를 익사하게 하거나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선인은 贖耐에 처하며, 船齋夫와 吏는 遷刑에 처한다. 粟米, 기타 물건에 손상을 입히거나 잃어버리면 절반은 (관부의 비용으로) 내어 주고, 나머지 절반은 船人이 배상하되 뱃고물[舳]을 담당하는 船人 및 뱃머리[舳]를 담당하는 船人과 일반 선인[徒]의 배상 비율은 2:1로 한다. 끈으로 묶어두어야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선인이 모두 배상하되 뱃고물을 담당하는 船人 및 뱃머리를 담당하는 선인과 일반 선인의 배상 비율은 역시 2:1로 하며, 선택부와 담당 리는 각 벌금 4兩을 부과한다. 사람이 떠내려가서 익사하거나 상한 경우, 혹은 우마가 익사한 경우에는 粟米나 기타 물건을 잃어버렸어도 배상하지 않는다.<sup>178)</sup>

위 律은 船人이 사람이나 물자, 牛馬를 운송하다 익사, 亡失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 및 배상 조항이다. 선박 사고 발생 시의 처리, 처벌을 규정 자체에도 주목할 만하지만, 위 조항에서 특히 이목을 끄는 대목은 船齋夫, 吏主者, 船人, 舳, 舳, 徒 등 다양한 층위의 인원이 船 조직에 속해 있는 사실이다. 선행 연구는 위 인용문에 보이는 관영 수운 조직의 형태가 秦 鑛山の 採鐵 조직이나 工 조직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up>179)</sup> 전술하였

178) 『張家山漢簡』『二年律令』, 簡6-8, “船人渡人而流殺人, 耐之, 船齋夫·吏主者贖耐. 其殺馬牛及傷人, 船人贖耐, 船齋夫·吏贖遷. 其敗亡粟米它物, 出其半, 以半負船人, 舳舳負二, 徒負一; 其可紐數(繫)而亡之, 盡負之, 舳舳亦負二, 徒負一, 罰船齋夫·吏金各四兩. 流殺傷人·殺馬牛, 有亡粟米它物者, 不負.”

179) 金秉駿, 『中國古代南方地域の水運』, 藤田勝久·松原弘宣 編, 『東アジア出土資料と情報傳達』, 東京: 汲古書院, 2011, p.181.

듯이 수공업 작방은 工師-丞-工(曹長/工徒)의 조직으로 구성되었고 위의 船 조직 역시 船塲夫-吏主者-船人(舳, 舳/船徒)로 구성되어, 두 조직 모두 ‘실질적 책임자-담당 관리-실무자(조장 혹은 반장/말단의 노역자)’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양 조직이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은 당시 秦이 국가에 직속한 특수 기술자를 동일 방식으로 조직, 취급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秦의 船人도 工과 마찬가지로 船官에 소속하여 전문적으로 수운 노동에 종사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工과 마찬가지로 船人은 검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관부 물자나 관부의 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8) 啓陵鄉 (소속) 津의 船人인 高里 소속 士伍 啓封은 12월의 更을 踐해야 하는데,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29일간 피하여, ……하지 않아… 정월 임신일, 啓陵鄉守인 繞가 고발함.

(진시황) 33년 壬申日이 삭일인 정월의 삭일에 啓陵鄉守인 繞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발하는 문서 한 牒을 올립니다.<sup>180)</sup>

(9) (진시황) 27년 丙午日이 삭일인 3월의 己酉日(4일), 庫塲夫 後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內史로 수송해야 하는 병기는 貳春鄉에 ……가 5石 1鈞 7斤이 있으니, 계산하면 6丈 이상 크기의 선박 4척을 이용해야 합니다. 원컨대 司空에 명령하시어 吏와 船徒를 보내 취하도록 해 주십시오. 감히 말씀드립니다.

3월 辛亥日(6일), 遷陵守丞 敦狐가 司空에 고함: 律令대로 처리하라.<sup>181)</sup>

(8)의 啓封은 士伍로 계룡향 내 津에 배치된 船人이었다. 문서에 따르면 啓封은 본래 ‘12월의 更役을 실행해야 하는[當踐十二月更]’ 상황이었으나, 29

180) 『校釋(一)』은 ‘廿九日’의 앞, 뒤를 考釋하지 않았으나 何有祖는 이후 이 부분을 ‘【逋廿九日】□【不】’로 補釋했다. 본 연구는 何有祖의 의견을 받아들여 석문을 보충했다. 『校釋(一)』 8-651, “啓陵津船人高里士五(伍)啓封當踐十二月更, 【逋廿九日】□【不】□ 正月壬申, 啓陵鄉守繞劾. 卅三年正月壬申朔朔日, 啓陵鄉守繞敢言之, 上劾一牒 □ (정면) 正月庚辰旦, 隸妾咎以來. /履發. □ (배면)” (何有祖, 『讀里耶秦簡札記(三)』, <簡帛網>, 2015.07.01.)

181) 『校釋(一)』 8-1510, “廿七年三月丙午朔己酉, 庫後敢言之: 兵當輸內史, 在貳春□□□□五石一鈞七斤, 度用船六丈以上者四艘(艘). 謁令司空遣吏船徒取. 敢言之. □ 三月辛亥, 遷陵守丞敦狐告司空主, 以律令從事.”

일간 복역하지 않고 피한 정황이 포착되어 啓陵郷守에 의해 고발당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12월의 更役 실행’이라는 표현은 윤번 근무를 의미할 것인데, 유사한 표현은 『張家山漢簡』 『奏讞書』 案例 17에도 보인다. 안례의 주인공인 樂人 講은 ‘11월의 更役을 실행하기 위해[踐十一月更] 함양에 갔다’<sup>182)</sup>며 보고하였는데, 해당 안건에서 樂人 講은 11월의 更役을 위해 10월 30일에 함양에 집합한 상태였으므로<sup>183)</sup> ‘踐~月更’이 특정 월의 윤번 근무인 것은 분명하다.

(9)의 船人이 윤번으로 근무한 것은 진의 선인이 윤번 근무자와 항시 근무자로 구분된 사실을 보여준다. 秦·漢律의 ‘更’은 종종 ‘冗’과 대조를 이루는데, 전자는 윤번 근무, 후자는 항시 근무자 혹은 更보다 기량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가령 隸妾에는 冗, 更의 구분이 존재하여 冗隸妾 2인의 인력을 工 1인으로, 更隸妾 4인의 인력을 工 1인으로 환산하거나<sup>184)</sup> 긴급한 일이 아니면 更隸妾은 집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sup>185)</sup> 이는 상시 관부에서 노역하는 예첩을 ‘冗’, 그 반대를 ‘更’으로 파악한 것이다.

또한, ‘祝’이 七千言 이상을 암기하면 祝五更, 祝의 기술에 통달하여 제사를 지내는 법에 능통하면 冗祝으로 삼는 규정<sup>186)</sup>을 볼 수 있다. 즉 祝의 경우 숙달되었거나 기술이 뛰어나면 更에서 冗으로 ‘승진’하였다고 이해된다. 특수 직무를 지닌 祝에 更, 冗의 구분이 있었다면, 역시 특수 직무를 지닌 船人도 경력이나 기술에 따라 更, 冗으로 구분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관부에 속해 수송 노동에 종사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가령 ‘更船人’은 교대근무 인력, ‘冗船人’은 상근 인력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즉 船人은 겸수 신분이면서 기술의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상근 혹은 윤번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郷에 속한 나루터에 소속되어 운송에 종사하였다.

마지막으로 船人, 船을 관장한 부서에 대해 살펴보자. (9)는 천릉현 내의

182) 『二年律令與奏讞書』 p.359, “(簡103)講曰: 踐更咸陽, 以十一月行, 不與毛盜牛.”

183) 『二年律令與奏讞書』 p.359, “(簡106)今講曰: 踐十一月更外樂, 月不盡一日下總咸陽, 不見毛.”

184)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09, “冗隸妾二人當工一人, 更隸妾四人當工【一】人, 小隸臣妾可使者五人當工一人. 工人程”

185)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54, “更隸妾節(即)有急事, 總冗, 以律稟食; 不急勿總倉”

186)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簡479, “以祝十四章試祝學童, 能誦七千言以上者, 乃得爲祝五更. 大祝試祝, 善祝·明祠事者, 以爲冗祝, 冗之.”

船과 船 관련 인력을 관장하는 부서가司空이었음을 보여준다. 내사로 병기를 수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기를 관할하는 부서인 庫는 吏와 船徒를 보내 병기를 수송할 것을 縣廷에 요청하였고, 천릉현은 해당 문서를司空으로 하달하였다. 선행 연구는 이야진간을 근거로 사공이 선박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추측하였는데<sup>187)</sup> (9)를 통해 선박뿐 아니라 船 조직과 수운 역시 사공의 관할 아래 존재한 사실이 분명해졌다.<sup>188)</sup> 특히 遷陵守丞이司空에 ‘律令대로 처리하라’고 말한 점은 사공의 선박·수운 관장이 천릉현의 특수 사례가 아닌,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었음을 재차 증명한다.

여기에 보이는 吏와 船徒는 이년울령에 보이는 船 조직의 吏主者和 船人으로 여겨진다. 수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조종하는 기술자도 필요했으므로 선박 외에도 船師, 船徒, 그리고 담당 관리가 함께 파견되었을 것이다. 즉 秦의 船人은 관부의 특수 기술자로 관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물자의 운송이나 공식적 이동에 동원되어, 문서 행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2) 행정 잡무·군사 업무에 편제된 인력

### [행정 잡무]

秦의 관료제와 문서 행정이 통치의 근간을 이룬 것은 잘 알려져 있다. 律令과 里耶秦簡을 통해 秦의 縣 아래에 여러 曹가 통괄하는 기관과 屬吏가 체계적으로 조직된 사실이 알려지며 진의 기층 행정 및 속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sup>189)</sup> 그런데 진의 기층 행정 운영을 살필 때 빼놓을 수 없

187) 빌려준 公船을 받지 못하자司空守가 선박의 크기와 명칭, 선박을 빌려준 경위 등을 상세히 보고한 사실(『校釋(一)』 8-135, “廿六年八月庚戌朔丙子,司空守穆敢言: 前日言競陵漢陰狼假遷陵公船一, 袤三丈三尺, 名曰□, 以求故荊積瓦. 未歸船.”)이나, 사공의 작도부 항목 중 ‘守船’이 존재하는 사실, 그리고司空課志와司空計錄에 ‘□船課’, ‘□船計’가 보이는 사실로부터 선박의 관리가 사공의 업무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李成珪, 『秦帝國縣의 組織과 機能-遷陵縣 古城遺址 출토 里耶秦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2014, pp.31-36)

188) 李成珪, 『秦帝國縣의 組織과 機能-遷陵縣 古城遺址 출토 里耶秦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2014, p.36.

189)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최근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李成珪, 『秦帝國縣의 組織과 機能-遷陵縣 古城遺址 출토 里耶秦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2014; 김동오, 『秦帝國시

는 부분은 속리 아래에 편제된 수많은 행정 보조 인력이다. 원활한 문서 행정은 속리층을 돕는 행정 최말단의 잡역 담당 인원 없이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문서의 전달, 吏의 보조와 호송, 부서 간의 심부름과 같은 일이 바로 그것으로, 문서 행정이 존재하는 이상 각종 행정 잡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수요는 꾸준히 존재하였다. 행정 잡무는 고도의 판단력이나 智力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닌 단순 노역에 불과하나 기층 행정을 지지하는 요소였으므로 아무에게나 부과할 수 없었다.

秦의 행정 잡역은 ①문서 전달 ②吏의 보조와 호송(僕·養·走), ③심부름 및 기타 잡역의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 가지 잡역은 기층 행정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의 범위나 반복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秦 제국은 이 점을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하였는데, 이하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인력 배치의 성격을 확인해 보겠다.

첫째, 문서 전달[行書]은 문서 행정을 떠맡치는 최말단의 업무로 정해진 시간 내에 문서를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따라서 신체가 쇠약하거나 믿을 수 없는 자를 문서 전달에 이용하거나<sup>190)</sup> 14세 미만의 자가 縣官의 恒書를 전달하는 일은 금지되었다.<sup>191)</sup> 문서 전달은 전문 인력인 郵人이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郵를 통해 발송되는 문서가 아닌 경우 예신첩, 거자속채도 담당하였다. 郵人은 官으로부터 임명[除]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sup>192)</sup> 자연히 그 인원은 한정되었고, 郵로 발송되는 문서는 恒書나 급무 관련 문서로 제한되었다.<sup>193)</sup> 현재까지 발표된 이야기진간 중 郵人이 문서를 운송

기 縣廷의 구조: 『里耶秦簡』 ‘令史’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6, 2014; 김종희, 「秦代 縣의 曹 조직과 地方官制—里耶秦簡에 나타난 遷陵縣의 토지 재정 운영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8, 2014; 土口史記, 「里耶秦簡にみえる秦代縣下の官制構造」, 『東洋史研究』 73(4), 2015; 黎明釗·唐俊峰, 「里耶秦簡所見秦代縣官·曹組織的職能分野與行政互動—以計課爲中心」, 『簡帛』 第十三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6.

190)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84-185, “行傳書·受書, 必書其起及到日月夙莫(暮), 以輒相報殿(也). 書有亡者, 亟告官. 隸臣妾老弱及不可誠仁者勿令.”

191) 『嶽麓秦簡(肆)』 簡196, “●行書律曰: 毋敢令年末盈十四歲者行縣官恒書, 不從令者, 貲一甲.”

192) 진시황 32년 정월, 啓陵鄉 成里의 里典 및 계릉향의 郵人에 결원이 생기자 계릉향이 成里의 士伍 句를 里典으로, 士伍 成을 郵人으로 ‘除’해 줄 것을 천릉현에 요청한 문서를 통해 郵人이 현의 주인을 거쳐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校釋(一)』 8-157, “卅二年正月戊寅朔甲午, 啓陵鄉夫敢言之: 成里典·啓陵郵人缺. 除士五(伍)成里句·成, 成爲典, 句爲郵人, 謁令尉以從事. 敢言之.”)

하는 사례가 11개 사례<sup>194)</sup>에 그치는 점은 郵를 경유한 문서가 실제로는 한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秦은 里典·里老의 문서 전달을 금지하고 隸臣妾·司寇·居貲贖債<sup>195)</sup>로 하여금 문서를 전달하도록 하였다.<sup>196)</sup> 단, 천릉현의 예를 살펴보면 예신첩이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던 듯하다. [표 3]과 [표 4]에 行書廷, 行書西陽, 行書守府의 항목이 보여 예신과 예첩이 천릉현, 유양현, 그리고 동정군 태수 부까지 문서를 전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문서의 발송과 도착을 기록한 문서 중에도 隸妾이 전달자로 등장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난다.<sup>197)</sup> 반면 거자속채가 실제 문서를 전달한 사례는 현재까지 단 두 건이 보이는데<sup>198)</sup> 공교롭게도 두 건 모두 진시황 34년 정월 遷陵守丞 配가 동정군으로 문서를 보내는 시점의 사례이다. 이야진간이 모두 출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의 2개 사례만을 가지고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미 출간된 1권(8층 출토)과 2권(9층 출토) 내용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 점에 주목하면 거자속채의 문서 전달은 예신첩에 비해 그 實例가 적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193) 『嶽麓秦簡(肆)』 簡192-193, “● 行書律曰: 二千石官書不急者, 毋以郵行.”; 『嶽麓秦簡(伍)』 簡108, “● 恒署書皆以郵行. ● 卒令丙二”

194) 이야진간 1,2권 중 郵人이 문서를 전달한 11개 기록은 다음과 같다. 『校釋(一)』의 8-62, 8-154, 8-159, 8-664+8-1053+8-2167, 8-704+8-706, 8-740+8-2159, 8-767, 8-769, 8-1523간과 『校釋(二)』의 9-713, 9-1869간.

195) 居貲贖債란 貲刑·贖刑을 받았거나 관부에 債務를 진 상태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입금하지 못해 일정 기한 동안 관 소속으로 노역하는 상태, 혹은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 즉 居貲贖債는 ‘居貲’, ‘居贖’, ‘居債’ 세 종류의 노역자를 함께 이르는 법률 용어이다. 隸臣妾 중에도 자형·속형 및 관부에 진 채무를 갚는 상태인 자들이 존재했지만, 이들은 관부에서 무기한 노역하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노역하는 검수 거자속채와는 동일하지 않았다.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33, “有罪以貲贖及有債於公, 以其令日問之, 其弗能入及賞(債), 以令日居之, 日居八錢; 公食者, 日居六錢.”)

196) 『嶽麓秦簡(肆)』 簡154-155, “● 繇(徭)律曰: 毋令典·老行書; 令居貲責(債)·司寇·隸臣妾行書.”

197) 이야진간 1,2권 중 예첩이 문서를 전달한 예는 총 15건이다. 『校釋(一)』의 8-69, 8-157, 8-475+8-610, 8-647, 8-651, 8-736, 8-1524, 8-1538, 8-1671, 8-2441간, 『校釋(二)』의 9-470, 8-673+8-2002+9-1848+9-1897, 9-1863, 9-1871+2469+2471+1883+1893, 9-2130+9-2146간.

198) 『校釋(一)』 8-197, “卅四年正月丁卯朔辛未, 遷陵守丞配敢言之: 遷陵黔首□ 佐均史佐日有泰(大)抵已備歸, 居吏被繇(徭)使及□ 前後書, 至今未得其代, 居吏少, 不足以給事□ 史. 謁報, 署主吏發. 敢言之. □ 二月丙申朔庚戌, 遷陵守丞配敢言之: 寫上□ 旦, 令佐信行. □ (정면) 報別臧. □ 正月辛未旦, 居貲枳壽陵左行. □ (배면); 『校釋(二)』 9-49. “卅四年正月丁卯朔庚午, 遷陵守丞配敢言之: 令曰: 上見乘車, 會二月朔日, 守府今上當令者一牒, 它毋當令者, 敢言之. 兵曹. (정면) 正月辛未夕, 居貲士五(伍)少里□行. 取手. (배면)”



천릉현이 보유한 거자속채가 예신첩의 인원보다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sup>199)</sup> 문서 전달이 도예인 예신첩, 사구에 우선 부과된 후 인력이 부족한 경 우 한시적 노역자인 거자속채에 부과된 것과 관련될 것이다.

아울러 사례는 적지만 천릉현의 수졸이 문서 전달에 종사한 기록도 발견 되어 수졸이 행정 잡역에도 동원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졸이 문서를 전달한 사례를 살펴보면 문서 발송 주체가 尉가 아닐뿐더러 그 내용 역시 군사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戌卒이 문서를 전달한 두 사례 모두 貳春 鄉이 발신자이며 이송한 문서는 재판 관련 문서이다.<sup>200)</sup> 만일 수졸이 군사 관련 문서나 尉가 발송한 문서만을 전달했다면 수졸의 문서 전달이 戰鬪·戍 邊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수변과 무관한 재판 문서를 이송 하는 인력으로 수졸을 이용한 것은 수졸의 문서 전달이 그 본연의 업무 외 에 부가된 노역이었음을 의미한다. 결정적으로 畜官이 성부현 출신 更戌卒 을 ‘문서 전달자[行書徒]’로 지칭한 사실은<sup>201)</sup> 군사 업무와 무관한 기관이 수졸을 이용해 문서를 전달한 경우도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둘째, 吏의 보조·호송 직무인 僕·養·走는 사실상 隸臣이 전담하였다. 앞서 ‘隸臣 중 技巧가 있어서 工匠으로 삼을 수 있는 자를 僕·養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sup>202)</sup>는 규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규정은 사실상 예신첩이 僕·養을 독점 적으로 담당하였음을 시사한다. 원칙상 예신은 담장을 쌓거나 공전을 경작 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sup>203)</sup> 현실에서는 僕·養·走로 복역하는 일이 많

199) 이야진간 7-304간에 따르면 진시황 27년 천릉현의 예신첩은 116인, 진시황 28년에 추가된 예신첩은 35인으로 예신첩의 수는 151인이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8인이 사 망하였기에 예신첩의 총 인원은 123인이다. 반면 검수 거자속채 38인 중 사망자는 1 인으로 총 37인이었다. (『里耶秦簡博物館藏秦簡』 7-304, “廿八年遷陵隸臣妾及黔首居 賞贖責作官府課. ●泰凡百八十九人死亡衛(率)之六人六十三分人五而死亡一人(I 行) 已計廿七年餘隸臣妾百一十六人(II 行) 廿八年新●入卅五人(III 行) ●凡百五十一人其廿八 死亡●黔首居賞贖責作官卅八人其一人死(IV 行)”)

200) 『校釋(一)』 8-1459+1293+1466, “卅五年三月庚寅朔丁酉, 貳春鄉茲敢言之: 佐詘自言: 士 五, 居泥陽益固里. 故廢戌, 署女陰. 今□□□ 四歲. 謁告泥陽令[詘]□□ 前書畏其不□ (정면) 四月壬戌日入, 戌卒寄以來. 贖發. 詘手. (배면); 『校釋(二)』 9-15, “卅五年三月 庚寅朔丙辰, 貳春鄉茲爰書: 南里寡婦愁自言謁狼(墾)草田故桑地百廿步, 在故步北, 恒以 爲桑田. 三月丙辰, 貳春鄉茲敢言之, 上. 敢言之. /詘手 (정면) 四月壬戌日入, 戌卒寄以 來. /贖發. 詘手 (배면)”

201) 『校釋(一)』 8-143, “卅四年九月癸亥朔乙酉, 畜□□ (I 行) 蓋侍食羸病馬無小, 謁令官遣 □ (II 行) 病者無小, 今止行書徒更戌城父柘□□ (III 行) 之. /卅五年十一月辛卯朔朔日, 遷陵□□ (IV 行)”

202)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13, “隸臣有巧可以爲工者, 勿以爲人僕·養. 均”

았다. 경작, 건설, 운송 등의 여타 노동과 달리 僕·養·走를 담당할 수 있는 도예는 隸臣과 居貲贖債로 한정되었는데, 아래에 인용한 秦律을 통해 僕·養·走 업무와 예신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10) 司寇를 僕·養·官府를 지키는 자로 삼거나, 어떤 일을 하도록 임명해서는 안 된다. 상부에서 司寇를 임명하도록 명령하면 반드시 다시 청해야 한다.<sup>204)</sup>

(11) 倉律 曰: 隸妾을 吏의 僕·養이나 官府를 지키는 자로 삼아서 는 안 된다. 隸臣이 적어서 僕·養에 충당하기 부족하다면, 居貲·贖·債로 충당한다.<sup>205)</sup>

(10),(11)은 僕·養·守官府에 동원하는 예속 인력을 예신과 거자속채로 한정하고 司寇를 위의 노동에 동원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司寇는 庶人和 예의 사이에 해당하는 성격의 신분형으로<sup>206)</sup>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지른 자에 내려졌다. 秦은 사구에 城旦舂을 감시하는 일을 부과하였으나<sup>207)</sup> 僕·養이나 官府의 수비에는 동원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구에 대한 일종의 배려였을 것이다.<sup>208)</sup> (10),(11)에서 볼 수 있듯이 僕·養·走와 관청의 수비는 隸臣과 居貲贖債에게만 허락되었지만 거자속채 역시 예신이 부족한 경우에 대신 충당되었으므로<sup>209)</sup> 예신의 수가 충분한 경우에는 僕·養에 거자속채를 이용하지

203) 예신첩이 담장을 쌓는 일[垣]이나 이와 동등한 다른 토목공사에 종사할 경우 관부는 예신에게 아침에 ½斗, 저녁에 ¼斗 합계 일 ¾斗의 식량을, 예첩에게 일 ¾斗의 식량을 지급한 규정은 담장 축조나 토목공사가 예신첩에 부과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59, “免隸臣妾·隸臣妾垣及爲它事與垣等者, 食男子旦半夕參, 女子參. 倉.”)

204)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50, “司寇勿以爲僕·養·守官府及除有爲毆(也). 有上令除之, 必復請之. 司空” 동일한 내용의 律이 嶽麓秦簡 중에도 수록되어 있다. 『嶽麓秦簡(肆)』 簡271, “司寇勿以爲僕·養·守官府及除有爲毆(也). 有上令除之, 必復請之.”

205) 『嶽麓秦簡(肆)』 簡165, “●倉律曰: 毋以隸妾爲吏僕·養·官【守】府, 隸臣少, 不足以給僕·養, 以居貲贖責(債)給之.”

206) 李成珪, 『秦·漢의 형벌체계의 再檢討—雲夢秦簡과 <二年律令>의 司寇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85, 2003, pp.45-47.

207)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145-146, “毋令居貲贖責(債)將城旦舂. 城旦司寇不足以將, 令隸臣妾將. 居貲贖責(債)當與城旦舂作者, 及城旦傳堅·城旦舂當將司者, 廿人, 城旦司寇一人將. 司寇不踐, 免城旦勞三歲以上者, 以爲城旦司寇. 司空”

208) 任仲赫, 『秦漢律의 耐刑 —士伍로의 수렴 시스템과 관련하여—』, 『中國古中世史研究』 19, 2008, p.122.

않았을 것이다.

隸臣과 僕養·守官府 직무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기타 도예 즉 성단용·귀신백찬·예첩이 해당 직무와 무관하였음을 보여준다. 실제 律令은 물론, 행정 문서나 판례에도 성단용·귀신백찬·예첩이 僕養·走나 守官府에 종사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말단 행정의 보조역에 사실상 隸臣만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예신 외의 도예가 행정 잡역에 동원되지 않은 원인은 성별과 신분의 한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秦은 예첩과 여성 거자속채가 吏僕養·走·守府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sup>210)</sup> 동급 신분인 예신과 남성 거자속채가 위 노동을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치는 吏의 보조 업무를 여성 인력으로 충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부터 기인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량의 측면에서 볼 때 예신과 큰 차이가 없는 성단과 귀신이 僕養·走·守官府 노동으로부터 배제된 것은 그들이 가진 신분적 속성과 깊이 연관되었다.

성단의 신분적 속성 중 이동의 제한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가족을 구성할 수 있으며<sup>211)</sup> 作所 바깥에서 지내는 등<sup>212)</sup> 약간의 자유를 가진 예신과 달리, 성단은 가족을 몰수당하고 붉은 수의와 모자를 착용하며 차꼬를 찬 상태로 상시 감시를 받았다.<sup>213)</sup> 게다가 성단은 作所 바깥에서 노

209) 『嶽麓秦簡(肆)』簡262, “諸有賞贖責(債)者, 訾之, 能入者令入, 貧弗能入, 令居之. 徒隸不足以給僕養, 以居賞責(債)者給之.”

210) 『嶽麓秦簡(伍)』簡255-256, “●令曰: 毋以隸妾及女子居賞贖者爲吏僕、養、老、守府及毋敢以女子爲葆(保)庸, 令炊養官府、寺舍, 不從令, 貲二甲, 廢.”

211) 다음의 조항과 법률 해석은 秦의 隸臣이 처자를 거느릴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簡141-142, “隸臣有妻, 妻更及有外妻者, 責衣.”; 『睡虎地秦簡』『法律答問』簡116, “隸臣將城旦, 亡之, 完爲城旦, 收其外妻·子. 子小未可別, 令從母爲收.” ●可(何)謂「從母爲收」? 人固買(賣), 子小不可別, 弗買(賣)子母謂毆(也).”

212) 관부의 일에 복역하는 예신첩에 매월 각 禾 2石, 1.5石을 지급하되, 복역하지 않는 경우 식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 및 예첩 중 更隸妾과 冗隸妾의 구분이 존재한다는 규정으로 보아, 예신첩은 반드시 관부에 상주하거나 일 단위로 복역하지는 않았다.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簡49, “隸臣妾其從事公, 隸臣月禾二石, 隸妾一石半; 其不從事, 勿粟”;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簡54, “更隸妾節(即)有急事, 總冗, 以律稟食; 不急勿總. 倉”) 선행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일정한 생활 기반을 가진 예신첩과 성단용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예신첩이 비록 신분적으로는 도예이지만 사실상 관부의 위계질서 말단에 위치하는 존재라 간주했다. (陶安あんど, 『刑罰と身分』, 『秦漢刑罰體系の研究』, 東京: 創文社. 2009, p.58; 宮宅潔, 『漢代官僚組織の最下—「官」と「民」のはざま—』, 2012, p.30)

213) 성단용은 司寇의 감시[將司] 하에 노역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20명의 성단용마다 1인의 감시역이 붙었다. 진은 사구가 부족한 경우 예신첩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예신첩

역하기 위해 이동할 때는 市場을 가로지를 수 없었고 바깥에 머무르거나 숙박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sup>214)</sup> 僕·養·走는 소속 지역 내에서 吏에 봉사하기도 하였지만 吏가 繇使를 위해 향, 현의 경계를 넘을 때 동행해야 했으므로, 성단·귀신을 굳이 해당 노동에 배치하지 않은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다만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천릉현의 성단·귀신은 吏의 上計, 具獄에는 동행하였다. 작도부가 이들의 이동 업무에 대해 僕·養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면, [표 1]의 성단·귀신이 수행한 上計·具獄과 僕·養으로서 吏를 보조한 것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上計·具獄한 성단과 귀신이 천릉현 바깥으로 이동한 것은 분명하므로, 성단과 귀신이 僕·養·走到에 이용되지 않은 이유를 이동성의 제약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선행 연구는 이 점에 대해 秦이 성단보다 예신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신이 행정 잡역에 자주 동원되었다고 서술하였다.<sup>215)</sup> 혹은 성단용, 귀신백찬의 형벌이 예신첩의 형벌보다 무거우므로 형벌의 공평한 적용을 위해 예신이 담당하던 업무에서 이들을 제외하였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모두 설득력 있는 주장이나,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점은 전술한 ‘도에 신분의 탄생’이다. 앞서 1절에서 전국시대 秦이 필요한 중요 업무에 응하여 여러 도에 신분을 만들어 명칭을 붙임으로써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양산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 隸臣은 秦의 다양한 잡무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탄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록 시간이 흐르며 업무와 명칭 사이의 연결이 다소 흐려지는 와중에도 僕·養·走의 업무만큼은 여전히 隸臣이 담당하였을 것이다. 물론 예신도 경작, 건설에 동원될 수 있었으나, 그간의 관례나 사역 인력의 적합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예신을 僕·養·走到

마저 부족한 경우 성단용이 된 지 3년 이상이 지난 자를 城旦舂司寇로 삼아 성단용을 감시하도록 했다.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145-146, “毋令居賞贖責(債)將城旦舂. 城旦司寇不足以將, 令隸臣妾將. 居賞贖責(債)當與城旦舂作者, 及城旦傳堅·城旦舂當將司者, 廿人, 城旦司寇一人將. 司寇不踐, 免城旦勞三歲以上者, 以爲城旦司寇. 司空”; 『嶽麓秦簡(肆)』簡273-274, “城旦舂當將司者廿人, 城旦司寇一人將, 毋令居賞贖責(債)將城旦舂. 城旦司寇不足以將, 令隸臣妾將.”)

214) 『嶽麓秦簡(肆)』簡167-168, “●司空律曰: 城旦舂衣赤衣, 冒赤氎, 枸櫞杖之. 諸當衣赤衣者, 其衣物毋(無)小大及表裏盡赤之, 其衣裘者, 赤其裏, □伏, 衣之. 伏城旦勿將司, 舂城旦出繇(徭)者, 毋敢之市及留舍闔外, 當行市中者, 回, 【勿行】.”

215) 김동오, 『秦帝國 縣의 徒隸 운용 - 『里耶秦簡』作徒簿를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 40, 2016, p.33.

우선 배치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적합한 인력’인 예신으로 하여금 僕·養·走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예신의 현재 인원을 상시 확인하여 행정 말단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예신첩의 증감을 상신하거나<sup>216)</sup> 도예를 구입한 것<sup>217)</sup>은 바로 행정 잡역에 이용할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僕·養·走에 투입할 예신이 부족한 경우 원칙상 거자속채를 동원해야 하나 천릉현에서는 수졸이 吏僕<sup>218)</sup>, 吏養<sup>219)</sup>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徒隸가 하는 일에 임시 충당된[給] 戍卒이 23인이라는 기록<sup>220)</sup>은 예상보다 많은 수졸이 도예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을 보여준다. 秦律은 士伍를 징발, 吏僕으로 삼는 일을 금지했지만<sup>221)</sup> 戍卒이 된 이상 신분은 겸수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다양한 일에 동원된 듯하다. 특히 천릉현의 수졸을 도예의 업무에 ‘임시 충당’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변경의 군현은 인력이 부족할 때 수졸을 행정 잡무나 吏 보조역으로 이용하였다. 물론 수졸의 최우선 업무는 변경 방비였지만,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서는 군사 업무 외의 업무가 강제되기도 한 것이다.

셋째, 僕·養·走를 제외한 심부름과 잡무에는 대부분의 도예와 거자속채가 투입되었다. [표 1]~[표 4] 중 ‘행정 잡무’로 분류된 上省<sup>222)</sup>, 與吏上計, 與史

216) 예컨대 현재 천릉현의 예신첩이 인원보다 15인이 부족하다는 보고나(『校釋(一)』 8-986, “遷陵隸臣員不備十五人.”) 사망한 예신첩과 새로 온 예신첩, 전체 예신첩의 수를 주기적으로 장부로 작성한 예(『校釋(一)』 7-304, “廿八年遷陵隸臣妾及黔首居貲贖責作官府課。●秦凡百八十九人死亡衛(率)之六人六十三分人五而死亡一人。已計廿七年餘隸臣妾百一十六人 廿八年新●入卅五人 ●凡百五十一人其廿八死亡●黔首居貲贖責作官府卅八人其一人死。令拔丞昌守丞臚之倉武令史上, 上逐。除倉佐尙司空長史舒當坐”)를 확인할 수 있다.

217) 다음 9-1406간은 진시황 29년 천릉현이 도예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지출을 少內에 요청한 문서의 일부로 여겨진다. (『校釋(二)』 9-1406, “廿九年少內匱 買徒隸用錢三萬三千□□ 少內根佐之主.”) 도예를 구입할 경우 縣은 매월 1일에 그 수와 비용을 태수부에 보고해야 했다. 민간인의 노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예신첩과 同級으로 간주되었으므로, 縣이 구입한 노비는 예신첩 신분으로 재편되었을 것이다.

218) 『校釋(一)』 8-106, “匱遷陵戍卒多爲吏僕, 吏僕匱”

219) 예컨대 진시황 35년 어떤 戍卒의 贖耐罪를 고발해 포상금을 받은 更戍 得은 사오 신분의 수졸이지만 공식적으로 吏養에 종사하고 있었다. 『校釋(一)』 8-811+8-1572, “錢三百五十。卅五年八月丁巳朔癸亥, 少內沈出以購吏養城父士五(伍)得。得告戍卒贖耐罪惡.”

220) 『校釋(二)』 9-1581. “戍卒給徒隸事者廿三人”

221) 『嶽麓秦簡(肆)』 簡154, “●繇(徭)律曰: 毋敢傳(使)段(假)典居旬于官府; 毋令士五(伍)爲吏養, 養馬.”

222) 『校釋(二)』는 ‘上省’을 課省의 결과를 상부로 올려 보고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는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중 省이 성적, 고과를 평가하는 행위로 기록된 데

具獄<sup>223)</sup>, 與少內殷買徒衣, 生漆의 採取는 모두 특정 업무를 위해 도예가 吏와 함께 이동한 것이다.<sup>224)</sup> 단, 여기에 동원된 도예는 僕·養·走와 같이 특정한 역할을 하였다기보다 단순 보조, 심부름을 담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일종의 특정 직무인 僕·養·走과 달리, 이러한 노동은 특정 대상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전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단용이나 귀신백찬도 종종 동원된 듯하다.

거자속채 역시 이러한 종류의 잡무를 담당했다. ‘居貲責’을 사역한 기록에 따르면 居貲責인 大男子 4인은 ‘與吏上事泰守府’와 ‘廨’에 각 1인씩 동원되고, 2인은 庫에 파견되었다.<sup>225)</sup> ‘廨’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상이나 應劭 등은 사역, 혹은 땀감을 취하는 노역으로 注解하였다.<sup>226)</sup> 그러나 진대 작도부가 노역의 종류와 노역 장소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廨를 단순한 ‘사역’으로 보기 어렵다. 이야기진간의 ‘廨’가 항상 병자와 관련되는 사

있다. (陳偉 主編, 『校釋(二)』, p.460)

223) 秦의 具獄이란 법률 안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에 가서 직접 참고인, 증인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경계를 넘는 출장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 (沈剛, 『徭使與秦帝國統治: 以簡牘資料爲中心的探討』, 『社會科學』 2019(5), 2019) 獄佐, 士吏가 具獄을 위해 경계를 넘을 때 지나는 현, 향이 식량을 지급하도록 요청한 문서는 이야기진간 5-1간에서 볼 수 있다. (『校釋(一)』 5-1, “元年七月庚子朔丁未, 倉守陽敢言之: 獄佐辨·平·士吏賀具獄, 縣官食盡甲寅, 謁告過所縣鄉以次續食. 雨留不能投宿. 來復傳. 零陽田能自食. 當騰期卅日. 敢言之. / 七月戊申, 零陽徙移過所縣鄉. / 齎手. / 七日庚子朔癸亥, 遷陵守丞固告倉嗇夫: 以律令從事. 嘉手.”)

224) 본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천룡현 도예의 업무를 분석한 선행 연구는 ‘上省’을 ‘행정 잡무’가 아닌 ‘기타 항목’으로 처리했다. (김동오, 『秦帝國 縣의 徒隸 운용 - 『里耶秦簡』 作徒簿를 중심으로』, 2016, pp.25-27) 그는 인원을 다른 부서로 돌려 다른 일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省’이라고 부르는 居延漢簡의 예에 비추어 ‘上省’을 상부 기관으로 도예를 이송, 노역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도예를 타 기관으로 보내는 경우 기관명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작도부의 일반적 용례라는 점, 그리고 진물의 ‘省’이 고과의 평가와 관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上省’을 ‘고과를 상부 기관에 올리는 작업’으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225) 『校釋(一)』 8-1586, “□貲責 / □大男子五人. / 一人與吏上事泰守府. / 一人廨(廨). / 二人□庫.”

226) 『校釋(一)』은 ‘廨’를 ‘廨’의 통가자로 읽었는데 문헌 사료에서 ‘廨’는 주로 ‘役’와 합성되어 등장한다. ‘廨’에 대한 주해는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땀감을 취하는 일이라고 보기도 하고(『漢書』 卷32 『張耳陳餘傳』, p.1833, “有廨養卒謝其舍曰: 吾爲二公說燕, 與趙王載歸.” 【蘇林曰: ‘廨, 取薪者也.』”) 혹은 단순히 使役이라고 보기도 한다. (『漢書』 卷57下 『司馬相如傳』, p.2595, “廨征伯僑而役羨門兮, 詔岐伯使尙方.” 【應劭曰: ‘廨, 役也.』”) 그런데 이야기진간은 땀감을 취하는 작업을 ‘取薪’이라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廨’를 모종의 잡역으로 보았다.

실<sup>227)</sup>을 상기하면 ‘癰’은 縣 내의 의료기관으로 추측되지만, 여타 사료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자속채가 癰舍 혹은 癰舍에서의 노역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은 명확하다. 癰舍 守와 佐가 오직 居貲<sup>228)</sup>·居貸<sup>229)</sup>에게만 식량을 대여한 점과 예신첩, 성단용의 노동 중 癰舍, 癰와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 근거이다. 그렇다면 ‘癰’은 주로 거자속채가 담당한 노동으로 구체적으로는 癰舍에서의 노동이나 관리, 간호 등의 노역을 지칭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거자속채는 몇 가지 행정 잡무에 동원되었으나, 예신첩·성단용의 기록보다 수량이 현저히 적어 그 내역을 통계로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오히려 거자속채가 가진 인력 자원으로서의 특성을 방증하기도 한다. 거자속채의 사역 기록이 적은 사실은 곧 이들이 도예보다 수적으로 적었거나 혹은 적게 동원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거자속채는 도예처럼 신분이 계승되는 일은 없었으므로 큰 이변이 없는 한 그 수가 크게 증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거자속채는 黔首 신분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授田 경작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官은 파종철, 모내기철에 거자속채가 각 20일간 家에 돌아가도록 규정하였다.<sup>230)</sup> 이러한 이유로 거자속

227) 『校釋(二)』 9-434+9-464, “運食鄉部卒及徒隸有病及論病者, 卽癰縣及癰其部, 固皆上志治粟府”; 『校釋(二)』 9-1114, “卅(廿)六年十一月甲申朔戊子, 鄢將奔命尉沮敢告貳春鄉主: 移計二牒署公段于牒, 食皆盡戊子, 可受癰續食, 病有瘳遣從等.”; 『校釋(二)』 9-2086+2115, “□□沅=陵=庾=上=衍=安陽庾□□ □癰及論病有瘳及論□”

228) 『校釋(二)』 9-1937+1301+1935, “廿六年七月庚戌, 癰舍守宣·佐秦出稻粟=四斗少半斗以貸居貲士五胸忍脩仁齊, 積十三日, 日少半斗. 令史慶監□”

229) ‘居貲(貸)’은 이야기간 2권에서만 보인다. 당초 『里耶秦簡(貳)』는 이를 ‘居貲’로 석독하였으나 도판의 字形이 ‘貲’와 구별되기 때문에 『校釋(二)』는 居貲가 아닌 ‘居貲(貸)’로 교석하였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이들이 관부에서 노역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율령 및 행정문서에 ‘居貲(貸)’이라는 명칭의 노역방식/노역자는 보이지 않는다. 거자, 거속과 마찬가지로 관부로부터 무언가를 빌리고[貸] 이를 갚기 위해 노역하는 자들로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居債’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단, 貲(貸)과 賃는 자형이 유사하기에 誤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하, ‘居貲(貸)’이 癰舍에서 곡식을 대여한 기록이다. 『校釋(二)』 9-502+1562, “廿六年七月庚戌, 癰舍守宣·佐秦出稻粟米一石一斗半斗, 以貸居貲(貸)士五(伍)胸忍陰里冉□積卅日. 其廿一日, 日少半斗; 其九日, 日少斗. 令史慶監.” 『校釋(二)』 9-1903+2068, “廿六年七月庚戌, 癰舍守宣·佐秦出稻粟米二斗以貸居貲(貸)士五(伍)巫濡留利, 積六日, 日少半斗. 令史慶監. □”; 『校釋(二)』 9-2303+2292, “卅六年五月庚戌, 癰舍守歐·佐秦出粟米四斗一升泰半升, 以食癰舍居貲士五胸忍宜新符, 積十三日, 日少半斗積四斗少半升. 令史監□”

230)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44, “居貲贖責(債)者歸田農, 種時: 治苗時各二旬. 司空”

체가 官 소속으로 도예와 같은 부문의 일에 종사해도 세부적인 업무의 종류, 강도, 동원 횟수 상 도예의 사역과는 구분되었을 것이다. 거자속체가 성단용의 감시 업무에 동원될 수 없던 것은 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居貲贖責에 城旦舂을 감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감시할 城旦司寇가 부족하면 隸臣妾이 감시하도록 한다. (….) ㉡司寇가 부족하면 城旦 중 勞가 3歲 이상인 자를 免하여 城旦司寇로 삼는다.<sup>231)</sup>

위 조문의 ㉡은 본래 성단용 감시가 司寇의 업무임을 보여준다. 단, 사구가 부족한 경우에는 城旦 중 복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를 선발해 城旦司寇로 삼아 성단용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만일 성단사구마저 부족하다면 ㉠에서 볼 수 있듯이 隸臣妾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반면 거자속체는 성단용 감시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운송] 항목에서 확인하였듯이 거자속체는 보통 도예 다음으로 동원되었으나, 성단용 감시라는 업무에는 후순위로도 동원되지 않았다. 이 점은 黔首 신분에 속하고 한시적으로 노역하는 거자속체의 속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관부에 완전히 예속되지 않은 자가 도예를 감시할 경우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秦은 업무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거자속체를 도예의 후순위로 동원하거나 일부 업무에서는 아예 배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거자속체는 관부의 중심 인력이라기보다 기한 한정 노역자로서 주 노동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행정 잡무는 문서 전달, 吏의 보조 및 호송, 관 물품 구입 및 수령, 심부름 등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였다. 여기에는 예신첩, 성단용, 귀신백찬, 거자속체, 심지어 수졸도 동원되었으나, 吏를 보조하는 특정 직무인 僕·養·走는 사실상 隸臣의 업무에 해당하였다. 吏가 존재하는 이상 吏의 僕·養·走는 항시 일정 인원 이상이 필요하였으므로 秦은 이를 隸臣에게 부과하였고, 예신은 경작을 비롯한 다른 업무보다 僕·養·走到에 우선 동원되었다. 이로써 행정 말단의 보조 인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231)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145-146, “毋令居貲贖責(債)將城旦舂. 城旦司寇不足以將, 令隸臣妾將. 居貲贖責(債)當與城旦舂作者, 及城旦傳堅·城旦舂當將司者, 廿人, 城旦司寇一人將. 司寇不踐, 免城旦勞三歲以上者, 以爲城旦司寇. 司空”



## [군사 업무]

秦의 군사 업무는 대부분 黔首의 인력으로 충당되었다. 秦은 병역의 의무를 지니거나 병역에 징발된 사람을 ‘卒(혹은 戍卒)’로 명명하였고, 각각의卒은 징발 방식 혹은 직역에 따라 屯戍(卒), 更戍(卒), 乘城卒, 縣卒 등으로 기재되었다.卒은 변경의 군사적 거점을 방어함으로써 제국의 외연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 잡무 혹은 생산 업무에도 동원되었다. 전국 말, 통일 초의 秦은 전투와 수비에 많은 공력을 들였으며 군사적 업무를 인력을 동원해야 할 주요 부문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병역에 동원된卒은 모두 제국의 중요한 인력 자원으로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秦의卒(戍卒)은 대부분 징발에 응하여 병역을 수행하는 검수로 구성되었으나, 때로는 징발 외의 이유로 수변하는 이들도 존재하였다. 아래에서는 징발 혹은 處罰·自願에 의해 수변하는卒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징발되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戍卒에 대해 살펴보자. 嶽麓秦簡 戍律이 출토되면서 秦의 징병제도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래의 인용문은 戍卒 징발에 관한 秦律이다.

(12) 戍律 曰: 수자리[戍]는 월 단위로 교대한다. 君子가 40일 이상 관직을 대행했다면[守官] 戍 1更을 덜어준다. 함께 사는 가족을 동시에 복역하게 해서는 안 된다. 律을 따르지 않으면 (담당 관리를) 貲 2甲에 처한다.<sup>232)</sup>

(13) 戍律 曰: 下爵者가 上爵者의 수자리를 대신하고자 하거나 上爵者가 下爵者의 수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 및 無爵者가 有爵者의 수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허락한다. 신체가 허약한 자나 동일 縣 소속이 아닌 자로써 서로 (수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sup>233)</sup>

(12)는 秦代 수졸의 징발 및 복무가 月 단위로 이루어진 사실을 전한다. 漢

232) 『嶽麓秦簡(肆)』簡183, “●戍律曰: 戍者月更. 君子守官四旬以上爲除戍一更. 遣戍, 同居毋並行. 不從律, 貲二甲.”

233) 『嶽麓秦簡(肆)』簡182, “●戍律曰: 下爵欲代上爵、上爵代下爵及毋(無)爵欲代有爵者戍, 皆許之. 以弱代者及不同縣而相代, 勿許.”

代의 남성은 1년간 力役하고 1년간 屯戍하였으므로<sup>234)</sup> 秦의 병역제도도 유사한 것으로 추측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戍者月更’의 戍律이 발견된 이상, 진의 성인 남성은 1년 동안 평생의 병역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소속 군현에 부여된 순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해진 月數만큼 복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진의 ‘戍者月更’을 추가적으로 입증할 기록은 없지만, 呂后 5년에 수졸을 1년 단위로 교대하도록 했다는 기록<sup>235)</sup>과 “戍함에 남거나 모자라는 바가 있다면 이듬해로 넘겨 계산하라”는 여후 2년의 徭律<sup>236)</sup>이 존재한다. 만일 1년 단위로 수졸이 교대했다면, 기한을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 초과한 일수를 다음 해로 넘겨 계산하라는 律을 이해하기 어렵다.<sup>237)</sup> 그렇다면 이 律이 작성된 여후 2년 시기의 수졸들도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복무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漢初의 여러 제도, 법률이 대개 秦을 계승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秦 수졸 역시 월 단위로 복무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sup>238)</sup>

(13)은 진대에도 병역 대역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자료인데, 여기에 명시된 대역의 조건으로부터 당시 수졸 징발이 현 단위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은 하작자가 상작자의 수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허락하고, 건강이 약하거나 다른 縣 소속인 자를 대신하는 것은 엄금하고 있다. 건강 상태가 동등하지 않은 경우 대역을 허락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縣이 같은 자를 대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은 병역 복무가 현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만

234) 李成珪, 『前漢 更卒의 徵集과 服役 方式-松柏木牘 47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09, 2009.

235) 『史記』 卷22 『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第十』, p.1124, “令戍卒歲更”

236)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簡414, “戍有餘及少者, 隕後年.”

237) 楊振紅, 『徭·戍爲秦漢正卒基本義務說—更卒之役不是“徭”』, 『中華文史論叢』 2010(1)(總第九十七期), 2010, pp.356-358.

238) 단, 이러한 복무 방식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자리를 서는 변경 지역을 왕복하는 데만 1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단 몇 개월만 복무한다면 오히려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위의 戍律이 통일 이전, 진의 영토가 內史 인근에 한정된 시기의 遺制였고 실제로는 수졸이 장기간 근무하면 이후 수년간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식이 시행되었으리라고 추측한 宮宅潔의 연구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진의 검수가 원칙상 매년 1개월씩 수졸로 복무해야 했지만, 예컨대 수졸로 징발되어 1년 12개월간 일했다면 12년간의 윤번근무를 했다고 간주되어 향후 11년간은 수졸로서의 역무가 면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宮宅潔, 『秦代徵兵制度の現在—基本史料の解釋をめぐって』, 『歴史と地理: 世界史の研究』 256, 東京: 山川出版社, 2018, pp.7-8)

일 병역 징발의 단위가 현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진대에는 병역 징발이 현을 단위로 이루어졌고, 병역에 복무하는 지역 역시 현을 기준으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이 가설은 천릉현 소속 更戍의 관적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更戍는 문자 그대로 윤번으로 수자리를 서는 자들로, 이들이 월 단위로 교대하였다면 천릉현의 更戍는 바로 외부로부터 파견, 교대되는 수졸에 해당할 것이다.<sup>239)</sup> 이야진간 중의 更戍는 모두 검수 신분이며 관적이 확인되는 17명 중 14명이 淮陽郡 城父縣 출신이다. ([표 6] 참고) 이 점은 당시 어떤 현의 更戍를 특정 현에 집중 배치하는 행정 방식이 존재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sup>240)</sup> 예컨대 城父縣 검수는 천릉현에서 수자리를 서도록 결정되어 있던 것이다.

[표 6] 遷陵縣 소속 更戍의 貫籍, 爵, 姓名

	貫籍	爵	성명	기년	출처
1	城父縣 柘里(?)			35년	『校釋(一)』 8-143
2	城父縣 陽里	士伍	鄭得		『校釋(一)』 8-850, 『校釋(二)』 9-918
3	城父縣 陽耀里	士伍	佃		『校釋(一)』 8-980
4	城父縣 中里	士伍	簡		『校釋(一)』 8-1000
5	城父縣 蒙里				『校釋(一)』 8-1024
6	城□	士伍		34년	『校釋(一)』 8-1401
7	城父縣 陽耀里	士伍	執	35년	『校釋(一)』 8-1517
8	城父縣 西中里	士伍	瘞	35년	『校釋(一)』 8-1517
9	城父縣 □里	士伍	陽	35년	『校釋(二)』 9-56+1209+1245+1928+1973
10	虞縣 吉里	上造			『校釋(二)』 9-268
11	留縣 滎陽里	不更	售		『校釋(二)』 9-363
12	雩縣 西昌里	不更	禮		『校釋(二)』 9-672+9-701
13	城父縣 成里	士伍	產	34년	『校釋(二)』 9-757
14	城父縣 西平里	公士	賀	34년	『校釋(二)』 9-885
15	城父縣 左里	不更	節		『校釋(二)』 9-1980
16	城父縣 樂里	士伍	順	34년	『校釋(二)』 9-2203
17	城父縣 □	簪褭	利?	32년	『校釋(二)』 9-2290+9-2215
18	城父縣 西章里	士伍	義	32년	『校釋(二)』 9-2290+9-2215
19	城父縣 平□	簪褭		32년	『校釋(二)』 9-2290+9-2215

\*未詳인 경우 빈칸으로 처리

239) 李成珪, 『數의 帝國 秦漢 : 計數와 計量의 支配』, 2019, p.387.

240) 李成珪, 『數의 帝國 秦漢 : 計數와 計量의 支配』, 2019, p.392.

원칙상 진의 모든 검수는 병역에 복무해야 했지만, 吏는 병역이 면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41)</sup> 율령 중 吏의 수변과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으며 吏의 戍邊을 전하는 기록은 모두 吏의 처벌과 관계되어 있을 뿐, 일반적인 수변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吏는 수변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吏의 특권인 동시에 吏가 문서 행정 체제를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존재인 것과도 관련되었다. 秦代의 吏는 소속 관서에서 행하는 본업 외에도 부가적인 요역에도 종사하고 있었다. 이 요역은 ‘徭使’로 명명되는데, 주로 소속 현 바깥으로의 출장이나 차출을 의미한다. 遷陵縣의 吏員을 기록한 문서<sup>242)</sup>를 통해 吏가 徭使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빈번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吏가 관서를 떠나 있는 사이에는 반드시 다른 吏나 혹은 유작자가 업무를 대행해야 했다. 12)는 君子가 守官, 즉 官吏로서 대행을 40일 이상 할 경우 戍 1更을 면제해 준다고 규정했다. 君子의 政務 대행은 官齋夫가 부재할 경우 ‘君子毋害者’를 대행자 중 하나로 규정한 것<sup>243)</sup>에서도 보인다. 이 경우 유작자가 관리의 역할을 대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를 위해 그만큼의 노동력을 바쳤다고 간주, 戍役을 면제한 것으로 여겨진다. 관의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휘하의 佐·史가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君子 중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므로<sup>244)</sup> 吏의 꺾석이 많아질수록 행정적 공백이 커졌을 것이다. 吏가 병역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특권이었으나 행정 공백과 잦은 대행을 막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였다.

수졸이 수변할 지역에 도착하면 尉는 각 卒의 도착 여부 및 신상 명세를 확인하고<sup>245)</sup> 배속을 정했다. 배속이나 직역에 따라 卒은 乘城卒, 縣卒로 명

241) 李成珪, 「秦의 地方行政組織과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 31, 1989, p.76.

242) 『校釋(二)』 9-633, “官齋夫十人 今見五人 倉吏三人  
其二人缺 官佐□十三人 其二人缺  
三人徭使 其一人缺 今見一人  
今見五人 廿二人徭使 凡見吏五十一人”  
校長六人 今見廿四人  
其四人缺 牢監一人

243)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61, “官齋夫節(即)不存, 令君子毋(無)害者若令史守官, 毋令官佐·史守. 置吏律”

244) 주석 232) 참고.

245) 臨沮縣 출신 수졸이 정해진 날짜에 도착하지 않자 천릉현의 尉가 천릉현에 연락을 하고, 천릉현이 다시 임저현을 통해 임저현 尉에 정황을 물은 사건은 타현 출신 수졸의 관리 방식을 잘 보여준다. 『校釋(一)』 8-140, “□朔甲午, 尉守備敢言之: 遷陵丞昌曰:

명되기도 하였고, 복무 방식에 따라 屯戍, 更戍로 분류되기도 하였다.<sup>246)</sup> 혹은 이러한 구분 없이 戍卒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천릉현에 도착한 수졸은 대개 현의 군사적 업무를 담당했으나 때로는 洞庭郡으로 차출되어 복무하였는데, 예컨대 진시황 35년 3월 천릉현의 倉嗇夫 銜은 尉府, 즉 郡尉에 給事할 吏와 卒의 명단을 적은 문서를 보내며 이들이 동정군에 이르는 동안 지나는 현과 향이 차례대로 식량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sup>247)</sup> 당시 郡尉에 파견된 자들은 문서의 배면에 적힌 令佐 溫과 城父縣 출신의 更戍 執, 更戍 瘞인데, 이들은 단순히 군에 파견된 것이 아니라 ‘郡尉’에 파견되었으므로 군의 군사적 업무에 동원되었을 것이다.

둘째, 일반 징발 이외의 원인으로 수변에 종사하는 卒도 존재하였다. 검수의 인력은 주로 정기적 징발을 통해 국가에 흡수되었지만 秦律에는 처벌의 일환으로 혹은 스스로 원해서 추가로 병역에 복무하는 卒도 보인다. 이러한 수졸은 罰戍·適戍, 冗募戍卒 등으로 명명되었다. 물론 수졸 중 징발된 齊民이 차지하는 비중은 罰戍, 冗戍의 비중을 훨씬 상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罰戍, 適戍, 冗募戍卒 역시 검수의 신분을 유지하며 병역에 종사하였으므로 군사 업무에 동원된 인력의 한 부분으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罰戍란 어떤 죄에 저촉되어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수변하는 행위 혹은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벌수는 ‘罰戍×歲’로 표현하지만, 종종 ‘罰’을 생략해 ‘戍×歲’, ‘戍故徼×歲’라고도 하며, 吏가 罰戍하는 경우는 ‘吏以卒戍’로도 지칭한다. ‘罰’이 생략된 경우라도 그 전면에 범죄 사실이 병기되어 있다면 맥락상 罰戍로 이해할 수 있다.<sup>248)</sup> ‘戍故徼×歲’의 ‘故徼’는 통일 전 秦과

屯戍士五(伍)桑唐趙歸 日已, 以迺十一月戊寅遣之署. 遷陵曰: 趙不到, 具爲報. ●問: 審以卅 日【署】, 不智(知)趙不到故, 謁告遷陵以從事. 敢言之. 六月甲午, 臨沮丞禿敢告遷陵丞主·令史, 可以律令從事. 敢告主. 胥手. 九月庚戌朔丁卯, 遷陵丞昌告尉主, 以律令從事.”

246) 小林文治, 『里耶秦簡よりみた秦邊境における軍事組織の構造と運用』, 早稻田大學長江流域文化研究所 編, 『古代史論文集: 政治·民族·術數』, 東京: 雄山閣, 2016.

247) 『校釋(一)』 8-1517, “卅五年三月庚寅朔辛亥, 倉嗇敢言之: 疏書吏·徒上事尉府者牘北(背), 食皆盡三月, 遷陵田能自食. 謁告過所縣, 以縣鄉次續食如律. 雨留不能投宿. 當騰騰來復傳. 敢言之. (정면) 令佐溫. 更戍士五城父陽翟執. 更戍士五城父西中瘞. 胥手. (배면)”

248) 예컨대 군량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데 군량을 지급한 경우의 처벌 조항을 볼 수 있다. 이때 식량 지급에 관여한 자들은 모두 糲 2甲에 처하고 吏는 廢하며, 吏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2년간 수변하도록[戍二歲] 했다. 맥락상 이는 과실에 대한 처벌로, 일만적 병역이 아닌 벌수에 해당한다. 『睡虎地秦簡』 『法律雜抄』, 簡11-13, “不當稟軍中

옛 六國 사이의 경계였던 곳으로 통일 전후 시점에 이미 秦의 영토가 되었지만 이민족이 거주하거나 옛 육국민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아 변경으로서 인식되는 지역이었다. 잘못을 저지른 吏를 新地吏로 삼는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新地에서 근무하는 일은 대단히 기피되어, ‘戍故徼’는 사실상 罰戍와 동일하게 여겨졌다. 수을 범한 자 1인 이상을 고발하면 1년간 고요에서 수 자리 서야 하는 사람 1명의 죄를 면제하는<sup>249)</sup> 조문과, 군량을 운송하는 吏가 잘못을 저질렀으나 근무경력이나 賞賜로 불이익을 주기 어려운 경우 고요에서 4년간 罰戍하도록 하는<sup>250)</sup> 조문으로부터 ‘戍故徼’가 사실상 처벌로 기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吏가 罰戍하는 상태는 ‘吏以卒戍’라 지칭했다. 도적과 마주친 상황에서 도망쳤거나 혹은 대적할 힘이 충분한데도 두려워 나아가지 못한 경우, 吏徒를 이끈 관리는卒 신분으로 변경을 수비해야 했다[以卒戍邊].<sup>251)</sup> 즉 ‘吏以卒戍’는 吏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병역으로, 罰戍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sup>252)</sup>

아울러 秦에는 適戍라고 불리는 戍卒도 존재하였다. 秦의 통치 이념을 해치는 자들은 適戍로서 각 변경에 보내졌는데, 가령 진시황 33년에 陸梁의 땅을 취하여 계림군, 상군, 남해군을 설치한 후 逋亡한 자, 贅壻, 賈人을 징발하여 해당 지역을 지켰다는 『史記』의 기록<sup>253)</sup>을 볼 수 있다. 적수는 비교적 무거운 죄를 지었거나 진이 비천하게 여긴 신분에 해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귀환이 불가능했다는 설도 제기되었다.<sup>254)</sup> 그러나 城父縣 繫陽里 소속

而稟者, 皆賞二甲, 法(廢); 非吏毆(也), 戍二歲; 徒食·敦(屯)長·僕射弗告, 賞戍一歲. ●軍人買(賈)稟稟所及過縣, 賞戍二歲.”

249) 『嶽麓秦簡(肆)』簡377, “六月, 其女子作居縣, 以當戍日. 戍告犯令者一人以上, 爲除戍故徼一歲者一人.”

250) 『嶽麓秦簡(伍)』簡150-151, “諸不在此令中而買爲之, 及雖在令中買爲而□□, 皆爲私【利】. □□□錢以上, 皆毋行其勞論. 賜. 其毋勞論而有賜及毋勞論. 賜者, 皆罰戍故徼四歲, 有(又)毋行其賜而皆沒入其所爲私利縣官.”

251) 『張家山漢簡』『二年律令』, 簡142-144, “與盜賊遇而去北, 及力足以追逮捕之而官□□□□逗留畏吏弗敢就, 奪其將爵一綵<級>, 免之, 毋爵者戍邊二歲; 而罰其所將吏徒以卒戍邊各一歲. 興吏徒追盜賊, 已受令而逋, 以畏吏論之. 盜賊發, 士吏·求盜部者及令·丞·尉弗覺智, 士吏·求盜皆以卒戍邊二歲, 令·丞·尉罰金各四兩.”

252) 孫聞博, 『秦及漢初“徭”的內涵與組織管理』, 『秦漢軍制演變史稿』,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6, p.298.

253) 『史記』卷6 『秦始皇本紀』, p.253, “三十三年, 發諸嘗逋亡人·贅壻·賈人略取陸梁地, 爲桂林·象郡·南海, 以適戍.”

254) 黃今言은 적졸의 복역 기간이 매우 길었고 다시 귀향할 수 없었을 뿐더러 戰功을 세워도 賞賜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았다고 보았다. (黃今言, 『兵員의徵集』, 『秦漢軍制

士伍 枯가 賈人의 딸을 처로 삼은 죄로 4년간 수변한다는 기록<sup>255)</sup>은 비록 적수가 징발된 수졸에 비해 오랜 기간 복역하였으나 복역 기간이 무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문서에서 枯가 ‘適戍’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진이 賈人을 적수로 삼았다는 기록이 존재하므로 賈人과의 통혼을 이유로 수변한 枯도 적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대 별수, 적수는 어떤 과정을 통해 배속되고, 어떤 일에 종사했을까? 별수, 적수는 소속 郡에 따라 배속지가 결정되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진시황 26년 전후에 작성된 令은 거주 지역에 따라 별수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었음을 보여준다.<sup>256)</sup> 令에 따르면 南郡 출신이 동쪽의 고요를 수변해야 할 경우 衡山郡에 보냈다고 하는데, 진시황 25년에 남군 소속 별수를 실제로 형산군에 보낸 판례<sup>257)</sup>가 존재하므로, 위 令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sup>258)</sup> 천릉현 소속 별수의 관적에서도 본적지-파견지 사이의 일정한 관계성이 나타난다.

[표 7]은 천릉현에 배속된 별수(罰戍, 吏以卒戍, 適戍)가 모두 關中 지역 혹은 六國 점령이 시작되기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關外の 秦郡 출신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巴郡 출신이 다수 눈에 띄어, 동정군과 파군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앞서 城父縣 소속 更戍가 대거 보이

史論』, 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93, p.112) 반면 廖伯源은 적수가 반드시 장기간 수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적수란 신분이 비천하여 수변하는 자로, 딱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에 변경의 상황이 긴급한 때에만 필요에 따라 파견되었다고 보았다. 즉 별수는 수졸이 부족한 시기에 수변하고, 변경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귀향했다는 것이다. (廖伯源, 「《尹灣漢簡簡牘·東海郡下轄長吏不在署·未到官者名籍》釋證」, 『秦漢史論叢』, 臺北: 五南圖書出版公司, 2003, p.282)

255) 『校釋(一)』 8-466, “城父蔡陽士五(伍)枯取(娶)賈人子爲妻, 戍四歲”

256) “縮請許而令郡有罪罰當戍者, 秦原署四川郡; 東郡·參川·潁川署江胡郡; 南陽·河內署九江郡.”(악록진간 중 미출판간 簡0706); “河內署九江郡; 南郡·上黨□邦道當戍東故徼者, 署衡山郡.”(악록진간 중 미출판간 簡0383) (陳松長, 「岳麓書院藏秦簡中的郡名考略」, 『湖南大學學報』 2009(2), 2009, p.9)

257) 『嶽麓秦簡(參)』 簡13, “五月甲辰州陵守縮丞越史獲論令癸瑣等各贖鯨. 癸·行戍衡山郡各三歲以當【法】”

258) 다만 이 令의 규정은 이야진간의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令에 따르면 영천군의 별수는 江胡郡으로 보내야 하지만, 이야진간 중에는 영천군 출신 별수가 보인다. 令 중 승상 王縮이 등장하므로 이 令은 진시황 26년 전후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천릉현은 25년에 처음 설치되었고 이야진간의 별수 기록은 대개 진시황 31년~33년의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약 5년의 시간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진의 영토가 확장되고 새로운 故徼가 늘어나면서 파견 지역이 확대되는 등 다소의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適戍 枯 역시 회양군 성부현 출신이다. 즉 구육국의 지배 영역에 존재하는 군 사이에는 점령 기간에 의한 구분이 존재하였고, 보다 오래된 점령지역으로부터 통일 직전에 점령된 지역으로 별수가 운송되는 방식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59)</sup> 郡마다 별수의 파견지가 확정되어 있었다면 별수를 보내는 군은 별수가 배정될 군으로 미리 문서를 이송, 통지하였을 것인데, ‘資中縣 宕登里의 별수 爽이 천릉에서 복무하는 문서’<sup>260)</sup>라는 제목이 적힌 죽간은 바로 이 과정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다.

[표 7] 遷陵縣 罰戍, 吏以卒戍, 適戍의 貫籍<sup>261)</sup>

	貫籍	현재 신분	爵	성명	출처
1	巴郡 資中縣 宕登里	罰戍		爽	『校釋(一)』 8-429
2	南郡 醴陽縣	罰戍	士伍	祿	『校釋(一)』 8-761
3	內史 懷德縣 中里	罰戍	簪裹	悍	『校釋(一)』 8-781+8-1102
4	潁川郡 襄城縣	罰戍	公卒	武	『校釋(一)』 8-2246
5	上郡 宜都縣	罰戍	公卒	都肱	『校釋(一)』 8-2246
6	漢中郡 長利縣	罰戍	士伍	甌	『校釋(一)』 8-2246
7	潁川郡 襄(城)縣 武宜里	罰戍	公卒	都趙	『校釋(二)』 9-763+9-775
8	巴郡 涪陵縣 戲里	吏以卒戍	士伍	去死	『校釋(一)』 8-1094
9	巴郡 涪陵縣 亭里	吏以卒戍	上造	橋	『校釋(一)』 9-630+9-815
10	巴郡 朐忍縣	吏以卒戍	士伍		『校釋(二)』 9-2204
11	淮陽郡 城父縣 繫陽里	適戍	士伍	枯	『校釋(一)』 8-466

\*未詳인 경우 빈칸으로 처리

근무지에 도착한 후, 별수와 적수는 모두 식량을 自給하면서 병역에 복역하였다. 관이 별수·적수에 식량을 지급한[出稟] 기록<sup>262)</sup>은 단 한 건만 보이며 기타 식량 관련 기록은 모두 대여[出貸] 기록에 해당한다. 또한 이름을 알 수 없는 適戍에 관이 식량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sup>263)</sup> 적수도 별수와 마찬가지로

259) 宮宅潔, 『秦代遷陵縣志初稿—里耶秦簡より見た秦の占領支配と駐屯軍—』, 『東洋史研究』 75(1), 2016, pp.16-17

260) 『校釋(一)』 8-429, “罰戍士五(伍)資中宕登爽署遷陵書.□” 이 간은 다른 간과 달리 윗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다. 문서 발송자는 이 간을 전체 문서의 가장 앞부분에 두어 전체 문서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261) 각 현의 소속 군명은 游逸飛 논문의 “表七: 里耶秦簡所見洞庭郡戍卒籍貫”을 참고함. (游逸飛, 『里耶秦簡所見洞庭郡: 戰國秦漢郡縣制個案研究之一』, 『中國文化研究所學報』 61, 2015, pp.52-55)

262) 『校釋(一)』 8-2246, “徑廩粟米四石. 卅一年七月辛亥朔朔日, 田官守敬·佐壬·稟人經出稟罰戍公卒襄城武宜都肱·長利士五(伍)甌. 令史逐視平. 壬手.”



지로 식량 자급이 원칙이었으며 자급이 어려운 경우 관으로부터 식량을 대여했다.

별수·적수는 죄에 저촉하여 수변하였으나 그 직역은 戌卒에 해당하였으므로 원칙상 尉에 속해 병역에 복무하였을 것이다. 단, 천릉현의 경우 실제로는 타 기관에 파견되어 노역에 종사하는 별수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별수가 尉뿐 아니라 田官으로부터 식량을 대여, 지급받은 기록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특히 尉가 식량을 대여한 사례(1개)<sup>264</sup>보다 田官이 식량을 대여, 지급한 사례(3개)<sup>265</sup>가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은 별수와 공전 경작 사이의 관계를 추측하게 한다. 이러한 양상은 倉 대신 田官에서 식량을 받은 屯戌(卒)의 사례와 유사하다. 이는 屯戌가 전관의 공전 경작에 동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한 바 있는데, 별수 역시 倉이 아닌 田官에서 식량을 대여하고 있었다면 별수도 전관에 배속되어 공전 경작에 활용된 것으로 여겨진다.<sup>266</sup>

다음으로 自願하여 장기간 戌役하는卒을 살펴보자. 진률의 ‘冗募戌卒(冗戌)’은 수변을 자원한 자를, ‘冗邊’, ‘冗戌’는 수변을 자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아래는 수호지진간의 관련 조항이다.

백성 중 어머니나 동생이 隸妾이 되었는데, 그 자신이 謫罪가 아니면서 冗邊 五歲를 하고자 하는 경우, (冗邊하는 기간을) 병역에 동원되는 기간으로 충당하지 않고, (어머니나 동생) 1인을 면하여 庶人으로 삼는 것을 허락한다.<sup>267</sup>

263) 『校釋(一)』 8-899, “[貸適戍士五(伍)高里慶忌]”; 『校釋(一)』 8-1029, “[已朔朔日, 啓陵鄉守狐出貸適戍□]”

264) 『校釋(一)』 8-761, “粟米一石九斗少半斗. 卅三年十月甲辰朔壬戌, 發弩繹尉史過出貧罰戍士五(伍)醴陽□祿. 卅”

265) 『校釋(一)』 8-781+8-1102, “卅一年六月壬午朔丁亥, 田官守敬·佐郃·稟人姪出貧罰戍簪襄壤(襄)德中里悍. 令史逐視平. 郃手.”; 『校釋(一)』 8-2246, “徑廩粟米四石. 卅一年七月辛亥朔朔日, 田官守敬·佐壬·稟人姪出稟罰戍公卒襄城武宜都肱·長利士五(伍)甌. 令史逐視平. 壬手.”; 『校釋(二)』 9-763+775, “徑廩粟米一石泰半斗. 卅一年五月壬子朔己未, 田官守敬·佐郃·稟人姪出貧罰戍公卒襄武宜都趙. 令史逐視平. 郃手.”

266) 李成珪, 『秦帝國 縣의 組織과 機能-遷陵縣 古城遺址 출토 里耶秦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2014, p.11.

267)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51, “百姓有母及同姓(生)爲隸妾, 非適(謫)罪毆(也)而欲爲冗邊五歲, 毋賞(償)興日, 以免一人爲庶人, 許之.”

위 조항은 5년간 冗邊하는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대가에 관한 조항이다. 여기에 붙는 첫 번째 조건은 冗邊하려는 자가 謫罪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適’은 ‘謫’과도 통하며 국가에 반기를 들어 먼 곳으로 유배되는 벌을 의미한다. 適戍의 예처럼 죄를 지을 경우 어차피 변경에서 수변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은 일반 검수가 수변을 자원한 경우에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준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冗邊 기간을 ‘興日’로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秦律의 ‘興’은 검수를 兵役·力役に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68)</sup> 위 규정은 수변에 관한 것이므로 규정 중의 ‘興日’은 수변, 즉 병역에 종사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즉 冗戍가 5년간 추가적 병역을 수행할지라도 이는 ‘가족의 숙면’을 위한 복무이기 때문에, 병역에 징발되어 복역하는 기간과는 무관하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冗戍는 일정 대가를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冗邊’이라는 행위에 의해 國家와 冗戍 사이에는 일종의 고용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인력 고용이 賃金과 그에 상응하는 노동을 매개로 성립한다면, 冗邊은 임금 대신 가족의 숙면과 추가적 병·요역을 매개로 성립하였다. 물론, 도예가 된 가족을 숙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군의 首級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나<sup>269)</sup> 작이 없거나 군공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 冗邊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용수는 오랜 기간 병역에 복무하였으므로 관은 冗邊 기간의 준수 여부를 매우 철저히 관리하였다. 용수는 부모·조부모가 병이 나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妻子나 형제, 부모의 형제가 사망한 경우에 귀향할 수 있었고<sup>270)</sup> 2년에 한 차례 衣用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향해 최장 30일까지 머물 수 있었다.<sup>271)</sup> 衣用을 취하도록 귀향을 허락한 점은 흥미로운데, 용수는 최소한 2년 이상 타지에서 거주해야 했으므로 의복, 물품, 錢을 충분히 갖추어야 했을

268) 『嶽麓秦簡(肆)』簡188-189, “●戍律曰: 城塞陞鄣多陝(決)壞不脩, 徒隸少不足治, 以閒時歲一興大夫以下至弟子·復子無復不復, 各旬以繕之.”; 『嶽麓秦簡(肆)』簡244, “繇(徭)律曰: 歲興繇(徭)徒, 人爲三尺券一, 書其厚焉. 節(即)發繇(徭), 鄉嗇夫必身與典以券行之.”

269)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簡155-156, “欲歸爵二級以免親父母爲隸臣妾者一人, 及隸臣斬首爲公士, 謁歸公士而免故妻隸妾一人者, 許之, 免以爲庶人.”

270) 『嶽麓秦簡(肆)』簡285-287, “●令曰: 吏及宦者、羣官官屬、冗募羣戍卒及黔首繇(徭)使、有縣官事, 未得歸, 其父母、泰父母不死而謾吏曰死以求歸者, 完以爲城旦; 其妻子及同產、親父母之同產不死而謾吏曰死及父母不病而【謾吏】曰病以求歸, 皆遷(遷)之. ●令辛”

271) 『嶽麓秦簡(肆)』簡278, “●□律曰: 冗募羣戍卒及居賞贖責(債)戍者及冗佐史、均人史, 皆二歲壹歸, 取衣用, 居家卅日, 其□□□”

것이다. 관부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의 律로써 한시적 귀향을 허락하였고, 용수의 가족이 衣用을 보낼 경우 해당 용수가 수령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sup>272)</sup> 그러나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무지를 벗어나는 것은 어려웠으며 설사 복무 기간이 완료되었어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귀향하려 한 경우 처벌을 받았다. 冗募戍卒이 근무 기간을 다 채우고 귀향하는데, 기간을 다 채웠다고 진술했음에도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致가 도착하지 않아 사실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면 다시 4개월간 변경에서 근무하도록 처벌한다는 규정<sup>273)</sup>은 용수의 모집과 해산이 꼼꼼하게 관리되었음을 보여준다.

冗戍는 주로 분류되었으므로 尉의 관할 하에 있었다. 천릉현의 尉守가 현정에 尉課를 올려 당시 천릉현이 보유한 冗募戍卒이 143인에 해당한다고 보고한 사실<sup>274)</sup>은 尉가 용수의 주관 기관임을 뒷받침한다. 용수의 업무를 살펴보면 屯戍, 罰戍와 마찬가지로 병역에 종사하면서도 종종 경작에 종사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역과 노역 양쪽에 동원되었다고 여겨진다.

(진시황) 33년, 遷陵縣 冗募戍卒로 田作해야 하는 자는 二百…… 나누면 1인당 4畝 ……<sup>275)</sup>

인용문은 천릉현 문서의 일부이다. 그 내용은 진시황 33년 천릉현에 속한 冗募戍卒 중 田作을 해야 하는 자가 2×인이며, 해당 人數를 경작할 田의 크기로 나누면 冗募戍卒 1인당 4畝의 토지를 경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문서는 천릉현에서 冗募戍卒을 동원한 公田 경영이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면만으로는 尉가 자체적으로 경작에 용모수졸을 동원한 것

272) 이야진간 8-666+8-2006간은 천릉현 司空守가 발신한 문서로, 冗戍인 秭歸縣 출신 士伍 高의 衣用을 전해야 하니, 吏를 파견하여 전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校釋(一)』 8-666+8-2006, “卅年五月戊午朔辛巳, 司空守敞敢言之: 冗戍士五(伍)□【秭】歸高成免衣用, 當傳. 謁遣吏傳. 謁報. 敢言之.”)

273) 『睡虎地秦簡』 『秦律雜抄』, 簡35, “冗募歸, 辭曰日已備, 致未來, 不如辭, 貲日四月居邊.”

274) 『校釋(一)』 8-132+8-334, “□冗募群戍卒百卅三人. (Ⅰ행) □廿六人. ●死一人. (Ⅱ행) □六百廿六人而死者一人. (Ⅲ행) 尉守狐課. (Ⅳ행) 十一月己酉視事, 盡十二月辛未. (Ⅴ행)”

275) 『校釋(二)』 9-1247, “卅三年遷陵冗募戍卒當田者二百□ (Ⅰ행) 衛(率)之, 人四畝 □ (Ⅱ행)”

인지, 아니면 현정 차원의 경작이었는지 불분명하며 월 단위로 사역한 것인지 혹은 연 단위로 사역한 것인지도 알기 어렵지만, 冗戌가 군사 업무 외의 업무에도 동원된 것은 분명하다. 屯戌, 更戌, 罰戌, 冗戌 등은 병역에 종사하는卒로서 그 본연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군사 업무였으나 이들은 종종 경작, 행정 잡무 등에도 동원되었다. 그런데 진시황 33년 기준 천릉현의 戶數가 163호에 그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sup>276)</sup> 수백 명의 冗戌,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戌卒의 경작은 천릉현의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秦의 인력 활용에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일부 노동 수요를 특정 인력과 직접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작이나 건설에도 예신첩이 동원될 수 있던 것이나 성단용·귀신백찬이 관부 사이의 연락이나 심부름에 이용된 것을 보면 秦이 별다른 원칙 없이 대부분의 업무·노동에 도예를 투입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예 중 隸臣만이 僕·養·走에 복역할 수 있던 사실은 여전히 특정 업무·노동의 수요가 특정 인력과 연동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유독 城旦만은 상부의 허가 없이 縣官이 건설에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건설이라는 노동 수요와 성단이라는 특정 인력 사이의 관계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秦은 대부분의 업무·노동에 도예를 우선 이용하였으며, 도예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도예를 이용할 수 없는 업무에 한하여 居貲贖債나 卒을 동원하였다. 卒로 징집되지 않은 상태의 黔首는 비정기적 요역에 동원되기도 하였으나 사실상 가장 후순위의 인력으로 여겨졌다.

이와 같은 秦의 인력 운용 체계는 적어도 戰國時代 도예 신분의 형성과 함께 등장하여 점차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戰時 혹은 準戰時에 해당

<sup>276)</sup> 진시황 28년-33년의 천릉현 戶數는 이야진간 8-487+8-2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校釋(一)』 8-487+8-2004, “卅四年八月癸巳朔癸卯, 戶曹令史韋佳疏書廿八年以盡卅三年見戶數牘北(背)移獄具集上, 如請史書. / 韋佳手.

廿八年見百九十一戶.

廿九年見百六十六戶.

卅年見百五十五戶.

卅一年見百五十九戶.

卅二年見百六十一戶.

卅三年見百六十三戶.”)

아울러 진시황 29년 천릉현의 호수는 166호인데(『校釋(二)』 9-1706+1740, “廿九年遷陵見戶百六十六.”) 해당 수치는 위의 8-487+8-2004에 기록된 진시황 29년 천릉현의 戶數와 일치하므로, 8-487+8-2004간의 여타 수치에도 오류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는 전국시대 말~통일 직후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력 수요가 유지되었는데, 秦은 잘 짜여진 인력 운용 방식을 바탕으로 거대한 인력 자원을 장악하며 각종 업무·노동을 처리하였다. 이러한 인력 이용 방식은 전시에는 상당히 유효하였을 것이나, 전쟁이 끝나고 국가가 궤도에 오른 이후에도 예측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Ⅱ장에서는 이 문제에 착목하여 秦의 제도를 이어받은 前漢이 인력을 이용한 방식과 그 변화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소 결

本章에서는 戰國時代 이후 秦이 업무·노동에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첫 帝國인 秦의 인력 편제 방식은 中國 古代 인력 편제 방식의 원형(proto-type)이라고 할 수 있다. 戰國時期 秦은 民과 구분되는 몇 가지 신분을 만들고 이를 法律과 연동함으로써 인력을 편제하려 하였다. 徒隸로 충칭되는 隸臣妾, 城旦舂, 鬼薪白粲, 司寇, 候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당초 관부의 雜役, 築城·舂米, 伐木·精美, 수비를 전담하는 인력을 의미하였다. 진은 해당 업무에 투입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도에 신분을 만든 것인데, 죄의 경중에 따라 각 도에 신분의 대우와 사회적 지위는 상이하였으므로 秦은 신분, 성별·연령에 의한 노동 능력치를 고려하여 국가의 업무에 인력을 동원하였다. 그런데 戰國 秦이 특정 업무에 투입할 인력을 편제하기 위해 각 신분을 만들었다면, 당시 진의 업무·노동에는 일정한 우선순위가 존재하였음이 분명하다. 本章에서는 里耶秦簡 作徒簿와 秦 律令을 근거로 ①관영수공업 ②공전 경작 ③행정 잡무 ④군사 업무 ⑤건설 ⑥물자 운송의 여섯 가지 항목이 제국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秦은 장악한 여러 인력을 각 업무·노동에 적절히 배치하였다. 본장에서는 위의 여섯 가지 항목을 크게 肉體勞動과 그 이외의 행정 잡무·군사업무로 나누어 인력이 투입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진의 관영수공업은 민간사회에서 재부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 관영수공업을 유지하기 위해 秦은 기술력을 지닌 徒隸와 黔首를 工官에 편제하였다. 工官에 속한 도에는 軍功

爵을 바쳐 숙면된 후에도 일반적인 庶人이 아닌 ‘工’으로 분류되어 여전히 工官의 관리 아래에 있었다. 또한 黔首 신분의 기술자 역시 工官에 소속하여 철저한 계획 하에 제국에 필요한 기물만을 제조할 수 있었다. 秦은 工을 일종의 직업적 신분으로 만들 정도로 관영수공업 인력을 장악하려고 하였으므로, 기술력을 가진 도예는 여타 업무에서 배제되어 수공업품 제조에 우선 동원되었다.

둘째, 공전 경작은 진이 가장 중시한 업무 중 하나였는데 ‘田徒’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작에 동원되는 인원은 일정 수량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里耶秦簡 作徒簿 중 田官에 파견된 도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공전 경작의 중요성을 새삼 보여준다. 원칙상 관영수공업·행정 잡역에 종사해야 하는 도예를 제외한 예신첩 이하 모든 도예는 경작에 동원될 수 있었다. 천릉현의 예를 보면 공전 경작에는 거자속채와 戌卒도 종종 동원되었다.

셋째, 시설물의 건설과 수리는 城邑을 비롯한 도예가 주로 담당하였다. 관의 시설물을 건설·수리할 때 縣이 자의적으로 검수를 동원할 수 없던 반면 성단의 동원은 보고 없이 가능하였는데, 이 점은 도예 특히 성단이 건설·보수의 주요 인력이었고 검수는 후순위로 활용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검수의 생활 구역인 邑中·田部の 도로와 시설물은 검수의 요역으로 해결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건설 기간과 동원 순번 등의 조건이 붙어, 秦이 검수의 인력을 무분별하게 동원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물자의 원활한 운송은 거대한 영토를 획득한 秦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秦의 律令에 따르면 관부 물자의 운송 시 인력의 이용 순위는 직업군인-도예-거자속채-검수였다. 시설물을 건설·보수할 때 검수의 동원에 신중하였던 것과 같이 물자의 운송에서도 검수를 후순위로 이용한 것은 검수의 ‘田時’를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농업 생산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한편 秦에는 관영수공업 기술자처럼 운송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는데, 律令에 보이는 船師나 船人이 그것이다. 관의 水運 조직은 수공업 조직처럼 整然히 짜여 있었으며 司空의 관할을 받았다.

다섯째, 행정 잡무는 吏를 보조하는 職役인 僕·養·走, 문서 전달, 기타 심부름으로 구성되었다. 세 종류의 잡무는 모두 ‘행정 잡무’로 분류되었으나 여기에 투입된 도예 인력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문서 전달은 여성인 隸妾도

담당하였고 기타 심부름은 城旦舂, 鬼薪白粲도 담당하였으나, 僕·養·走는 隸臣과 居貲贖債만이 담당할 수 있었다. 僕·養·走는 吏의 바로 곁에서 보조하는 직역에 해당하였는데, 吏가 출장을 떠날 때도 僕·養·走는 吏에 할당되어 식사·馬匹 준비 등을 도왔다. 僕·養·走에는 隸臣이 우선 이용되었는데, 이 점은 ‘관부의 雜用에 투입되는’ 예신의 당초 성격과도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전 경작과 僕·養·走의 업무가 병존하는 경우, 예신은 공전 경작에서 면제되어 僕·養·走로 이용되었다.

여섯째, 군사 업무는 전투, 수비를 의미하며 주로 검수 중 兵役에 징발된卒이 투입되었다. 그 외에도 自願하거나 懲罰의 차원에서卒이 된 자들도 존재하였다. 전자는 冗戍 후자는 罰戍나 適戍로 명명되었다.

## II. 前漢 中期 人力 資源 운용상의 변화와 人力 雇傭

### 1. 隸屬 人力 유지의 재정적 부담과 그 영향

前漢 文帝 13년(BCE167), 肉刑과 無期 勞役刑(身分刑)이 폐지되었다.<sup>277)</sup> 秦의 肉刑·無期 勞役刑은 도예를 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하였기에<sup>278)</sup> 두 형벌의 소멸은 곧 官府 소속으로 종신 노역하는 徒隸의 소멸을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官에서 각종 노역에 종사하던 徒隸가 대거 庶人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 소위 ‘형벌 개혁’으로 유명한 이 결정으로 당시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었다. 예컨대 도예가 庶人으로 전환되면서<sup>279)</sup> 租稅와 役(兵役, 力役)을 담당하는 齊民이 증가하는 단기적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다. 庶人은 士伍 이상의 일반 백성과 도예 사이의 중간적 존재였으나 授田體制 하에서 田宅을 받을 권리를 가졌고<sup>280)</sup> 庶人의 자식은 士伍로 상승할 수 있었다.<sup>281)</sup> 아울러 장

277) 『漢書』 卷23 『刑法志』, p.1099, “丞相張蒼·御史大夫馮敬奏言:『肉刑所以禁姦, 所由來者久矣. 陛下下明詔, 憐萬民之一有過被刑者終身不息, 及罪人欲改行爲善而道亡繇至, 於盛德, 臣等所不及也. 臣謹議請定律曰: 諸當完者, 完爲城旦舂. 當黥者, 髡鉗爲城旦舂. 當劓者, 答三百. 當斬左止者, 答五百. 當斬右止, 及殺人先自告, 及吏坐受賕枉法, 守縣官財物而即盜之, 已論命復有答罪者, 皆棄市. 罪人獄已決, 完爲城旦舂, 滿三歲爲鬼薪白粲. 鬼薪白粲一歲, 爲隸臣妾. 隸臣妾一歲, 免爲庶人. 隸臣妾滿二歲, 爲司寇. 司寇一歲, 及作如司寇二歲, 皆免爲庶人. 其亡逃及有罪耐以上, 不用此令. 前令之刑城旦舂歲而非禁錮者, 如完爲城旦舂歲數以免. 前令之刑城旦舂歲而非禁錮者, 如完爲城旦舂歲數以免. 臣昧死請.』制曰:『可.』是後, 外有輕刑之名, 內實殺人. 斬右止者又當死. 斬左止者答五百, 當劓者答三百, 率多死.”

278) 宮宅潔, 『勞役刑體系の構造と變遷』, 『中國古代刑制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1, pp.149-162.

279) 隸臣妾이 軍功爵이나 가족의 冗募를 이용해 속면되면 庶人 신분이 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문제 13년의 형벌 개혁 이후 徒隸 신분에서 해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었을 것이다.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51, “百姓有母及同性(生)爲隸妾, 非適(謫)罪毆(也)而欲爲冗邊五歲, 毋賞(償)與日, 以免一人爲庶人, 許之.”;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55-156, “欲歸爵二級以免親父母爲隸臣妾者一人, 及隸臣斬首爲公士, 謁歸公士而免故妻隸妾一人者, 許之, 免以爲庶人.”

280)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簡310-312, “關內侯九十五頃, 大庶長九十頃, 駟車庶長八十八頃, 大上造八十六頃, 少上造八十四頃, 右更八十二頃, 中更八十頃, 左更七十八頃, 右庶長七十六頃, 左庶長七十四頃, 五大夫廿五頃, 公乘廿頃, 公大夫九頃, 官大夫七頃, 大夫五頃, 不更四頃, 簪農三頃, 上造二頃, 公士一頃半頃, 公卒·士五·庶人各一頃.”



기적으로는 국가가 인력을 이용하는 방식 상의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다. I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예는 秦-前漢 初 국가에 필요한 업무 대부분에 우선 투입되었다. 따라서 도예의 소멸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주요 업무(공전 경작, 관영수공업, 행정 잡무, 건설, 운송)에 투입할 인력의 감소를 의미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예컨대 물자 운송에서는 국가의 운송 체계만을 고집하는 대신 민영 운송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는 등, 국가가 민간의 힘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등장하였다.<sup>282)</sup> 또한, 도예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잡역을 부담하였으며 각종 관영 산업의 주요 인력 자원으로 기능하였으므로<sup>283)</sup> 도예의 소멸은 곧 민간 산업의 발전과 제민 체제의 변질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왜 前漢은 육형과 무기 노역형을 철폐함으로써 종래 국가가 보유한 人力을 대거 감축하였을까? 황제 이하 위정자들이 형벌 개혁의 결과나 도예의 소멸이 초래할 인력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였을 리가 없다면, 결국 형벌 개혁은 오히려 인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즉 관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존재했기에 육형, 무기 노역형을 폐지할 수 있던 것이다. 즉 문제 13년의 개혁이 국가의 인력 이용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점에서 개혁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벌 개혁은 주로 刑期の 문제나 법제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sup>284)</sup> 문제 13년 개혁 이후 인력의 감소 문제를 언급한 연구<sup>285)</sup>가 존재하지만, 개혁의 원인을 인력 이용이나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낸 論考는 적은 편이다. 文帝의 형벌 개혁을 비용과 재정의 측면에서 주목한 몇 안 되는 연구 중 일본학계의 연구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형벌 개혁을 비롯한 문제의 정책은 재정 절감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281) 任仲赫, 「秦漢律의 庶人」, 『中國古中世史研究』 22, 2009.

282) 金秉駿, 「中國古代南方地域の水運」, 2011.

283) 李成珪, 「秦의 身分秩序構造」, 1986, pp.64-66.

284) 특히 刑期를 둘러싼 諸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林炳德, 「秦-漢 시기의 城旦 舂과 漢文帝의 刑法改革」, 『東洋史學研究』 66, 1999, pp.48-51; 任仲赫, 「秦漢律의 庶人」, 『中國古中世史研究』 22, 2009, pp.201-204; 張建國, 「前漢文帝刑法改革とその展開の再検討」, 『古代文化』 48(10), 1996; 初山明, 「秦漢刑罰史研究の現状—刑期をめぐる論争を中心に」, 『中國古代訴訟制度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pp.250-260; 陶安あんど, 「勞役刑體系の變化」, 『秦漢刑罰體系の研究』, 東京: 創文社, 2009, p.289.

285) 林炳德, 「秦-漢 交替期の 奴婢」, 『中國古中世史研究』 16, 2006.

즉 문제가 沒收制와 육형을 폐지하고 무기 노역형을 유기 노역형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예에 대한 衣食 지급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형벌 개혁은 文帝 치세 동안 진행된 절검책 중 하나였고 그 목적은 지출의 억제 및 인력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에 있었다.<sup>286)</sup>

인력의 유지는 필연적으로 비용 지출을 수반하며 문제 개혁의 결과 前漢이 소유한 인력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므로 형벌 개혁은 분명 재정과 밀접히 관련되었을 것이다. 다만 선행 연구는 지출 감소가 개혁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추론하면서도 이후의 고용 노동과 도예 노동을 비교하거나, 도예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극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물론 노동과 관련된 史料는 파편적이거나 시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비용의 계산에는 위험성이 따른다. 그러나 양자 간의 비용을 비교하거나, 도예에 드는 비용이 당시 가진 의미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상의 논의는 힘을 잃고 만다.

文帝 시기의 정책들은 비용 지출을 줄이고 국가의 독점과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내적 성장을 이루어낸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sup>287)</sup> 따라서 도예의 삭감 역시 비용 감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지, 그 반대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후술하는 것처럼 漢 중기 이후 민간 인력을 고용하면서도 도예 노동으로 회귀하지 않은 것은 도예 노동이 고비용을 요구하는 사역 방식이었음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문제 13년의 개혁은 대규모 인력의 유지 및 사역이 가져온 재정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인력 이용 방식이 새로 시도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비용 지출의 측면에서 도예 노동의 재정적 부담을 따져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도예 노동의 지출 항목을 확인한 후,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노동생산성을 대략적이나마 계산해 보려 한다. 다음으로 문제 13년 개혁 이전, 도예 수량 조절을 위해 시도된 방법에 대해 짚어볼 것이다. 즉 관의 인력을 驅使하는 일이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가졌고 어느 정도의 재정 지출을 요구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예의 소멸이 재정 지출을 감축하는 조치로서 등장하였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286) 宮宅潔, 『中國古代刑制史の研究』, 2011, pp.153-154.

287) 김병준, 「전한 무제시기 대외전쟁과 주도세력의 변화」, 『第38回(2019年) 東洋史學會 冬季研究討論會』, 東洋史學會, 2019.1, p.14.

## 1) 徒隸 勞動의 경제성

I 장에서 본 것처럼 秦의 徒隸는 인력 자원의 基幹을 이루고 있었다. 隸臣妾, 城旦舂, 鬼薪白粲은 속면되지 않는 이상 평생 국가에 예속되어 노역해야 했으며, 그 신분은 후대까지 계승되었다. 秦의 무기 노역형(신분형)은 肉刑(신체형)과 함께 ‘齊民의 세계’에서 배제된 인력 자원을 끊임없이 재생산한 것이다. 도예는 공전 경작, 관영수공업, 행정 잡무, 건설, 운송 등 국가의 주요 노동 부문에 배치되었으며, 居貲贖債, 黔首보다 먼저 동원되었다.<sup>288)</sup> 거자속채의 노역은 그 貲刑, 贖刑의 경중에 따라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검수를 요역에 동원하는 경우 그 일수, 계절, 노동의 종류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진의 도예는 거자속채나 검수가 담당하지 못하는 노동 수요를 채우는 주요 인력 자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예는 농번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뿐더러 중노동을 비롯한 직역별 사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秦은 도예의 인원을 유지하려 하였다. 도예를 유지하려는 입장은 秦律의 속면 관련 규정에서 특히 잘 나타난다. 진의 도예는 본인이나 가족이 軍功爵을 반납한 경우 속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나<sup>289)</sup>, 속면 대상자인 도예보다 많은 인력을 바침으로써 속면될 수도 있었다. 秦律은 隸臣 1인을 庶人으로 삼기 위해서는 男丁 2인을, 연로하거나 신체 조건이 좋지 않은 예신 혹은 예첩 1인을 서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男丁 1인을 관부에 보내도록<sup>290)</sup> 규정하였다. 즉 도예 해방의 조건으로 ‘錢財의 납입’이 아닌 ‘인력의 납입’이 요구된 것인데, 특히 남성 도예인 隸臣 1인의 속면에는 男丁 2인이, 여성 도예인 隸妾 혹은 노동력이 부족한 예신 1인의 속면에는 男丁 1인이 필요한 것으로부터 새로운 대체 인력이 원 인력의 2배로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규정이 도예의 총량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진은 도예 인원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려 하였을 것이다.

288) 李成珪, 『秦의 身分秩序構造』, 1986, pp.64-66; 李成珪, 『數의 帝國 秦漢 : 計數와 計量的 支配』, 2019, p.354.

289)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簡155-156, “欲歸爵二級以免親父母爲隸臣妾者一人, 及隸臣斬首爲公士, 謁歸公士而免故妻隸妾一人者, 許之, 免以爲庶人.”

290)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簡61-62, “隸臣欲以人丁粼者二人贖, 許之. 其老當免老小高五尺以下及隸妾欲以丁粼者一人贖, 許之. 贖者皆以男子, 以其贖爲隸臣.”

도예의 정원[員]을 두는데, 黔首로 賫·贖·債를 갚으려 노역하는 자는 정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sup>291)</sup>

인용문은 『嶽麓秦簡(肆)』 第 3組에 수록된 秦簡의 일부이다. 第 3組에는 秦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의 簡도 秦令으로 추측된다. 도예의 정원을 둘 때 거자속채는 정원으로 두어서 안 된다고 한 것은 거자속채를 제외한 도예, 즉 예신첩·성단용·귀신백찬에 대해서는 정원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천릉현의 예신이 정원보다 15인 적다”<sup>292)</sup>는 천릉현의 문서는 위의 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관부가 현재 보유한 도예의 수가 정원과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보고하는 과정이 뒤따랐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진은 이용 가능한 도예를 수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그 인력을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소유한 도예가 정원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관부가 직접 奴婢를 매입하기도 하였다. 진의 관부가 사노비를 매입하는 정황은 『睡虎地秦簡』 『封診式』에 보이며,<sup>293)</sup> 최근 이야진간을 통해서도 진의 노비 매입이 상당히 제도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시황 32년 9월과 33년 2월에 遷陵縣의 守丞은 郡에 ‘令에서 규정하기를 매월 1일마다 구입한 도예의 수를 보고하라고 하는데, 천릉현에는 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습니다’<sup>294)</sup>라고 답신하였다. 매입한 도예의 수량을 매달 보고하는 令이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천릉현이 도예 매입 여부를 보고한 것은 진의 군현이 정기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도예를 매입한 사실을 의미한다. 간독의 ‘買’와 ‘賣’는 종종 통용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문서의 내용을 관의 잉여 도예 판매 및 방출로 이해하였으나 진시황 29년에 천릉현의 少內가 도예 매입 용도로 33,000餘錢을 지출한 기록이 발견되면서<sup>295)</sup> 진의 관부가 도예를 매입한 사실은 분명해졌다. 재판 오

291) 『嶽麓秦簡(肆)』 簡361, “●爲徒隸員, 黔首居賫贖(贖)責(債)者, 勿以爲員.”

292) 『校釋(一)』 8-986, “遷陵隸臣員不備十五人.”

293) 『睡虎地秦簡』 『封診式』 중 ‘告臣’은 교만한 노비가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자 주인이 爰書를 보내 관이 노비를 매입하고 斬城旦으로 삼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睡虎地秦簡』 『封診式』 簡37-38, “告臣 爰書: 某里士五(伍)甲縛詣男子丙, 告曰: ‘丙, 甲臣, 橋(驕)悍, 不田作, 不聽甲令. 謁買(賣)公, 斬以爲城旦, 受賈(價)錢.’”

294) 『校釋(一)』 8-664+8-1053+8-2167, “卅二年九月甲戌朔朔日, 遷陵守丞都敢□ 以朔日上所買徒隸數守府. ●問□ 敢言之. □ 九月甲戌旦食時, 郵人辰行.”; 『校釋(一)』 8-154, “卅三年二月壬寅朔日, 遷陵守丞都敢言之: 令曰恒以朔日上所買徒隸數. 聞之, 毋當令者, 敢言之. 二月壬寅水十一刻刻下二, 郵人得行. 國手.”

류에 의한 예외적인 상황<sup>296)</sup>을 제외하면 관부의 노비 매입은 그 인력을 직접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인구가 희소하거나 新縣이 설치된 지역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는 도예로 삼을 인력 자체가 적었을 것인데,<sup>297)</sup> 최소한의 도예 정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관의 노동, 업무 대부분이 도예에 의해 해결되었다면 도예가 부족한 군현은 민간의 노비를 매입하거나 다른 군현의 잉여 도예를 공급받아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맞추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인력의 보유 및 관리는 필연적으로 재정적 지출을 수반했다. 식비(穀食, 鹽菜), 의복비, 도예 주관 부서(司空·倉)의 관리비용, 주거시설에 드는 비용 등은 도예를 보유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新縣에서는 도예의 식량이나 매입에 드는 錢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적인 운송비가 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도예 1인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였을까?

먼저 도예의 식량 비용을 계산해 보자. 秦의 隸臣은 매월 禾 2석을, 隸妾은 매월 禾 1.5석을 받았다. 또한, 小隸臣·小城旦은 매월 禾 1.5석을, 小隸妾·小春은 매월 禾 1.25석을 받았는데, 미성년의 도예는 노역에 종사하지 못해도 월 1석의 식량을 받을 수 있었다.<sup>298)</sup> 한편 예신과 성단용의 경우 업무의 강도에 따라 식량을 추가로 받을 여지가 존재하였다. 주로 고강도의 노동에 동원되거나 농번기에 경작한 경우 추가로 식량을 지급하였는데, 예컨대 성

295) 『校釋(二)』 9-1406, “廿九年少內□ 買徒隸用錢三萬三千□□ 少內根·佐之主. □”

296) 『張家山漢簡』 「奏讞書」의 案例 17번에 보이는 講 가족의 사례는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樂人 講은 진범의 무고와 獄吏의 강압적 심문으로 억울하게 黥城旦이 되었는데 이때 講의 가족들은 講의 죄에 연좌되어 收人으로 몰수되었다. 강의 무고가 증명된 후 廷尉는 雍縣에 관부가 직접 강의 가족들을 다시 매입하여 원래대로 생활할 수 있게끔 지시했다. (彭浩·陳偉·王藤元男 編, 『二年律令與奏讞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pp.374-376)

297) 新地の 도예 부족은 遷陵縣의 司空·城旦司寇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秦律은 성단 20인당 1인의 司空을 두어 감시하도록 했고, 사구가 부족한 경우 城旦 1인을 ‘城旦司空’로 삼아 감시하게 했다.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46, “城旦春當將司者, 廿人, 城旦司寇一人將. 司寇不謹, 免城旦勞三歲以上者, 以爲城旦司寇.”) 그러나 진시황 32년 천릉현 司空이 작성한 作徒簿(卅二年十月己酉朔乙亥司空守園徒作簿)에 따르면, 감시자인 사구 3인과 성단사구 1인이 존재하는 반면 감시를 받는 존재인 귀신 20인, 성단 87인 총 107인이 보여, 사실상 20인당 1인의 감시자를 붙이는 것이 불가능했다. (『校釋(二)』 9-2289+9-2305+8-145)

298)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49-52, “隸臣妾其從事公, 隸臣月禾二石, 隸妾一石半; 其不從事, 勿稟. 小城旦·隸臣作者, 月禾一石半石; 未能作者, 月禾一石. 小妾·春作者, 月禾一石二斗半斗; 未能作者, 月禾一石.”

을 쌓는 일이나 이에 준하는 중노동에 종사하는 城旦은 일 ½斗, 월 2.5石의 식량을, 土功에 종사하는 성단용과 舂司寇는 일 ⅔斗, 월 2石의 식량을 받을 수 있었다.<sup>299)</sup> 경작에 동원된 예신은 2월에서 9월까지 월 2.5석의 식량을 받고 10월에서 1월까지 2석의 식량을 받아, 농번기에는 0.5석을 추가로 얻었다.<sup>300)</sup> 따라서 성인 남성 도예 1인에는 연간 최소 24석, 최대 30석의 식비가, 성인 여성 도예 1인에는 연간 최소 18석, 최대 24석이 식비가 소비되었다. 사역 가능한 미성년 도예는 연간 남성 18석, 여성 15석의 식량을 받았고, 전혀 사역하지 못해도 12석을 받았다.

식량을 石으로 계산한 것과 달리 의복은 錢으로 환산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예에 지급한 식량도 錢으로 환산하겠다. 주지하듯이 1石의 가격은 시대별로 커다란 편차를 보이지만, 도예에 지급한 식비와 의복비는 모두 律에 규정된 수치이므로 법정 가격을 기준으로 1石의 비용을 계산해야 그 실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秦律에 의하면 繫城旦舂에 지급하는 식량 1석의 가격은 30전인데,<sup>301)</sup> 居貲贖債가 관으로부터 식량을 대여하는 조항도 1석의 가치를 30전으로 책정하였다. 거자속채의 하루 식비는 2전이며, 중노동이 아닌 일반 노역에 종사한 거자속채의 하루 지급 식량은 ⅔斗이다.<sup>302)</sup> 따라서 거자속채에 지급한 곡식 가격은 斗당 3전, 1石 30전으로 위의 수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즉 계성단용, 거자속채의 식량을 錢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1석 30전이므로, 1석의 법정 가격은 30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성인 도예 1인의 연간 식비를 계산하면 남성은 720~900전, 여성은 540~720전이다.

다음으로, 도예의 의복비 관련 규정 역시 律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복을 지급하는 경우, 처가 없는 隸臣·府隸 및 城旦(의 의복에

299)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簡55-56, “城旦之垣及它事而勞與垣等者, 旦半夕參; 其守署及爲它事者, 參食之. 其病者, 稱議食之, 令吏主. 城旦舂·舂司寇·白粲操土攻(功), 參食之; 不操土攻(功), 以律食之. 倉”

300)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簡51, “隸臣田者, 以二月月稟二石半石, 到九月盡而止其半石.”

301)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簡143, “貲(繫)城旦舂, 公食當責者, 石卅錢. 司空”

302)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簡133-134, “有罪以貲贖及有責(債)於公, 以其今日問之, 其弗能入及贖(償), 以今日居之, 日居八錢; 公食者, 日居六錢. 居官府公食者, 男子參, 女子駟(四).”

드는 비용)은 겨울에 인당 110전, 여름에 55전이다. 小隸臣·小府隸 및 小城旦(의 의복에 드는 비용)은 겨울에 인당 77전, 여름에 인당 44전이다. 春(의 의복에 드는 비용)은 겨울에 인당 55전, 여름에 인당 44전이다. 小春(의 의복에 드는 비용)은 겨울에 44전, 여름에 33전이다. 예신첩이 연로하거나 연소하여 스스로 의복을 지을 수 없다면, 春(의 의복에 드는 비용)과 같이 한다.<sup>303)</sup>

위의 律에 인용된 액수는 천릉현이 大隸妾의 의복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진시황 34년 11월 천릉현의 倉은 大隸妾 嬰 등 28인의 冬衣를 만들기 위해 1,518錢<sup>304)</sup>을 지출하였는데, 이 액수는 26인에 55전을, 2인에 44전을 지급한 경우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당시 倉이 예첩의 冬衣 지급을 위해 26인의 대예첩에 각 55전을, 2인의 소예첩에 44전을 소비하였다고 이해된다. 아울러, 진시황 26년 2월 천릉현 少內守가 도예의 夏衣 지급을 위해 2,244전을 지출한 사례도 존재한다. 2,244를 44로 나누면 51이라는 정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 당시 천릉현은 51인의 예첩 혹은 용의 하복을 지급하기 위해 법정 액수를 지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제로 律에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의복비를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위의 律에는 성인 예첩이나 처가 있는 성인 예신의 의복비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직접 의복을 조달하지 못하는 도예에 관한 규정<sup>305)</sup>임이 분명하다. 즉 처가 없는 隸臣과 府隸, 가족이 해체된 성단용, 그리고 어리거나 연로해 의복을 스스로 공급할 수 없는 예신첩에게는 완제품의 의복을 지급되었으나, 의복을 지을 수 있는 예첩이나 그러한 예첩을 처로 둔 예신에게는 완제품 대신 원재료 혹은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錢이 지급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조항에 언급되지 않은 도예들에도 실제 의복비 지출이 발생했다고 이해된다. 다만 律에 규정된 의복비는 의복을 스

303)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簡94-96, “稟衣者, 隸臣·府隸之母(無)妻者及城旦, 冬人百一十錢, 夏五十五錢; 其小者冬七十七錢, 夏卅四錢. 春冬人五十五錢, 夏卅四錢; 其小者冬卅四錢, 夏卅三錢. 隸臣妾之老及小不能自衣者, 如春衣.”

304) 『校釋(二)』9-1931+9-2169, “卅四年十一月【丁卯朔】甲午, 倉守壬·佐卻出錢千五百一十八錢, 以衣大隸妾嬰等廿八人冬衣, 人五十五, 其二人各【卅】匹”

305) 隸妾은 스스로 의복을 지어야 했으며 이는 예첩을 처로 둔 隸臣도 마찬가지였다. 更隸妾인 처를 두거나 처가 관부 바깥에 있는 예신도 예외 없이 의복을 자급해야 했다.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簡141-142, “隸臣妾·城旦春之司寇·居貲贖責(債)穀(繫)城旦春者, 勿責衣食; 其與城旦春作者, 衣食之如城旦春. 隸臣有妻, 妻更及有外妻者, 責衣.”)

스로 짓지 못하는 자들에 지급하는 의복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재료비와 工賃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복을 지을 수 있는 隸妾이나 그러한 처를 둔 隸臣에 관부가 지급한 액수는 달랐을 것이다.

선행 연구 역시 상기 도예의 의복비에 재료비와 방직비가 포함되었고 여성 도예의 의복비는 재료비만 포함된 금액임을 논증한 바 있다.<sup>306)</sup> 성인 도예의 동절기 의복비는 남성 110전, 여성 55전으로 책정되었으나, 성인 남성의 의복을 짓는 데 필요한 원재료가 성인 여성의 2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10전은 방직비와 재봉비를 고려한 결과로 이해된다. 처가 없는 남성 도예의 의복 제작은 재봉을 전담하는 예첩<sup>307)</sup>이 담당하였을 것이며, 이들의 공임까지 포함한 총비용이 110전이므로, 처가 있는 예신이나 예첩의 의복비로는 55전이 지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남녀 도예의 동절기 의복 재료 자체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양자의 동절기 의복 재료비는 각각 55전에 해당한다.<sup>308)</sup> 마찬가지로 성인 남녀 도예의 하절기 의복에 드는 재료비는 각 44전이다.<sup>309)</sup> 이상 律의 규정에 기초하여 도예 1인에 소비한 식비와 의복비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秦이 徒隸 1인에 소비한 1년치 식비·의복비

性別과 大小		1년 식비 (30錢/石 환산)	1년 의복비(겨울, 여름)	신분
남성	大	24-30石 (720-900전)	99錢 (55전, 44전)	隸臣, 城旦, 鬼薪
	小	18石 (540전)	99錢 (55전, 44전)	
여성	大	18-24石 (540-720전)	99錢 (55전, 44전)	隸妾, 舂, 白粲
	小	15石 (450전)	77錢 (44전, 33전)	

306) 李成珪, 『戰國時代 國家와 小農民 生活』,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研究室 編, 『古代中國의 理解』, 서울: 지식산업사, 1994, pp.126-129.

307)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62, “女子操敗紅及服者, 不得贖. 邊縣者, 復數其縣. 倉”

308) 李成珪는 도예의 의복을 지을 때 사용한 七稷布의 경우 7일간 방직하여 1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李成珪, 『戰國時代 國家와 小農民 生活』, 1994, p.128) 秦律의 노역 공시가격은 1일 8전이므로, 七稷布, 八稷布 1필을 제작하는 비용은 대략 56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순수 재료비는 110전에서 방직비 56전을 뺀 54전 정도일 것이다.

309) 하절기 의복의 남녀 비용 차이가(11전) 동절기 의복의 남녀 비용 차이(55전)보다 훨씬 작은 것은 여성 도예와 달리 남성 도예는 여름에 반라 상태로 노동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李成珪, 『戰國時代 國家와 小農民 生活』, 1994, pp.128-129)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점은 관이 종종 완제품의 의복을 구매하여 도예들에 공급한 사실이다. 천릉현이 徒를 위해 衣를 구매한다는 기록<sup>310)</sup>이나 徒隸의 의복을 구매하고 吏僕을 증원하기 위해 80,000전이 필요하다는 상행문서<sup>311)</sup>는 관이 도예가 입을 의복을 시중에서 구매한 사실을 보여준다. 완제품의 의복을 구매하는 경우 예첩에 재료를 지급해 의복을 지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치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에서 계산한 의복비보다 큰 비용을 소비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 계산한 항목을 종합하면, 秦은 성인 남성 도예와 성인 여성 도예를 유지하기 위해 인당 연간 약 819~999전, 639~819전을 소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금액은 律에 규정된 순수 식비와 의복비만을 고려한 추정치로, 鹽 지급 비용<sup>312)</sup>이나 도예 관리비, 주거시설의 유지비 등은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더 많은 지출 항목이 존재하였고 총비용도 위의 액수를 초과하였을 것이다. 선행 연구가 漢代 관노비에 드는 지출 항목으로 식비, 동·하절기의 의복비 외에도 주거시설의 건설·유지비, 鹽菜, 연료비까지 계산한 것은 바로 인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각종 잡다한 비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데, 이에 따르면 관노비 1인에 드는 잡비만 대략 인당 월 200전으로 추측된다.<sup>313)</sup> 성인 도예 1인에 드는 잡비를 대략 연간 100전으로 잡는다면 인당 연 지출은 900~1,100전(남성 도예), 700~1,000전(여성 도예) 내외로 추산된다. 이를 다시 월 단위로 환산하면 도예 1인의 유지비는 대략 월 70~80전이다. 다소의 시차는 존재하지만 前漢 文帝(혹은 景帝 시기) 某年 2, 3, 4, 5, 6월에 市陽里의 民이 算錢으로 53전, 43전, 52전, 43전, 36전을 납입한 것을 보면<sup>314)</sup> 秦·前漢 初 도예 1인을 1개월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실상 民 1인의 1~2개월 算錢에 육박한 셈이다.

310) 『里耶秦簡博物館藏秦簡』 10-1170, “女廿九人與少內段買徒衣”; 『校釋(二)』 9-873, “□律令處上計殷爲徒買【衣】”

311) 『里耶秦簡(壹)』 6-7+8-560, “敢言之: 前日言當爲徒隸買衣及予吏益僕用錢八萬, 毋見錢. 府報曰: 取臧錢臨沉五” (何有祖, 『讀里耶秦簡札記(五)』, <簡帛網>, 2015.7.15.)

312) 소금은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대체할 수 없는 물질이 없으므로 관부는 도예에 곡물뿐만 아니라 소금도 지급하였을 것이다. 현존하는 秦의 사료에는 도예에 소금을 지급한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居延漢簡에는 관부가 매달 곡류(粟 3石 3斗 3升少)와 함께 3升의 소금을 戍卒에 지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李天虹, 『居延漢簡簿籍分類研究』, 科學出版社, 北京: 2003, p.51)

313) 山田勝芳, 『秦漢財政收入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1993. p.543.

314)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江陵鳳凰山西漢簡牘』, 北京: 中華書局, 2012. pp.97-99.

도예를 소유하기 위해 큰 비용을 소비해도 도예 노동의 수익이 지출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라면 노동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예의 강제 노동은 사역 시기·종류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오랜 기간의 사역을 통해 숙련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존재하는 한편, 투입하는 비용과 비교할 때 그 생산성이 낮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었다. 노비를 이용한 경작이 소작농이나 고용노동자의 경작보다 생산성이 낮다는 지적<sup>315)</sup>, 노비의 유지는 사역이 계속 존재하면서도 그들의 건강 및 노동 강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비로소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sup>316)</sup>은 강제 노동으로 높은 생산성을 끌어내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실제 사료에 빈번히 보이는 도예의 도망이나 높은 사망률<sup>317)</sup>은 효율적 사역의 어려움을 암시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도예의 강제 노동은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담보하였을까? 도예의 생산량을 직,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필자는 도예의 노역과 비교적 유사한 前漢 중기 후의 강제 노동을 근거로 秦·漢 시기 도예 노동의 생산성을 대략적이거나 추측해 보았다. 후한 民의 신분이지만 최소한의 식량 외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노동의 성격이 도예 노동과 비슷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인용문은 漢 居延 大灣 유지에서 출토된 후한 공전 경작 보고서이다.

#### 第 4長 安親

正月 乙卯日부터 8月 戊戌日까지 총 224일 (경작함)

투입한 후 총노동량 27,143인. 일 (평균) 120인, 나머지 39인.

墾田 41頃 44畝 124步. 인당 (평균) 34畝의 田 경작. 나머지 30무 124보.

수확한 곡식 2,913石 1斗 1升. 인당 (평균) 24石을 얻음. 나머지 9石.<sup>318)</sup>

315) 楊生民, 『漢代社會性質研究』,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3, p.60.

316) C.Martin Wilbur, *Slavery in China During the Former Han Dynasty, 206 B.C.-25 A.D.*, New York: Russell & Russell, 1943, p.203.

317) 예컨대 진시황 28년 遷陵縣 隸臣妾의 1년 사망·도망률은 18.5%에 이르렀다. (김동오, 『秦帝國 縣의 徒隸 운용 - 『里耶秦簡』 作徒簿를 중심으로』, 2016, p.4)

318) 『肩水金關漢簡(伍)』(甘肅簡牘保護研究中心 等編, 上海: 中西書局, 2016) 72EDAC:7

正月 乙卯初作, 盡八月戊戌積二百廿四日

用積卒二萬七千一百卅三人 率日百二十奇卅九人

“第四長安親 墾田卅一頃卅四畝百廿四步 率人田卅四畝奇卅畝百廿四步

得穀二千九百一十三石一斗一升 率人得廿四石奇九石”

이 문서는 居延 屯田의 제 4구역 책임자 安親이 둔전 경작의 수확을 기록한 연간 보고서이다.<sup>319)</sup> 문서에 따르면 모년 정월 을묘일에 ‘初作’하여 8월 무술일까지 총 224일간 경작하였고, 여기에 동원된 노동 총량은 卒 27,143인이므로 일 평균 卒 120인(나머지 39인)이 경작한 셈이 된다. 즉 매일 120인의 줄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이르는 1년의 경작에 종사한 것인데, 여기에 보이는 ‘卒’은 징집된 戍卒 중 경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田卒을 가리킬 것이다. 제 4구역 둔전의 면적은 41頃 44畝 120步이므로 1인의 평균 경작 면적은 34畝(나머지 30무 124보)이다. 줄 1인이 34무를 경작한 사실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지만<sup>320)</sup>, 1년 경작의 결과로 얻은 穀의 수량과 무당 생산량은 주목할 만하다.

제 4구역 둔전에서는 2,913石 1斗 1升이 생산되어, 경작 인력 1인이 올린 평균 생산량은 약 24석(나머지 9석) 정도이다. 1인이 평균 34무를 경작하고 여기에서 24석을 얻었다면 무당 평균 수확량은 0.7석에 불과한데, 居延漢簡에 기록된 卒의 월 지급 곡식량은 小石 기준 粟 3石 3斗 3升少<sup>321)</sup> 혹은 大石 기준 2석이다.<sup>322)</sup> 그렇다면 거연 둔전의 전졸 1인의 연 수확률은 그의 1년 식량과 거의 일치하여, 사실상 1년간의 경작은 수익을 전혀 남기지 못한 셈이 된다.

물론 居延 일대는 內郡과 자연환경이 다르므로, 위의 저조한 수치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北地郡 泥陽縣 長寧里的 任儼이라는 사람이 1경 20무의 토지에서 24석의 田租를 바쳤다는 기록<sup>323)</sup>을 보면 제 4구역 둔전의 낮은 수확률이 반드시 변경지대의 특징에서 기인했다고 결론짓기 어렵다. 소속 관서나 職名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任儼은 민간인이며 그의 경작지도 당연히 民田일 것이므로, 생산량의

319) 李成珪, 『數의 帝國 秦漢 : 計數와 計量의 支配』, 2019, p.375.

320) 敦煌漢簡 중 玉門의 屯田吏가 연간 경작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7頃의 토지를 弛刑 17인이 경작하여 인당 경작 면적은 약 41.1畝에 해당한다. (『敦煌漢簡』 簡 2434, “□玉門屯田吏高年猥田七頃給□弛刑十七人”)

321) 李天虹, 『居延漢簡簿籍分類研究』, 科學出版社, 北京: 2003, p.51.

322) 漢代 大石과 小石의 비율은 5:3이다. 居延의 戍卒과 少吏(軍吏)의 월식 기록은 주로 소석을 기준으로 ‘3石 3斗 3升少’로 표기되어 있으나, 간간이 2石을 받았다는 기록도 보인다. (『居延漢簡(貳)』 177.13, “出粟二石 虞候長揚禹六月食”; 『居延漢簡(肆)』 332.6, “最 凡吏卒廿人用穀卅石”) 비록 ‘大石’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3석 3斗 3승소와 2석의 비율은 5:3이므로 이때 ‘2석’은 즉 ‘대석 2석’을 가리킨다.

323) 『居延新簡』 E.P.T51:119, “北地泥陽長寧里任儼 二年田一頃廿畝 租廿四石”

1/30을 전조로 바쳤다고 가정하면 실제 생산량은 720석, 무당 생산량은 6석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한, 전한 중기 長沙國 臨湘縣 都鄉이 그 해의 墾田과 田租 징수액을 보고한 문서는 거연 둔전의 ‘저조한 생산성’을 체감하게 한다.

●都鄉 7年 墾田租簿

墾田 60頃 2畝. 田租는 796石 5斗 7升半. 畝당 (평균) 1斗 3升 남부. 나머지 16石 3斗 1升半.

●총 墾田 60頃 2畝. 796石 5斗 7升半.

(田租) 면제 田 13頃 5畝半. (면제된) 전조는 184石 7斗. 臨湘의 蠻夷로 歸義한 義民(이므로) 田租를 내지 않음.

(田租) 면제 田 2頃 61畝半. (면제된) 전조는 33石 8斗 6升. 樂人 嬰이 柱下에 給事하였으므로 田租를 내지 않도록 명함.<sup>324)</sup>

‘都鄉七年墾田租簿’라는 제목의 위 문서에 따르면 長沙王 劉庸 7년 (BCE122, 무제 元狩 원년) 도향의 간전은 60경 2무, 전조는 796石 5斗 7升半으로, 무당 평균 약 1두 3승을 전조로 납입하였다. 문서 중에는 귀의한 蠻夷, 給事 중인 樂人 등 전조를 납입하지 않는 사람과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간전’은 민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역시 생산량의 1/30을 전조로 납입하였다고 가정하면, 무당 생산량은 대략 3.9석 정도이다. 漢代의 농업 생산량이 무당 평균 3-4석이라는 선행 연구의 분석<sup>325)</sup>을 참고하면 임상현 도향의 농업 생산율은 평균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居延 屯田 문서의 기년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무제 이후인 것이 분명한데 무제 원수 연간의 기록인 都鄉七年墾田租簿의 생산량과 거연 둔전의 생산량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결국 거연 둔전의 낮은

324) “●都鄉七年墾田租簿 / 墾田六十頃二畝 租七百九十六石五斗七升半, 率畝斗三升, 奇十六石三斗一升半. / ●凡墾田六十頃二畝租七百九十六石五斗七升半. / 出田十三頃五畝半, 租百八十四石七斗. 臨湘蠻夷歸義民, 田不出租. / 出田二頃六十一畝半, 租卅三石八斗六升. 樂人嬰給事柱下以命令, 田不出租.” 走馬樓漢簡 ‘都鄉七年墾田租簿’의 인용은 馬代忠의 석문(馬代忠, 『長沙走馬樓西漢簡《都鄉七年墾田租簿》初歩考察』, 『出土文獻研究』 12, 中西書局, 2013)을 기초로 하였으며, 長沙簡牘博物館에서 펴낸 도판을 참고하였다. (李鄂權 主編, 長沙簡牘博物館 編, 『湘水流過—湖南地區出土簡牘展』, 長沙簡牘博物館, 2016, p.177) 인용문의 표점은 필자가 표시한 것이다.

325) 平中荅次, 『中國古代の田制と稅法-中國社會經濟史研究』, 東京: 東洋史研究會, 1967, pp.151-152.

생산율은 시기적, 지역적 특성이 아닌 경작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 경작을 중심으로 강제 노동의 생산성이 생각 이상으로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역의 수고로움에 비해 그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강제 노동의 속성은 높은 노동 효율을 담보하기 어렵게 하였을 것이다. 특히 거연 둔전의 사례처럼 졸의 1년 생산량과 1년 식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은 이른바 노동생산성이 노동비용을 상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력 유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주지하듯이 노동 수요는 노동생산성이 노동비용(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제반 비용)을 넘어서야 발생하므로, 낮은 노동생산성이 계속되면 인력을 계속 보유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물론 건설·운송에도 상당한 수의 도예가 투입되었으므로, 경작의 비생산성을 보여주는 일례만으로 도예 인력의 경제성을 예단하는 것은 선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토목공사나 물자 운송의 수요 역시 주로 戰時나 왕조 개창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국가가 안정 궤도에 접어든 이후에는 관 소속 인력의 수요와 노동생산성은 감소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秦 제국 말기, 혹은 漢 文帝 시기의 위정자들은 대규모의 도예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게다가 秦-漢初의 도예는 전체 인구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秦은 驪山陵 조영에 70만여 명의 刑徒를 이용하였는데<sup>326)</sup>, 진 제국의 인구를 2,000만 명 정도로 추산하면<sup>327)</sup> 여산릉에 동원된 형도만 인구의 약 3.5%에 해당하는 셈이다. ‘刑徒’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70만’이라는 숫자는 무기한 노역하는 도예뿐 아니라 居貲贖債도 포함한 수치로 보이지만<sup>328)</sup> 물자 운송 시 城旦舂→隸臣妾→居貲贖債→黔首의 순서로 동원한 원칙<sup>329)</sup>을 참고하면 여산릉 조영 인력의 주력은 역시 도예일 것이다.

326) 『史記』 卷6 『秦始皇本紀』, p.256, “隱宮徒刑者七十餘萬人, 乃分作阿房宮, 或作麗山.”; 『史記』 卷6 『秦始皇本紀』, p.265, “九月, 葬始皇鄴山. 始皇初即位, 穿治鄴山, 及并天下, 天下徒送詣七十餘萬人, 穿三泉, 下銅而致椁, 宮觀百官奇器珍怪徙臧滿之.”

327) 葛劍雄, 『中國人口發展史』,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91, p.107.

328) 趙背戶村的 秦 刑徒墓로부터 출토된 ‘東武居貲上造慶忌’, ‘民居貲公士富’ 등의 陶文은 여산릉의 조영에 居貲贖債도 동원되었음을 입증한다. (始皇陵秦俑坑考古發掘隊, 『秦始皇陵西側趙背戶村秦刑徒墓』, 『文物』, 1982(3), 1982)

329) 『校釋(二)』 9-2283, “廿七年二月丙子朔庚寅, 洞庭守禮謂縣嗇夫·卒史嘉·段(假)卒史穀屬

아울러, 모든 군현이 황릉 건설에 종사할 도예를 파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sup>330)</sup> 秦 도예의 총수량은 70만을 훨씬 초과하였을 것이며, 秦 인구 중 도예가 점한 비중은 적어도 5~7% 이상으로 여겨진다.

도예와 같이 독자적 경제 기반을 가지지 않은 대규모의 인구는 곧 재정상의 부담을 의미하는데, 前漢 哀帝 때 堂邑縣의 ‘當食者’ 관련 지출은 이를 잘 보여준다. 최근 山東省 靑島 土山屯 漢墓에서 출토된 M147:25-1 목독에는 ‘堂邑元壽二年要具簿’라는 표제와 함께 당읍현의 戶口數, 요역·병역 담당자, 경작지와 田租의 규모, 기타 세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원수 2년(BCE 1) 당읍현의 재정 수입과 지출 보고서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전조 면세전과 과세전, 그리고 1년간 현이 ‘當食者’에 지급한 곡식의 양을 통해 당읍현의 有期 徒隸·官奴婢의 대략적인 수치 및 이들에 지급한 식량을 추산할 수 있다.

총 墾田은 11,799頃 37畝半

그중 7,191頃 60畝는 租 61,953石 8斗 2升(에 해당하나), 菑害(로 납부 면제)

(租를) 납부하도록 정해진 田은 4,607頃 70畝, 租 36,723石 7升

(…)

鰥寡孤獨과 高年은 939인. 鰥 46인, 寡 383인 孤 176인 獨 106인 高年 288인

1년간 모든 當食者에게 사용한 穀은 71,867石 3斗 6升

吏員 103인

三老官屬員 53인

樓船士 414인

庫工 70인<sup>331)</sup>

당읍현은 ‘식량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當食者]’을 위해 71,867石 3斗 6升을

尉: ‘令曰:『傳送委輸, 必先【行】城旦舂隸臣妾居賞贖責(債). 急事不可留, 乃興繇(徭).』’  
<sup>330)</sup> 漢 高祖가 沛縣 亭長이던 시절 여산릉 조영에 징발된 徒를 호송한 사실은 內史에서 비교적 먼 泗水郡에서도 도예를 파견하였음을 보여준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p.347, “高祖以亭長爲縣送徒鄴山, 徒多道亡”) 그러나 南郡, 洞庭郡의 정황을 보여주는 里耶秦簡·嶽麓秦簡의 재판 기록에 도예의 郡外 파견이 보이지 않는 점은 전국의 군현이 도예를 파견한 것은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sup>331)</sup> 靑島市文物考古研究所 等, 『山東靑島土山屯墓群四號封土與墓葬的發掘』, 『考古學報』 2019(3), 2019, pp.427-428.

소비하였다. 당식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치 않으나 月食을 받는 관리·관속 및 경제적 기반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추측한다면, 이 문서에 보이는 鰥寡孤獨, 吏員과 官屬, 樓船士, 庫工, 그리고 유기 도예와 관노비가 바로 당식자에 해당할 것이다. 선행 연구는 尹灣漢簡 吏員簿의 예를 참고하여 吏員, 官屬, 樓船士, 庫工에 지급된 곡물은 대략 24,268석으로 계산하였는데<sup>332)</sup> 그렇다면 71,867석 3두 6승에서 24,268석을 뺀 47,599석 3두 6승은 환과고독, 유기 도예, 관노비에 지급한 곡식에 해당한다. 漢代 수졸처럼 이들에 매월 2석을 지급하였다면 환과고독, 유기 도예, 관노비는 약 1,983인, 이 중 환과고독의 수 939인을 제외한 1,044인이 곧 당읍현의 유기 도예와 관노비로 추산된다.<sup>333)</sup> 원수 2년 당읍현의 인구는 132,104인이므로 위에서 추산한 유기 도예, 관노비의 추정 인원은 현 인구의 약 0.79%를 차지한다.<sup>334)</sup>

秦의 도예보다 적은 수의 유기 도예, 관노비를 보유한 漢에서도 그 인력에 지급한 식량은 재정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인용문에 따르면 원수 2년 당읍현의 墾田은 전조 면세전과 과세전으로 나뉘며 전자가 7,191경 60무, 후자가 4,607경 70무로, 간전의 60.9%는 재해를 이유로 전조를 부과하지 않았다. 즉 당읍현이 얻은 전조 수입은 4,607경 70무에서 얻은 36,723석 7승이다. 위의 계산대로 당읍현의 유기 도예, 관노비가 1,044인이라면 이들에 1년간 지급된 식량은 25,056석으로 전조 수입의 68.2%에 육박한 것이다. 다만 아무리 재해에 의한 면세라고 해도 60.9%라는 면세율은 과도할 뿐 아니라, 원수 2년의 재해에 대해서도 별다른 기록이 없으므로 정황상 당읍현이 재해를 과장하고 수치를 분식한 것으로 의심된다.<sup>335)</sup>

그러나 설사 당읍현의 실제 전조 수입이 그 이상이라도 1,044인에 1년간 지급한 식량은 현 재정에서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니었다. 만일 당읍현이

332) 李成珪, 『數의 帝國 秦漢 : 計數와 計量의 支配』, 2019, p.755.

333) 堂邑元壽二年要具簿에는 봄에 현으로부터 식량(혹은 종자)를 대여한 빈민도 기록되어 있으나(“以春令貸貧民戶五千九十一 口萬二千七百九十九”) 당읍현은 이들을 ‘當食’이 아닌 ‘貸’로 기록하여 ‘當食者’ 항목과 분리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當食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34) 당읍현 소속 유기 도예, 관노비의 수가 앞서 추정된 秦의 도예 수보다 현격히 적은 이유는 문제 13년의 개혁으로 인해 관 소속 인력의 재생산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335) 李成珪, 『數의 帝國 秦漢 : 計數와 計量의 支配』, 2019, p.673.

고의로 일부 경작지의 전조를 누락시켰다고 가정하면, 실제 징수 가능했던 전조는 면제된 전조 수입 61,953석 8두 2승과 부과된 전조 수입 36,723석 7승을 합친 98,676석 8두 9승이 될 것이다. 즉 원수 2년에 전조를 전혀 면제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유기 도예와 관노비에 1년간 지급한 25,056석은 전조 수입의 25.4%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 13년 이후의 유기 도예는 정해진 형기가 끝나면 귀향하였고, 자연히 후손에게도 그 신분이 계승되지 않았다. 물론 신분이 계승되는 관노비도 존재하였으나, 당읍현의 유기 도예와 관노비가 0.79%에 그친 것은 이미 전한이 직접 장악한 인력이 秦·前漢 初보다 크게 줄어든 사실을 반영한다. 그런데도 유기 도예와 관노비가 소비한 식량이 전조에서 차지한 비중이 최대 68.2%, 최소 25.4%라면, 秦·漢初 도예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특히 秦 천릉현과 같은 변경 지역의 新縣의 경우,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해당 현을 넘어 인근의 속현, 그리고 주관 郡에까지 파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336)</sup>

국가 전체의 재정에서 바라보아도 노역 대부분에 도예를 이용하는 체계는 분명 커다란 부담을 수반하였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北宋 이전의 국가는 모두 量入爲出(量入制出)의 재정구조를 취하고 있었다.<sup>337)</sup> 국가 재정이 풍족하거나 돌발적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통상적 재정 수입을 고려하여 지출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상 세입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경작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나타나거나 대내외적 정세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는 이상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거대한 인력을 직접 장악하고 있었다면 국가 재정에 물리적인 타격이 가해졌을 때 국가가 보유한 인력은 커다란 부담으로 되돌아 왔을 것이다. 도예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들에 衣食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도예를 먹이기 위해 백성으로부터 조세를 더 거두면 조세저항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인력 보유에 따른 재정 부담은 秦과 漢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예의 소멸을 결정하

336) 이야진간이 기록된 시점의 천릉현 소속 도예는 약 360인-400인 내외로 추정하는데(李成珪, 『秦帝國 縣의 組織과 機能-遷陵縣 古城遺址 出土 里耶秦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2014, p.148; 김동오, 『秦帝國 縣의 徒隸 운용 - 『里耶秦簡』 作徒簿를 중심으로』, 2016, pp.5-7) 천릉현의 戶數는 약 200호 남짓으로 사실상 다른 군현이나 중앙으로부터의 원조가 없이는 도예의 식량조차 조달하기 어려웠다.

337) 渡邊信一郎,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2011, p.22.



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 2) 秦~前漢 初期의 徒隸 수량 조절 시도

국가가 직접 대규모의 인력을 거느리는 방식은 수시로 사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에 수반되는 재정 지출은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이로 인해 秦, 漢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보유한 인력의 수를 조절하거나 이들에 소비되는 비용을 절감하려 하였다. 인력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도예의 대여와 방출이었다. 도예를 일시적으로 민간에 대여하여 의식 비용을 절약하거나 그 임금을 官의 수익으로 삼은 것은 모두 도예로부터 발생하는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서였는데, 도예의 수가 많거나 노동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도예를 매각 혹은 방출하였다.

(1) 使役되고 있지 않은 妾이 官에서 의복과 식량을 받고 있는데 백성이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여하되 (妾을 대여한 백성으로부터) 의복과 식량을 받게 하고, 吏는 곧바로 (그 첩을 官의) 일에서 배제한다.<sup>338)</sup>

(2) 徒隸가 수레를 끌어 (운송하면) 수레를 끈 일수의 傭價로 식량을 지급하며, 吏가 錢을 받으면 僦錢(을 수취한 것)으로 처리하되 旁錢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sup>339)</sup>

(3) 隸臣妾 및 縣·道官에서 居作해야 하는 자가 종[僕]이나 피고용인[傭]이 되어 다른 업무를 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錢財를 마땅히 縣·道官에 바쳐야 하는데, 체납하여 바치지 않고 소속 관서를 떠나 도망했다면, 또한 錢財를 체납하여 부정하게 얻은 것으로 죄

338)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簡48, “妾未使而衣食公, 百姓有欲段(假)者, 段(假)之, 令就衣食焉, 吏輒被事之。 倉律”

339) 『嶽麓秦簡(伍)』簡210-211, “徒隸輓稟以輓日之庸(傭)吏(事), 收錢爲取就(僦), 不爲旁錢. ●廷甲 十九” 整理小組는 吏를 事로 읽었지만 陳偉는 이 조문이 旁錢을 금지하는 수으로서 吏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事’를 ‘吏’로 석독하고, ‘吏’의 앞 문장을 조건절로 파악했다. (陳偉, 『《嶽麓書院藏秦簡(伍)》校讀(續)』, <簡帛網>, 2018.3.10.) 정리 소조의 끊어 읽기는 ‘收錢爲取就(僦), 不爲旁錢’의 주어가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자는 陳偉의 의견에 동의하여 “徒隸輓稟以輓日之庸(傭), 吏收錢爲取就(僦), 不爲旁錢.”로 읽었다.

를 묻고 흠친 것과 같은 법으로 처리한다.<sup>340)</sup>

(1)~(3)은 秦의 律令으로 당시 도예의 대여를 말해준다. (1)은 睡虎地秦簡 倉律의 일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역되고 있지 않은 첩[未使妾]’은 倉이 관할 중인 隸妾을 뜻한다. 즉 현재 관의 노역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예첩이 衣食을 받고 있다면 백성에 대여해 衣食은 관 대신 백성이 부담하며, 해당 예첩에 관의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강제 노동의 성패는 담당 노역이 계속 존재하여 노역에 인력을 최대한 적절히 배치하는 데 있다. 노역에 복역하지 않으면서도 衣食을 계속 지급한다면 이는 곧 손실로 이어지므로 秦은 倉律에 (1)의 조항을 넣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자 한 것이다.

‘도예를 대여한다’는 표현이 쓰이지는 않았으나, (2)의 ‘庸(傭)’과 ‘僦錢’은 이 조항이 도예의 대여와 밀접히 관계되었음을 증명한다. ‘僦’는 타인을 고용해 물자를 적재, 운송하는 행위이고 ‘僦錢’은 그 피고용인에 치르는 운송 임금이기 때문이다.<sup>341)</sup> “吏가 錢을 받으면 僦錢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되 旁錢<sup>342)</sup>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도예의 운송 대가로 관이 僦錢을 수취하였다면, 도예에 운송을 맡기고 대가를 납입한 주체는 민간인 외에 상정할 수 없다. 즉 (2)는 秦 관부가 민간의 물자 운송에 도예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僦錢’을 받아 관의 수입으로 관리한 현상을 보여준다.

340) 『嶽麓秦簡(肆)』 簡68-69. 整理小組는 “隸臣妾及諸當作縣【道】官者·僕·庸，爲它作務，其錢財當入縣道官而逋未入去亡者，有(又)坐逋錢財臧，與盜同灋。”라고 釋讀하였으나 정리소조의 句讀대로라면 縣·道官이 고용 인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들을 다시 다른 업무에 투입해 錢財를 얻는 모순적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陳偉와 日本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秦代出土文字史料の研究」研究班의 句讀을 참고하여 “隸臣妾及諸虜作縣【道】官者，僕·庸(傭)爲它作務，其錢財當入縣道官而逋未入去亡者，有(又)坐逋錢財臧，與盜同灋.”으로 읽었다. (陳偉, 「嶽麓秦簡肆校商(四)」, <簡帛網>, 2016.11.30; 「秦代出土文字史料の研究」研究班, 「嶽麓書院所藏簡<<秦律令(壹)>>譯注稿その(一)」, 『東方學報』 92, 2017, p.203)

341) 『史記』 卷30 「平準書」, p.1441, “【索隱】不償其僦. 服虔云:「雇載云僦, 言所輸物不足償其雇載之費也.」”; 『漢書』 卷50 「鄭當時傳」, pp.2324-2325, “漢征匈奴, 招四夷, 天下費多, 財用益屈. 當時爲大司農, 任人賓客僦.” 【師古曰:「僦謂受顧賃而載運也.」】

342) 『嶽麓秦簡(伍)』의 정리자는 旁錢에 대해 ‘旁入한 錢으로 기타 수입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嶽麓秦簡(伍)』, 2017, p.159) 선행 연구 역시 방전이 별도의 계열로 징수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李成珪, 2019, p.27) 여기에서 僦錢을 방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은 당시 도예를 운송에 동원하여 얻은 추전은 관부 수입의 한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秦은 유희 도예를 민간에 대여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衣食 비용을 절약하였으나, 모든 도예가 대여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3)은 타 관부나 타인에 보내져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隸臣妾 및 縣·道官에서 마땅히 居作해야 하는 자’로 한정하였다. 이 중 후자의 ‘縣·道官에서 마땅히 居作해야 하는 자’는 居貲贖債로 여겨진다. 잘 알려져 있듯이 城旦舂은 정해진 작업장 바깥에서 노역하는 경우 상당한 통제를 받았고<sup>343)</sup> 司寇는 僕에 종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344)</sup> 게다가 예첩 및 여자 거자속채가 ‘葆庸’이 되는 것을 금지한 조항<sup>345)</sup>은 적어도 인력 대여 시 예신첩과 거자속채가 함께 취급된 사실을 말해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秦은 도예인 예신첩과 일종의 채무 노동자인 거자속채를 민간 혹은 타 부서에 유상으로 대여하였고 그 勞賃은 관의 수입으로 연결되었다.

다음으로, 秦은 도예를 매각 혹은 방출하기도 하였는데 주로 도예가 노동력을 소실한 경우나 유희 도예가 많은 경우 이러한 선택을 하였을 것이다. 선행 연구는 秦·漢이 도예를 매각함으로써 그 수량을 조절하였기 때문에 문제 13년 이후 도예가 모두 유기 도예로 변화하였음에도 인력 손실의 충격이 덜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했는데<sup>346)</sup> 필자 역시 문제 13년 이전에 인력 조절을 위해 도예를 매각하는 일이 종종 존재하였다고 생각한다. 『奏讞書』案例 17번 중 잘못된 재판으로 黥城旦이 된 講의 처자에 대해 “이미 매각되었으면 縣官이贖한다”<sup>347)</sup>는 처분을 내려진 것은 관이 收人 중 일부를 민간에 매각한 증거이다.

또한, 秦은 노동력을 잃은 도예를 방출하였는데 아래의 秦令은 縣이 매각해야 할 도예와 타지로 방출할 도예를 정기적으로 보고한 사실을 보여준다.

縣은 매년 10월에 牒을 발취하여 ‘當賣’ 및 ‘就食’의 상황을 기록

343)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簡147-148, “城旦舂衣赤衣, 冒赤氈, 拘櫝櫟杙之. 伏城旦勿將司; 其名將司者, 將司之. 舂城旦出繇(徭)者, 毋敢之市及留舍闔外; 當行市中者, 回, 勿行.”

344)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簡150, “司寇勿以爲僕·養·守官府及除有爲毆(也). 有上令除之, 必復請之. 司空”

345) 『嶽麓秦簡(伍)』簡255-256, “●令曰: 毋以隸妾及女子居貲贖者爲吏僕·養·老·守府及毋敢以女子爲葆(保)庸, 令炊養官府·寺舍, 不從令, 貲二甲, 廢. 丞·令·令史·官畜夫弗得, 貲二甲. ●內史倉曹令弟(第)乙六”

346) 林炳德, 『秦·漢 交替期の奴婢』, 『中國古中世史研究』16, 2006, p.213.

347) 『張家山漢簡』『奏讞書』簡122, “妻子已賣者, 縣官爲贖. 它收已賣, 以賈(價)畀之.”

해 표시하는데, 卒史, 屬, 糞兵(?)은 (도예를) 취하고 버림에 반드시  
 수에 따라 조사하도록 한다. 就食해야 하는 자는 그 親屬이나 知人  
 이 매입한다. 隸臣妾, 城旦, 城旦舂司寇, 鬼薪白粲 혹은 繫城旦舂으  
 로 연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罷癰] 노동력이 없어서 居作하지 못  
 하는 자는 蜀郡에 보내 就食하게 한다. 마땅히 就食해야 하는데 親  
 屬이나 知人이 매입하기를 원한다면, 就食을 금하고 (매입을) 허락  
 한다. 귀환함에 죄를 지었다면 매각해서는 안 된다.<sup>348)</sup>

유사한 어구(“當就食, 其親所知者賣之”, “當就食, 其親所智欲買”)가 중복  
 되어 수의 이해에 다소 혼선을 주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매년 10월마다 縣은 도예 중 ‘매각해야 하는 자’와 ‘就食해야 하는 자’를 구  
 별하여 따로 기록해야 했다. 整理小組는 就食의 의미를 ‘바깥으로 나가 생활  
 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sup>349)</sup>으로 이해하였다. 수의 첫머리에서 ‘當賣’와 ‘就  
 食’을 구분하였고, 도예 중 연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노동력이 없어 관에서  
 勞作할 수 없는 자들을 蜀으로 보내 就食하라는 규정이 이어지므로 就食은  
 정리소조의 주석처럼 ‘방출 및 自食’이며 매각과는 구분되었을 것이다. 연  
 로·장애·기타 이유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각조차 하지 못하는 도예는 타지  
 로 방출하여 自食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물론 노역하지 못하는 도예에 드는  
 諸 비용을 절감하는 조치였을 것이다.<sup>350)</sup> 다만 ‘就食’으로 분류된 도예라도  
 親屬이나 知人이 그를 매입하고자 한다면 매입을 허락하였는데, 이러한 매  
 입은 사실상 해당 도예를 贖免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도예 인력을 줄이는 두 번째 방안은 사면이었다. 『史記』는 莊襄王의 사  
 면<sup>351)</sup>과 二世 皇帝의 사면<sup>352)</sup>만을 기록하고 진시황의 재위 기간에는 오랫동안  
 안 사면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였지만,<sup>353)</sup> 출토 사료는 통일 전후에 사면령

348) 『嶽麓秦簡(肆)』簡357-359, “縣恒以十月鄰牒, 書署當賣及就食狀, 須卒史·屬糞兵, 取省  
 以令, 令案視. 當就食, 其親·所智(知)者賣之. 隸臣妾·城旦·城旦舂司寇·鬼薪白粲及般(繫)  
 城旦舂老·瘡(癰)病·毋(無)賴不能作者, 遣就食蜀守. □ 當就食, 其親·所智(知)欲買, 勿令  
 就食, 許. 其歸, 臯, 不得賣.”

349) 『嶽麓秦簡(肆)』, 2015, p.229.

350) 김동오, 「秦帝國 縣의 徒隸 운용 - 『里耶秦簡』作徒簿를 중심으로」, 2016, p.12.

351) 『史記』卷6 『秦始皇本紀』, p.290, “莊襄王元年, 大赦, 脩先王功臣, 施德厚骨肉, 布惠於  
 民.”

352) 『史記』卷6 『秦始皇本紀』, p.270, “少府章邯曰: 「盜已至, 衆彊, 今發近縣不及矣. 酈山  
 徒多, 請赦之, 授兵以擊之.」二世乃大赦天下, 使章邯將, 擊破周章軍而走, 遂殺章曹陽.”

353) 『史記』卷6 『秦始皇本紀』, p.238, “剛毅戾深, 事皆決於法, 刻削母仁恩和義, 然後合五德

이 내려졌음을 암시한다. 秦王政 22년의 판례에는 도굴이 들통나 각각 耐鬼薪과 黥城旦 형에 처한 赦과 猩을 戊午의 사면에 따라 庶人으로 사면할 것인지 조사하도록 하는<sup>354)</sup> 내용이 보인다. 또한 “지금 이후로는 즉 솥을 내리거나 혹은 의논한 바가 있어서 마땅히 赦가 시작되어야 한다면, 모두 그 赦令이 내려진 이튿날을 기점으로 ‘모년 모월 모일 이래’라고 하기를 청합니다”<sup>355)</sup>라는 奏請은 진 제국 성립 후 赦令이 여러 차례 내려졌음을 의미한다. 赦令에서 제외되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죄인과 도예는 赦令에 따라 庶人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赦과 猩이 耐鬼薪, 黥城旦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형벌을 받았음에도 결국 戊午赦令에 의해 庶人이 된 것<sup>356)</sup>은 사면의 범위가 상당히 넓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사면령은 도예 수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秦의 律令을 계승한 前漢에서도 위의 문제는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前漢은 건국 이후 한동안 육형과 무기 노역형을 유지하였는데, 가령 여후 2년의 율령인 이년율령에 육형을 비롯한 秦의 형벌 대부분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통해 한이 진의 형벌체계를 거의 답습한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前漢은 진과 마찬가지로 육형과 무기 노역형이 溫存한 상태에서 사면을 이용해 관 소속 인력을 조절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 고조 2년(BCE 205)에 첫 사면이 내려진 이후 문제 7년(BCE 173)까지 ‘赦罪人’의 명령은 10회, ‘大赦罪人’의 명령은 5회 내려졌다.<sup>357)</sup>

대개 사면의 목적은 군주의 덕을 顯彰하거나 새로운 통치 질서의 출발을 위해 舊來의 죄악을 釋免하는 데 있다고 한다.<sup>358)</sup> 그러나 고조 재위기에 무려 9번의 赦令이 내려졌고 특히 고조 2년, 고조 5년, 고조 11년에는 한 해에

之數. 於是急法, 久者不赦.”

354) 『嶽麓書院藏秦簡(參)』(朱漢民·陳松長 主編,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2, 이하 『嶽麓秦簡(參)』으로 약칭) 簡45-46, “掾(錄)江陵獄: 『上造赦·士五(伍)猩智(知)人盜塚, 分臧(臧). 得. 赦當耐鬼薪, 猩黥城旦. 遷戊午赦(赦), 爲庶人. 鞠審, 獻(獻).』”

355) 『嶽麓秦簡(伍)』 簡166-167, “●數言赦, 不便. 請: 自今以來, 節(即)爲令若有議爲毆(也), 而當以赦爲根者, 皆以其赦令出之明日爲根, 曰: 某年某月某日以來. ●廷卒乙廿”

356) 『嶽麓秦簡(參)』 簡59-61, “●鞠之: 『達等塚, 不與猩·赦謀, 【得】衣器告; 猩·赦受分, 臧(臧)過六百六十錢. 得. 猩當黥城旦, 赦耐鬼薪. 遷戊午赦(赦). 審.』江陵守感·丞暨·史同論赦(赦)猩·赦爲庶人. 達等令(?)別(?)論. 敢獻(獻)之.”

357) 赦令이 내려진 연월일과 그 내용은 宮宅潔, 『中國古代刑制史の研究』, 2011, p.192의 표를 참고함.

358) 西嶋定生, 『赦天下について』, 『中國古代帝國の形成と構造—二十等爵制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1, pp.390-393.

赦令이 두 차례나 내려진 것은 한 고조의 사면령이 단지 신질서의 표상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대량의 囚人을 관리할 정치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기에 전통시대 중국의 왕조들이 사면령을 빈발했다는 주장<sup>359)</sup>은 사면의 ‘효용성’을 설파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데, 선행 연구 역시 위 관점에 주목하여, 한 초기 사면의 남발은 불필요한 예속 인력의 방출 및 조절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이해하였다.<sup>360)</sup>

다음으로, 형벌의 완화 역시 죄인을 감소하는 방안으로 이용되었다. 이년 율령이 편찬된 시점에 이미 형벌이 경감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은 이전부터 지적되었지만, 특히 이년 율령의 漢律과 수호지진간의 秦律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漢代 벌금형의 액수가 秦代의 賞罰보다 크게 가벼워진 것을 볼 수 있다. 진대에 주로 吏에 적용되던 賞罰은 벌금형의 형태로 바뀌는 동시에 일반 백성에게까지 적용되었는데, 이에 따른 형벌의 실질적 경감 효과는 상당히 컸을 것이다.<sup>361)</sup> 게다가 진률은 거자속채의 1일 노역 가치를 8전으로 계산한 데 비해<sup>362)</sup> 이년 율령은 1일의 노역 가치를 12전<sup>363)</sup>으로 계산했으므로 동일 금액의 형을 받아도 거자속채가 노역에 종사하는 기간은 훨씬 줄어들었다.<sup>364)</sup> 이는 장기적으로는 관 소속 인력(거자속채)의 수량 및 비용의 감소를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시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없었다. 국가가 소유한 인력만을 이용하겠다는 통치 이념과 무기 노역형이 병존하는 한, 도예의 재생산은 자명하였기 때문이다.

文帝 13년(BCE 167), 肉刑과 무기 노역형이 폐지되면서 마침내 한은 도예

359) Brian McKnight, *The Quality of Mercy: Amnesties and Traditional Chinese Justice*,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1, pp.115-123.

360) 陶安あんど, 『刑罰と身分』, 『秦漢刑罰體系の研究』, 東京: 創文社, 2009, p.88; 宮宅潔, 『恩赦と勞役刑—特に「復作」について』, 『中國古代刑制史の研究』, 2011, p.200.

361) 李成珪, 『秦·漢의 형벌체계의 再檢討—雲夢秦簡과 <二年律令>의 司寇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85, 2003, pp.58-60.

362)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33, “有罪以賞贖及有責(債)於公, 以其令日問之, 其弗能入及賞(債), 以令日居之, 日居八錢.”

363)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簡401, “已(?)徭及車牛當徭而乏之, 皆賞日十二錢, 有賞乏徭日, 車□” 이 조항은 興律 중에 포함되어 있고, 조항 중에 ‘徭’가 등장하는 점으로 보아, 요역 관련 조항이지 죄를 지어 관에서 일하는 거자속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단, 해당 조항은 요역을 담당하거나 車牛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징벌성으로 1일 12전을 징수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징벌적 대가’라는 점에서 거자속채와 1일 노동 가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여겨진다.

364) 李成珪, 『秦·漢의 형벌체계의 再檢討—雲夢秦簡과 <二年律令>의 司寇를 중심으로—』, 2003, p.67.

인력과 그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漢書』 『刑法志』에 기록된 형벌 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完刑에 처해야 하는 경우, 完城旦舂으로 삼습니다. 黥刑에 처해야 하는 경우, 髡鉗城旦舂으로 삼습니다. 劓刑에 처해야 하는 경우, 笞 300대로 합니다. 斬左止에 처해야 하는 경우, 笞 500대로 합니다. 斬右止에 처해야 하거나 사람을 죽이고 자수한 경우 및 吏가 뇌물을 받아 枉法함에 걸렸거나 縣官의 財物을 지키다 훔쳤는데 죄가 결정된 후 다시 笞罪를 범한 경우, 모두 棄市에 처합니다. 죄인이 재판이 종결된 경우, 完하여 城旦舂으로 삼고, 3년을 채우면 鬼薪白粲으로 삼습니다. 귀신백찬으로 1년을 채우면 예신첩으로 삼습니다. 예신첩으로 1년을 채우면 형을 면제하여 庶人으로 삼습니다. 예신첩으로 2년을 채우면 司寇로 삼습니다. 사구로 1년을 채우면 2년간 作如司寇하고, 모두 형을 면제하여 서인으로 삼습니다. 도망치거나 죄가 耐罪 이상인 경우, 이 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수으로 刑城旦舂이 되어 1년이 지났는데 禁錮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完하여 성단용으로 삼고 몇 년이 지난 후 형을 면제합니다.<sup>365)</sup>

文帝 13년의 형벌 개혁은 斬刑을 笞刑으로 黥刑을 髡鉗刑으로 치환함으로써 肉刑을 폐지하고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도예들의 형을 면제하여 庶人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즉 경중의 순서대로 髡鉗城旦舂 6년, 完城旦舂 5년, 鬼薪白粲 4년, 隸臣妾 3년, 司寇 1년의 기한이 지나면 庶인이 될 수 있었다.<sup>366)</sup> 단 『漢書』 『刑法志』와 『漢舊儀』의 기술이 조금씩 달라 정확한 형기를 둘러싼 논란이 존재하는데<sup>367)</sup> 이는 문제 13년에 개혁된 내용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조정 과정이 뒤따랐기 때문인 듯하다.<sup>368)</sup> 그러나 이 시기에 육형과 무기 노역형이 철폐된 사실 자체는 분명

365) 『漢書』 卷23 『刑法志』, p.1099, “臣謹議請定律曰: 諸當完者, 完爲城旦舂. 當黥者, 髡鉗爲城旦舂. 當劓者, 笞三百. 當斬左止者, 笞五百. 當斬右止, 及殺人先自告, 及吏坐受賕枉法, 守縣官財物而即盜之, 已論命復有笞罪者, 皆棄市. 罪人獄已決, 完爲城旦舂, 滿三歲爲鬼薪白粲. 鬼薪白粲一歲, 爲隸臣妾. 隸臣妾一歲, 免爲庶人. 隸臣妾滿二歲, 爲司寇. 司寇一歲, 及作如司寇二歲, 皆免爲庶人. 其亡逃及有罪耐以上, 不用此令. 前令之刑城旦舂歲而非禁錮者, 如完爲城旦舂歲數以免.”

366) 張建國, 「前漢文帝刑法改革とその展開の再検討」, 『古代文化』 48(10), 1996.

367) 주식 284) 참고.

368) 陶安あんど, 『秦漢刑罰體系の研究』, 2009, pp.375-381.

하므로 문제 13년의 형벌 개혁이 무기 도예의 종언을 의미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도예의 재생산은 제한되고, 노역 대부분을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런데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는 무엇에 의해 추진되었을까? 질문을 바꾸어 보자면, 왜 하필 문제 재위기에 형벌의 수정과 인력의 획기적 감소가 가능하였을까? 문제 13년에 육형과 무기 노역형이 폐지된 사실 자체는 매우 명확하고 개혁의 결과 대규모의 도예를 보유하는 현상이 재출현하지 못한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秦~漢初까지는 두 형벌의 철폐 대신 도예의 대여, 매각, 방출, 그리고 사면이라는 방식이 주로 시도되었다. 문제 이전의 황제와 위정자들 역시 율령을 改修함으로써 인력에 드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면, 왜 문제 시기에야 비로소 형벌의 개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인가?

개혁의 원인에 대한 전통적인 논법은 이른바 ‘文帝의 德政’으로, 이 사건을 최초로 서술한 『史記』는 淳于公의 딸 緹縈의 上奏를 형벌 개혁의 직접적 원인으로 들고 있다. 즉 緹縈의 上奏를 받은 문제가 육형을 받은 자들을 가엽게 여긴 것이 육형 폐지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文帝의 詔書는 성세와 현세의 비교, 육형의 잔혹성 및 무의미함에 대해 다루고 있어<sup>369)</sup>, ‘德政의 希求’ 외 형벌 개혁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漢書』 『刑法志』 역시 申屠嘉·어사대부의 상주를 인용하면서 문제가 백성들이 한 번 육형을 받으면 평생토록 회복할 수 없는 점을 가엽게 여긴 결과 육형을 폐지한 것으로 서술하였다.<sup>370)</sup>

물론 육형의 비윤리적 측면이 개혁을 끌어낸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음은

369) 『史記』 卷10 「孝文帝紀」, pp.427-428, “五月, 齊太倉令淳于公有罪當刑, 詔獄逮徙繫長安. 太倉公無男, 有女五人. 太倉公將行會逮, 罵其女曰: 「生子不生男, 有緩急非有益也!」其少女緹縈自傷泣, 乃隨其父至長安, 上書曰: 「妾父爲吏, 齊中皆稱其廉平, 今坐法當刑. 妾傷夫死者不可復生, 刑者不可復屬, 雖復欲改過自新, 其道無由也. 妾願沒入爲官婢, 贖父刑罪, 使得自新.」 書奏天子, 天子憐悲其意, 乃下詔曰: 「蓋聞有虞氏之時, 晝衣冠異章服以爲僂, 而民不犯. 何則? 至治也. 今法有肉刑三, 而姦不止, 其咎安在? 非乃朕德薄而教不明歟? 吾甚自愧. 故夫馴道不純而愚民陷焉. 詩曰『愷悌君子, 民之父母』. 今人有過, 教未施而刑加焉? 或欲改行爲善而道毋由也. 朕甚憐之. 夫刑至斷支體, 刻肌膚, 終身不息, 何其楚痛而不德也, 豈稱爲民父母之意哉! 其除肉刑.」”

370) 『漢書』 卷23 「刑法志」, p.1099, “丞相張蒼·御史大夫馮敬奏言: 「肉刑所以禁姦, 所由來者久矣. 陛下下明詔, 憐萬民之一有過被刑者終身不息, 及罪人欲改行爲善而道亡繇至, 於盛德, 臣等所不及也.」”



분명하다. 그러나 도예의 재생산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국가의 여러 노동 및 업무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점을 익히 예상할 수 있다면, 前漢 개창 이후 40년간 계속된 형벌 제도가 단지 비윤리성을 이유로 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형벌 개혁은 덕정에 대한 文帝의 의지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관 소속 인력이 감소해도 무방하다는(혹은 관 소속 인력이 감소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육형과 무기 노역형의 폐지는 도예의 효용성 감소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강제 노동의 예를 통해 도예의 노동생산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秦으로부터 前漢 初에 이르는 동안 도예에 대한 수요는 적정선에서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 재위기에 접어든 후 前漢은 이전과 비교할 때 대규모의 도예를 유지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였고, 그 결과 도예의 소멸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존재하는데, 먼저 漢初 산림수택의 독점 및 관영 산업의 운영 변화를 들 수 있다. I 장에서 論述하였듯이 秦은 대규모의 관영 수공업 조직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漢初 山林藪澤의 독점이 해제되면서 과거 관영 산업의 일부였던 製鹽 및 鐵, 金, 鉛 등의 광업 생산이 민간에 개방되었다.<sup>371)</sup> 이에 따라 관영 산업 운영에 동원되었던 대규모의 도예는 유희 노동력으로 전락하였는데, 특히 문제 시기의 ‘弛山澤’은 도예에 대한 수요를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sup>372)</sup>

다음으로, 문제의 재위 시점이 漢의 통치가 궤도에 오른 이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앞서 한 차례 언급하였는데, 천하를 통일하고 제국을 갖 정비하는 시점에는 다양한 토목공사나 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많은 인원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중국의 역대 왕조는 개창과 함께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여 宮과 陵墓, 성벽, 관청 등을 조영해 왔으며 前漢 역

371) 사적으로 製鹽하거나 채굴하는 경우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다음 조항은 呂后 시기 자원의 독점이 해제된 상황을 보여준다. 『張家山漢簡』『二年律令』簡 436-438, “諸私爲鹵鹽, 煮濟·漢, 及有私鹽井鹽者, 稅之, 縣官取一, 主取五. 采銀租之, 縣官給橐, 十三鬪爲一石, □石縣官稅□□三斤. 其□也, 牢橐, 石三錢. 租其出金, 稅二錢. 租賣穴者, 十錢稅一. 采鐵者五稅一; 其鼓銷以爲成器, 有五稅一. 采鉛者十稅一. 采金者租之, 人日十五分銖二. 民私采丹者租之, 男子月六斤九兩, 女子四斤六兩.”

372) 李成珪, 『秦·漢의 형벌체계의 再檢討—雲夢秦簡과 <二年律令>의 司寇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85, 2003, pp.70-72.

시 예외는 아니었다. 高祖 6년(BCE 197) 천하의 縣·邑에 城을 쌓도록 지시한 일<sup>373)</sup>이나 惠帝 원년(BCE 195) 長安城의 축조를 시작하여 3년 3월 長安城 600리 내의 남녀 4만 6천 명을 동원하여 30일간 축성하도록 하고, 동년 6월 제후·열후가 소유한 도에 2만 명을 동원한 일<sup>374)</sup>은 모두 한초에 대단위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토목공사가 시행되었음을 전한다.

그러나 呂后 이후 武帝의 원정 이전까지 대규모의 토목공사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sup>375)</sup> 당시 郡 혹은 中央 차원에서 시행한 토목공사로는 文帝 12년에 東郡에서 황하가 터져 제방을 축조한 공사<sup>376)</sup>나 황제의 능묘 건설 정도가 보일 뿐이다. 이는 통치에 필요한 주요 시설물의 건설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인데,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도에는 잉여 인력으로 인식되었을 뿐이었다. 즉 문제 즉위를 전후한 시점에 이르러 인력 자원의 한계 효용이 遞減하면서 국가는 수많은 도예를 거느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인력의 수요가 감소할 경우, 광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일은 어려워지고 그 유지비용은 고스란히 재정적자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이다.<sup>377)</sup>

물론 다수의 도예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짊어진 것은 고조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당시는 다양한 토목공사, 국가 차원의 사업을 시행해야 했으므로 도예에 대한 수요가 유지될 수 있었고, 국가 역시 도에 인력을 유지, 장악해야 하는 상황을 감수하려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고 국가 운영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 국가에 예속된 인력 중 일부는 잉여 인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前漢 元帝 시기 貢禹가 ‘각 관청에 하는 일 없이 노는 관노비가 수십만인데, 이들을 유지하는 비용이 막대하니 庶人으로 삼아 수졸로 보내야 한다’<sup>378)</sup>고 비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보여준다. 더욱이 국가 산업 중 일부가 민간으로 이양되고 규제가 완화되는

373) 『漢書』 卷1 「高祖紀」, p.59, “六年冬十月, 令天下縣邑城.” 【師古曰: 「縣之與邑, 皆令築城.」】

374) 『漢書』 卷2 「惠帝紀」, p.89, “三年春, 發長安六百里內男女十四萬六千人城長安, 三十日罷. (….) 六月, 發諸侯王·列侯徒隸二萬人城長安.”

375) 藤田勝久, 『中國古代國家と郡縣社會』, 東京: 汲古書院, 2005, p.278(表 2), p.342(表 1)

376) 『史記』 卷22 「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第十」, p.1127, “(孝文十二年)河決東郡金隄.”; 『漢書』 卷4 「文帝紀」, p.123, “十二年冬十二月, 河決東郡.”

377) 陶安あんど, 『秦漢刑罰體系の研究』, 2009, p.88.

378) 『漢書』 卷72 「貢禹傳」, p.3076, “又諸官奴婢十萬餘人戲遊亡事, 稅良民以給之, 歲費五六鉅萬, 宜免爲庶人, 廩食, 令代關東戍卒, 乘北邊亭塞候望.”

호름 속에서 대규모의 도예는 마땅히 절감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특히 국가가 독점한 항목 중 불필요한 부분을 해제하는 것이 文帝 시기 정책의 핵심이라면<sup>379)</sup> 국가가 독점한 거대 인력 자원 중 도예를 삭감한 것 역시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을 것이다.

### 3) 文帝의 개혁 이후에 남은 예속 인력

도예가 소멸한 후 前漢은 어떤 방식으로 노동 수요를 해결했을까? 문제 13년 이후 국가에 직속한 인력으로서 官奴婢·有期 徒隸, 그리고 兵役과 力役에 징발된卒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개혁 초기 前漢은 한동안 위의 인력을 필요한 업무·노동에 활용하였을 것이다. 선행 연구는 문제 13년 이후 前漢이 적절한 정도의 恩赦에 의해 관노비, 유기 도예의 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보았다. 단, 恩赦가 내려진 후 곧바로 관노비나 유기 도예를 모두 방면할 경우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기 도예는 은사에 의해 죄를 용서받은 후에도 한동안 본래 소속 관서에서 民의 신분으로 복역해야 했는데 이들은 復作, 弛刑으로 명명되었다.<sup>380)</sup> 선행 연구의 논리대로라면 문제 13년의 개혁 이후 漢은 여전히 관에 속한 인력만으로 필요한 노동 수요를 채울 수 있었고, 심지어 유기 도예마저도 때로는 恩赦를 기제로 그 수량이 감소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료는 前漢 중기부터 국가가 민간의 인력을 이용한 사실을 말해준다. 이에 관해서는 3절에서 다시 詳述할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곧 도예가 소멸된 후 관노비, 유기 도예,卒의 인력만으로 국가의 노동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有期 徒隸가 과연 전한 중기 이후 국가의 노동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有期 徒隸의 수량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前漢이 보유한 유기 도예의 수량을 보여주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다. 다만 앞서 哀帝 元壽 2년 堂邑縣의 유기 도예와 관노비가 당읍현 전체 인구의 약 0.79%에 해당한 것으로 추측하고, 진 여산릉 조영에 동원된

<sup>379)</sup> 김병준, 「전한 무제시기 대외전쟁과 주도세력의 변화」, 2019, p.14.

<sup>380)</sup> 宮宅潔은 漢이 노역형을 유기화한 이후 일정 기간마다 은사를 내리고 일부를 復作으로 이용함으로써 예속 인력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宮宅潔, 「恩赦と勞役刑—特に「復作」について」, 2011, pp.212-215)

刑徒의 수량을 근거로 통일 진의 도예가 인구 중 5-7% 정도로 추정하였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무기 노역형의 폐지 이후 국가가 소유한 인력은 기존 인력의 약 1/6-1/8에 불과한 셈이 된다. 게다가 전술한 것처럼 二年律令 단계부터 이미 형벌의 완화가 나타나고 있었다면 유기 노역형에 처해진 백성의 수 자체도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문제 13년 이전 도예의 총노동량은 有期 徒隸 및 기타 국가 예속 인력의 노동량을 합친 수치를 웃돌았을 것이다.

물론 도예가 소멸된 것과 함께 국가의 업무·노동이 대폭 감소하였다면 인력의 감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한, 후한의 史實은 유기 도예의 수량이 국가가 필요한 노동을 해결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암시한다. 前漢 成帝 시기 황하 決壞 시 제방을 쌓은 사례와 後漢 明帝 시기 褒斜道를 건설한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로 前漢 成帝 河平 연간의 황하 치수에 대해 살펴보자. 이 해의 황하 범람은 성제가 연호를 建始에서 河平으로 바꿀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다. 황하는 여러 郡에 걸쳐 범람하였기 때문에 성제는 매우 시급하게 제방을 쌓도록 하였고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을 致賀하였다. 아래의 인용문은 前漢이 수해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한 추과 그 보상에 대해 特記하였다.

(범람으로부터) 36일이 지나 河隄가 완성되었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東郡에서 黃河가 범람하여 兗州, 豫州에 물이 흘러들었으나 校尉인 王延世가 30일 만에 제방의 뚫린 부분을 막았다. 이로부터 建始 5년을 河平 元年으로 연호를 바꾸도록 하겠다. 치수 공사를 담당한 추은 6개월간 外徭에 종사한 것으로 (장부에) 명시하라.’ 생각건대, 王延世는 計策에 능하여 工費가 절약되고 用力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 짐은 매우 기쁘니 王延世를 光祿大夫에 임명하여 秩二千石으로 삼고, 關內侯의 爵과 黃金 100斤을 사여한다.’라고 하셨다.

2년 후, 황하가 다시 平原郡에서 터져, 濟南郡과 千乘郡으로 (강물이 범람해) 들어갔으나, 피해는 建始 연간(에 입은 피해)의 절반이었다. 다시 왕연세를 파견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 6개월이 지나 (제방이) 완성되었다. 왕연세에 다시 황금 100근을 사여했고, 황하를 치수한 추로서 平價를 받지 않은 자는 6개월간 外徭에 종사한 것으로 (장부에) 명시했다.<sup>381)</sup>

建始 5년(BCE 28), 東郡 金堤가 터져 인근의 군현이 수해를 입자 조정은 긴박하게 황하 치수에 돌입하였다. 校尉 王延世가 36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뚫린 곳을 막고 河隄를 완성했다는 대목으로부터 치수의 긴박함을 엿볼 수 있는데, 당시 河隄 건설 작업에는 ‘卒’이 대거 동원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成帝가 36일간 河隄 공사에 종사한卒에 ‘6개월의 外徭’를 인정한 사실이다. 즉 당시 황하 치수에 종사한 졸은 무상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6개월의 外徭’라는 대가를 받은 것이다. ‘外徭’란 자신이 소속된 지역 바깥에서의 徭役을 의미한다.<sup>382)</sup> 36일간 河隄를 건설한卒에 보상의 일환으로 6개월의 外徭를 인정해 주었다면 이는 곧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으며, 당연히 해당卒은 外徭 중인卒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36일이卒의 징발으로부터 河隄 완성까지의 총 기간이라면 단기간에 변경에서 복무 중인 수졸을 동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시 치수를 담당한 자들은 병역에 복무 중인 인근 郡, 縣의 수졸일 것이다.

2년 후 河平 3년(BCE 26), 平原郡에서 황하의 제방이 다시 터지자 왕연세는 다시卒을 동원하여 6개월 동안 제방을 건설하였는데, 이번에는 제방 공사에서 노역한卒에게 平價를 주거나 6개월간 徭戍한 것으로 처리해 주었다. 平價란 평균 가격으로 여기에서는 법정 임금을 뜻하는데, 공사를 담당한卒에 임금을 주거나 6개월간 外徭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의무를 앞으로 면제한 사실은, 6개월의 노역이 법정 의무를 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sup>383)</sup> 즉 요역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자에게는 임금을, 의무를 아직 다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요역 6개월을 면제해 주었다고 이해된다. 즉 건시 5년과 하

381) 『漢書』 卷29 『溝洫志』, pp.1688-1689, “三十六日, 河隄成. 上曰: 東郡河決, 流漂二州, 校尉延世隄防三旬立塞. 其以五年爲河平元年. 卒治河者爲著外繇六月. 惟延世長於計策, 功費約省, 用力日寡, 朕甚嘉之. 其以延世爲光祿大夫, 秩中二千石, 賜爵關內侯, 黃金百斤. (….) 後二歲, 河復決平原, 流入濟南·千乘, 所壞敗者半建始時, 復遣王延世治之. (….) 六月乃成. 復賜延世黃金百斤. 治河卒非受平價者, 爲著外繇六月.”

382) 渡邊信一郎은 外徭가 반드시 변경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內, 外의 구분은 郡內와 郡外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즉 漢代를 살았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徭役에 징집되는 기준은 자신이 거주하는 郡縣이었기에 郡縣 내부에서 부과된 요역이 內徭이고, 郡外에서 수행되던 요역은 실사 그것이 長安에서의 요역이라 할지라도 外徭였다는 것이다. (渡邊信一郎,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2010, pp.133-136) 漢代 성인 남성은 소속 郡縣에서 1년 동안, 그리고 변경 혹은 수도에서 1년 동안 戍役을 담당했으므로, 渡邊信一郎의 ‘外徭’를 여기에 대입하면, 外徭는 즉 변경 혹은 수도에서 1년간 徭戍하는 의무가 된다.

383) 李成珪, 『漢代 閏年の 財政收支와 兵·徭役의 調整』, 『震檀學報』 109, 2010, p.227.

평 2년의 황하 치수는 모두卒의 인력을 이용하고, 사후에 노동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秦代 건설·보수에는 일부 卒수가 동원되기도 하였으나, 역시 일차적으로 동원되는 대상은 도예였다. 문제 13년의 형벌 개혁으로 刑期の 변화는 나타났으나, ‘죄를 짓고 그 벌로 관부를 위해 노역한다’는 도예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던 이상, 국가 주도의 건설·보수에 유기 도예를 우선 투입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런데도 왕연세는 제방 건설에 卒을 투입하였고, 성제는 그들에게 사후 보상을 내렸다. 平價 혹은 6개월의 外徭라는 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동원된 卒 중에는 1년의 의무 복무가 종료된 후 추가로 복무한 자들도 존재했다. 1년 복무라는 원칙을 유보하면서까지 卒을 동원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이들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범람이 심각했기 때문이었겠지만, 인근의 郡이 보유한 유기 도예만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던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국가가 보유한 예속 인력이 충분하였다면 굳이 사후 보상을 하면서까지 卒을 동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後漢 褒斜道の 건설의 인력 이용 양상을 살펴보자. 褒斜道の 건설은 후한 명제 永平 6년(64)에 시작되어 永平 9년(67) 4월에 완성되었다. 시공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공사 기간은 최단 475일 최장 828일 사이로 추정된다. 건설은 한중군이 주관하였으며 당시 건설한 시설은 棧道 633間과 大橋 5개, 도로 258里(약 107km)와 郵亭, 驛置, 徒司空 등의 관청이었다. 한중군, 광한군, 축군, 파군으로부터 동원된 徒는 2,690인이며<sup>384)</sup> 전체 기간 이용된 총 노동력은 누계[積] 766,800餘人, 소비한 瓦는 369,804器, 투입된 비용은 총 1,499,400錢에 달했다.<sup>385)</sup> 비록 한중군이 褒斜道 건설을 주관했다고 하나 皇帝의 詔書를 받아 廣漢郡, 蜀郡, 巴郡의 徒를 이용한 점을 보면 포사도의 건설은 중앙 차원의 토목공사로 여겨진다.

384) 高震襄은 시공 주체인 漢中郡을 포함하여, 총 4개 군에서 징발한 도예가 2,690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高震襄, 「從勞動力運用角度看秦漢刑徒管理制度的發展」, 2017, p.106)

385) 『金石萃編』 卷5 「開褒斜道摩崖刻石」, “永平六[年], 漢中郡以詔書受廣漢蜀郡巴郡徒二千六百九十人, 開通褒余道, 太守鉅鹿鄒君, 部掾治級, 王弘, 史荀茂, 張宇, [韓]岑[等], [興]功作, [太守丞]廣漢楊顯[將相用, 始]作橋格[六]百卅[三](間), 大橋五, 爲道二百五[十八里], 郵亭, 驛置, 徒司空, [褒]中縣官寺并六十四所, 最凡, 用功七十六萬六千八百[餘人], 瓦卅六萬九千八百四[器], 用錢百四十九萬九千四百餘斛粟, 九年四月成就, 益州東至京師, 去就安穩] 이상, 표점은 永田英正, 『漢代石刻集成:圖版·釋文編』의 표점을 참고함. (永田英正 編, 『漢代石刻集成:圖版·釋文編』, 同朋舍, 1994, p.20)

4개 군에서 징집된 도예는 총 2,690人인데, 군마다 차출한 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일단 기계적으로 사분하면 1개 군에서 보낸 도예는 약 672.5인이자. 석각에 따르면 공사에 이용된 총 노동력[用功]은 766,800인라고 하는데, 이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투입된 총인원[積]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 노동력을 동원된 도예의 수로 나누면 2,690인의 도예가 빠짐없이 매일 일한 경우의 노역 일수를 얻을 수 있다. 해당 수치는 285.05, 즉 2,690인의 도예를 매일 사역시켰다면 포사도의 총 공사 기간은 약 285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포사도의 총 공사 기간은 최단 475일에서 최장 828일 사이로 추정되어, 285일이라는 수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나타난다.

褒斜道 공사는 棧道 건설을 포함하는 고난도의 토목공사였으며 褒斜谷은 지형이 험준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武帝가 포사도 약 500여 리를 건설하기 위해 수만 명의 인력을 동원한 사실도 포사도의 공사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또한 기상상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다 日書에서 지정한 공사에 부적합한 날도 존재했으므로<sup>386)</sup> 공사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는 날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 공사 기간이 工程보다 길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실제 공사 기간과 工程에 커다란 차이가 보이는 것은 당시 4개 군의 도예들이 공사가 가능한 기간에 매일 노역한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혹은 윤번에 따라 노역하였음을 암시한다.

秦, 漢이 토목공사를 시행하기 전 건설하려는 시설물의 체적을 계산하고 1인이 하루 동안 담당할 수 있는 작업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일 평균 작업량 및 工程을 산출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sup>387)</sup> 이상의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인 完工을 위한 것임은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군, 광한군, 파군, 축군이 2,690인의 도예를 윤번으로 동원했다면, 4개 군은 당시 대량의 도예를 포사도 공사에 전적으로 파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혹은, 공사를 주관한 한중군의 도예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인근의 3개 군으로부터 도예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河平 연간의 황하 치수와 褒斜道の 건설은 전한 중기 이후 국가가 인력을 이용하는 양상의 한 단면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두 사례

386) 山田勝芳, 『秦漢財政收入の研究』, 1993, p.546.

387) 李成珪, 『數의 帝國 秦漢 : 計數와 計量의 支配』, 2019, pp.277-279.

모두 국가의 건설 업무가 예속 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예속 인력의 운용이 원활히 되지 않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武帝 이후 국가가 강제 동원한 인력에 徒隸, 刑徒보다 吏, 卒, 民이 더 빈번히 보이는 사실 역시 유기 도예가 기존의 노동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암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秦은 건설, 운송에 徒隸와 卒의 인력을 함께 이용하였으나, 노동의 우선순위는 대개 도예에 있었다. 따라서 전한 중기 이후 卒, 심지어 民이 건설과 운송에 동원되는 현상은 결국 유기 도예의 인력 부족을 방증한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卒, 民의 인력이 이용된 것이다.

국가의 예속 인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토목공사의 공정이 길어지거나 卒, 民 등 다른 인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에도 불구하고 육형과 무기 노역형을 전면적으로 되살리려는 시도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景帝 이후 宮刑이 다시 도입되어 司馬遷이 이른바 ‘李陵의 禍’로 궁형에 처해진 일은 잘 알려져 있거니와, 실제 肉刑을 다시 집행하자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하였다.<sup>388)</sup>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실제로 후대의 출토 자료에는 ‘完城旦’, ‘髡鉗城旦’만이 보일 뿐 아니라<sup>389)</sup> 유기 도예가 鄉里로 귀환하는 양상<sup>390)</sup>이 분명하게 나타나 肉刑과 무기 노역형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문제 재위기에 입안된 여타 정책인 田租의 폐지, 통행증의 폐지<sup>391)</sup>, 산림수택의 개방<sup>392)</sup>은 景帝 시기 철폐되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하면,

388) 『後漢書』卷70『孔融傳』, p.2266, “時論者多欲復肉刑. 融乃建議曰:『古者敦龐, 善否不別, 吏端刑清, 政無過失. 百姓有罪, 皆自取之. 末世陵遲, 風化壞亂, 政撓其俗, 法害其人. 故曰上失其道, 民散久矣. 而欲繩之以古刑, 投之以殘棄, 非所謂與時消息者也. 紂斬朝涉之脛, 天下謂爲無道. 夫九牧之地, 千八百君, 若各刑一人, 是下常有千八百紂也. 求俗休和, 弗可得已. 且被刑之人, 慮不念生, 志在思死, 類多趨惡, 莫復歸正. 夙沙亂齊, 伊戾禍宋, 趙高·英布, 爲世大患. 不能止人遂爲非也, 適足絕人還爲善耳. 雖忠如鬻拳, 信如卞和, 智如孫臏, 冤如巷伯, 才如史遷, 達如子政, 一離刀鋸, 沒世不齒. 是太甲之思庸, 穆公之霸秦, 南睢之骨立, 衛武之初筵, 陳湯之都賴, 魏尚之守邊, 無所復施也. 漢開改惡之路, 凡爲此也. 故明德之君, 遠度深惟, 弃短就長, 不苟革其政者也.』朝廷善之, 卒不改焉.”

389) 예컨대 근년 발표된 『長沙尚德街東漢簡牘』에 수록된 簡212(간 번호 2011CSCJ482 ②:25-2)는 後漢 靈帝 시기 犯法 내용에 대응하는 형벌을 기재하였는데, 여기에는 棄市, 完城旦, 司寇, 鬼薪의 형벌만이 기록되어 있다. 『長沙尚德街東漢簡牘』(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編, 長沙: 嶽麓書院, 2016) 簡212(2011CSCJ482②:25-2), “列侯相遺書以侯印封, 完城旦. 鬪刀傷人, 完城旦. 人妻事口禾口接夫婦道父母. 嫁爲人妻滅死罪一等, 完城旦. 棄書官印以上, 司寇. 非縱火時擅縱火, 燒山林口司寇.”

390) 敦煌懸泉置出土漢簡 I T0309③:149, “神爵四年五月甲子朔壬申, 懸泉置嗇夫弘敢言之. 廷司寇大男馮奉世, 故魏郡內黃共里, 會二月丙辰赦, 免爲庶人. 當歸故縣□使”(張俊民, 『敦煌懸泉所見文書格式簡』, 『敦煌懸泉置出土文書研究』, 蘭州: 甘肅教育出版社, 2015, p.422)



적어도 도예의 소멸이 당시 시대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帝國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업무는 秦에서나 문제 13년 이후의 漢에서나 대동소이하므로, 漢은 여전히 일정 이상의 인력을 이용해야 했다. 그런데 유기 도예의 인력이 문제 13년 이전 도예의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였다면 漢은 자연히 새로운 인력 자원을 모색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漢은 어떠한 인력 자원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를 채우려 하였을까? 문제 13년 이전의 도예 제도를 되살리거나 새로운 국가 예속 인력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면 결국 새로운 인력 이용 방식은 官 바깥의 인력을 이용하는 형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전한 중기 이후의 행정문서에 빈번히 보이는 ‘庸(傭)’, 즉 고용노동자는 국가의 인력 수요를 채우는 역할을 하였다고 여겨진다. 고용 노동은 고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기 때문에 전한 중기 이후 관영수공업을 제외한 국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민간인력을 고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本章의 3절에서 이어가도록 하자.

## 2. 民間社會의 人力 雇傭

전한 중기 이후 국가는 민간인을 유상 고용하여 각종 업무·노동에 이용하였다. 국가의 인력 고용은 노동 비용에서 기인하였다고 여겨지는데, 만일 전한 중기의 사회에 고용 노동이 보편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국가의 인력 고용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고용 노동은 인력의 꾸준한 공급을 전제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인력을 고용하는 현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本節에서는 前漢 시기 민간사회에서의 인력 고용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人力 雇傭의 수요와 공급

민간의 인력 고용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나타났다. 『管子』에서 ‘北海의

391) 『漢書』 卷5 『景帝本紀』, p.143, “四年春, 復置諸關用傳出入.”

392) 『漢書』 卷5 『景帝本紀』, p.153, “(後三年) 吏發民若取庸采黃金珠玉者, 坐臧爲盜”

사람들이 노동자를 고용해 소금을 끓이는 일을 시켰다’고 한 것이나<sup>393)</sup> ‘양식을 운송할 때 운송업자[僦]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운송하고) 돌아올 때는 임노동자[傭]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sup>394)</sup>는 『商君書』의 기록은 戰國時期 민간사회의 인력 고용을 입증한다. 秦의 민간사회에도 고용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존재하였는데, 隸臣이 官府 몰래 다른 타인에 고용되었다는<sup>395)</sup> 기록이나 秦末 陳勝이 향리에서 傭耕한 일화<sup>396)</sup>는 인력 고용이 성행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최근 공표된 北京大學 소장 傭作文書에는 일군의 피고용자가 노역한 기간과 일 수령 임금, 실제 수령한 임금 등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기년은 秦始皇 32년으로 추정된다. 문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역의 대가로 錢이나 米를 받았고, 官府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문서는 고용노동자와 그들의 임금을 적은 일종의 명세서로 이해할 수 있다.<sup>397)</sup> 그렇다면 민간인의 인력 유상 고용은 전국시대 이래로 계속 존재했고, 인력의 수급을 위한 노동시장 역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간의 고용 노동은 생산, 건설을 포함하는 각종 육체노동, 선박이나 수레를 이용하는 수송 노동, 그 외 代役 및 雜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타인을 고용하여 농경, 목축, 농산품의 가공, 건설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고용 노동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였다. 예컨대 『管子』는 자연재해가 들었을 때 국가가 일종의 구제책으로서 백성을 宮室의 건축에 유상 고용하였음을 보여준다.<sup>398)</sup> 또한 『상군서』는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면 大夫, 家

393) 『管子』 卷23 「輕重甲」, “桓公曰:「何謂籍于時?」管子曰:「陽春農事方作, 令民毋得築垣牆, 毋得繕冢墓; 丈夫毋得治宮室, 毋得立台榭; 北海之衆毋得聚庸而煮鹽, 然鹽之賈必四什倍。」”

394) 『商君書』 「墾令第二」, “令送糧無取僦, 無得反庸, 車牛輿重設必當名. 然則往速徠疾, 則業不敗農, 業不敗農, 則草必墾矣.”

395) 『嶽麓秦簡(參)』 簡143-144, “同曰:「歸義. 就(僦)日未盡, 爲人庸(傭), 除芝.」 諝(潛)訊同歸義狀及邑里居處狀, 改(改)曰:「隸臣, 非歸義.」 訊同:「非歸義, 可(何)故?」 同曰:「爲吏僕, 內爲人庸(傭), 恐吏數(繫)辟同□□」”

396) 『史記』 卷48 「陳涉世家」, p.1949, “陳涉少時, 嘗與人傭耕, 輟耕之壟上, 悵悵久之, 曰:「苟富貴, 無相忘.」 庸者笑而應曰:「若爲庸耕, 何富貴也?」 陳涉太息曰:「嗟乎, 燕雀安知鴻鵠之志哉!」”

397) 陳侃理, 「北京大學藏秦代傭作文書初釋」, 中國文化遺產研究院 編, 『出土文獻研究』 14, 上海: 中西書局, 2015.

398) 자연재해가 들었을 때 빈민을 고용해 궁실을 건축하도록 하는 구제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바로 건설 시 고용 노동을 이용한 정황을 보여준다. 『管子』 卷21 「乘馬數」 “若歲凶旱水洩, 民失本, 則修宮室台榭, 以前無狗后無彘者爲庸. 故修宮室台榭, 非麗其樂也,

長이 가옥을 건축하거나 고치지 못하게 되어, 그간 농업을 등한시하던 사람들이 다시 경작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sup>399)</sup>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 이래 고용 노동이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분야는 건설을 비롯한 육체노동이었다. 둘째, 물자를 운송할 때 운송 수단을 지닌 사람이나 운송 수단을 유상으로 이용하는 일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후술할 전한 중기의 僦人은 물자 운송과 고용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데, 僦人은 민간인과 관에 모두 고용되어 전문적으로 물자를 운송하였다. 셋째, 타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병역, 요역을 代役하도록 하거나, 고용주를 위해 각종 잡역을 수행하는 것 역시 고용 노동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피고용인을 잡역에 종사하도록 하는 일은 간단한 심부름으로부터 사적 보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특히 吏에 고용된 私從者나 少는 吏의 보조역을 담당하였는데, 吏가 개인 소유의 노비를 從者로 삼는 경우도 존재했으나 고용 계약을 맺고 民을 從者로 삼기도 하였다.<sup>400)</sup> 예컨대 後漢의 ‘少’는 민간인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사적인 심부름, 잡역을 담당하였는데 채무 상환을 위해 少가 되는 경우도 보인다.<sup>401)</sup> 兩漢의 고용 노동과 관련된 문헌 사료의 서술은 40여 건 이상 나타나는데 여기에 현재까지 공표된 각종 律令과 행정문서의 기록까지 합산한다면, 당시 민간의 고용 노동은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적지 않은 수의 私奴婢, 사적 隸屬民이 존재하였으며 이들이 각종 노역에 종사한 증거 역시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특히

以平國策也.”

399) 『商君書』『墾令第二』, “無得取庸, 則大夫家長不建繕, 愛子不惰食, 惰民不窳, 而庸民無所於食, 是必農. 大夫家長不建繕, 則農事不傷. 愛子·惰民不窳, 則故田不荒. 農事不傷, 農民益農, 則草必墾矣.”

400) 『政論』(『群書治要』卷45) “夫百里長吏, 荷諸侯之任, 而食監門之祿, 請舉一隅, 以率其餘. 一月之祿, 得粟二十斛·錢二千. 長吏雖欲崇約, 猶當有從者一人. 假令無奴, 當復取客. 客庸一月千, 芻·膏肉五百, 薪炭鹽菜又五百. 二人食粟六斛, 其餘財足給馬, 豈能供冬夏衣被·四時祠祀·賓客斗酒之費乎? 況復迎父母·致妻子哉!”

401) 모년 모월 모일에 廣亭長이 된 良이 醴陵鄉의 夏防를 債하여 少로 삼았다는 기록과 效功亭長 徐豐이 ‘男子 胡通이 男子 薛便을 債한 결과 少로 삼은 것이 아니’라며言한 기록으로 보아 채무를 가진 자는 채권자의 少가 되어 노동으로 채무를 갚기도 하였다. 『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貳)』(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等編, 上海: 中西書局, 2018. 이하 『五一廣場(貳)』로 약칭) 523 2010CWJ1③:260-5, “年不處月日爲廣亭長, 債醴陵男子夏防爲少, 月值六百.”; 『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選釋』(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等編, 上海: 中西書局, 2015. 이하 『選釋』으로 약칭) 一〇九 木兩行CWJ1③:325-1-57, “效功亭長徐豐言男子胡通不債男子薛便爲少書. 十一月五日開.”

노비는 주인의 호적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동일 공간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使役의 편의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노비 노동이 고용 노동보다 간편하거나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존재한다. 예컨대 王褒의 『僮約』은 전한 후기 廣漢郡 일대에서 노비를 이용한 각종 생산·판매 활동이 진전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僮約』의 저술 시점인 전한 후기에도 고용 노동이 성행하였고 호족 경제가 크게 발달한 후한에서도 인력의 고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은 노비나 예속민의 노동이 고용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즉 노역의 성격, 상황에 따라서는 고용 노동이 노비·예속민 노동보다 비교 우위에 있던 것이다. 그렇다면 漢代 민간인이 고용 노동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꾸어 말하자면, 고용 노동의 수요는 무엇에서 기인하였을까?

먼저, 고용 노동은 비용 지출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었다. 앞서 도예의 축소가 재정 지출의 감축에서 기인했다고 서술하였는데, 민간의 노비노동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本章의 3절에서 도예 노동 대비 고용 노동이 비용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을 서술하겠지만, 구입을 위해 초기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노비 노동은 도예 노동과 비교할 때 소비되는 총비용이 더 컸다. 노비를 사역하기 위해서는 노비 구매에 자본을 투입하는 과정이 선행되기 때문이다.<sup>402)</sup> 게다가 도예와 마찬가지로 노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자본의 고정 및 소비가 뒤따랐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고용 노동이 훨씬 유리한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선행 연구는 자본 대부분을 노비에 투입하여 노비를 사역하는 것보다 노비에 투입할 비용을 토지에 투자하고 소작농을 고용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지적하였는데,<sup>403)</sup> 특히 소규모의 수공업 공방이나 생산 시설의 경우 많은 인력을 유지하는 일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고용하는 편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酒家傭<sup>404)</sup>, 治家傭<sup>405)</sup>의 기록이 빈번히 보이는

402) 李成珪, 『中國古代帝國成立史研究—秦國齊民支配體制的 形成』, 1984, pp.125-126.

403) 宇都宮清吉, 「僮約研究」, 『漢代社會經濟史研究』, 弘文堂, 1954, pp.309-310.

404) 『史記』 卷100 「季布欒布列傳」, p.2733, “欒布者, 梁人也. 始梁王彭越爲家人時, 嘗與布游. 窮困, 賃傭於齊, 爲酒人保.”; 『後漢書』 卷63 「李杜列傳」, p.2090, “文姬乃告父門生王成曰: 「君執義先公, 有古人之節. 今委君以六尺之孤, 李氏存滅, 其在君矣.」 成感其義, 乃將變乘江東下, 入徐州界內, 令變名姓爲酒家傭, 而成賣卜於市. 各爲異人, 陰相往來. 變從受學, 酒家異之, 意非恆人, 以女妻變. 變專精經學. 十餘年間, 梁冀既誅而灾眚屢見. 明年, 史官上言宜有赦令, 又當存錄大臣冤死者子孫, 於是大赦天下, 并求固後嗣. 變乃以

것은 소규모의 수공업자들이 인력 고용을 필요로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고용 노동과 노비 노동 중 한쪽을 선택하는 데는 지역적 차이도 영향을 끼쳤다. 계층 분화가 적거나 토지가 넓고 사람이 적은 곳에서는 소작인이나 피고용자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자연히 고용 노동보다는 노비 경영을 선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sup>406)</sup> 반대로 계층 분화가 크고 인구가 조밀한 곳, 즉 도시 지역에서는 쉽게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시간 안에 일을 완수해야 하거나 평상시보다 많은 인력을 결집해야 하는 경우, 고용 노동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예컨대 새로운 경작지의 개발은 일시적으로 인력을 집결하는 노동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시적 노역을 위해 노비를 유지하는 것은 지나친 비용 낭비이며, 설사 노비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노비를 구매하는 자본이 필요하므로 초기의 비용 지출이 과도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특정 시기·계절에 인력이 필요하거나 한정된 기간에 대규모의 인력을 결집해야 하는 경우, 노비 노동보다 고용 노동을 이용하는 편이 더욱 유리하였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實例를 살펴보자.

建武 22년 9월, 지진으로 南陽郡 일대가 커다란 피해를 입자 光武帝는 조서를 내려 여러 구체책을 지시했다. 이 중에는 무너진 담장이나 가옥 아래에 매몰된 시신을 家屬이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 官府가 보유한 錢穀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여[取傭] 시신을 찾아 주라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sup>407)</sup>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시신을 수습할 棺에 필요한 錢을 官이 지급해야 할 정도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다. 따라서 남양군이 직접 보유한 인력만으로 시신을 바로 수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시신의 미수습은 곧 전염병의 창궐 등 후속 문제로 이어지므로 국가는 최대한 빠르게 사태를 해결

---

本末告酒家，酒家具車重厚遣之，皆不受，遂還鄉里，追服。”

405) 『後漢書』卷67「黨錮列傳」, p.2202, “乃自翦須變形，入林慮山中，隱匿姓名，爲治家傭。親突煙炭，形貌毀瘠，積二三年，人無知者。後馥弟靜，乘車馬，載縑帛，追之於涅陽市中。遇馥不識，聞其言聲，乃覺而拜之。馥避不與語，靜追隨至客舍，共宿。”

406) 李成珪, 「前漢의 大土地 經營과 奴婢 勞動-香港中文大學文物館所藏 簡牘 <奴婢廩食粟出入簿>의 分析을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20, 2008, pp.68-76.

407) 『後漢書』卷1「光武帝紀」, p.74, “九月戊辰，地震裂。制詔曰：「日者地震，南陽尤甚。鬼神不順無德，災殃將及吏人，朕甚懼焉。其令南陽勿輸今年田租芻稟。遣謁者案行，其死罪繫囚在戊辰以前，減死罪一等；徒皆弛解鉗，衣絲絮。賜郡中居人壓死者棺錢，人三千。其口賦逋稅而廬宅尤破壞者，勿收責。吏人死亡，或在壞垣毀屋之下，而家羸弱不能收拾者，其以見錢穀取傭，爲尋求之。」”

하기 위해 노동자를 고용하였다. 비록 이 사건은 국가가 인력을 고용한 사례이지만 고용 노동의 속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走馬樓西漢簡牘 중 傭作 관련 문서는 고용 노동이 일시적·계절적 노역을 해결할 때에도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陽, 安成里的 公乘 伧. 伧은 陽과 公乘 午가 充任한 고용노동자[傭]에 명하여 禾를 쳐서 米 472石으로 만들고, 粟 306매를 채우도록 하고 粟을 連하여(?) 米 522石 6斗로 만들도록 하였다. (여기에 소요된) 총 노동력은 471인이며 (임금은) 인당 일 30전이다. 伧은 亭長이다. 3월 을축일에 10,501錢을 받았다. 傭人인 公乘 坐, □, 剛 등을 심문하였는데, 모두 錢을 얻지 못하였다.<sup>408)</sup>

위에서 公乘 伧은 고용노동자를 몇 가지 노역에 종사하도록 했다. 먼저 禾를 치는[擊] 일, 즉 탈곡을 시켜 472석의 米로 만들었다. 이후에 나오는 ‘作盛粟莧’과 ‘連粟’은 어떠한 노역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粟과 莧 혹은 粟 307매를 채우고 粟을 ‘連’하여 米 522石 6斗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역시 채집 및 정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곡물 수확, 탈곡 작업에 이용된 총 노동력[積徒]은 471인, 임금은 인당 일 30전이다. 積은 일 노동자와 전체 노역 일수를 곱한 수량을 의미하므로, 이 노역을 위해 소비된 고용 임금은 14,130전이 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탈곡은 주로 특정 계절, 특정 시기에 행해지는 작업이다. 중앙 관부에는 御米를 탈곡하고 고르는 導官이 존재하였으나<sup>409)</sup> 백성이나 지방 관부는 대개 수확기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다. 특히 위와 같이 정미된 양이 거의 1,000석에 근접하는 경우,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했음은 자명하다. 漢代 居延의 戌卒 1인이 매월 大石 2석(小石 3石 3斗 3升) 정도의 곡식을 식량으로 받은 점을 상기한다면 위의 인용문에서 탈

408) 『湖南出土簡牘選編(伍)』(鄭曙斌 編, 長沙: 岳麓書社, 2013) 簡4, “陽安成里公乘伧. 伧命陽公乘午所具庸擊禾爲米四百七十二石 作盛粟莧三百六枚 連粟爲米五百廿二石六斗. 積徒四百七十一人, 人日卅錢. 伧, 亭長. 三月乙丑受錢萬五百一. 問庸人公乘坐□剛等, 皆未得錢. 伧受野等債錢不予野等□相史美守令史相[石+竟]正午考盜伧等實□□□□”

409) 『後漢書』 志第26 『百官志三』, p.3590, “導官令一人, 六百石. 本注曰: 主舂御米, 及作乾糲. 導, 擇也. 丞一人.”

곡 및 채집하도록 한 米는 卒 261여 명을 1개월간 먹일 수 있는 양임을 알 수 있다.<sup>410)</sup> 그러나 계절성을 가지는 노역을 위해 노비를 들이는 것은 오히려 재정적 부담 및 노동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었기에, 僦은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탈곡을 해결하였을 것이다. 문헌 사료에도 탈곡(혹은 정미)을 위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현상<sup>411)</sup>이 눈에 띄는 이유는 바로 고용 노동이 기간 한정 노동 수요를 충족하는 데 적절하였기 때문이다.

단, 위와 같은 이점을 지니고 있어도 충분한 인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력 고용이 보편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용 노동의 확산은 피고용자의 꾸준한 증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었다. 주지하듯이 노동시장은 타인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고용자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자 하는 피고용자에 의해 구성되므로, 양자 중 한 편이 결핍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인력 고용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노동 가능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설사 고용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고용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前漢 중기 이후 고용 노동의 증가는 고용 노동 인구의 증가에 의해 견인되었다고 판단한다. 고용 노동 인구의 증가는 두 가지 측면으로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武帝 재위기까지의 인구 증가이며 두 번째는 이 시기 고용노동자가 될 가능성을 지닌 존재, 즉 流民·客民의 증가이다.

인구의 증가는 그 자체만으로 인력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지만, 특히 授田體制 하에서의 인구 증가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잉여 인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년율령의 규정에 따르면 戶主가 사망한 경우 戶의 공식적 후계자인 後者는 먼저 전택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아들은 남아 있는 전답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sup>412)</sup> 호별 授田 액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인구가 증가했다면 이는 곧 경작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인구의 양

410) 이렇듯 많은 양의 곡식을 일개 亭長이 보유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기록이 관부의 고용노동자 이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소관 관부나 담당 吏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데도 亭長의 職掌은 관부 소유 곡물의 가공과 무관하기 때문에, 관부와의 관계성은 일단 유보했다.

411) 예컨대 ‘杵臼之交’의 고사로 유명한 公沙穆은 집안이 가난하여 客傭으로서 吳祐의 집에서 賃舂하다 그와 교유하게 되었다. (『後漢書』 卷64, 『吳延史盧趙列傳』, p.2100, “時公沙穆來遊太學, 無資糧, 乃變服客傭, 爲祐賃舂. 祐與語大驚, 遂共定交於杵臼之間.”)

412)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簡312-313, “不幸死者, 令其後先擇田, 乃行其餘. 它子男欲爲戶, 以受其殺田予之. 其已前爲戶而毋田宅, 田宅不盈, 得以盈. 宅不比, 不得.”

산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자기 소유의 전을 가지지 못한 차남, 삼남의 경우 향촌에서의 傭耕이나 타지에서 고용 노동 외 별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인구의 증가는 고용노동자의 양적 증가를 추동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한 중기까지의 인구 증가 양상은 어떠했을까? 文帝~景帝 시기 전쟁의 감소와 민간 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전한 초기부터 무제 초기까지 중원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漢書』의 기록을 통해 한 고조 이후 무제 중기까지의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sup>413)</sup> 선행 연구는 高祖 6년에 왕국, 후국에 봉해진 공신과 그 후손, 그리고 國의 演變을 기록한 『漢書』 「高惠高后文功臣表」에 근거해 제후가 國에 처음 봉해진 시점의 戶數와 廢封된 시점의 戶數를 비교함으로써 전한 초의 인구 변화를 추측하였다. 또한 『漢書』의 「惠帝紀」, 「文帝紀」, 「景帝紀」에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인구 관련 기록과 『漢書』에 보이는 일부 郡國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한 시기의 인구 증가율을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前漢 초(BCE202)에서 武帝 元光 원년(BCE127)까지 1,500~1,800만에서 3,600만명으로 증가하여, 연 평균 약 1.0~1.2%의 인구 증가율이 나타났다.<sup>414)</sup> 매년 1%의 인구 증가율은 현대 사회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오늘날보다 사망률이 현저히 높았던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수치가 나타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처럼 높은 인구 증가율이 한동안 지속했다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였으리라고 익히 예상할 수 있다. 다만 고용 노동의 확산은 인구 증가 외에도 추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바로 타지로의 이동 가능성이다. 오늘날에도 노동시장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형성되기 마련인데, 이는 중국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경작에 필요한 인력을 향리 내에서 고용하거나<sup>415)</sup>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병역·요역의 대역자를 동일 縣 내에서 구하는 수요도 존재한다. 그러나 도시나 郡治·縣治의 고용 수요와 공급이 전체적으로 더 큰 비중을 점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노동의 종류가 한정된 향촌과 비교하면, 당시 현성 및 도시의 시장은 일종의 ‘인력 시장’으로서 다

413) 葛劍雄, 『中國人口發展史』,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91, pp.110-111.

414) 위의 책, pp.111-113.

415) 이를테면 향리에서 傭耕한 陳勝의 예를 볼 수 있다. 『史記』 卷48 「陳涉世家」, p.1949, “陳涉少時, 嘗與人傭耕, 輟耕之壟上, 悵悵久之, 曰: 「苟富貴, 無相忘。」 庸者笑而應曰: 「若爲庸耕, 何富貴也?」 陳涉太息曰: 「嗟乎, 燕雀安知鴻鵠之志哉!」”



양한 인력과 임금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이다.<sup>416)</sup>

따라서 고용 노동의 확산은 타지로의 이동 증가 및 타지에 거주하며 타인에 고용되는 사람들의 증가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편호제민의 사회에서 고용 노동을 하는 자들은 대부분 자의나 타의로 농업에서 유리된 사람들이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大夫, 家長이 가옥을 건축하거나 고치지 못할 것이고 농업을 등한시하던 사람들이 다시 경작하게 될 것이라는 『商君書』 「墾令」의 논리<sup>417)</sup>는 농경에서 유리된 자들과 고용 노동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아울러 前漢 昭帝가 始元 4년에 내린 조서에서 “작황이 좋지 않아 백성들의 식량이 부족하고, ‘流庸’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다”<sup>418)</sup>고 한 대목도 流民과 고용노동자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流’는 本鄉을 떠나 타지에 흘러 들어간 자로, 流民·客民을 지칭하는 듯한데, 고향을 떠난 자와 고용노동자를 뜻하는 ‘庸’이 합성된 ‘流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곧 당시 고용 인력의 주요 원천이 향리를 벗어난 사람들이었음을 의미한다. 즉 고용 노동의 확산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희인력 및 그들의 이동에 의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으며 漢 중기 이후 고용 노동의 확산은 향리를 벗어난 사람들, 즉 流民, 客民의 증가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리를 떠난 사람들이 고용 노동의 주요 원천이었음은 前漢 初 ‘豪强大家’가 流亡하는 자들을 고용하여 광물을 캐고 소금을 끓이는 영리 행위를 한 사실<sup>419)</sup>이나 亡人의 고용을 금지하는 秦·漢律의 조항<sup>420)</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의 고용을 금지한 律의 존재 자체가 곧 망인을 고용하는 풍조가 성행하였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굴, 私鑄 등 불법적인 일을 하는 자

416) 飯島和俊, 「秦漢交替期の雇用關係-『江陵張家山漢簡』『奏讞書』』案例22に見えるの『它縣人來乘庸』を手がかりとして」, 『唐代史研究』 3, 2000, p.40.

417) 『商君書』 「墾令第二」, “無得取庸, 則大夫家長不建繕, 愛子不惰食, 惰民不廩, 而庸民無所於食, 是必農. 大夫家長不建繕, 則農事不傷. 愛子·惰民不廩, 則故田不荒. 農事不傷, 農民益農, 則草必墾矣.”

418) 『漢書』 卷7 「昭帝紀」 p.221, “(始元四年)秋七月, 詔曰: 『比歲不登, 民匱於食, 流庸未盡還, 往時令民共出馬, 其止勿出. 諸給中都官者, 且減之.』”

419) 『鹽鐵論』 「復古」, “往者豪强大家, 得管山海之利, 採鐵石鼓鑄, 煮鹽, 一家聚衆或至千餘人, 大抵盡收流亡人民也.”

420) 『獄麓秦簡(肆)』 簡75, “取罪人、羣亡人以爲庸, 智(知)其請(情), 爲匿之; 不智(知)其請(情), 取過五日以上, 以舍罪人律論之.”;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簡172, “取亡罪人爲庸, 不智其亡, 以舍亡人律論之. 所舍取未去, 若已去後, 智其請而捕告, 及訶告吏捕得之, 皆除其罪, 勿購.”

들 사이에서는 신원 불명자를 고용하려는 수요가 늘 존재했다. 그러나 전한 중기 이전에는 경계를 벗어나는 행위[亡]를 엄격히 규제하였고 본적을 오랜 기간 떠나 있는 일도 금지되었기에, 유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실제 고용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의 수량 역시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지하듯이 秦, 漢 시기의 경계를 넘는 이동은 官으로부터 발급받은 통행증을 소지한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했다.<sup>421)</sup> 국가는 경계를 함부로 벗어나는 일을 엄금하였고, 불법으로 경계를 벗어난 자와 그를 숨겨준 사람을 모두 ‘亡’으로 처벌했다.<sup>422)</sup> 이사 시의 戶籍, 徭役 처리 규정을 보면 秦, 漢에서도 제한적이거나 통행이 허락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반 백성이 통행증을 받아 군, 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은 많지 않았고, 군, 현 단위의 합법적 ‘越境’은 대개 관리의 부임, 통행증을 받은 상인의 이동, 천사, 그리고卒의 파견 등에 그쳤을 것이다.<sup>423)</sup> 설사 본적지를 떠나 타지에 머무를 수 있어도 장기간의 체류는 허용되지 않았다.

郡 및 關外の 黔首가 關中の 縣·道에 들어와 부모를 만나거나 장사를 하고자 하는데 禁錮刑에 처해지지 않았다면 이를 허락한다. 관중의 縣·道에 들인 후 12월이 지나면 그 현에 돌려보내 田作을 뒤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sup>424)</sup>

위에 인용한 秦令에 따르면, 關 바깥 혹은 지방의 郡에 거주하는 사람이 關中の 縣·道에 거주하는 부모를 만나거나 장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오려 하는 경우 禁錮에 해당하지 않으면 關中の 縣·道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다. 일견 통행의 자유가 보장된 듯 보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부모를

421) 漢代 통행증 제도와 關所의 검문에 대해서는 宋 眞, 『漢代 通行證 제도와 商人의 移動』, 『東洋史學研究』 92, 2005를 참고하였다.

422)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簡168, “取(娶)人妻及亡人以爲妻, 及爲亡人妻, 取(娶)及所取(娶), 爲謀<媒>者, 智(知)其請(情), 皆黥以爲城旦舂. 其眞罪重, 以匿罪人律論.”; 簡171, “諸舍亡人及罪人亡者, 不智其亡, 盈五日以上, 所舍罪當黥口贖耐”; 簡172, “取亡罪人爲庸, 不智其亡, 以舍亡人律論之. 所舍取未去, 若已去後, 智其請而捕告, 及詔告吏捕得之, 皆除其罪, 勿購.”

423) 李成珪, 『中國 古代 帝國의 統合性 提高와 그 機制—民·官의 移動과 ‘帝國意識’의 형성을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 11, 2004, pp.38-66.

424) 『嶽麓秦簡(伍)』 簡366, “●郡及關外黔首有欲入見親·市中縣【道】, 【毋】禁錮者毆(也), 許之. 入之, 十二月復, 到其縣, 毋後田. 田時, 縣毋入毆(也).”

만나려는 자식이나 상인 외에는 사실상 關中の 縣·道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12월이 지나면 반드시 거주지(본적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경작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12월 이후 귀향하도록 한 가장 큰 이유는 이듬해의 농업 생산을 염두에 둔 것인데, 위와 같은 습이 존재하였다면 關外의 일반 郡縣 방문 시 적용되는 유사 규정도 존재하였을 것이며, 장기간의 타지 거주는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sup>425)</sup> 진의 행정문서나 율령 중 타지인 일반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시기 이동이 극히 제한된 결과로 간주된다.

(1) 珠玉을 몰래 국경의 관문 밖으로 반출하거나 客에 매각하였는데 (이를 적발해) 주옥을 內史에 바쳤다면, 내사는 곧 포상한다.<sup>426)</sup>

(2) 제후국에서 客이 오면 불로 (그들이 타고 온) 마차의 끝채 끝에 있는 횡목을 그을리도록 한다. 무엇 때문에 그을리는가? 해당 제후국이 (馬에 붙은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말을 굵지 않아서 해충이 (馬의) 멍에와 (馬와 수레를 연결한) 가죽띠에 붙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을리는 것이다.<sup>427)</sup>

전국 말 秦律 중에는 ‘客’이 등장하지만 律文의 내용 및 전후 맥락은 이 ‘客’이 진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인을 지칭하였음을 보여준다. (1)에 따르면 客에 珠玉을 매각하는 행위는 범법 행위로 간주되었는데, 만일 客이 단지 타지에 거주 중인 秦人이라면 珠玉의 매각을 이유로 처벌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1)에서 ‘客에 주옥을 판매하는 행위’는 ‘주옥을 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와 동등하게 취급되었으므로 이 조문의 ‘客’이 외국인인을 지칭하는 것은 분명하다. 아울러 제후국에서 ‘客’이 오면 그가 타고 온 마차의 횡목을 그을리도록 한 (2)의 조항은 秦 통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425) 李成珪, 『數의 帝國 秦漢 : 計數와 計量의 支配』, 2019, p.347.

426) 『睡虎地秦簡』 『法律答問』 簡140, “盜出朱(珠)玉邦關及買(賣)於客者, 上朱(珠)玉內史, 內史材鼠(予)購.”

427) 『睡虎地秦簡』 『法律答問』 簡179, “者(諸)侯客來者, 以火炎其衡厄(軛). 炎之可(何)? 當者(諸)侯不治騷馬, 騷馬蟲皆麗衡厄(軛)鞅鞵鞵鞵, 是以炎之.”

데, 이 조항을 통해서도 ‘客’이 非 秦民, 즉 외국인을 가리켰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嶽麓秦簡의 율령에는 ‘客’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전국시대 ‘客’의 용례가 단순한 타지인이 아닌 외국인이었다면 진 제국 성립 직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嶽麓秦簡 율령에 ‘客’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중국 전체가 진의 영토가 된 이상, 외국인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전한 초에서도 동일하여 二年律令이나 奏讞書 중에는 客에 관한 조항,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前漢 중기를 기점으로 ‘客民’, ‘流客’, ‘客子’라는 표현이 행정문서에 다수 등장하는 것이다. ‘客’의 字義인 ‘客, 寄也’<sup>428)</sup>에서 볼 수 있듯이 ‘客’이란 타지에 임시로 거처하는 사람이나 행위를 지칭하므로, 客과 民이 합쳐진 客民은 당시 戶籍을 原籍地에 두고 임시로 와 있는 사람을 뜻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서북지역 출토 漢簡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客子, 客民이 적힌 문서는 대개 前漢 武帝-新 시기 甲渠候官, 肩水金關이 발급한 통행증이나 통행 기록이므로, 여기에 ‘客’, ‘客子’, ‘客民’이 보이는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국가가 타지에 머무르는 ‘客’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3) 客子인 漁陽郡 路縣 安平里的 張安上. 馬 2匹 車 2대<sup>429)</sup>

(4) 客子인 左馮翊 徐甬……<sup>430)</sup>

(3),(4)는 客子 기록 중 일부이다. 양자 모두 ‘客子’임을 명시하였으며 본적지를 명기하였다. (3)은 소속 군, 현, 리와 소지한 馬와 車도 상세히 적은 것으로 보아 통관 기록의 일부로 보인다. 전한 중기 張掖郡 내에는 수변을 위해 머무르는 타군 출신 수졸과 吏 외에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온 상인, 貲家, 僦人이 적지 않게 존재하였으나 일시적으로 타지에 머무는 상인, 자가, 추인에는 ‘客’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았으므로 위의 ‘客子’는 비교적 장기간 타지에 체류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客子の 通關에 대한 복수의 기

428) 『說文解字』 卷7 「宀部」, “客, 寄也. 從宀各聲.”

429) 『居延漢簡釋文合校』 甲附40, “客子漁陽郡路縣安平里張安上 馬二匹 車二乘”

430) 『肩水金關漢簡(壹)』(甘肅簡牘保護研究中心 等編, 上海: 中西書局, 2011) 73EJT5:9, “客子左馮翊徐甬”

록<sup>431)</sup>이 존재하는 점은 客子, 客民 중 통행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이동한 자들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관 역시 이들을 ‘客子’라고 표시함으로써 이들이 본 소속을 떠나 장기간 타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客民’, ‘客子’가 행정적으로 일종의 ‘임시 신분’처럼 인식되는 현상과 앞서 살펴본 진·한률의 이동 관련 규정 사이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과거와 달리 다수의 객민, 객자가 존재하였다면 곧 고용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역시 증가하였을 것이다. 원적지를 떠난 자들이 타지에서 각종 고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례가 다수 관찰되기 때문이다. 특히 車, 牛馬, 船 등 운송 수단을 지참한 客이 타인에 고용되어 물자를 운송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양한 교체기의 소송 사건을 기록한 『建武三年甲渠侯粟君所債寇恩事』 冊書에 등장하는 寇恩과 그 아들 欽은 潁川郡 昆陽縣 출신 客民으로, 寇恩은 魚를 신고 鱣得의 시장에 가서 팔아 오기로 粟君과 계약을 맺었고,<sup>432)</sup> 欽은 粟君에 고용되어 3개월 동안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였다.<sup>433)</sup>

그렇다면 이 시기 客民, 客자가 다수 존재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바꾸어 말하자면, 고용 노동을 확산시킨 두 번째 계기, 즉 타지로의 이동 가능성은 어느 시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일까? 이에 대해 王莽·後漢 교체기에 編戶齊民의 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客民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이 중 많은 수가 시장이나 도시로 유입되어 고용노동자 계층으로 흡수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sup>434)</sup> 즉 양한 교체기의 정치적 혼란이 인구의 대대적 이동을

431) 『肩水金關漢簡(壹)』 73EJT9:32, “凡十四人皆客子 符七”; 『肩水金關漢簡(壹)』 73EJT9:97, “•凡十四人皆客子 輶車十乘馬十匹”; 『肩水金關漢簡(參)』(甘肅簡牘保護研究中心 等編, 上海: 中西書局, 2013) 73EJT32:75, “九月一輩凡卅三人 其四人居延吏 一人昭吏 三人酒泉吏 六人郡中民 一人會水民 五人客子 七人奴 四人婢 輶車七乘 馬八匹 牛車三兩 牛三頭”

432) 『居延新簡 : 甲渠候官』(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等編, 北京: 中華書局, 1994, 이하 『居延新簡』으로 약칭) E.P.F22:29, “建武三年十二月癸丑朔辛未, 都鄉嗇夫宮敢言之. 廷移甲渠侯書曰: 去年十二月中取客民寇恩爲就, 載魚五千頭到鱣得, 就賈用牛一頭, 穀廿七石.”; 『居延新簡』 E.P.F22:3-E.P.F22:4-E.P.F22:5-E.P.F22:6, “爰書驗問, 恩辭曰: 潁川昆陽市南里, 年六十六歲, 姓寇氏. 去年十二月中甲渠令史華商·尉史周育當爲候粟君載魚之鱣得賣. 商育不能行, 商即出牛一頭黃特齒八歲, 平賈直六十石, 與交穀十五石, 爲七十五石. 育出牛一頭黑特齒五歲, 平賈直六十石, 與穀卅石, 凡爲穀百石. 皆予粟君以當載魚就直.”

433) 『居延新簡』 E.P.F22:26, “恩子男欽, 以去年十二月廿日爲粟君捕魚盡今年正月閏月二月, 積作三月十日, 不得賈直. 時市庸平賈大男日二斗, 爲穀廿石”

434) 石洋, 『兩漢三國時期“傭”群體的歷史演變-以民間雇用爲中心』, 『中國史研究』 2014(3), 2014, p.62.

초래한 결과 객민이 대량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양한 교체기에 유민이 대거 발생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客民의 등장은 兩漢 교체기의 정치적 혼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북 출토 漢簡에 이미 客民・客子が 다수 보여, 원적지를 떠나 타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르면 武帝 시기부터 존재한 사실<sup>435)</sup>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노동자의 원천이 되는 客은 이미 전한 중기에 등장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행정문서에 보이는 客자, 客민이 불법적으로 경계를 넘는 자들이 아닌 사실은 당시 客의 확산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정책상의 근본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원칙의 변동’은 漢宣帝 시기를 기점으로 나타났다고 여겨진다.<sup>436)</sup>

持節 3년 3월, 宣帝는 膠東國의 流民 8만여 구가 ‘自占’한 일을 언급하고, 膠東國의 相인 王成의 流民 처리 방식이 매우 비상하다며 關內侯의 작을 내렸다.<sup>437)</sup> 위 기록에 대해 顏師古가 ‘占이란, 그 호구를 헤아려 호적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占者, 謂自隱度其戶口而著名籍也.]’고 주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占이란 戶口의 상황을 직접 드러내 보고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自占은 당사자가 본인의 정보를 직접 밝히는 것을 의미할 것인데, 다음에 인용한 조문에서 自占은 호적을 작성하기 위해 당사자가 본인의 연령을 직접 신고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백성은 모두 스스로 연령을 신고한다. 어려서 스스로 신고할 수 없는데 신고해 줄 父母・兄弟가 없다면 吏가 …로써 연령을 比定한다. 스스로 연령을 신고하거나 자식・형제의 연령을 (대신) 신고하였는데, 실제 연령과 3살 이상 차이 나면 모두 耐刑에 처한다.<sup>438)</sup>

435) 예를 들어 다음의 기록은 昭帝 元鳳 4년의 客子 살인 사건의 일부를 전하고 있다. 『居延漢簡(壹)』 88.5, “居延騎士廣都里李宗坐殺客子楊充元鳳四年正月丁酉亡”

436) 金秉駿, 『樂浪郡初期의 編戶過程』, 『古代文化』 61(2), 2009, pp.71-72.

437) 『漢書』 卷8 「宣帝紀」 p.248, “(持節)三年春三月, 詔曰: 『蓋聞有功不賞, 有罪不誅, 雖唐虞猶不能以化天下. 今膠東相成勞來不怠, 流民自占八萬餘口, 治有異等. 其秩成中二千石, 賜爵關內侯.』”; 『漢書』 卷89 「循吏傳·王成」, p.3627, “王成, 不知何郡人也. 爲膠東相, 治甚有聲. 宣帝最先褒之, 地節三年下詔曰: 『蓋聞有功不賞, 有罪不誅, 雖唐虞不能以化天下. 今膠東相成, 勞來不怠, 流民自占八萬餘口, 治有異等之效. 其賜成爵關內侯, 秩中二千石.』”

438)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簡325-326, “民皆自占年. 小未能自占, 而母父母·同產爲占者, 吏以□比定其年. 自占·占子·同產年, 不以實三歲以上, 皆耐. 產子者恒以戶時占其□”

律文은 당사자의 연령 신고를 ‘自占’으로, 가족의 대리 신고를 ‘占’으로 구분하였다. 어려서 스스로 신고할 수 없다면 부모·형제가, 부모·형제조차 없는 경우 호적 등록을 주관하는 吏가 대신 연령을 신고해 주어야 한다는 추가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自占이 연소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정보 등록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연로하여 自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즉 연령을 비롯한 각종 호구 정보를 自占하는 것은 사람마다 출생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平時에는 수만의 民이 갑자기 自占하는 일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鄉이 일단 호적을 작성하면 원본과 부분은 각각 鄉·縣廷에 보관하였으므로, 만일 유민이 본적지로 귀환하였다면 호적을 自占하는 행위는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持節 3년 膠東國에 유민 8만여 구가 ‘自占’하였다는 기록은 곧 타지를 전전하던 流民이 본적지인 膠東國에 귀환한 것이 아니라, 본적지로 돌아가지 않고 膠東國에 새로 정착한 것을 의미한다. 왕성의 사후, 실은 유민 8만 명의 교동국 정착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는 하였지만<sup>439)</sup> 위의 일화에서 주목할 점은 당시 타지에 흘러들어온 사람들을 귀환시키려 시도하는<sup>440)</sup> 와중에도 현실적으로 모든 유민을 귀환시키지 못하였고, 결국 현실에 맞추어 유민들을 현재 소재지에 임시로 정착시키는 정책이 등장한 사실이다.

成帝 재위기의 對 流民 정책에서도 ‘현실의 수용’을 엿볼 수 있다. 陽朔 2년, 鴻嘉 4년에 재해가 들자 유민들은 함곡관을 비롯한 각종 關을 넘어 타지로 이동하였다. 그러자 양삭 2년에 성제는 函谷關, 天井關, 壺口關, 五阮關을 지나려 하는 유민을 잡아두지 말라는 조서를 내렸고,<sup>441)</sup> 홍가 4년에는 入關하여 京畿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유민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기록하고 들여보내도록 허락하는 한편 流民이 향하는 郡國은 이들의 구휼에 힘쓰도록 하였다.<sup>442)</sup> 재해로 인해 갑작스레 이동하는 백성들이 모두 통행증을 발급받

439) 『漢書』 卷89 「循吏傳·王成」, p.3627, “後詔使丞相御史問郡國上計長吏守丞以政令得失, 或對言前膠東相成僞自增加, 以蒙顯賞, 是後俗吏多爲虛名云.”

440) 같은 해 10월에는 귀환한 流民에게 公田을 假作하고 종자와 식량을 대여하도록 하며, 일시적으로 세역을 면제하는 ‘귀환책’이 실시되었다. (『漢書』 卷8 「宣帝紀」, p.249, “流民還歸者, 假公田, 貸種·食, 且勿算事.”)

441) 『漢書』 卷10 「成帝紀」 p.313, “秋, 關東大水, 流民欲入函谷·天井·壺口·五阮關者, 勿苛留.”

442) 『漢書』 卷10 「成帝紀」 pp.318-319, “被災害什四以上, 民貲不滿三萬, 勿出租賦. 逋貸未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관소를 넘으려 하는 유민들은 대부분 통행증을 지니지 않았을 것이다. 관소에서 유민을 잡아두지 말도록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며, 입관 시 姓名을 기록하고 들여보내도록 지시한 것은 통행증을 지니지 않은 백성에 대한 특별 조치였다.

유민의 이름을 기록한 후 입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국가가 통행 질서를 완전히 방기하지 않은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자연재해를 겪은 유민들에게 특별히 京畿 지역을 개방한 사례는 평시에는 통행증이 없는 자의 이동을 제한한 사실을 방증한다.<sup>443)</sup> 그러나 직접 戶籍을 지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流民이 姓名을 적는 정도로 그의 신상명세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成帝 이전에는 이러한 특별 조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漢 高祖가 關中에 큰 기근이 들자 백성들이 蜀漢에 가서 就食하도록 하였으나<sup>444)</sup> 이는 高祖가 漢王일 때의 사건이므로 국가의 시책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成帝 시기에는 그 어떤 시기보다 자연재해가 빈발하였기 때문에 여러 임시적 조치가 나타났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재해 지역에 식량을 漕運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통행 제한을 이완하는 조치가 나타나는 것은 현실에 맞추어 통행 관련 원칙이 조금씩 변동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宣帝 이후 본적지를 떠나 있는 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을 현 소재지에 등록하면서 고용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점차 증가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兩漢 교체기의 인구 이동, 後漢의 流民 정책이 더해지며 客民, 流民은 일층 확대되었다. 後漢 시기에 이르면 유민을 귀환시키는 지시보다 현지에 호적을 새로 등록하는 지시가 훨씬 빈번히 내려지는데, 이는 유민, 더 나아가 통행에 대한 국가의 원칙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後漢은 流人이 본적지에 이르는 동안 郡縣이 廩食하고 官亭에 숙박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sup>445)</sup> 流人의 귀환을 장려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無戶籍者와 流人을 현 소재지에 새로 등록하도록 유도하였다. 후자의 정책은 明帝

---

入, 皆勿收. 流民欲入關, 輒籍內. 所之郡國, 謹遇以理, 務有以全活之, 思稱朕意.”【師古曰: 「錄其名籍而內之.」】

443) 宋 眞, 「前漢時期 帝國의 內部 境界와 그 出入 管理」, 『東洋史學研究』 121, 2012, p.28.

444) 『漢書』 卷1上 「高帝紀上」, p.38 “關中大飢, 米斛萬錢, 人相食. 令民就食蜀漢.”

445) 『後漢書』 卷3 「章帝紀」, p.132, “流人欲歸本者, 郡縣其實稟, 令足還到, 聽過止官亭, 無雇舍宿.”



재위기에 시작되었는데 明帝는 永平 3년 天下의 男子에 爵 2급을, 三老, 孝悌, 力田에게는 爵 3급, 그리고 ‘流人無名數欲占者’에게는 爵 1급을 사여하는 조서를 내렸다.<sup>446)</sup> 다른 시기의 동일 조서에는 ‘流人無名數欲占著者’<sup>447)</sup>라고도 표현되는데, 占(占著)은 ‘附名籍’<sup>448)</sup> 즉 현재 소재지에 호적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조치는 流民이나 호적을 지니지 않은 자들 중 현재 소재지에 호적을 등록하기 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적으로 爵을 내릴 때 流民·무호적자 중 호적 등록을 원하는 자들에게도 작 1급을 내린 것은 賜爵을 이용해 호적 등록을 유도하고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을 재편제하는 조치였다.<sup>449)</sup>

流民의 귀환 및 현 소재지 등록 조치는 함께 시행되었으나 후자는 비교적 오랜 기간(明帝 永平 3년에서 質帝 陽嘉 元年까지) 17차례나 반복되었다.<sup>450)</sup> 본적지 외의 지역에 ‘占著’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본적지에 귀환하는 대신 재정이 풍족한 郡縣이나 일자리가 많은 都市에 호적을 등록하는 流民들도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循吏 李忠이 丹陽太守가 된 후 墾田에 힘을 기울이자 3년 만에 流民 중 占著한 자들이 5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sup>451)</sup> 이러한 지역에서는 客民, 流民의 고용 노동이 활발히 나타났을 것인데, 실제로 後漢和帝 시기 臨湘縣에서 客民이 고용 노동에 종사하는 현상<sup>452)</sup>을 통해 통행 정책의 변화와 고용 노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 노동은 필요한 때에만 인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었다. 전국시대 이후 민간사회에 인력 고용이 성행하였던 것은 고용 노동의

446) 『後漢書』卷2 『明帝紀』, p.121, “其賜天下男子爵, 人二級, 三老·孝悌·力田人三級, 流人無名數欲占者人一級.”

447) 『後漢書』卷6 『孝順孝沖孝質帝紀』, p.259, “陽嘉元年春正月乙巳, 立皇后梁氏. 賜爵, 人二級, 三老·孝悌·力田三級, 爵過公乘, 得移與子若同產·同產子, 民無名數及流民欲占著者人一級.”

448) 『後漢書』卷2 『明帝紀』, p.111, “丙子, 臨辟雍, 養三老·五更. 禮畢, 詔三公募郡國中都官死罪繫囚, 減罪一等, 勿答, 詣度遼將軍營, 屯朔方·五原之邊縣; 妻子自隨, 便占著邊縣” 【占著謂附名籍.】

449) 宋 眞, 『戰國 秦~漢初 왕조교체와 流民의 존재 양상』, 『中國古中世史研究』 55, 2020, p.78.

450) 蔣丹丹, 『五一廣場東漢簡牘所見流民及客—兼論東漢時期長沙地區流動人口管理』, 鄒文玲 主編, 『簡帛研究二〇一七·秋冬卷』,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8, p.232.

451) 『後漢書』卷21 『李忠列傳』, p.756, “六年, 遷丹陽太守. (….) 墾田增多, 三歲間流民占著者五萬餘口.”

452) 李周炫, 『漢簡からみた國家の物資輸送と雇傭勞動』, 伊藤敏雄·關尾史郎 編, 『後漢·魏晉簡牘の世界』, 東京: 汲古書院, 2020, pp.250-252.

수요가 유지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인구의 증가, 통행 정책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인구가 증가하며 고용 노동의 공급 역시 증가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인력 고용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발히 나타났을까? 다음 부분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한 중기 이후 병역·요역의 代役을 비롯한 인력 고용의 추이를 살펴보겠다.

## 2) 前漢 中期 兵役·徭役의 代役 성행

전한 중기 민간사회에 존재한 다양한 고용 관계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병역, 요역의 代役이다. 원칙상 秦·前漢의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 요역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sup>453)</sup>이나 장애인 혹은 高爵 소지자에게는 병역, 요역이 면제되었는데, 가령 변경 지역에 粟 4,000석 이상을 바쳐 五大夫 이상의 작을 받으면 1인의 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고, 騎馬 1필을 바치면 3인의 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sup>454)</sup> 단,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역을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타인을 유상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역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었다. 최근 출토된 秦 戍律은 진대에도 병역의 대역이 가능하였음을 입증하는데 전한의 출토 사료에 보이는 代役의 조건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진의 대역 관련 조항이 전한으로 계승된 것을 알 수 있다. 居延漢簡·居延新簡·肩水金關漢簡 등 오늘날 甘肅省 일대에서 출토 문서에는 타인에 고용되어 대신 수졸이 된 자들이 대거 확인되어 병역, 요역의 대역이 전한 중기 이후 상당히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구체적인 사료를 들어 漢代 병·요역의 代役 현상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먼저, 戍卒 즉 병역 대역 관련 기록을 통해 그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보자.

453) 有爵者는 56세 이후, 無爵者는 60세 이후 免老로 인정되어 병역, 요역을 면제받았다. (『漢官六種』『漢官舊儀卷下』, p.53, “秦制二十爵, 男子賜爵一級以上, 有罪以減, 年五十六免. 無爵爲士伍, 年六十乃免.”)

454) 『漢書』卷24上『食貨志上』, p.1133, “今令民有車騎馬一匹者, 復卒三人. 車騎者, 天下武備也, 故爲復卒. 神農之教曰: 『有石城十仞, 湯池百步, 帶甲百萬, 而亡粟, 弗能守也.』以是觀之, 粟者, 王者大用, 政之本務. 令民入粟受爵至五大夫以上, 乃復一人耳, 此其與騎馬之功相去遠矣. 爵者, 上之所擅, 出於口而亡窮; 粟者, 民之所種, 生於地而不乏.”

(5) 張掖郡 居延□□卒인 弘農郡 陸渾縣 河陽里의 大夫 成更, 24세. 같은 縣 陽里의 29세 大夫 勛에 고용. 고용한 가격[傭價]은 29,000錢.<sup>455)</sup>

(6) 戌卒인 河東郡 北屈縣 務里의 公乘 郭賞, 26세. 같은 縣 橫原里의 45세 公乘 間彭祖에 고용.<sup>456)</sup>

(7) 田卒인 貝丘縣 莊里의 大夫 成常幸, 27세. 같은 縣 厓期里의 30세 大夫 張收에 고용됨. 신장 7尺.<sup>457)</sup>

(5)~(7)은 타인에 고용되어 대신 수졸이 된 자들과 고용자의 신상명세를 적은 문서이다.<sup>458)</sup> 문서의 서식은 모두 동일하며 [복무 장소와 병종+소속 군현+작위+이름+연령] [‘庸(傭)’+소속 군현+작위+이름+연령]의 순서로 기록되었다. 문서에는 두 명의 신상명세가 적혀 있는데, ‘庸(傭)’을 기준으로 전자는 피고용자, 후자는 고용자로 여겨진다.<sup>459)</sup> 위와 같이 수졸의 고용 관계를 기록한 문서는 대부분 피고용자(즉 실제로 수자리를 서는 자)와 고용자의 정보만을 명시하지만, 드물게 (5)처럼 傭價, 즉 고용 임금 액수를 기록하거나<sup>460)</sup>

455) 『居延漢簡(貳)』 170.2, “張掖居延□□卒弘農郡陸渾縣河陽里大夫成更年廿四 庸同縣陽里大夫趙勛年廿九賈二萬九千”

456) 『居延新簡』 EPT51:86, “戌卒河東郡北屈務里公乘郭賞年廿六 庸同縣橫原里公乘間彭祖年卅五”

457) 『肩水金關漢簡(參)』 73EJT29:100, “田卒貝丘莊里大夫成常幸年廿七 庸同縣厓期里大夫張收年卅 長七尺”

458) 이하 편의상 漢簡에 보이는 이러한 유형의 문서를 ‘수졸 고용 문서’라 지칭하도록 하겠다.

459) 일찍이 수졸 고용 문서를 정리한 謝桂華는 전자가 고용주이며 후자가 피고용자인 것으로 보았는데(謝桂華, 『漢簡和漢代的取傭代戍制度』, 『秦漢簡牘論文集』, 甘肅人民出版社, 1989, p.98) 이후의 연구는 대부분 이를 따랐다. 그러나 李成珪는 후자가 고용주로서 향리에 남았고 피고용자인 전자가 변군에 와서 주로 복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李成珪, 『漢代 閏年の 財政收支와 兵·徭役의 調整』, 『震檀學報』 109, 2010, p.229) 黎明釗·馬增榮은 어느 쪽이 피고용자인지 쉽게 판정하기 어렵지만 居延漢簡과 居延新簡의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전자에는 ‘~卒’이라는 칭호가 붙어있을 뿐 아니라 후자가 전자에 비해 연장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후자가 고용주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黎明釗·馬增榮, 『漢簡集簿再探:以『戍傭作名籍』爲例』, 『中國文化研究所學報』 53, 2011, pp.21-22) 필자는 두 선행 연구의 논지에 동의하여 전자를 피고용인, 후자를 고용주로 간주하였다.

460) 『居延漢簡(貳)』 159.23 역시 傭價를 기록했다. (『居延漢簡(貳)』 159.23, “爲同縣不審里慶[丑]來庸賈錢四千六百戌詣居延六月旦 署乘甲渠第”) 이 문서에는 居延에 도착한 시점과 근무 장소까지 표기된 것으로 보아 수졸 고용 문서와는 성격을 달리했을 가능

(7)처럼 피고용자의 신장을 표기한 문서도 보인다.

위의 기록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고용자-고용자의 연령과 양자가 속한 縣, 그리고 보유한 爵이다. 첫째, (5)~(7)의 피고용자는 모두 고용자보다 연령이 적는데, (6)의 경우에는 양자의 연령차가 19년에 이른다. 병역을 실제 담당하는 피고용자가 고용자보다 연령이 낮은 현상은 상당한 경향성을 보인다. 서북 출토 한간의 수졸 고용 문서 중 고용자가 피고용자보다 어린 사례는 몇 사례에 그치는 한편 양자의 연령이 같거나 피고용자가 더 어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위의 문서에 보이는 피고용자와 고용자는 동일 縣에 소속하였다. 관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수졸 고용 문서를 살펴보면, 양자가 모두 같은 縣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縣과 侯國에서 징집된 수졸은 소속 郡에 집결하고, 郡 장리의 인솔 하에 일단 長安 인근에 집결한 후 복무 장소로 향하였으므로<sup>461)</sup> 피고용자와 고용자가 동일 縣 출신이라면 계약 체결 및 임금 지불은 출발 이전 현 내에서 완료되었을 것이다. 셋째, 피고용자와 고용자가 동급의 작을 가지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수졸 고용 문서에서 양자는 대부분 동급의 작을 가지며 간혹 양자의 작이 다른 사례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피고용자의 작이 고용자의 작보다 낮다. 예를 들어, 大夫가 公乘<sup>462)</sup>이나 士伍를 고용한 기록은 존재하지만 반대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위의 세 가지 특성이 대부분의 수졸 고용 문서에 보이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이 대역 시의 ‘조건’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아래의 秦 戍律에 주목하자.

(8) 戍律 曰: ①下爵者が 上爵者를, 上爵者が 下爵者를 대신하여 수자리 서고자 하는 경우 및 無爵者が 有爵者를 대신하여 수자리 서고자 하는 경우, 모두 허락한다. ②병약하거나 ③(소속한) 縣이 다른데도 서로 대신하고자 한다면 허락해서는 안 된다. 서로 (戍役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데 멋대로 대신하면 貲 2甲에 처한다. ④비록 서로 (戍役을) 대신하는 것이 마땅해도 吏에 문서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 代役을 고용한 자 및 代役한 자 모두 貲 1甲에 처한다.<sup>463)</sup>

성도 존재한다.

<sup>461)</sup> 李成珪, 『漢代 閏年の 財政收支와 兵·徭役의 調整』, 2010, pp.216-217.

<sup>462)</sup> 『居延漢簡(壹)』 49.32, “戍卒南陽郡魯陽重光里公乘李少子年廿五 庸同縣南陵里大夫□”

<sup>463)</sup> 『嶽麓秦簡(肆)』, 簡182-183, “戍律曰: 下爵欲代上爵、上爵代下爵及毋(無)爵欲代有爵者

전체 내용으로 보아 (8)의 戍律은 병역의 대역 관련 조항이다. 이 律이 공개된 이후 秦에도 병역 대역이 존재하였고, 수졸 고용 문서의 내용이 秦律에 상당한 근거를 두었음을 알게 되었다.<sup>464)</sup> (8)에 따르면, ①有爵者 사이에는 작의 고하와 관계없이 대역 고용이 가능하였고 無爵者가 有爵者를 위해 수자리를 대신하는 일도 가능하였다. ②고용자는 자신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자를 고용할 수 없었으며 ③고용자와 피고용자는 반드시 동일 縣에 거주해야 했다. ④이상의 조건을 만족해도 미리 吏에게 문서로 代役을 요청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았다. 전술한 수졸 고용 문서의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위의 규정 중 ①, ②, ③이 前漢에서 준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漢律 중에도 상기 戍律의 내용이 존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8)-①의 규정은 爵制 질서의 유지, 유작자의 우대와 관련된다. 이에 따르면 有爵者가 無爵者의 병역을 대신하는 일은 불가능하였으나 유작자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대역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 수졸 고용 문서 중 무작자인 士伍에 유작자가 고용된 사례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士伍가 士伍를 고용한 사례<sup>465)</sup>만이 보이므로, 무작자가 유작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前漢代에도 유효하였다. 또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작이 대개 동등하거나 피고용자의 작이 낮은 사례가 대부분인 점으로 보아, 대개 上爵者가 下爵者를 고용하였고 반대의 고용은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았던 듯하다.<sup>466)</sup>

(8)-②는 병역을 대신하는 자가 본래 병역을 수행해야 하는 자보다 건강이 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건강한 자가 쇠약한 자로 대체된다면 국가의 병력 보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큰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정도로 신체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아닌 이상, 건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연령일 것이다. 타인에 고용되어 그의

戍，皆許之。以弱代者及不同縣而相代，勿許。【不當相代】而擅相代，賞二甲；雖當相代而不謁書于吏，其庸代人者及敢代者，賞各一甲。”

464) 周德貴, 「嶽麓秦簡所見《戍律》初探」, 『社會科學』 2017(10), 2017, pp.134-138.

465) 『肩水金關漢簡(壹)』 73EJT7:42, “戍卒趙國邯鄲東趙里士五道忠年卅 庸同縣臨川里士五郝□年卅”

466)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작이 모두 확인되는 고용 관계 문서는 29건으로, 이 중 고용자가 피고용자보다 낮은 작을 가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고용자가 피고용자보다 높은 작을 가진 사례는 2건, 양자가 동등한 작을 가진 사례는 22건이다. (鈴木直美, 「漢代フロンティア形成者のプロフィール—居延漢簡·肩水金關漢簡にみる卒の年齢に着目して—」, 高村武幸 編, 『周緣領域からみた秦漢帝國』, 東京: 六一書房, 2017, p.149)

賞刑·贖刑·債務를 대신 갚고자 할 경우, 양자의 ‘耆弱’이 상당해야 한다는 秦律<sup>467)</sup>에 대해 당초 整理小組가 ‘耆’를 ‘老’로 이해하여, 耆弱을 연령으로 해석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다.<sup>468)</sup> 따라서 ②의 규정을 시행할 때는 연령을 기준으로 대역자의 건강 정도를 파악했을 것이다. 수졸 고용 문서에 양자의 연령을 기록하게 한 것은 본인 확인 외에도 ‘건강 정도의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연령이 많아도 건강 상태가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증명 등을 거쳐 고용을 허락했을지도 모른다. 서북 출토 한간 중 피고용자인 수졸이 고용자보다 연령이 많은 세 개 사례<sup>469)</sup>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피고용자와 고용자의 연령이 같거나 고용자의 연령이 더 많으므로, 위의 세 개 사례가 예외적인 사례였으며 피고용자의 연령이 더 어려야 한다는 규정은 철저히 준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8)-③은 피고용자와 고용자가 동일 縣 소속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데, 이는 수졸의 징집 방식과 관련된다. 수졸은 우선 소속 縣·侯國을 기준으로 징집된 후에 다시 郡 단위로 이동하였으므로, 동일 縣 소속이 아니라면 수졸의 파견 및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을 것이다. 代役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것이었지만, 병역은 국가의 지배체제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漢은 병역 대역에 대해 몇 가지 조건을 설정하여 軍事 담당 인력을 철저히 관리하였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병역을 대역하고자 할 때 몇 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했으며 그 규정은 秦 戍律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前漢의 병역 대역은 사실상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宣帝 시기 司隸校尉 蓋寬饒의 아들이 北邊으로 가 직접 수자리를 서자 주위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다는 일화는<sup>470)</sup> 당시 타인을 고용해 병역을 대신하게 하는 일이

467) 『睡虎地秦墓竹簡』『秦律十八種』, 簡136, “居賞贖責(債)欲代者, 耆弱相當, 許之. 作務及賈而負責(債)者, 不得代.”

468) 수호지진묘죽간정리소조 편, 윤재석 역주, 『수호지진묘죽간 역주』, 서울: 소명출판, 2010, p.178.

469) 다음의 세 사례이다. 『居延漢簡(壹)』 13.9, “濟陰郡定陶徐白大夫蔡守年卅七 屬同縣延陵大夫陳遂成年廿九 第廿三車”; 『肩水金關漢簡(貳)』(甘肅簡牘保護研究中心 等編, 上海: 中西書局, 2012) 73EJT21:373, “田卒梁國睢陽朝里寇遂年卅二 庸同縣丞全里張遂年廿八”; 『肩水金關漢簡(參)』 73EJT30:267, “田卒淮陽郡長平高閭里不更李范年廿六 庸南垣不更費充年廿五”

470) 『漢書』 卷77 『蓋寬饒傳』, p.3245, “寬饒爲人剛直高節, 志在奉公. 家貧, 奉錢月數千, 半

상당히 보편적이었음을 방증한다.<sup>471)</sup> 개관요의 일화가 아니더라도 병역 대역의 보편화를 보여주는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첫째, 수졸 관련 문서 중 고용 문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漢 중기 이후 병역 대역이 상당히 보편화한 사실을 보여준다. 서북 출토 한간 중卒의 貫籍과 소속지를 기록한 簡牘은 약 570매이다.<sup>472)</sup> 그런데 이 중 수졸 고용 관계를 기록한 간독은 총 54매로, 전체의 약 9.4%를 차지한다.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張掖郡에서 둔수한 卒 10인 중 적어도 1명 이상은 병역을 대역하는 피고용인이었던 셈이다. 이 수치는 ‘庸(傭)’字가 명확히 보이는 간독만을 집계한 결과인데 현존하는 수졸 관직 문서 중에는 후면이 잔결되어 전면만 남은 문서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병역 대역의 비중은 더욱 높았을 것이다. 예컨대 張掖郡 昭武縣에 소속한 자가 같은 소무현 사람에 고용되어 戍卒이 되었다는 문서<sup>473)</sup>는 관동 내군의 民뿐 아니라 변군의 民 사이에서도 병역 대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둘째, 河西四郡으로 향하는 車 1대에 속한 10인의 卒 중 4인은 직접[身] 병역에 종사하는 자이고 6인은 타인의 병역을 대행하는 피고용자[庸]라는 문서는 당시의 병역 대역이 상당히 보편적이었음을 보여준다.<sup>474)</sup>

4인은 직접 복무[身]

•앞의 第十車에 (속한) 10인.

6인은 피고용인[庸]<sup>475)</sup>

도관을 살펴보면, 긴 목독의 상부에 기록된 ‘•右第十車十人’의 아래에 약간의 공백을 남겨두고 작은 글씨로 ‘四人身’과 ‘六庸’을 기재하여 ‘四人身’과 ‘六庸’가 ‘•右第十車十人’의 세부 내역임을 한눈에 파악하게 하였다. ‘第×車’

以給吏民爲耳目言事者。身爲司隸，子常步行自戍北邊，公廉如此。”

471) 石洋, 『秦漢經濟史研究-財政制度と基層社會』, 京都: 京都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p.107.

472) 이상의 수치는 鈴木直美, 『漢代フロンティア形成者のプロフィール—居延漢簡·肩水金關漢簡にみる卒の年齢に着目して—』, 2017, pp.155-172의 ‘付表’를 참고함.

473) 『肩水金關漢簡(參)』 73EJT24:147+73EJT24:765, “戍卒昭武宜春里簪裏辛恭年廿五 庸館里隄德” 다만 이 문서는 일반적인 수졸 고용 문서와 달리 ‘同縣’을 기록하지 않았다. 다른 縣名이 적히지 않았고 里名만이 적혔기 때문에 일단 같은 昭武縣으로 이해했다. 문서의 철합은 田炳炳, 『肩水金關漢簡綴合兩則』, <簡帛網>, 2014.9.1.를 참고했다.

474) 鷹取祐司, 『漢代長城警備體制の變容』, 宮宅潔 編, 『多民族社會の軍士統治: 出土史料が語る中國古代』, 京都: 京都大學出版會, 2018, p.157.

475) 『肩水金關漢簡(參)』 73EJT26:51.

는 居延漢簡 등에 자주 보이는 표현으로 수졸이 출신 郡을 떠나 근무지로 향할 때 조직된 車의 번호이다.<sup>476)</sup> 10인 중 6명이 고용된 수졸이라는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 앞서 소개한 조건만을 충족했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대역 요청이 허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장액군 일대에서 고용삿을 노리고 戍卒이 되었다가 중도에 도망친 사건이 누차 발생한 일<sup>477)</sup>은 수졸 대역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을 보여주지만, 이 역시 병역 대역에 대한 官府의 허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타인을 고용하여 요역을 대신하는 사례를 살펴보자. 요역 대역을 보여주는 사료는 병역 대역 기록보다 적는데, 아래에 인용한 『鹽鐵論』 「禁耕」은 무제~소제 시기 요역 대역 정황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본래 제염, 야철하는 곳은 대개 山川을 끼고 철과 탄을 캐는 곳에 가까우므로, 그 지세가 모두 멀고 작업이 매우 힘듭니다. 郡 내에서 踐更하는 卒은 대개 (힘든 노역을) 감당하지 못하니 빚을 지고 고용노동자[傭]를 取하여 대신하도록 합니다. 어떤 縣邑은 戶口數에 따라 鐵을 내도록 하면서, 그 평균값보다 싸게 사들입니다. 良家は 거리에 따라 번갈아 가며[道次] 徭를 이용하여 鹽鐵을 나르게 하는데, 그 비용이 많아 백성들이 괴로워합니다.<sup>478)</sup>

文學은 염철 전매를 비판하면서 제염·야철을 하는 곳은 그 생산지 인근이기 때문에 작업 환경이 좋지 않고 노동이 과중하여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염·야철 작업이 괴로운 나머지 郡에서 踐更하는 卒[郡中卒踐更者], 즉 순번이 되어 요역에 종사하는 자<sup>479)</sup>들은 유상으로 타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良家は 릴레이 방식으로 徭人을 이용해 염, 철을 나르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煩費] 괴롭다고 한 것으로 보아 良家 역시 유상으로 徭人을 고용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인용문으로부터 요

476) 鷹取祐司, 「漢代戍卒の徵發と就役地への移動」, 『古代文明』 49(10), 1997, p.31.

477) 『居延新簡』 E.P.T40:41, “吞北燧卒居延陽里士伍蘇政年廿八 □復爲庸數逋亡離署不任候望”; 『肩水金關漢簡(參)』 733EJT37:1164, “錢入其縣, 邊以見錢取庸. 往者, 姦黠民受錢爲庸, 去署亡, 犯法不已. 事[漸+木]不可長. 諸庸卒不已, 事”

478) 『鹽鐵論』 「禁耕第五」, “故鹽冶之處, 大徼皆依山川, 近鐵炭, 其勢咸遠而作劇. 郡中卒踐更者多不勘, 責取庸代. 縣邑或以戶口賦鐵, 而賤其平准. 良家以道次發徭運鹽鐵, 煩費, 百姓病苦之.”

479) ‘踐更’의 定義와 ‘更有三品’에 대한 해석은 다음 논고를 참고하였다. 李成珪, 「前漢更卒의 徵集과 服役 方式 - 松柏漢簡 47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2009.



역 대역의 두 가지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요역의 일환으로 제염과 야철에 종사해야 하는 更卒이 직접 종사하지 않고 다른 이를 고용함으로써 자신의 役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운송 요역이 부과된 良家が 전문적인 운송 노동자인 僦人을 유상으로 고용하여 운송을 대신하게끔 하는 것이다.

前漢 初 良家子는 六郡에서 군사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나<sup>480)</sup> 대개의 사료에서는 ‘家格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듯하다.<sup>481)</sup> 또한, 원문 중 ‘良家’ 이하의 문장은 ‘百姓病苦之’와 이어지므로, 위의 ‘良家’는 형편이 나은 집안의 백성 정도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생산된 염, 철을 수송의 의무를 지닌 백성이 타인을 고용해 사실상 요역을 대역한 것으로 이해된다. 秦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운송은 추가적·임시적 요역으로 백성들에게 부과되곤 했는데, 秦律은 물자 운송에 징발된 백성들이 운송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다른 이에게 運輸 업무를 넘기는 행위를 엄금하였다.<sup>482)</sup> 그러나 인용문 속의 良家が 僦人을 고용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원칙은 전한 무제-소제 재위기에 이미 효력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鹽鐵論』을 통해 늦어도 무제, 소제 시기에는 병역, 요역의 代役을 위해 타인을 고용하는 일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경향이 어느 시점부터 나타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秦律에는 병역(戍役)에 대한 대역 규정은 존재하나, 요역의 대역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吳王 濞의 일화를 보면 文帝 재위기까지 요역의 대역은 불가능하였던 듯하다.

吳는 豫章郡에 銅山을 가지고 있었기에 濞는 천하의 亡命者를 불러서 錢을 몰래 주조하였고,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賦가 없어도 吳國의 財用은 풍요로웠다. (….) 吳國은 (그 나라에서 나오는) 銅과 소금 덕분에 백성은 賦를 낼 의무가 없었고 更卒이 직접 運搬 근무를 하면 곧바로 평균 가격으로 (값을 쳐) 주었다.<sup>483)</sup>

480) 『漢書』 卷28下 『地理志下』, p.1644, “漢興, 六郡良家子選給羽林·期門, 以材力爲官, 名將多出焉.”

481) 堀敏一, 「漢代の良家について」, 『中國古代の身分制—良と賤』, 1987, pp.232-234.

482) 『睡虎地秦簡』 「效律」 簡49, “上節(即)發委輸, 百姓或之縣就(僦)及移輸者, 以律論之.”

483) 『史記』 卷106 「吳王濞列傳」, pp.2822-2823, “吳有豫章郡銅山, 濞則招致天下亡命者盜鑄

吳國에는 銅山과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동전을 몰래 주조하고 製鹽하여 풍요로운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당시 吳國의 백성은 따로 賦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백성들이 윤번으로卒이 되어 요역에 종사하는 경우 國은 평균 가격으로 그 노동에 값을 쳐 주었다. 위 일화는 인근 郡國의 백성을 끌어오기 위한 吳의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유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에 아직 요역의 대역이 일반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吳가 백성에 賦를 징수하지 않은 것과 달리, 요역에 대해서는 일단 직접 근무[踐更]한 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었기 때문이다. 만일 요역의 대역이 가능하였다면 郡이 更卒에 사후 보상을 하는 대신 처음부터 代役者를 선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文帝 때까지 요역 대역이 가능하지는 않았던 듯한데, 앞의 『鹽鐵論』이 昭帝 혹은 그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역의 대역은 景帝-武帝 시기에 허락된 것으로 여겨진다.

요역의 대역은 이후 後漢에서도 나타난다. 당시 각지에서 彈을 결성한 후 요역의 대역자를 구한 것을 볼 수 있다.

(9) 彈의 이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는데, 그 辭는 가로되……  
彈. 상인에 기금을 대여하여 利息을 받으니 本錢은 보존되고 이자가 불어나 위로는 正衛에 바칠 수 있고 아래로는 踐更에 給事하게 할 수 있다.<sup>484)485)</sup>

(10) 夫의 繇役이 …하지 않음을 근심하여, 이내……賦를 가볍게 하고 斂을…하여 …를 고르게 하여 富를……。單을 결성하여 郡府에 보고하니 科例를 班董하고 때에 맞추어 모집, 고용함으로써 居民을 번잡하게 하지 않고 ……黎民이 用寧하고 吏는 荷擾의 번잡함이 없게 되었다.<sup>486)</sup>

錢, 煮海水爲鹽, 以故無賦, 國用富饒. (….) 然其居國以銅鹽故, 百姓無賦. 卒踐更, 輒與平賈.”

484) “紀彈之利, 其辭曰: □彈. 國服爲息, 本存子衍, 上供正衛, 下給更踐.” (俞偉超, 『中國古代公社組織的考察』, 北京: 文物出版社, 1988, p.135의 『魯陽郡鄉正衛父老彈』 인용)

485) 위의 번역은 李成珪, 『前漢 更卒의 徵集과 服役 방식—松柏漢簡 47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09, 2009, p.75의 번역을 인용한 것이다.

486) 『隸釋』 卷15 『中平二年昆陽都鄉正衛彈碑』, “愍夫繇役之不□, 乃……輕賦□斂 調□□富 結單言府 班董科例……臨時募顧 不煩居民……黎民用寧 吏無荷擾之煩”

(9),(10)은 後漢 石刻 중 ‘正衛彈碑’로 총칭되는 비문이다. 여기에는 彈(單)의 결성과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용문에 보이는 彈의 결성은 모두 요역 대역자를 모집하여 彈에 속한 일원의 요역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9)의 魯陽郡鄉正衛父老彈은 위로는 正衛에 아래로는 踐更에 利息을 이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彈의 財源으로 상급기관에서 복역하는 正衛와 縣에서 복역하는 踐更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87)</sup> (10)은 宋國 寧陵縣 출신의 縣令을 주축으로 구성된 昆陽都鄉正衛彈으로, 주 내용은 요역의 무거움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고용해 대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sup>488)</sup> 正衛彈碑의 내용을 통해 後漢 시기에도 요역이 여전히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요역에 직접 종사하는 대신 彈의 기금을 이용하여 요역 대역자를 彈 단위로 고용하는 등 요역의 대역 역시 상당히 성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병역과 요역은 前漢의 모든 성인 남성에게 부과된 의무였기에 해당 의무의 대역은 고용 시장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병역의 대역제도는 秦에서 시작되어 前漢으로 이어졌고, 전한 중기에 이르면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다. 한편 요역의 대역제도는 武帝 시기 혹은 그 이전 시점에 나타났으며, 복수의 正衛彈이 보여주듯이 後漢 이후에도 요역의 대역은 상당히 성행하였다. 前漢의 남성은 평생 한 차례 1년간 병역에 종사하였고 免老가 되기 전까지 약 2년에 한 번 꼴로 요역에 윤번 동원되었다. 後漢에서는 전국적인 병역 징발이 폐지되었으나 正衛彈이 말해주듯이 요역의 의무는 尙存하였다. 따라서 병역, 요역의 대역이 허락되는 한, 성인 남성의 인력 고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다.

### 3) 後漢의 雇傭 勞動 확산과 분화

前漢 중기 이후 병역, 요역을 대역하는 경향이 확산되며 노동시장은 확대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전한의 통행 정책의 변화, 양한 교체기의 인구 이동, 그리고 後漢 이후 客民의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은 타향에서 고용 노동에 임하는 인구의 양적 증가를 끌어냈다. 그 결과 후한 시기에도 민간사회의 인력 고용은 크게 증가하였다. 문헌 사료에 보이는 秦~後漢 시기

487) 李成珪, 『前漢 更卒의 徵集과 服役 방식—松柏漢簡 47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2009, p.76.

488) 渡邊信一郎,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2010, p.124.

의 고용 노동 기록은 총 40건인데 이 중 後漢의 고용 기록이 26건에 달하는 것으로부터<sup>489)</sup> 당시 인력 고용이 활성화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후한 시기에 이르면 다양한 부문에서 인력을 고용하기 시작하여, 고용 노동이 여러 방면으로 확산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점은 고용 노동의 유형 및 고용 노동에 종사한 원인을 명시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의 [표 9]는 해당 기록을 모아 정리한 표이다.

[표 9] 前漢·後漢의 고용 노동 유형 및 고용 노동에 종사한 원인<sup>490)</sup>

	시기	이름	傭作의 유형	傭作 원인	출처
1	前漢	任安	求盜亭父	빈궁	『漢書』 卷104
2	前漢	兒寬	弟子를 위해 취사, 기타 賃傭	학문, 빈궁	『史記』 卷121 『漢書』 卷58
3	前漢	承宮	豕 목축	빈궁	『後漢書』 卷27
4	後漢	施延	種瓜, 亭父	빈궁	『後漢書』 卷46
5	後漢	班超	官을 위해 傭書	빈궁	『後漢書』 卷47
6	後漢	申屠蟠	漆工	빈궁	『後漢書』 卷53
7	後漢	杜根	酒家保	도망, 위장	『後漢書』 卷57
8	後漢	李燮	酒家傭	도망, 위장	『後漢書』 卷63
9	後漢	公沙穆	賃舂	학문, 빈궁	『後漢書』 卷64
10	後漢	夏馥	冶家傭	도망, 위장	『後漢書』 卷67
11	後漢	庾乘	學官의 傭	-	『後漢書』 卷68
12	後漢	孟嘗	傭耕	은거	『後漢書』 卷76
13	後漢	第五訪	傭耕	빈궁	『後漢書』 卷76
14	後漢	孔嵩	街卒	빈궁, 봉양	『後漢書』 卷81
15	後漢	王奐	賃灌園	-	『後漢書』 卷81
16	後漢	梁鴻	賃舂	-	『後漢書』 卷83
17	後漢	闕澤	타인을 위해 傭書	빈궁	『三國志』 卷53
18	後漢	公孫曄	寫書	학문	『北堂書鈔』 卷101
19	後漢	陳常	賃書	母 봉양	『北堂書鈔』 卷101
20	後漢	王溥	傭書	빈궁	『拾遺記』 卷6

[표 9]에 따르면 전한 시기의 인력 고용은 小吏, 養, 牧畜 부문에서 나타나며, 후한의 인력 고용은 傭書(賃書, 寫書), 漆工, 酒家·冶家の 傭, 傭耕, 街卒, 賃灌園, 賃舂 부문에서 보인다. 후한 이후 노동의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이

489) 馬增榮, 「秦漢時期的雇傭活動與人口流動」, 『中國文化研究所學報』 54, 2012, p.6, 表1.1 참고.

490) [표 9]는 馬增榮, 「秦漢時期的雇傭活動與人口流動」, pp.5-6의 表 1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시기에 들어 육체노동이나 잡역뿐 아니라 ‘傭書’가 고용 노동의 한 항목으로서 나타난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賃書’는 傭書와 같은 의미이며, ‘寫書’는 문자 그대로 책을 베껴 쓴다는 것이지만, 『後漢書』는 班超가 ‘항상 官을 위해 傭書하였다[爲官傭書]’고 기록한 후 동일한 일을 다시 ‘爲官寫書’라 표현하였고<sup>491)</sup>, 公孫曄이 太學에 이르러 ‘寫書함으로써 자급했다’<sup>492)</sup>는 일화가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寫書는 맥락상 傭書, 賃書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고 책이나 문서를 베껴 쓰는 행위를 뜻한다.

班固가 校書郎이 된 후 班超와 그 모친은 그를 따라 낙양으로 왔는데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반초가 항상 官에서 傭書함으로써 모친을 공양하였다. 明帝가 동생에 관해 문자, 반고는 ‘官을 위하여 寫書하고 그 값을 받아 노모를 부양하고 있습니다’고 답하였고 이에 명제는 班超를 蘭臺令史에 제수했다는 일화<sup>493)</sup>도 班超의 ‘傭書’가 대가를 전제로 한 고용 노동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後漢 安帝 때 王漙은 집안이 가난하여 벼슬하지 못하고 낙양의 시장에서 傭書하였는데, 이를 얻기 위해 丈夫는 衣冠을 선물하고 부녀자는 珠玉을 보내 하루만 지나면 의복과 보화가 수레에 가득했다고 한다.<sup>494)</sup> 물론 왕부의 일화에는 다소의 과장이 섞여 있지만, 두 일화를 통해 당시 지식인이 대가를 받고 글을 써 주는 일이 낙양을 중심으로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한 이후 고용 노동의 범위는 육체노동뿐 아니라 서무에까지 확대되었고, 식자층 중 일부는 생계를 꾸리거나 학문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 노동에 뛰어들었다.

고용 노동의 다양화는 고용된 인력의 다양성과 표리를 이룬다. 고용 노동이 확산, 보편화하면서 후한 이전에는 고용 노동에 종사하지 않던 계층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현상이 보인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자 내부에서도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령 전술한 班超나 王漙 모두 중앙의

491) 『後漢書』卷47「班梁列傳」, p.1571, “永平五年, 兄固被召詣校書郎, 超與母隨至洛陽。家貧, 常爲官傭書以供養。”; 『後漢書』卷47「班梁列傳」, p.1571, “久之, 顯宗問固「卿弟安在」, 固對「爲官寫書, 受直以養老母」, 帝乃除超爲蘭臺令史, 後坐事免官。”

492) 『北堂書鈔』卷101「藝文部七」, “公孫曄寫書自給。謝承後漢書公孫曄傳云, 曄到太學, 受尙書, 寫書自給。”

493) 『後漢書』卷47「班梁列傳」, p.1571, “久之, 顯宗問固「卿弟安在」, 固對「爲官寫書, 受直以養老母」, 帝乃除超爲蘭臺令史, 後坐事免官。”

494) 『拾遺記』卷6, “王漙即王吉之後。吉先爲昌邑中尉, 奕世衰凌。及安帝時家貧不得仕, 乃挾竹簡插筆, 於洛陽市傭書。美於形貌, 又多文辭來僞其書者, 丈夫贈其衣冠, 婦人遺其珠玉, 一日之中衣寶盈車, 而歸積粟于廬九族宗親, 莫不仰其衣食。”

관직을 지낸 집안의 자제였지만 피고용인으로서 寫書한 것을 확인하였다. 문서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고용노동자는 후한 시기 訴訟에도 등장하였다.

貧弱하고 財貨가 없는 자는 (소송을 위해) 오랜 기일을 기다릴 수 없지만, 豪富로 錢이 넉넉한 자는 客을 고용하여 (소송에) 가도록 하니 백일이 아니라 천일이라도 기다릴 수 있다.<sup>495)</sup>

‘客’은 본래 賓客이나 客民·客子를 의미하지만 前漢 말부터 客과 傭은 연결되어 후한에 이르면 양자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sup>496)</sup> 그렇다면 ‘取客’은 고용을 의미할 것이며, 위에 인용한 ‘소송에 가는 客’은 곧 소송을 대리하는 고용노동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상 위의 ‘客’은 소송을 위해 縣廷과 公府를 오갈 수 있으면서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분명하다.<sup>497)</sup> 그렇다면 당시의 피고용자 중에는 문서와 율령, 재판 과정을 이해하고 의뢰인을 위해 승소를 이끌어낼 능력을 갖춘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인용문에 보이는 ‘客’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변호사로, 부유층에 고용되어 그들의 소송을 대리해주던 識字層의 고용노동자였다.

그러나 고용 노동의 다양화 및 노동자의 분화는 단지 상층 고용 노동 인력으로서의 분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불법적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建武 6년 甲渠候官 관할 지역에서 ‘姦黠한 吏民’이 빈객을 시켜 불법으로 동전을 주조하도록 하고, 도굴한 무덤에서 나온 衣物을 도성의 시장에서 팔도록 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기록<sup>498)</sup>을 볼 수 있다.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은 빈객이라 표현되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들

495) 『潛夫論』 卷4 「愛日第十八」, “公府不能察, 而苟欲以錢刀課之, 則貧弱少貨者終無以贖旬滿祈. 豪富饒錢者, 取客使往, 可盈千日, 非徒百也. 治訟若此, 爲務助豪猾而鎮貧弱也, 何冤之能治?”

496) 沈剛, 『秦漢時期的客階層研究』,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pp.113-125.

497) 金秉駿, 「後漢 法律家の活動과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 30, 1989, p.26.

498) 『居延新簡』 E.P.F22:38, “建武六年七月戊戌朔乙卯甲渠鄴守候 敢言之 府移大將軍莫 府書曰 姦黠吏民 作使賓客私鑄作錢 薄小不如法度 及盜發冢公賣衣物于都市 雖知莫譴苛百姓患苦之 (正面) 掾譚令史嘉(背面); 『居延新簡』 E.P.F22:39, “書到 自今以來獨令縣官鑄作錢 令應法度 禁吏民毋得鑄作錢及挾不行錢 輒行法 諸販賣發冢衣物于都市 輒收沒入 縣官四時言犯者名狀・謹案部吏毋犯者敢言之”

은 피고용인이라기보다 사적 예속민에 속한다. 그러나 장기간의 고용에 따라 피고용인이 종속화되는 경향도 존재하고 전술한 것처럼 客과 傭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현상도 나타났으므로, 여기에 보이는 빈객이 피고용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潛夫論』에 보이는 ‘會任之家’는 불법적인 고용 노동의 가장 극단적인 예인데, 타인을 고용해 누군가를 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洛陽에는 심지어 서로 어울려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이끄기를 會任之家라고 한다.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대가로) 10만 전을 받아 그 일을 한 客에게 수천 전을 보수로 지급한다.<sup>499)</sup>

‘會任之家’는 후한 시기 낙양에 존재한 일종의 청부살인업자로, 휘하에 客을 거느리고 있었다. 앞서 소송을 대리하는 客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후한의 客은 종종 피고용인을 의미하므로, 여기의 客은 會任之家에 고용된 자객을 가리킨다. 이들은 지시를 받아 살인한 후, 청부 금액의 10만 전 중 수천 전 정도를 취득하였다. 이로부터 후한에 이르러 살인과 같이 극단적 불법 행위를 대신하는 피고용인이 등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적인 대행이었던 만큼 고용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고 고용자와 피고용인의 관계 역시 일반적인 고용 관계에 비해 依附的, 隸屬的 성격을 띠었을 것이다.<sup>500)</sup> 청부살인을 위해 고용된 客 역시 일반적인 齊民과는 거리가 있었음이 분명한데, 특히 범죄자나 亡人, 流民이 그 중심을 이루었을 것이다. 망인, 유민은 戶籍이 여전히 본 소속지역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속지를 이탈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호적을 열람하지 않는 이상 신분이나 범죄 경력의 유무, 소속 현·향조차 알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범죄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499) 『潛夫論』 卷4 「述赦第十六」, “洛陽至有主諸合殺人者, 謂之會任之家. 受人十萬, 謝客數千.”

500) 『漢書』 「王子侯表」는 江都國 易王의 아들이 호적에서 벗어난 자들을 ‘保’로 삼아 사람을 살해한 사실을 전한다. ‘保’는 保庸, 즉 신뢰할만한 고용인으로, 계약에 의한 일반적 고용 관계와 다른 의부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 점은 타인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시키기 위해서는 계약보다 강한 상호 신뢰 관계가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회임지가와 刺客의 관계 역시 의부적 성격을 띠었을 것이다. (『漢書』 卷15上 「王子侯表第三上」, p.437, “元鼎五年, 侯聖嗣, 坐知人脫亡名數, 以爲保, 殺人, 免.”)

識字 능력과 문장력을 바탕으로 書務에 종사한 ‘상층’의 고용노동자와 각종 불법 행위에 종사한 ‘하층’의 고용노동자가 병존하는 것은 後漢 이후 나타나는 현상으로, 양 극단에서 인력 고용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인력 고용이 보편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선행 연구는 前漢 중기, 구체적으로는 宣帝 이후 고용노동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후한 초까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하였다.<sup>501)</sup>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한 중기에 병역과 요역의 대역을 중심으로 인력 고용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후한 시기에는 요역의 인력 고용이 존재하는 동시에, 더욱 많은 분야에서 고용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인력 고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면 수도나 도시를 중심으로 일종의 노동시장이 존재하였을 것이며, 타인에 고용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다소 극단적인 예이지만 위의 會任之家는 수도 낙양에 불법적인 노동시장이 존재하였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표 9] 鄭均의 일화는 고용노동의 리를 위해 타지로 떠나는 인력의 존재를 보여준다. 鄭均은 縣吏인 형이 뇌물을 받는 일을 멈추지 않자 향리를 떠나 傭이 되었다. 그는 약 1년 후 귀환하여 노동의 대가로 받은 錢帛을 형에게 주며 ‘물건은 다하면 또 얻을 수 있으나 吏가 되어 贓罪에 연루되면 일생을 버리게 된다’고 조언하였고, 鄭均의 형은 이후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sup>502)</sup> 鄭均의 이야기는 지극히 교훈적인 일화이지만 당시 향리를 떠나 타지의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인력이 상당히 존재하였고 이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타인에 고용될 수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민간사회의 고용노동이 확대하고 노동시장이 존재하였다면, 국가가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을 산출하였는 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 3. 人力 雇傭에 대한 前漢의 인식 변화와 그 운용

#### 1) 새로운 인력 운용 방식의 모색

<sup>501)</sup> 石洋, 『兩漢三國時期“傭”群體的歷史演變-以民間雇用爲中心』, 2014, pp.55-57

<sup>502)</sup> 『後漢書』卷27『宣張二王杜郭吳承鄭趙列傳』, pp.946-947, “鄭均字仲虞, 東平任城人也. 少好黃老書. 兄爲縣吏, 頗受禮遺, 均數諫止, 不聽. 即脫身爲傭, 歲餘, 得錢帛, 歸以與兄. 曰: 『物盡可復得, 爲吏坐臧, 終身捐棄.』 兄感其言. 遂爲廉潔.”



文帝 13년의 형벌 개혁으로 肉刑과 無期 勞役刑이 폐지되며 국가가 보유한 인력 자원에도 커다란 변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有期 노역형을 받은 刑徒, 관노비, 관부 직속의 특수 직역 담당자 등이 국가의 인력 자원으로 존재하였으나, 형벌 개혁 이전까지 사실상 도예가 대부분의 노역을 담당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위의 인력만으로는 기존의 인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 13년의 형벌 개혁은 향후 국가가 도예 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sup>503)</sup> 새로운 인력을 이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 13년 이후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동원하였을까? 아쉽게도 현존하는 사료로는 前漢이 기존의 인력 공백을 채울 방안을 고안해 가는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文帝 이후 병역·요역의 징발 변화상을 살펴봄으로써 前漢 중기 이후 인력 이용 방식을 추측할 수 있다. 병역·요역 자체는 도예와 무관하나, 군사 업무는 국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으므로, 병역·요역 제도의 운용상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였다면 행정 잡무·건설·운송의 諸 업무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前漢은 文帝 재위기를 전후로 병역·요역의 징발을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병역·요역의 징발 기간 및 징발 인원 모두 감소하였는데, 병역 징발은 文帝 재위기에, 요역 징발은 呂后~武帝 초기 사이에 감축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요역 담당 일수의 감소에 관해 살펴보자. 최근의 출토 사료에 따르면 전한 중기 일정 연령(20~59세)의 남성은 본적지의 순서에 따라 약 1년에 1개월 혹은 2년간 3개월 동안 요역에 복역했다.<sup>504)</sup> 그런데 이 제도는 전한 중기의 것으로<sup>505)</sup> 전한 초의 제도는 이와 달랐다. 前漢代 요역 징발 일수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다음에 인용한 二年律令 徭律이다.

금속(칼날)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있거나 □病이 있으면, 모두 罷癰으로 삼고, 사역할 수 있으면 皖老와 같이 (사역하도록) 하라.

<sup>503)</sup> 李成珪, 『秦·漢의 형벌체계의 再檢討—雲夢秦簡과 <二年律令>의 司寇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85, 2003, p.70.

<sup>504)</sup> 李成珪, 『前漢 更卒의 徵集과 服役 방식—松柏漢簡 47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09, 2009.

<sup>505)</sup> 松柏漢簡이 출토된 漢墓에서 武帝 建元, 元光 연간의 역보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해당 묘와 간독의 기년은 무제 초기로 추측하고 있다. (荊州博物館, 『湖北荊州紀南松柏漢墓發掘簡報』, 『文物』 2008(4), 2008. p.32)

단 종군하다 전투로 인해 입은 상처가 아니라면 縣官에서 4更으로 사역하며, 사역할 수 없다면 사역시켜서는 안 된다.<sup>506)</sup>

종래 ‘更’의 含義를 둘러싸고 여러 異論이 오갔으나, 이후 관련 사료가 출토되며 ‘×更’=‘×번 교대’임이 확인되었다.<sup>507)</sup> 이에 따르면 戰傷을 입지 않은 장애인[罷癰]은 1년에 4차례 교대하며 縣官에서 요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1년간 3개월 복역하게 된다. ‘其非從軍戰瘕也’는 이 조항의 부가 조항이므로, ‘其非從軍戰瘕也’ 앞의 내용은 장애인의 요역에 대한 일반 조항이다. 즉, 이 조항은 종군하다 장애인이 된 자를 睨老와 같은 빈도로 요역에 징발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종군에 의해 장애인이 된 자는 자연히 종군 이외의 이유로 장애인이 된 자보다 요역 종사 기간이 짧았을 것이다. 한편 睨老는 일반 백성이 부담한 요역의 절반만을 邑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sup>508)</sup> 일반인은 종군과 무관한 상처를 입은 파릉보다 많은 요역 일수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상의 단서를 근거로 계산하면 戰傷을 입은 파릉 및 환로는 매년 2개월, 환로보다 2배 긴 기간 동안 요역을 담당한 일반인은 매년 4개월 복역한 셈이 된다.<sup>509)</sup>

二年律令은 前漢 呂后 2년의 律로 추정되므로 적어도 呂后 재위기에 일반 성인 남성의 연간 요역 복역 일수는 무제 재위기 성인 남성의 요역 복역 일수보다 3개월 길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양 시기 사이에 요역 기간이 조정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게다가 松柏漢簡에 보이는 전한 중기 요역의 징발이 2년간 3개월을 복역하면서 1년의 ‘휴식년’을 보장받고 免役錢을 납입하는 형태였다면<sup>510)</sup> 전한 중기 이후 民의 요역 징발은 이전과 비교하여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사한 변화는 병역 징발에서도 나타났다. 匈奴, 羌 등 이민족과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한 제국은 外境을 방비하기 위해 戍卒을 징발했다. 呂后 5년 8

506)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簡408-409, “金瘕有□病, 皆以爲罷癰, 可事如睨老. 其非從軍戰瘕也, 作縣官四更, 不可事, 勿事.”

507) 李成珪, 『前漢 更卒의 徵集과 服役 방식—松柏漢簡 47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2009, pp.18-20.

508)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簡407, “睨老各半其爵徭員, 入獨給邑中事.”

509) 李成珪, 『前漢 更卒의 徵集과 服役 방식—松柏漢簡 47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2009, p.21.

510) 李成珪, 『前漢 更卒의 徵集과 服役 방식—松柏漢簡 47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2009, pp.64-74.

월에 수졸을 연 단위로 교체[歲更]하는 방식이 시행되어<sup>511)</sup> 성인 남성의 1년 교대 복역이 정착되었다. 그러나 文帝 13년의 육형·전조의 폐지와 함께 戍卒令은 폐지되었다.<sup>512)</sup> 물론 수졸령의 폐지가 반드시 수졸 파견의 전면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sup>513)</sup> 각종 사료를 통해 후대에도 수졸이 건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기록만으로 수졸이 소멸하였다고 간주할 수 없다. 그러나 수졸령 폐지와 함께 邊境 徙民이 실시되고 점차 募兵이 확대되는 등, 병역 징발에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난 점은 분명하다. 徙民과 募兵은 對價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徙民, 募兵의 확대는 국가가 강제적 인력 이용만 고집하는 대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문제 시기의 邊境 徙民과 入粟授爵에 대해 살펴보자.

폐하께서 구하지 않으시면 즉 변경의 백성들은 절망하여 적에 항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병사를) 적게 징발하면 곧 부족할 것이며, 많이 징발하면 먼 현에서 겨우 이르렀을 때胡는 이미 또한 사라집니다. 모아 두고 해산하지 않으면 그 비용이 심히 큼니다. (병사를) 해산하면 즉胡가 다시 침입합니다. 수년 동안 이처럼 하면 곧 나라는 가난하고 괴로워 백성들이 안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께서 다행히 변경을 걱정하시어 將吏를 보내시고 卒을 징발하여 邊塞를 다스리셨으니 심히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먼 곳의 卒로 하여금 변새를 지키게 하고 1년마다 교대하면 胡人의 能力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거주하며 (방비하는 자들)을 뽑아 家室을 이루고 경작하는 동시에 방비하도록 하는 것만 못합니다.<sup>514)</sup>

鼂錯는 단지 屯田 경영과 사민의 확대를 주장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511) 『史記』 卷22 『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 p.1124, “八月, 淮陽王薨, 以其弟壺關侯武爲淮陽王. 令戍卒歲更.”

512) 『史記』 卷22 『漢興以來將相名臣年表』, p.1127, “除肉刑及田租稅律·戍卒令.”

513) 山田勝芳은 ‘除戍卒令’이 戍卒令 전체를 삭제한 것이 아닌, 신실 군현에 관동의 수졸을 파견하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추측했다. 아울러 문제 14년에 흉노의 압박이 다시 가해지면서 14년을 전후한 시점에 새로운 수졸령을 제차 제정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山田勝芳, 『秦漢財政收入の研究』, 1993, p.66)

514) 『漢書』 卷49 『鼂錯傳』, pp.2285-2286, “陛下不救, 則邊民絕望而有降敵之心; 救之, 少發則不足, 多發, 遠縣纔至, 則胡又已去. 聚而不罷, 爲費甚大. 罷之, 則胡復入. 如此連年, 則中國貧苦而民不安矣. 陛下幸憂邊境, 遣將吏發卒以治塞, 甚大惠也. 然令遠方之卒守塞, 一歲而更, 不知胡人之能, 不如選常居者, 家室田作, 且以備之.”

당시의 수졸제가 가지는 맹점으로부터 사민의 효능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徙民實邊’으로 屯戍를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sup>515)</sup> 조조가 거론한 둔수의 맹점은 타지 출신 수졸을 변경에 주둔하도록 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점과 1년 단위로 교대하는 제도로 인해 정작 수졸이 흉노를 알지 못하여,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수졸에 드는 막대한 비용이란 수졸이 소비하는 군량과 그 조달 비용을 의미할 것이다. 『漢書』 『趙充國傳』에 따르면 元帝 시기 둔전졸 1인에게 월 2.66石 가량의 곡식과 약 3升의 鹽을 공급하였다고 하는데<sup>516)</sup> 이 수치는 출토 사료에 보이는 지급량과도 일치하여<sup>517)</sup> 신빙성을 가진다. 문제 시기의 수졸이 대략 2만 인이라고 추산하면 1개월 동안 소비되는 곡식의 양만 53,200 석에 달한다. 여기에 鹽의 비용과 耗損까지 계산하면 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실로 상당했을 것이다. 수졸은 도예와 달리 식량과 鹽 외의 물자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충당하였다. 예컨대 수변 지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물자, 비용이나 官衣 외 평시에 입는 의복은 모두 수졸 개인이 부담하였다.<sup>518)</sup> 그런데도 관은 비용 지출에 큰 부담을 느끼던 것이다.

내군에서 멀리 떨어진 변경 지역에 대단위의 인력을 주둔, 유지하는 일은 운송비와 인근 군현의 부담을 수반하였다. 진 이세 황제 시기 材士 5만 인을 징발하여 함양에서 屯衛하도록 하였는데, 군량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해지자 인근의 군현으로부터 식량과 말 먹이를 끌어왔고 그 결과 함양으로부터 300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곡식을 먹을 수 없었다는 일화는<sup>519)</sup> 집중된 인력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큰 비용 부담을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준다. 가장 많은 물자가 집결되는 수도에서조차 5만 인의 군량을 조달할 수

515) 『漢書』 卷49 『鼂錯傳』, pp.2285-2286, “陛下不救, 則邊民絕望而有降敵之心. 救之, 少發則不足, 多發, 遠縣纔至, 則胡又已去. 聚而不罷, 爲費甚大; 罷之, 則胡復入. 如此連年, 則中國貧苦而民不安矣. 陛下幸憂邊境, 遣將吏發卒以治塞, 甚大惠也. 然令遠方之卒守塞, 一歲而更, 不知胡人之能, 不如選常居者, 家室田作, 且以備之.”

516) 『漢書』 卷69 『趙充國傳』, p.2986, “願罷騎兵, 留弛刑應募, 及淮陽·汝南步兵與吏士私從者, 合凡萬二千八百一十一人, 用穀月二萬七千三百六十三斛, 鹽三百八斛, 分屯要害處.”

517) 居延漢簡의 기록에 따르면 매달 수졸에 지급된 鹽은 인당 3升到 해당한다. (謝桂華, 『漢簡與漢代西北屯戍鹽政考述』, 『漢晉簡牘論叢』,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4, p.204)

518) 李周炫, 『漢代 河西四郡의 戍卒과 私物 賣買』, 『東洋史學研究』 128, 2014, pp.126-127.

519) 『史記』 卷6 『秦始皇本紀』, p.269, “(二世元年) 盡徵其材士五萬人爲屯衛咸陽, 令教射狗馬禽獸. 當食者多, 度不足, 下調郡縣轉輸菽粟芻藁, 皆令自賣糧食, 咸陽三百里內不得食其穀. 用法益刻深.”

없어 인근 군현의 식량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다면, 변경 지역의 戍卒 주둔은 변군 및 인근 군현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비용을 투입해도 1년 만에 수졸이 교대한다면 방어의 효과는 저하되기 마련이다. 흉노와의 전투에 익숙해 질 무렵 기존의 수졸은 귀향하고 새로운 수졸이 파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조는 단지 수졸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수졸의 감축 및 변경 사민의 확대를 통해 효율적 방어 체계를 갖추려 하였다. “변경에 遷徙되어 방비하는 백성과 변방의 地勢를 익히지 못하고 胡를 두려워하는 東方 출신 戍卒의 功에는 만 배의 차이가 있습니다.”<sup>520)</sup>라는 말은 조조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遷徙의 대상으로는 罪人, 徒, 奴婢뿐 아니라 民도 포함되었다.

먼저 室屋을 만들고 田器를 갖춘 후, 罪人을 모집하거나 徒를 면하여 復作하여 거주하도록 하십시오. (이로써) 부족하다면 20-59세 사이의 奴婢 중 贖罪를 지은 자들을 모집하거나, 작을 받고자 하는 奴婢를 보내십시오. (이로써) 부족하다면, 民 중 (변경에) 가고자 하는 자들을 모집하십시오. 모두 높은 작을 사여하시고 그 가족의 요역을 면제해 주십시오. 겨울·여름 의복을 주고 식량을 지급하며, 지급할 수 있게 된 후에는 그치십시오.<sup>521)</sup>

I 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罪人, 謫民을 변경에 파견하여 방어하도록 하는 제도는 秦에서도 시행된 바 있다. 당시 秦民은 변경에서 戍役을 부담하는 일을 매우 꺼렸기 때문에 진은 죄를 범한 吏, 罪人, 贅壻·賈人·市籍者 등을 징발하여<sup>522)</sup> 방어 인력으로 이용하였는데, 이들은 戍役의 대가로 사면을 받거나 齊民의 지위를 되찾기도 하였다.<sup>523)</sup> 이 점은 鼂錯가 천사하는 죄인, 형도의 죄와 형기를 면제해 줄 것을 청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단, 秦은 죄를

520) 『漢書』 卷49 「鼂錯傳」, p.2286, “此與東方之戍卒不習地勢而心畏胡者, 功相萬也.”

521) 『漢書』 卷49 「鼂錯傳」, p.2286, “先爲室屋, 具田器, 乃募隸人及免徒復作令居之; 不足, 募以丁奴婢贖罪及輸奴婢欲以拜爵者; 不足, 乃募民之欲往者. 皆賜高爵, 復其家. 予冬夏衣, 廩食, 能自給而止”

522) 『漢書』 卷49 「鼂錯傳」, p.2284, “秦之戍卒不能其水土, 戍者死於邊, 輸者償於道. 秦民見行, 如往棄市, 因以謫發之, 名曰「謫戍」. 先發吏有謫及贅壻·賈人, 後以嘗有市籍者, 又後以大父母·父母嘗有市籍者, 後入閭, 取其左.”; 『漢書』 卷94上 「匈奴列傳」, p.3748, “後秦滅六國, 而始皇帝使蒙恬將數十萬之衆北擊胡, 悉收河南地, 因河爲塞, 築四十四縣城臨河, 徙適戍以充之.”

523) 李成珪, 「秦의 身分秩序構造」, 1986, pp.42-43.

짓지 않은 齊民을 변경에 보내어 거주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戍役에 自願한 ‘冗戍’가 존재하였으나, 冗戍는 수졸로서 복역 기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遷徙와는 구별되었다.

반면 조조는 필요한 경우 범죄와 무관한 民도 遷徙 대상으로 모집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들에 상당한 대가를 보장하여 변경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종래의 罰戍·適戍와는 구별되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鼂錯는 천사를 원하는 民에게 高爵, 겨울·여름 의복, 식량을 지급하고 가족의 요역까지 면제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sup>524)</sup> 자급이 가능할 때까지 의복과 식량을 지급하도록 한 점은 文帝 때의 遷徙가 항구적 거주와 변경 일대의 개발을 염두에 두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작이나 요역 면제권 등 상당한 특권을 허용한 것은 문제 시기의 천사가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인력을 ‘구입’ 혹은 ‘고용’하는 성격을 띠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진의 적수가 수졸을 보조하는 장치였던 데 비해 조조의 徙民은 수졸 징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는 文帝가 사민을 시행한 후, 조조가 ‘폐하께서 변경 지역으로 徙民하시어 屯戍의 일이 줄어들고 수송의 비용이 더욱 적어지게 하셨습니다.’<sup>525)</sup>라 평한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遷徙는 수졸 감소를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前漢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수졸 파견에 드는 諸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앞서 조조는 수변을 위해 먼 곳으로 떠나는 백성들의 괴로움과 원망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천사가 실행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백성의 안정이나 덕정이 아닌 ‘비용의 절감’이었다. 이 점은 遷徙의 시행과 수졸 감축의 주된 목적이 비용 감소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文帝 시기의 入粟授爵은 국가의 직접적 비용 지출을 줄이면서도 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遷徙와 병행되었다. 이에 따라 변경에 600 석의 곡식을 바칠 수 있는 자는 上造에 봉해졌는데, 곡식의 양은 작의 高下와 연동되어 4,000석을 바치면 五大夫, 12,000석을 바치면 大庶長의 작을 받

524) 『漢書』 卷49 『鼂錯傳』, p.2286, “先爲室屋, 具田器, 乃募隴人及免徒復作令居之. 不足, 募以丁奴婢贖隴及輸奴婢欲以拜爵者. 不足, 乃募民之欲往者. 皆賜高爵, 復其家. 予冬夏衣, 廩食, 能自給而止.”

525) 『漢書』 卷49 『鼂錯傳』, pp.2286-2287, “以陛下之時, 徙民實邊, 使遠方無屯戍之事, 塞下之民父子相保, 亡係虜之患, 利施後世, 名稱聖明, 其與秦之行怨民, 相去遠矣. 上從其言, 募民徙塞下. 錯復言: 陛下幸募民相徙以實塞下, 使屯戍之事益省, 輸將之費益寡, 甚大惠也.”

을 수 있었고<sup>526)</sup> 오대부 이상의 유작자는 병역, 요역의 면제권을 향유하였다. 따라서 많은 곡식을 바칠 수 있는 자는 고작을 얻어 죄를 덜 수 있고, 변경 지역은 보유한 곡식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sup>527)</sup>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입속수작은 민간의 힘을 이용하는 정책으로 천사와 동일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전술한 것처럼 문제 재위기 천사의 본질은 국가가 징집한 수졸을 파견하는 대신 백성을 이주하고 그들의 힘으로 변경을 일구도록 하는 것이었고, 입속수작의 핵심은 拜爵을 조건으로 백성의 재력을 흡수하여 변경의 내실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리하자면, 문제 재위 기간의 遷徙와 入粟授爵은 수졸의 징발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과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천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수졸의 징발은 진대 혹은 한초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 대대적인 원정으로 유명한 무제 시기에도 수졸만을 동원하기보다 謫民·七科謫을 징발하거나<sup>528)</sup> 죄인<sup>529)</sup>을 정벌에 참여하도록 했다. 물론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천사보다 병력 파견이 우선시되었을 것이지만, 전투가 일단락되거나 양자의 균형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천사로 전투 병력을 대체했다. 수졸 파견을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천사를 시행하는 경향은 무제 시기에도 계속된 것이다.<sup>530)</sup>

526) 『漢書』 卷24上 「食貨志上」, pp.1134-1135, “於是文帝從錯之言, 令民入粟邊, 六百石爵上造, 稍增至四千石爲五大夫, 萬二千石爲大庶長, 各以多少級數爲差. 錯復奏言: 「陛下幸使天下入粟塞下以拜爵, 甚大惠也.」”

527) 『漢書』 卷24上 「食貨志上」, pp.1133-1134, “今募天下入粟縣官, 得以拜爵, 得以除罪. 如此, 富人有爵, 農民有錢, 粟有所渫. 夫能入粟以受爵, 皆有餘者也; 取於有餘, 以供上用, 則貧民之賦可損, 所謂損有餘補不足, 令出而民利者也. 順於民心, 所補者三: 一曰主用足, 二曰民賦少, 三曰勸農功. (….) 夫得高爵與免罪, 人之所甚欲也. 使天下入粟於邊, 以受爵免罪, 不過三歲, 塞下之粟必多矣.”

528) 『漢書』 卷6 「孝武本紀」, p.200, “(太初元年)秋八月, 行幸安定. 遣貳師將軍李廣利發天下謫民西征大宛.”; 『漢書』 卷6 「孝武本紀」, p.203, “(天漢元年)發謫戍屯五原.”; 『漢書』 卷6 「孝武本紀」, p.205, “(天漢)四年春正月, 朝諸侯王于甘泉宮. 發天下七科謫及勇敢士, 遣貳師將軍李廣利將六萬騎·步兵七萬人出朔方.”

529) 『漢書』 卷6 「孝武本紀」, pp.186-187, “(元鼎五年)遣伏波將軍路博德出桂陽, 下湟水; 樓船將軍楊僕出豫章, 下滇水; 歸義越侯嚴爲戈船將軍, 出零陵, 下離水; 甲爲下瀨將軍, 下蒼梧. 皆將罪人, 江淮以南樓船十萬人. 越馳義侯遣別將巴蜀罪人, 發夜郎兵, 下牂柯江, 咸會番禺.”; 『漢書』 卷6 「孝武本紀」, p.193, “(元封二年)朝鮮王攻殺遼東都尉, 乃募天下死罪擊朝鮮.”; 『漢書』 卷6 「孝武本紀」, p.198, “(元封六年)益州·昆明反, 赦京師亡命令從軍, 遣拔胡將軍郭昌將以擊之.”

530) Mark Edward Lewis, “The Han Abolition of universal military service”, Hans Van de Ven edited, *Warfare in Chinese History*, Leiden: Brill, 2000, pp.46-48.

두 번째로 前漢 중기 이후 전투 및 방어에 募兵이 병용되었다. 아래의 사례는 당시 국가가卒과 士를 모집, 고용한 사실을 보여준다.

(1) 建平 5년(元壽 원년) 丙寅日이 삭일인 12월, 乙亥日에 誠北候長인 …充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詔書가 …에 내려와……. 모집…삼가 戍卒傭인 魏…등을 모집하여……531)

(2) 尉인 卿과 募卒인 庚에 4개월 16일분 식량을 지급함.532)

(3) 應募士인 長陵縣 長秋里 소속 薛通, 私從者인 長陵縣 …家里 소속 蕭……533)

(4) 候丞인 博이 過所에 문서를 이송함. 應募士인 長安縣 棘里 소속 王豐은 임무가 이미 끝나 家로 귀향하니, …律令과 같이 지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534)

(1)은 哀帝 元壽 원년(BCE 2)에 誠北候長 □充이 작성한 상행문서로, 현재 남아 있는 부분으로 미루어 보아 상부로부터 전달된 詔書에 따라 병력을 모집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문서에 해당한다. 원문은 “謹募戍卒庸魏□等”이라고 했는데, 문장 구조상<sup>535)</sup> 그리고 ‘戍卒庸’의 용례가 居延漢簡 중 존재하는 이상<sup>536)</sup> 성북후의 모병 대상은 ‘戍卒庸(傭)인 魏□ 등’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 문서는 조서에 따라 처리한 내용을 보고하는 상행문서이므로, 모병의

531) 『居延漢簡(壹)』 224.18+137.3, “建平五年十二月丙寅朔乙亥誠北候長□充□言之. 官下詔詣□□ □募. 謹募戍卒庸魏□等□□□□名□”

532) 『居延漢簡(參)』 290.12 “出芟食馬三匹 給尉卿募卒庚四月十六日食 吏一人馬一匹卒一人馬一匹”

533) 陝西歷史博物館藏武都漢簡 簡9, “應募士 長陵長秋里薛通 私從者 長陵□家里蕭□□”(王子今·申秦雁, 『陝西歷史博物館藏武都漢簡』, 『文物』 2003(4), 2003, p.48)

534) 敦煌懸泉置漢簡 I T0405④A:12, “候丞博移過所 應募士長安棘里王豐 事已罷歸家 □苛留如律令 米門八升”(張俊民, 『簡牘文書所見“長安”資料輯考』, 『南越國遺跡與廣州歷史文化名城學術研討會暨中國古都學會2007年年會』, 2007.6.)

535) ‘戍卒’의 전면에 서술어인 ‘募’가 존재하기 때문에, 戍卒庸을 붙여 읽지 않으면 ‘삼가 戍卒을 모집하여 魏□ 등을 고용하였습니다.’가 되어 내용상 어색해진다. 후면의 ‘魏□’는 籍貫(魏郡?)의 일부로 보이는데, 만일 庸이 서술어라면 ‘謹募戍卒魏□等爲庸’으로 서사했을 것이다.

536) 『居延漢簡(貳)』 146.31, “戍卒庸昭武安漢□”



주체는 관부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1)의 수졸용은 국가가 모종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수졸로 여겨지는데, 戍邊은 의무 사항이므로 수변 의무를 막 마친 內郡 출신의 수졸이나 수변 의무를 이미 완료한 河西四郡 거주민이 戍卒傭이 되었을 것이다.<sup>537)</sup>

일반적으로 국가가 고용한 병종은 ‘募’, ‘應募’로 명명되었는데 가령 (2),(3), (4)의 예를 볼 수 있다. (2)의 募卒은 모집에 응하여 대가를 받고 병역에 복역하는, 戍卒과 동급의 병사로 여겨진다. 한편 (3),(4)의 應募士 역시 모병에 응해 특정 기간 복역하는 병종을 지칭하지만, ‘士’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일반적인 卒과는 구분되었다. 宣帝 때 羌과의 전투를 위해 중앙의 飮飛射士·羽林孤兒와 일부 군현의 材官·騎士를 모집한 사례<sup>538)</sup>가 존재하므로 위의 應募士 역시 일반 卒보다 전투에 특화되었거나 기마술을 가진 직업 군인이었을 것이다. 즉 일반 병졸과 특수 병종의 군인 모두 모병의 대상이었던 것인데, 이들은 물론 일정한 대가를 받았을 것이다. 다음의 문서는 국가가 卒을 고용한 후 지급한 임금과 관련된다.

(5) 萬歲部 居攝元年九月 戍卒受庸錢名籍<sup>539)</sup>

이 문서는 居攝 원년(6) 9월에 傭錢을 받은 萬歲部 소속 戍卒의 이름을 적은 장부이다. 傭錢은 고용 임금을 의미하므로 이 장부는 일견 타인의 병역을 대신하는 수졸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內郡의 민간인이 병역 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 근무를 시작하기 전 즉 병역 대리인이 河西四郡으로 출발하기 전에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이다.<sup>540)</sup> 주지하듯이 漢代 수졸은 1년 근무가 기본이므로 병역 대역 계약 역시 1년 단위로 체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5)는 居延 甲渠候官 遺址에서 출토되었을 뿐 아니라, 문서 중의 고용 임금도 월 단위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傭錢을 받은 수졸은 민간의 병역 대역과는 무관하였다. 따라서 (5)의 ‘戍卒傭’을

537) 李成珪, 「漢代 閏年の 財政收支와 兵·徭役의 調整」, 『震檀學報』 109, 2010, pp.229-232.

538) 『漢書』 卷8 「宣帝紀」, p.260, “西羌反, 發三輔·中都官徒弛刑, 及應募飮飛射士·羽林孤兒, 胡·越騎, 三河·潁川·沛郡·淮陽·汝南材官, 金城·隴西·天水·安定·北地·上郡騎士·羌騎, 詣金城, 夏四月, 遣後將軍趙充國·彊弩將軍許延壽擊西羌.”

539) 『居延新簡』 E.P.T59:573, “萬歲部居攝元年九月戍卒受庸錢名籍”

540) 李成珪, 「漢代 閏年の 財政收支와 兵·徭役의 調整」, 2010, p.230.

고용한 주체는 국가일 것이며 (5)는 국가가 수졸을 고용,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한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전한 시기 병역·요역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으나 문제 재위기 이후 병역·요역의 징발을 감축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sup>541)</sup> 문제 재위기 이전까지는 성인 남성을 일괄적으로 징발하여 병사로 삼는 방식만을 이용하였다면, 문제 이후부터 국가가 爵·財貨를 주고 백성을 변경으로 이주시키거나 임금을 주고 募兵하는 방식이 병용되었다. 또한 요역 복역 기간의 단축은 民의 징발 자체가 감소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즉 ‘직접 근무의 강제’가 약화된 것인데, 이는 한편으로는 병역 제도의 이완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직접 군사 업무에 이용할 인력을 보유, 사역하기보다 민간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군사 업무는 국가가 인력을 투입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이므로, 병역·요역의 징발 감소는 국가가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이 변화한 결과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한 중기 이후 대가를 기반으로 한 遷徙와 募兵을 병행해 군사 부문의 인력을 충당하였다면, 국가의 여타 중요 업무인 생산, 행정, 운송, 건설에서도 유사으로 인력을 이용하는 방식이 출현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전한 중기 이후의 기록에는 국가가 각종 업무·노동에 민간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혹은 吏·官屬이 민간인을 고용하는 현상이 나타나, 인력 이용에 대한 국가 관념의 변화를 간취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전한 중기 이후 국가가 기존 인력 자원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 고용 노동을 병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용은 노동이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기에, 전한 초 이후 강제 노동과 징발을 줄이고 고용을 병용하였다는 가설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도예 노동을 비롯한 강제 노동은 대개 무상 노동에 속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 노동에 더 큰 비용이 든다고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인력 고용은 적어도 後漢 초까지 나타나며 강제 노동 일변도로의 이행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은 전한의 고용 노동이 비용 지출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재정적 측면에서 강제 노동보다 유리하

541) 문제 이후 요역의 감소는 律令과 행정문서의 분석으로부터 확인하였거니와, 다음에 인용한 文帝 재위기에 대한 논평에서도 재차 발견할 수 있다. 『漢書』卷75『翼奉傳』, p.3175, “臣聞昔者盤庚改邑以興殷道, 聖人美之. 竊聞漢德隆盛, 在於孝文皇帝躬行節儉, 外省繇役.”

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첫째, 인력 고용은 강제 노동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예의 사역에는 식비(穀, 鹽菜), 의복비, 주거·관리비용이 필요하지만,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된 임금만을 지급하였다. 단 고용주가 피고용자에 식량을 제공한 사례가 간혹 보이는데<sup>542)</sup> 특히 ‘保’와 같이 장기간 主家에 寄宿하는 피고용인에는 식사를 제공했을지도 모른다.<sup>543)</sup> 그러나 “建武三年甲渠侯粟君所債寇恩事” 사건에서 粟君에 고용되어 100일간 漁撈에 종사한 欽의 임금을 일 2斗, 총 20石으로 계산하고 기타 비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sup>544)</sup>을 보면, 일반적인 고용 계약에서 식사 제공이 의무는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도예 사역과 달리 인력 고용 시에는 의복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 고용 관련 사료 중 고용노동자에 식량을 지급한 기록은 보여도 의복을 지급한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富家에 고용되어 奴使하면 1년에 수천 전을 임금으로 받으나, 여기에서 의복을 지출하면 남은 것이 얼마 없어 10년 넘게 일해야 고향으로 돌아갈 用錢을 얻을 수 있다’<sup>545)</sup>는 말은 민간인에 장기간 고용된 노동자조차 의복 등 생활필수품을 직접 조달하였음을 보여준다. 비록 黃河 치수를 위해 恒業이 없는 빈민을 동원하고 이들에 衣食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제기된 바 있으나, 이 주장은 수제가 발생하면 빈민을 구휼해야 하므로 차라리 衣食을 지급하고 공사에 동원해 구휼과 치수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sup>546)</sup> 일반적인 고용과

542) 예를 들어 다음의 두 기록을 볼 수 있다. 『懸泉漢簡(壹)』 I 90DXT0112①:23, “[取庸八十九人 其卅九人女子人廿七 卅人男子人卅五 食八石九斗=十二]; 『群書治要』 卷45 「政論」, “夫百里長吏, 荷諸侯之任, 而食監門之祿, 請舉一隅, 以率其餘. 一月之祿, 得粟二十斛, 錢二千. 長吏雖欲崇約, 猶當有從者一人. 假令無奴, 當復取客. 客庸一月千, 芻膏肉五百, 薪炭鹽菜又五百.” 단, 『政論』의 해당 부분은 吏가 月俸에 비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소의 과장도 섞여있는 듯하다.

543) 石洋, 「兩漢傭價變遷考證」, 『東洋史研究』 71(2), 2012, p.195.

544) 『居延新簡』 E.P.F22:26, “恩子男欽, 以去年十二月廿日爲粟君捕魚盡今年正月閏月二月, 積作三月十日, 不得賈直. 時市庸平賈大男日二斗, 爲穀廿石”

545) 『太平經合校』 卷114 「大壽誡第二百」, “時以行客, 賃作富家. 爲其奴使, 一歲數千. 衣出其中, 餘少可視. 積十餘歲, 可得自用還故鄉.”

546) 『漢書』 卷30 「溝洫志」, p.1697, “王莽時, 徵能治河者以百數, 其大略異者. (….) 沛郡桓譚爲司空掾, 典其議, 爲甄豐言: 「凡此數者, 必有一是. 宜詳考驗, 皆可豫見, 計定然後舉事, 費不過數億萬, 亦可以事諸浮食無產業民. 空居與行役, 同當衣食, 衣食縣官, 而爲之作, 乃兩便, 可以上繼禹功, 下除民疾.」”

동일시킬 수 없다.

둘째, 고용 노동은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인원만 사역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노역이 계속 존재하고, 도예(혹은 노예·노비)가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노동 강도가 유지될 때 비로소 강제 노동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인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노역을 계속 배당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인데, 貢禹가 유희 관노비에 대해 비판한 것<sup>547)</sup> 역시 업무-인력 배치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반면 인력을 고용한 경우, 노동 총량을 계산한 후 이에 기초해 필요한 수량의 인력만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희 인력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다음의 北京大學 所藏 秦簡牘 중 傭作 문서는 이상 거론한 고용 노동의 두 가지 장점을 잘 보여준다.

(1-1. 木牘W-014 정면)

以正月辛丑初作, 盡四月壬戌. 十七日.

六日

定作八十三日, 日三錢大半錢.

爲錢三百—<sup>548)</sup>.

……以四月庚午作, 以五月戊寅去不作. 【상단】

- 正月得六日, 爲錢廿二.
- 二月得一月, 錢百一十.
- 三月得一月, 錢百一十.
- 四月得十七日, 錢六十二.
- 凡錢三百四, 巳(已)入二百五十三. 【하단】

(1-2. 木牘W-014 배면)

卅錢夜取

秬米一石五斗, 石十三, 直廿.

十七夜取

十五醉取, 賀.

<sup>547)</sup> 『漢書』 卷72 「貢禹傳」, p.3076, “又諸官奴婢十萬餘人戲遊亡事, 稅良民以給之, 歲費五六鉅萬, 宜免爲庶人, 廩食, 令代關東戍卒, 乘北邊亭塞候望.”

<sup>548)</sup> 숫자가 계산상 맞지 않고 목록 하단에도 ‘•凡錢三百四’를 기록한 점으로 보아, ‘三百一’은 ‘三百四’의 오키인 듯하다.

十五朝取, 朝以六月丁巳作. 【제 1단】

十二夜取.

廿夜取

廿吾取

十八夜取

二, 酒, □取. 【제 2단】

三, 酒, 吾取.

一, 酒, 張忘取.

廿夜取.

卅夜取.

廿夜取. 【제 3단】

夜取廿.

●凡取錢二百五/十三. 【제 4단】

## (2. 木觚M-015)

可取朝爲庸(傭), 賈(價)月百一十錢. 初作, 先入六十一錢, 米一石五斗, 石十三.

古(沽)酒, 旁一錢. 錢卅.<sup>549)</sup>

위의 W-014, M-015는 고용 노동 현황과 그 임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北京大學 所藏 秦代 傭作文書’로 알려져 있다. 정리자에 따르면 위 문서의 기년은 秦始皇 32년이며, 木牘과 木觚의 서체가 같고 내용도 서로 연결되므로 같은 부류로 여겨진다.<sup>550)</sup> 비록 고용주에 관한 정보는 부재하나 노동 현황, 하루 임금, 총임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기존의 문헌 사료나 출토 사료가 보여주지 못한 고용 노동의 실제 운용을 짐작하게 한다.

W-014의 정면은 피고용자 1인의 근무와 임금에 관한 비교적 완전한 기록이다. 배면에는 夜, 醉, 朝, 吾, 張忘 등이 무언가를 수취한 사실을 적었는데, 인명 앞의 숫자는 錢數로 추측된다.<sup>551)</sup> 노동의 대가로 수취한 것은 錢, 酒인

<sup>549)</sup> 陳侃理, 『北京大學藏秦代傭作文書初釋』, 『出土文獻研究』 14, 2015.

<sup>550)</sup> 陳侃理, 『北京大學藏秦代傭作文書初釋』, 2015, p.8.

<sup>551)</sup> 陳侃理, 『北京大學藏秦代傭作文書初釋』, 2015, p.11.

데 酒 역시 錢價로 기록하였으며 말미에는 모든 수취액을 합산한 253전을 기록했다. W-014 정면에 기록한 하루 임금 3.66전(三錢太半錢), 일하기로 정한[定作] 일수는 총 83일이므로 전체 임금은 304전인데 우선 이 중 253전을 선지급한 것이다. 해당 피고용자는 1, 2, 3, 4월에 각 6일, 30일, 30일, 17일 일하였는데, 그에 따른 월별 임금은 각 22전, 110전, 110전, 62전이다. 즉 1월, 4월에는 일 단위로 일하였으나 2, 3월은 한 달 내내 일하였으므로 1월에는 24일부터 30일까지, 4월에는 1일부터 18일까지 일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고용주가 1개월 혹은 그 이상 단위로만 인력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총노동량과 인당 1일 노역 가능량을 이용해 일수를 계산한 후, 해당 기간에만 인력을 고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83일간 노동한 대가를 일 3.66전으로 정확히 계산하여 임금을 계산했고 기타 재화를 추가로 준 기록은 없는 것은 당시 고용노동자가 衣食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한편 M-015는 朝라는 사람을 피고용인으로 취한 기록으로, 朝는 W-014의 배면에도 보인다. 이 문서의 1개월(30일) 고용 임금 역시 110전으로, W-014의 1개월 고용 임금과 일치한다. 朝는 노역을 시작할 때 110전 중 61전을 선금으로 받았는데 이때 선금 61전은 동전뿐 아니라 錢價로 환산된 米, 酒로도 구성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石당 13전인 米 1.5석(20전)<sup>552</sup>과 酒(1전)<sup>553</sup>은 현물로 받았고 나머지 40전은 동전으로 받았다. 세 가지 항목의 값을 합산하면 정확히 동전 61전이 되기 때문에, 米 1.5석은 추가로 지급된 식량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W-014, M-015의 두 기록 모두 피고용자에 식량을 추가 지급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용작 문서에 보이는 傭價는 문헌 사료의 용가보다 훨씬 저렴하여, 秦末~前漢 初 인력 1인을 사역할 때 고용 노동이 도예 노동보다 비용적 우위에 설 수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W-014 목록에 보이는 진시황 32년의

552) 산술적으로는 19.5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W-014의 배면에도 “秬米一石五斗，石十三，直卅。”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편의상 秬米 1.5석은 19.5전을 받을만한 20전으로 계산한 듯하다.

553) ‘沽酒旁一錢’의 구절을 1전 가치의 酒로 수취하였다고 읽은 이유는 W-014 배면에서 고용노동자들이 수취한 酒가 1, 2, 3전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秦의 ‘旁錢’은 주 수입이 아닌 부가수입을 뜻하는데(『嶽麓秦簡(伍)』簡210-211, “●禁毋敢爲旁錢，爲旁〔錢〕者，貲二甲而廢。縣官可以爲作【務產錢，免，爲上計如】律。徒隸輓稟以輓日之庸(傭)吏(事)收錢爲取就(僦)，不爲旁錢。●廷甲 十九”) 법정화폐인 錢과 실물화폐인 米 외의 현물 수입인 酒를 표기하기 위해 이 표현을 쓴 것으로 추측된다.

일 傭價는 3.66전에 불과하다. 물론 傭價란 지역, 시기, 계절에 따라 변동하지만, 곡식이나 馬 등 각종 재화에 매달 평균 가격[平價]을 붙였으며<sup>554)</sup> 漢代 傭價에도 평균 가격이 존재한 것을 보면 秦代 傭價에도 평균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을 것이며 위의 傭價 역시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반영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전국 말기의 고용노동자들이 스스로 부양하는 데도 벼차<sup>555)</sup> 妻子를 두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지적<sup>556)</sup>을 보면 비단 용작 문서의 傭價뿐 아니라 전국 말-통일 전의 용가가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秦이 국가의 업무와 노동에 徒隸를 적재적소에 이용하는 체계를 갖추었음은 앞서 살펴보았는데, 이처럼 도예의 사역이 성행하였고 때로는 도예를 민간에 매각, 방출하기도 하였다면 이는 당시 傭價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57)</sup>

반면 傭作 문서와 같은 시기에 통용된 秦律은 강제 노동의 1일 가치를 6전으로 계산했다.

죄를 지어 賞刑, 贖刑을 받거나 官에 채무가 있는 경우 그 규정된 기간 내 심문한다.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할 수 없거나 갚을 수 없다면 규정된 기간 (官에서) 居作하는데, 居作은 일 8전으로 계산한다. 官에서 식사하는 경우, 일 6전으로 계산한다.<sup>558)</sup>

554) 『校釋(二)』 9-1113+1090+1088, “卅五年十一月辛卯朔朔日, 都鄉守擇敢言之: 上十一月平價(價), 謁布鄉官. 敢言之. /啓手. 十一月辛卯朔己酉, 遷陵守丞繹下尉·鄉官: 以律令從事. 以次傳, 別書. /就手. /十一月己酉旦, 守府印行尉. 十一月辛卯, 都鄉守擇與令史就雜取市賈(價)平. 秬米石廿五錢. 粢(粢)米石廿錢. 毋【賣】它物者. 十一月乙未旦, 都鄉佐啓以來. /就發.”

555) 『韓非子』『外儲說』, “齊桓公微服以巡民家, 人有年老而自養者, 桓公問其故. 對曰: “臣有子三人, 家貧無以妻之, 傭未及反.” 桓公歸, 以告管仲. 管仲曰: “畜積有腐棄之財, 則人飢餓; 宮中有怨女, 則民無妻.” 桓公曰: “善.” 乃諭宮中有婦人而嫁之. 下令於民曰: “丈夫二十而室, 婦人十五而嫁.”

556) 石洋, 『兩漢傭價變遷考證』, 2012, p.207.

557) 실제로 漢 중기 이후 傭價는 점차 상승하여 무제-소제 때 가벼운 노동의 傭價는 월 150전, 중노동의 용가는 월 300전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후한 중, 후기에 이르면 가벼운 노동의 傭價는 월 1,000전, 중노동의 용가는 월 2,000전까지 상승하였다. (石洋, 『兩漢傭價變遷考證』, 2012, p.205)

558) 『睡虎地秦簡』『秦律十八種』, 簡133-134, “有罪以賞贖及有責(債)於公, 以其令日問之, 其弗能入及賞(償), 以令日居之, 日居八錢; 公食者, 日居六錢. 男子參, 女子駟(四).”; 『嶽麓秦簡(肆)』, 簡257-258, “司空律曰: 有臯以賞贖及有責(債)於縣官, 以其令日問之, 其弗能入及償, 以令日居之, 日居八【錢】, 食縣官者日居六錢, 居官府食縣官者男子參<叁>, 女子駟(四)”

1일 8전(식사 지급 시 1일 6전)이라는 거자속채의 1일 노동 가치는 거자속채가 지은 賞刑, 贖刑, 債務를 변제하기 위한 기준이다. 바꾸어 말하면, 1일 8전은 거자속채의 하루 노역의 대가, 즉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국가가 강제 노동에 지불한 액수라고 보아도 좋다. 물론 실제로는 거자속채에 1일 8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이 금액은 형벌과 채무 변제를 위해 설정된 만큼 현실의 노동 가치와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隸臣妾이 되어야 하는 자가 도망하거나 司寇로서 冗作하는 자 및 踐更해야 하는 자가 도망한 경우 해당 기간에 1일 6전을 흠친 것으로 계산해 盜罪와 같이 처벌한다는 조항<sup>559)</sup>에서 볼 수 있듯이 진은 도예에 대해서도 1일 6전이라는 노동 가치를 적용하였다. 도예와 식량을 받는 거자속채의 1일 노동 가치가 일치하는 것은 6전이 秦代 1일 노동의 법정 가격임을 의미한다. 秦은 식량을 받지 않는 거자속채에 강제 노동의 대가로 1일 8전을 지급한 셈이 되므로, 만일 진시황 32년의 시점에 거자속채 대신 W-014의 고용노동자를 이용한다면, 1일 4.7전을 절약할 수 있다.

용작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秦末~漢初 고용 노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적어도 진시황 32년 시점의 1일 傭價는 거자속채의 1일 노동 가치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前漢이 민간인의 고용을 새로운 인력 이용 방식으로 주목하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것이다. 다소 지나친 서술일지도 모르나, 사회 전반에 저비용의 인력이 존재한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도예의 삭감이 가능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환언하자면 인력 고용의 경제성은 의복비, 식비, 관리비용까지 지출하며 예속 인력을 유지하려던 국가의 의지가 약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가를 기반으로 한 군사 인력의 운용은 문제 이후 前漢이 강제적 징발·노동 외의 방식을 이용해 인력 수요를 충족하였음을 보여준다. 인력의 유상 이용, 즉 고용은 군사 업무를 포함한 각종 국가의 업무·노동에서 나타났을 것인데, 이는 고용 노동의 경제성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 결과 전한 중기 이후 국가에 고용된 민간인은 과거 도예 등 예속 인력이 담당한 업무·노동의 적지 않은 부분을 담당하였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논의를 이어서 국가가 어떠한 분야에 인력을

559) 『嶽麓秦簡(肆)』簡17-18, “及諸當隸臣妾者亡, 以日六錢計之, 及司寇冗作及當踐更者亡, 皆以其當冗作及當踐更日, 日六錢計之, 皆與盜同灋.”



고용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 2) 前漢의 인력 고용

### [물자 운송]

前漢 중기 이후 인력 동원의 새로운 변화는 국가가 각종 업무에 민간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前漢은 유기 형도, 관노비, 그리고 병역·요역에 징발된卒 등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민간의 인력을 유상으로 이용했다.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武帝 이전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秦에서는 類例를 찾을 수 없다.

민간인 고용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특히 물자 운송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한 문제 이전, 국가는 물자를 운송할 때 徒隸와 병·요역에 징발된 黔首를 이용했다. 『商君書』 「墾令」이 민간 운송업자[僦]에 대해 사뭇 비판적인 어조를 견지한 것<sup>560)</sup>이나 秦律 중 운송 요역을 담당해야 하는 검수가 타인의 힘을 빌리거나 타인에 요역을 넘기려고 한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sup>561)</sup>은 秦이 물자를 운송할 때 반드시 국가가 장악한 인력을 이용하고<sup>562)</sup> 민영 운송업의 발전을 경계한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入粟授爵의 시행으로 일대 변혁을 맞았고, 武帝 시기에 이르면 前漢은 민간 운송업자를 고용하기 시작했다.

먼저, 입속수작과 민간 운송업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史記』 「平準書」는 문제 시기의 입속수작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560) 『商君書』 「墾令第二」, “令送糧無取僦, 無得反庸, 車牛輿重設必當名. 然則往速徠疾, 則業不敗農, 業不敗農, 則草必墾矣.”

561)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28, “上節(即)發委輸, 百姓或之縣就(僦)及移輸者, 以律論之.”

562)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가 장악한 인력’이란 徒隸, 卒, 黔首를 의미한다. 단, 인력 동원 시 우선순위는 도예에 있었으며, 검수는 대개 조건부로(도예 인원 부족, 시급한 운송) 동원되었다. 특히 농번기에 검수를 징발하는 일은 제한되었다. (『校釋(二)』 9-2283, “廿七年二月丙子朔庚寅, 洞庭守禮謂縣嗇夫·卒史嘉·段(假)卒史穀·屬尉: ‘令曰: 『傳送委輸, 必先【行】城旦舂隸臣妾居貲贖責(債). 急事不可留, 乃興繇(徭).』’ 今洞庭兵輸內史, 及巴·南郡·蒼梧【輸甲】兵, 當傳者多. 節(即)傳之, 必先悉行乘城卒·隸臣妾·城旦舂·鬼薪白粲·居貲贖責(債)·司寇【隱】官踐更縣者. 田時毆, 不欲興黔首.’”)

흉노가 수차례 북변을 侵盜하니 屯戍하는 자들이 많아져 변방의 粟으로는 마땅히 먹여야 하는 자들에 식량으로 지급하기 부족했다. 이에 邊境으로 粟을 輸轉할 수 있는 民을 모집하여 爵을 내렸는데, (최고) 大庶長의 작까지 얻을 수 있었다.<sup>563)</sup>

이 기록은 爵을 수여하는 조건에 변경까지 직접 粟을 輸, 轉하는 과정이 포함된 사실을 보여준다. 즉 작을 원하는 자는 중앙이나 내군의 관청에 粟을 바칠 뿐 아니라, 자력으로 변경까지 粟을 옮겨야 했다. 이로부터 당시 국가가 직접 粟을 운송하는 대신 민간에 맡긴 것을 알 수 있는데<sup>564)</sup> 변경에 직접 곡식을 납입하는 방식은 민간 운송업이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것이다.<sup>565)</sup> 入粟을 원하는 자가 운송 수단을 지닌 타인을 고용해 入粟하는 사례도 분명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입속수작은 민영 운송업의 이용을 인정한 것일 뿐 국가가 민간 운송업자를 유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가 민간의 수레나 운송업자를 유상 고용하는 현상은 武帝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元封 원년(BCE 109) 治粟都尉 桑弘羊은 관청들이 경쟁적으로 물품을 매매하므로 물가가 앙등할 뿐 아니라 천하에서 賦를 거두어도 그 ‘僦費’를 치르지 못할 정도라며 평준법 시행을 청했다.<sup>566)</sup> ‘僦’에 대해 服虔注는 “고용하여 물자를 운반하는[雇載] 것”<sup>567)</sup>이라 하였고, 『說文解字』는 僦를 “빌리는 것”<sup>568)</sup>으로, 顏師古는 “임금을 받고 물품을 적재해 나르는 것”<sup>569)</sup>이라 주해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僦’란 운송업자를 유상

563) 『史記』 卷30 『平準書』, p.1419, “匈奴數侵盜北邊, 屯戍者多, 邊粟不足給食當食者. 於是募民能輸及轉粟於邊者拜爵, 爵得至大庶長.”

564) 金秉駿, 『中國古代南方地域の水運』, 藤田勝久·松原弘宣 編, 『東アジア出土資料と情報傳達』, 東京: 汲古書院, 2011, p.183.

565) 王子今, 『秦漢時期的私營運輸業』, 『中國史研究』 1989(1), 1989, p.16.

566) 『史記』 卷30 『平準書』, p.1441, “其明年, 元封元年, 卜式貶秩爲太子太傅. 而桑弘羊爲治粟都尉, 領大農, 盡代僅筭天下鹽鐵. 弘羊以諸官各自市, 相與爭, 物故騰躍, 而天下賦輸或不償其僦費, 乃請置大農部丞數十人, 分部主郡國, 各往往縣置均輸鹽鐵官, 令遠方各以其物貴時商賈所轉販者爲賦, 而相灌輸.”

567) 『史記』 卷30 『平準書』, p.1441, “【索隱】 不償其僦. 服虔云: 『雇載云僦, 言所輸物不足償其雇載之費也.』”

568) 『說文解字』 卷8 『人部』, “僦, 賃也.”

569) 『漢書』 卷50 『鄭當時傳』, pp.2324-2325, “漢征匈奴, 招四夷, 天下費多, 財用益屈. 當時爲大司農, 任人賓客僦.” 【師古曰: 『僦謂受顧賃而載運也.』】

고용하거나 운송 수단을 빌려 쓰고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假’나 ‘賃’과는 구분된다. 즉 元封 연간에 민간 운송업자나 민간의 수레를 고용하여 賦를 중앙으로 수송하는 방식이 존재한 것이다.

국가의 민간 운송업자 고용은 武帝 재위기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昭帝 때 陽城侯 田延年の 僦值 착복 사건은 무제 이후에도 국가가 민간 운송업을 유상으로 이용한 사실을 보여준다.

당초 大司農은 민간의 牛車 30,000兩를 뽑아 고용했는데, 便橋 아래에서 모래를 실어다 황룡을 조영하는 데 보냈다. 車(를 고용한) 값이 대당 1,000錢인데, 田延年은 장부를 만들어 올림에 車의 임대비[僦值]를 대당 2,000錢으로 속여 총비용을 60,000,000錢이라 하고, 절반을 몰래 취했다.<sup>570)</sup>

昭帝가 갑작스레 붕어하며 능묘를 조영하게 되자<sup>571)</sup> 大司農은 민간의 車를 유상으로 빌려 봉분을 만들기 시작했다. 수레 1대의 僦值는 1,000전, 총 30,000대를 사용하였으므로 총비용은 3천만 전에 해당하나, 대사농 전연년은 그 비용을 두 배로 높여 장부를 작성한 후 절반인 3천만 전을 착복했다. 전연년의 착복 사건은 당시 국가가 민간 운송업을 유상으로 이용한 사실을 명백히 제시하여, 당시 민간 운송업자의 고용이 이미 보편적 현상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동시기 河西四郡의 관부가 민간의 僦人에 물자를 운송하도록 한 사실은 무제·소제 재위기 국가의 민간 운송업자 이용이 결코 예외적, 일시적 조치가 아니었음을 입증한다.

前漢 張掖郡 居延都尉府 유지에서 출토된 간독은 僦人(혹은 僦家)에 관한 기록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앞서 ‘僦’의 字義가 ‘임금을 받고 물자를 적재, 운송하는 일’이라고 하였으므로, 주인, 추가는 민간에서 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혹은 운송업자를 의미한다. 주인은 통행증을 소지하고 민간인이나 관부를 위해 물자를 운송했는데, 이들은 군속 혹은 수졸 신분으로 운송에 종사한 車父, 車卒과는 구별되었다.<sup>572)</sup> 하서사군의 車父, 車卒이 신상명세를

570) 『漢書』 卷90 『酷吏傳·田延年』, pp.3665-3666, “初, 大司農取民牛車三萬兩爲僦, 載沙便橋下, 送致方上, 車直千錢, 延年上簿詐增僦直車二千, 凡六千萬, 盜取其半.”

571) 『漢書』 卷90 『酷吏傳·田延年』, p.3556, “昭帝大行時, 方上事暴起.” 【師古曰: 「方上謂壙中也. 昭帝暴崩, 故其事倉猝.」】

572) 大櫛敦弘은 무기 수송 기록의 일부인 『居延漢簡(參)』 303.16+303.6+303.1이 車父를

적을 때 車로 소속을 명기한 것<sup>573)</sup>과 달리, 추인은 특정 관부가 아닌 縣, 里로 소속을 명기한 점 역시 이들이 민간인임을 뒷받침한다.

僦人의 고용주로는 민간인, 관부가 모두 보이는데, 관부에 고용된 추인들은 대부분 張掖郡, 敦煌郡의 현지인이다.<sup>574)</sup> 관과 고용 관계를 맺은 추인 중 타지 출신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는 현지인을 고용함으로써 관 물자의 정기적, 안정적 운송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당시 관부는 어떤 방식으로 추인을 관리하고 관의 물자를 운송하도록 했을까? 추인 관련 문서를 통해 그 구체적 운용 방식을 확인해 보자.

(6) 들어옴[入]. 郡倉이 居攝 3년 정월 계묘일 (수레) 1兩으로 粟小石 41석 6斗 6%升을 轉輸. 』

居攝 3년 4월 壬辰, 大煎都 步昌候의 史 尹欽과 燧長인 張博이 敦煌縣 高昌里의 僦人 滑護(字는 君房)로부터 받음.<sup>575)</sup>

(7) (成帝) 元延 4년 8월 이래 將轉守尉 黃良이 僦人에 錢을 준 [賦] 名(籍?)<sup>576)</sup>

(6)은 하서사군의 추인 이용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이다. 도판을 확인하면 상단에는 크게 ‘入’을 서사하고 이하 2단으로 ‘郡倉이 居攝 3년

‘戍卒梁國睢陽第四車父宮南里馬廣’으로 기록한 것을 근거로 車父는 戍卒의 직책 중 하나이며 수송을 담당한 縣 소속의 수졸이 車父로 충당되었다고 보았다. (大櫛敦弘, 「秦漢國家の陸運組織に關する一考察—居延漢簡の事例の檢討から」, 『東洋文化』 68, 1988, p.32) 王子今은 車父를 卒, 戍卒과 연칭하는 것으로부터 車父가 戍卒과 유사하다고 보면서도 車父가 개인의 운송 수단을 이용해 복역하는 점을 단서로 삼아 車父의 지위 및 처우는 사실상 하급 관리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僦人은 운송 수단으로써 영리활동을 하며 인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車父와는 구별되었다. (王子今, 「關於居延“車父”簡」, 李學勤 主編, 『簡帛研究』 第二輯, 1996, pp.286-290)

573) 대표적으로 『居延漢簡(參)』 303.16+303.6+303.1을 확인할 수 있다.

『居延漢簡(參)』 303.16+303.6+303.1, “戍卒梁國睢陽第四車父宮南里馮廣 斧二 』 齒六 』 鑄二 』 承鈺二破 鋸二 』 釜一完 [錐一]”

574) 張俊民, 「從漢簡談漢代西北邊郡運輸的幾個問題」, 『中國社會經濟史研究』 1996(3), 1996, p.3.

575) 『敦煌漢簡』 282, “入 郡倉居攝三年正月癸卯轉兩

粟小石卅一石六斗六升大 』

居攝三年四月壬辰大煎都步昌候史尹欽隊長張博受就人敦煌高昌里滑護字君房”

576) 『居延漢簡(肆)』 506.26, “• 元延四年八月以來將轉守尉黃良所賦就人錢名”

정월 계묘일 한 대[兩]로 粟 小石 31석 6斗 6 $\frac{3}{4}$ 升을 轉'을 적어 넣었다. 말미의 부호(f)는 이상의 물자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단락에는 粟을 수령한 候史와 隧長, 그리고 粟을 운송한 僦人의 신상명세가 자세히 적혀 있다. 여기에 적힌 僦人 滑護는 돈황현 고창리 사람으로 敦煌郡의 郡倉으로부터 步昌候까지 粟을 이송했다. (6)과 나란히 수록된 敦煌漢簡 簡283<sup>577)</sup>, 284<sup>578)</sup>, 285<sup>579)</sup>은 僦人이 수송한 粟을 大煎都가 수령한 기록으로, 그 기년이 모두 居攝 3년에 해당하며 서식이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본래 하나의 冊書로 묶여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冊書는 주인에 임금을 지급하는 근거로 이용되었을 것인데, (7)을 통해 관부가 주인에 임금을 지급한 방식을 추측할 수 있다. (7)은 將轉守尉인 黃良이 錢을 지급한 僦人의 이름을 기록한 장부의 제목간이다. ‘將轉’이란 물자의 운송을 통솔, 감독하는 직을 의미하는데, 수로로 운송하는 물자를 통솔하는 관리는 ‘將漕’로 지칭한 듯하다.<sup>580)</sup> 將轉吏는 물자 운송을 관리했기 때문에, 자연히 주인의 출·도착과 임금 지급에도 관여했는데 대개 丞<sup>581)</sup>, 尉<sup>582)</sup>, 士吏<sup>583)</sup> 등이 將轉을 겸임했다. 宣帝 神爵 2년 12월에 將轉인 肩水倉令史가 모 城으로 곡식을 운송하는 就家의 籍貫을 적어 보낸<sup>584)</sup> 기록은 주인의 책임 소재가 將轉에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다만 위의 기록만으로는 (7)에서 주인에 지급한 錢이 임금인지 수송 물자

- 577) 『敦煌漢簡』 283, “入 郡倉居攝三年正月癸卯轉一兩半兩  
麥小石五十六石二斗五升 f  
居攝三年四月壬辰大煎都步昌候史尹欽隊長張博受就人敦煌利成里張賀字少平”
- 578) 『敦煌漢簡』 284, “入 郡倉居攝三年正月癸卯轉一兩  
麥小石卅七石五斗 f  
居攝三年三月戊辰大煎都士吏牛黨候史尹欽受就人效穀益壽里鄧尊”
- 579) 『敦煌漢簡』 285, “入麥小石十三石五斗 f  
居攝三年三月戊辰大煎都士吏牛黨候史尹欽受就人效穀益壽里鄧尊少不滿車兩未參”
- 580) 『肩水金關漢簡(參)』 73EJT30:21A, “元康二年八月丁卯朔甲申, 昭武左尉廣, 爲郡將漕, 敢言. 謹寫”
- 581) 『肩水金關漢簡(肆)』 73EJT37:275+248+7+301, “元延元年八月乙未朔甲子, 居延城倉長護移過所縣道津關. 遣丞高憲將轉肩水候官, 當舍傳舍從者如律令/掾明佐并” (위 문서의 질함은 姚磊, 『《肩水金關漢簡(肆)》綴合(十七)』, <簡帛網>, 2016.5.16. 참고)
- 582) 『居延新簡』 E.P.T7:7, “已付將轉守尉遷士吏惲車六兩”
- 583) 『居延漢簡(壹)』 61.1, “建武五年三月癸未武賢燧長忠 受將轉守士吏孫彊”
- 584) 『肩水金關漢簡(伍)』 73EJT3:113, “神爵二年十二月壬申朔戊寅將轉肩水倉令史 轉城穀就家縣名里各如牒, 出入復籍. 敢言 張”

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아래의 (8),(9)에서 관부가 주인에 지급한 錢이 수레의 단위와 밀접히 연관된 점으로부터 해당 錢이 수레 1대를 단위로 책정된 운송 대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때도 ‘주다[賦]’라는 서술어를 사용했으므로 (7)에서 將轉이 ‘준[賦]’ 錢 역시 운송 임금으로 볼 수 있다.

(8) 1,347錢을 내어 會水縣 宜祿里 소속 隸人인 蘭子房에 1兩(의 물자를 운송한 대가를) 줌.<sup>585)</sup>

(9) 4,714錢을 내어 隸人인 表是縣 萬歲里의 吳成에 3.5兩(의 물자를 운송한 대가를) 줌. 이미 85石을 入함. (적재 정량보다) 2石 8斗 3升이 적음.<sup>586)</sup>

田延年의 隸值 착복 사건과 (6),(7)에서 볼 수 있듯이 ‘兩’이란 수레를 세는 단위이다. (8)에서 관부는 주인의 수레 1량에 1,347전을 지출했는데, 수레 3.5량을 운송한 (9)의 주인에 지급한 4,714전은 1,347전의 약 3.5배에 해당한다. 두 기록 간의 수치가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을 통해 여기에 보이는 ‘錢’이 운송 물자가 아닌 주인에 지급된 임금이며, 당시 수레 1량을 운송하는 대가가 1,347전<sup>587)</sup>이었음을 알 수 있다. (9)에 따르면 본래 3.5량에는 87石 8斗 3升을 적재할 수 있으므로 1량은 大石 25석에 해당한다.<sup>588)</sup> 즉 당시 관은 大石 25석을 적제한 수레의 ‘兩’을 기준으로 운송비용이 책정해 두었고, (9)의 사례처럼 적재 가능 무게를 완전히 채우지 않은 경우에도 兩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 듯하다.

585) 『居延漢簡(肆)』 506.27, “出錢千三百卅七 賦就人會水宜祿里蘭子房一兩”

586) 『居延漢簡(肆)』 505.15, 已入八十五石  
“出錢四千七百一十四 賦就人表是萬歲里吳成三兩半  
少二石八斗三升 f”

587) 물론 隸人의 운송 임금은 시대에 따라 변동했을 것인데, 거연한간, 돈황한간 중에는 수레 1兩의 隸值가 1,374전, 7,000전인 사례가 보인다. (張俊民, 『從漢簡談漢代西北邊郡運輸的幾個問題』, 1996, p.8) 그러나 운송비에도 법정 가격인 平價가 존재하였으므로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운송비를 지급하였을 것이다. (『敦煌漢簡』 1628, “唯治所以前數收就錢與平如律令”)

588) 문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4)의 부피 단위는 大石이다. 거연신간 E.P.T52:528간은 수레 1량의 적재량을 小石 41석 6두 6승으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居延新簡』 E.P.T52:528, “車一兩 爲小石卅一石六斗六升大 河平四年正月壬戌甲渠令史□世受甲渠□□燧長”) 漢代의 小石은 大石의 ⅔에 해당한다. (陳夢家, 『關於大小石·斛』, 『漢簡綴述』, 北京: 中華書局, 1980, p.149)

추인 관련 기록 중 하서사군의 기록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추인의 관부 물자 운송이 하서사군 내부의 특수 현상은 아니었다. 아래 기록은 하서사군 이외의 郡도 僦人을 고용해 郡 바깥으로 물자를 수송한 사실을 증명한다.

(10) 거리에 따라 大司農으로 錢, 布를 僦送함에, 酒泉郡 관할  
...”589)

(11) 安定太守 出가 문서에서 말하기를, 粟을 육로로 嘉平倉까지 수송하는데, 就(僦)品이 적고 모집 비용이 싸기 때문에 하려는 자가 없어...590)

(10)은 당시 중앙의 대사농에 錢, 布를 보내거나 倉에 粟을 수송할 때 일정 거리마다 추인을 고용한 사실을 보여준다. 민간 운송 수단은 군이 중앙으로 물자를 수송하는 과정에서도 이용된 것이다. (11)의 안정군 태수가 ‘운송비[僦品]가 적고, 募(의 값어치)가 싸니 하려는 자가 없다’고 한 대목은 추인에 지급하는 운송비가 적어 운송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표준 운송비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안정군이 嘉平倉에 粟을 보내는 과정에서 민간 운송업자를 고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군 태수의 상주 대상으로 중앙 조정 이외의 다른 대상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의 문서는 중앙으로 운송하는 물자의 운송비와 관련될 것이다. 만일 문서에 등장하는 粟 운송이 郡內의 물자 운송이라면 僦品이 적어 인원을 모집하기 어렵다는 군 태수의 발언은 매우 부자연스러워진다. 즉 嘉平倉으로의 粟 운송은 안정군 경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며, 嘉平倉도 안정군 바깥에 존재했을 것이다. 게다가 두 번째 문서와 매우 흡사한 서식의 다른 문서는 어떤 官署가 추인을 이용해 ‘渭倉’으로 粟을 수송하는 것을 기록하였는데591), ‘渭倉’이라는 명칭이 만일 渭水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渭倉은 수도 長安 인근의 倉일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가평창과 위창의 위

589) 『敦煌漢簡』 2107A, “□實以道里就送大司農錢布, 轄酒泉郡□□□□□□□”

590) 『敦煌漢簡』 619, “願加就程. 五年北地大守惲書言, 轉□ 安定大守出書言, 轉粟輸嘉平倉, 以就品博募賤, 無欲爲□”

591) 『敦煌漢簡』 1262, “□粟輸渭倉, 以就品賤, 無欲爲者, 願□”

치 및 소속을 확정하기 어려우나<sup>592)</sup> 이상의 단서들은 당시 여러 郡이 원거리 수송에 민간인을 고용한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물론 전한 시기 관이 물자를 운송할 때 오로지 주인만을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車卒, 車父가 관 물자의 정기적 운송을 담당한 사실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관부에 직속한 인력이 존재함에도 관부가 민간인을 이용해 ‘僦載’한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九章算術』의 算題가 縣이 賦를 운송할 때 僦人, 傭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 임금을 1리 1전<sup>593)</sup>, 傭의 임금을 1일 5전<sup>594)</sup>으로 제시한 것은 당시 국가가 민간 운송업을 심분 활용한 정황을 잘 보여준다.

#### [건설, 경작]

국가의 민간인 고용 양상은 건설·보수와 공전 경작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국가가 토목 공사에 인력을 유상 고용한 사례를 확인해 보자.

이 문서 세 첩: 종사하는 業이 없는 자는 그 보증인이 관소의 통행증[傳]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 만일 다른 일에 종사한다고 말한다면, 각각 편의에 따라 일에 종사하도록 하며 모두 詔書와 같이 따른다. 縣官이 고용노동자[傭]를 취해 보수하거나[繕治] 다른 일을 하도록 할 경우, 모두 (통행증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 나태[惰窳]한 백성이 (이를) 엄격히 지키지 않는다면 곧 다른 고용노동자

592) 漢代 漕運 시설, 倉 명칭 중 渭倉과 嘉平倉은 보이지 않는다. 漢代 漕運 시설과 倉에 관해서는 藤田勝久, 『中國古代國家と郡縣社會』, 2005, p.358의 表 2를 참고할 수 있다.

593) 『九章算術』 卷6 「均輸」, “[三]今有均賦粟: 甲縣二萬五百二十戶, 粟一斛二十錢, 自輸其縣; 乙縣一萬二千三百一十二戶, 粟一斛一十錢, 至輸所二百里; 丙縣七千一百八十二戶, 粟一斛一十二錢, 至輸所一百五十里; 丁縣一萬三千三百三十八戶, 粟一斛一十七錢, 至輸所二百五十里; 戊縣五千一百三十戶, 粟一斛一十三錢, 至輸所一百五十里. 凡五縣賦, 輸粟一萬斛. 一車載二十五斛, 與僦一里一錢. 欲以縣戶輸粟, 令費勞等. 問縣各粟幾何?”

594) 『九章算術』 卷6 「均輸」, “[四]今有均賦粟, 甲縣四萬二千算, 粟一斛二十, 自輸其縣; 乙縣三萬四千二百七十二算, 粟一斛一十八, 傭價一日一十錢, 到輸所七十里; 丙縣一萬九千三百二十八算, 粟一斛一十六, 傭價一日五錢, 到輸所一百四十里; 丁縣一萬七千七百算, 粟一斛一十四, 傭價一日五錢, 到輸所一百七十五里; 戊縣二萬三千四十算, 粟一斛一十二, 傭價一日五錢, 到輸所二百一十里, 己縣一萬九千一百三十六算, 粟一斛一十, 傭價一日五錢, 到輸所二百八十里. 凡六縣賦粟六萬斛, 皆輸甲縣. 六人共車, 車載二十五斛, 重車日行五十里, 空車日行七十里, 載輸之間各一日. 粟有貴賤, 傭各別價, 以算出錢, 令費勞等. 問縣各粟幾何?”



를 취한다.<sup>595)</sup>

인용한 사료는 敦煌 馬圈灣에서 발견된 전한 중, 후기의 간독이다. 밑줄 친 부분(“縣官當取庸繕治, 及它作, 皆須所受”)<sup>596)</sup>을 앞 문장과 연결하면 ‘받는 것[所受]’은 곧 통행증의 수령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간독의 내용은 관에 고용된 백성은 반드시 통행증을 신청 후 소지해야 하는데, 만일 나태한 백성이 이를 지키지 않아 통행증을 소지하지 못하였다면 관은 다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즉 위의 문서는 당시 돈황 일대의 관부가 백성을 유상으로 고용해 繕治 혹은 기타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을 보여 준다. ‘繕治’란 보수, 수선을 의미하는데, 弩·車 등 기물을 고치거나<sup>597)</sup>, 방어 시설인 城郭·塙<sup>598)</sup>, 관의 시설물인 亭·燧<sup>599)</sup>를 보수할 때에도 모두 ‘繕治’라고 하였다. 다만 위의 문서에서 관에 고용된 민간인은 통행증이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이들 민간인은 특정 관서에 머물며 기물을 고치기보다, 관부의 지시에 따라 건설 작업이나 토목 공사에 종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관부가 토목 공사에 민간인을 고용한 일은 돈황 등지에 국한되지 않았다. 成帝의 능묘인 昌陵을 조영할 때 국가는 민간인을 고용하였다.

이에 天子는 그 계획에 따라 과연 昌陵邑(의 조영)을 시작했고, 이후 內郡·國의 백성을 이주하였다. 萬年이 3년이면 완성된다고 속

595) 이 문서는 『敦煌漢簡』 213簡으로, 본 연구는 최근 적외선 촬영기법을 이용한 白軍鵬의 판독을 따랐다. 『敦煌漢簡校釋』(白軍鵬 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8) p.208, “• 此三牒: 無作業, 其任把關傳, 言若它作事, 各以便宜作事之, 皆如附詔詔書. 縣官當取庸繕治, 及它作, 皆須所受隨窳民不迫, 乃取它庸. 其□”

596) 白軍鵬은 『敦煌漢簡校釋』에서 이 부분을 ‘皆須所受隨窳民不迫’로 읽었으나, 이와 같이 읽으면 문장 전체의 의미가 모호해진다. 게다가 白軍鵬 본인이 최근의 논저에서 『商君書』 ‘墾令’의 ‘窳惰之農’에 착안하여 ‘隨窳民’을 ‘惰窳民’으로 이해했으므로(白軍鵬·汪雲龍, 『敦煌馬圈灣漢簡釋文訂補(六則)』, 鄒文玲 主編, 『簡帛研究二〇一七·秋冬卷』,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8, p.167) ‘隨窳民’은 ‘皆須所受’와 떼어 읽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중국 서북 출토 한간의 용례를 참고하면, ‘須’는 단독 술어로 쓰일 때 ‘필요하다’, ‘이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簡牘研究班編, 『漢簡語彙 中國古代木簡辭典』, 東京: 岩波書店, 2015, p.235) 이를 근거로 필자는 ‘皆須所受’의 ‘須’의 字義를 ‘필요하다’로 이해했다.

597) 『居延漢簡(壹)』 36.11, “官六石第一弩今力四石卅斤傷兩, 淵可繕治”

598) 『居延新簡』 E.P.T57:15, “城倉庫延水居延農甲渠珍北卅井候官督 及省卒徒繕治城郭塙辟令丞候尉史遂等三老”

599) 『居延漢簡(貳)』 157.15, “掾從謹責問第四守候長□以繕治亭燧候望日迹送□爲□”

였으나, 이후 결국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군신 중 그 불편함을 말하는 자들이 많았다. 有司에게 (그 안건을) 내려 의논하게 하자 모두 말하기를, ‘昌陵(의 조영)은 (지대가) 낮은 곳으로부터 높이는 것이니, 흙을 쌓아 산을 만들어도 便房(의 높이를) 재면 여전히 평지 위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온 흙이 幽冥의 靈을 보존하지 못하는 데다 단단하지 않아 수만 인의 卒·徒·工·庸(傭)을 동원해 기를 태우며 불을 밝혀 밤에도 작업하니, 東山으로부터 흙을 취해 오는 것이 곡식의 가격과 같습니다. 조영한 지 몇 년이 지나 천하가 함께 그 수고를 당하고 국가는 피폐하여 창고는 비어 衆庶가 매우 괴로워합니다.’라고 했다.<sup>600)</sup>

처음 成帝는 자신의 능묘를 장안 인근에 조영하려 하였으나, 근방의 경작지에 民을 이주시켜 수도를 보강해야 한다는 解萬年의 상주를 받고 다른 장소에 昌陵을 조영하기로 했다. 3년이면 완성될 것이라는 보고와 달리, 창릉은 그 지리적 문제로 인해 5년이 지나도록 완공되지 않았다.<sup>601)</sup> 卒 중 사망하는 자가 속출하고 백성들이 피폐할 정도로<sup>602)</sup> 5년에 걸친 창릉 건설에는 대단위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당시 국가가 이용한 인력 중에는 고용노동자도 존재했다. 인용문은 창릉 조영을 위해 수만 인의 卒·徒·工·傭이 늦은 밤에도 불을 밝혀 일한 사실을 전하는데, 이 중 ‘傭(傭)’은 바로 민간의 피고용자이다. 즉 요역에 징발된 卒, 관 소속의 刑徒, 工匠, 그리고 민간의 피고용자가 함께 노역한 것이다. 창릉의 건설이 5년 이상 걸렸다고 하였으므로, 건설 기간에 인력 고용을 병용했다면 창릉 건설에 이용된 고용노동자의 수는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을 것이다. 창릉 조영의 중지를 청하여 성제에게 호평을 받은 大司農中丞

600) 『漢書』卷70「陳湯傳」p.3024, “於是天子從其計, 果起昌陵邑, 後徙內郡國民. 萬年自詭三年可成, 後卒不就, 羣臣多言其不便者. 下有司議, 皆曰: 『昌陵因卑爲高, 積土爲山, 度便房猶在平地上, 客土之中不保幽冥之靈淺外不固, 卒徒工庸以鉅萬數, 至燔脂火夜作, 取土東山, 且與穀同賈. 作治數年, 天下徧被其勞, 國家罷敝, 府臧空虛, 下至衆庶, 熬熬苦之.』”

601) 『漢書』卷10「成帝紀」, p.320 “秋七月, 詔曰: 『朕執德不固, 謀不盡下, 過聽將作大匠萬年言昌陵三年可成. 作治五年, 中陵·司馬殿門內尚未加功. 天下虛耗, 百姓罷勞, 客土疏惡, 終不可成. 朕惟其難, 怛然傷心. 夫『過而不改, 是謂過矣.』其罷昌陵, 及故陵勿徙吏民, 令天下毋有動搖之心.』”

602) 『漢書』卷10「成帝紀」, p.322 “十二月, 詔曰: 『前將作大匠萬年知昌陵卑下, 不可爲萬歲居, 奏請營作, 建置郭邑, 妄爲巧詐, 積土增高, 多賦斂繇役, 興卒暴之作. 卒徒蒙辜, 死者連屬, 百姓罷極, 天下匱竭.』”

王閼에 대한 안사고의 주석을 통해서도 당시 국가의 인력 고용이 보편화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안사고는 王閼의 관직인 司農中丞의 역할에 대해 ‘錢穀과 顧庸을 주관한다’<sup>603)</sup>고 하였다. 재정 기구인 대사농의 中丞이 인력 고용과 그 임금을 전문적으로 관장한 것은<sup>604)</sup> 전한 중기 이후 국가의 인력 고용이 단기적 조치가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물론 창릉 조영 시 요역의 명목으로 民이 대거 징발되었으므로, 투입된 인력의 비중을 따지면 자연히 傭보다는 卒의 비중이 높았을 것이며, ‘卒·徒·工·庸’라는 서술 순서 역시 중심 인력 자원이 卒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傭이 卒이나 徒보다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창릉 조영에서 傭이 가지는 의미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 前漢은 황릉을 건설할 때 대개 죄인이나 도예를 동원하고, 그 대가로 그들을 사면하는 방식을 취했다.<sup>605)</sup> 따라서 황릉 조영에 민간인력이 투입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창릉을 건설하는 시점에는 민간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卒과 徒만으로 채울 수 없는 인력 공백을 해결하였다. 즉 과거에는 이용하지 않던 인력 자원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황릉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고용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었다면, 이는 당시의 고용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예컨대 많은 민간인이 노동자로 고용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고용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역시 이전보다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크다.<sup>606)</sup>

603) 『漢書』 卷10 「成帝紀」, p.322, “閼典主省大費, 民以康寧.” 【師古曰: 「司農中丞主錢穀顧庸, 故云典主。」】

604) 朴健柱, 「秦漢三國期 국가경제 운영상의 고용노동 활용과 賦·役制상의 변화」, 『中國史研究』 100, 2016, p.87.

605) 陽陵(景帝), 杜陵(宣帝), 初陵(成帝) 조영에 동원된 자들을 사면한 예를 볼 수 있다. 『漢書』 卷5 「景帝紀」, p.147, “秋, 赦徒作陽陵者死罪. 欲腐者, 許之.”; 『漢書』 卷8 「宣帝紀」, p.265, “夏, 赦徒作杜陵者.”; 『漢書』 卷10 「成帝紀」, p.316, “壬午, 行幸初陵, 赦作徒.”

606) 前漢 초기의 ‘庸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노동자는 종종 비천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점차 변화하여 前漢 후기 이후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타인이나 관부에 고용되었다. 선행 연구는 이러한 변화상이 병역 代役의 보편화와 밀접히 관계되며, 구체적으로는 宣帝 이후 고용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하였다고 보았다. (石洋, 「兩漢三國時期“傭”群體的歷史演變-以民間雇用爲中心」, 2014, pp.55-57) 즉 고용 노동이 향촌의 傭耕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보편화되어 고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불식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이상의 관점에 동의하나, 그 규모의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의 병역 대역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토목공사 역시 고용시장과 고용

[경작]

아래의 走馬樓西漢簡牘은 前漢의 大司農 田官이 민간인을 고용한 사실을 보여준다.

…大農 田官이 고용 임금을 보내고[移] 券을 내보내는데, 券은 3매이다. 券 하나는 4,721錢, 素繪 5尺 5寸(가치는 49錢), 656錢. 券 하나는 5,125錢, 絢繪 4匹(가치는 1,970錢). 券 하나는 □繡繪 2匹 2寸(가치는 1,149錢)과 緹繪 3丈 5尺(455錢).

3년 3월 乙丑(부터?) 4월 丙申까지(?) 병오일 議陵 佐…沅陽…<sup>607)</sup>

走馬樓西漢簡牘은 일부만 공개되었고 아직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 문서가 어느 시점,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간독의 전체적인 기년은 武帝 元朔, 元狩 연간(BCE 120~125년)이며 출토된 간독의 대부분은 법률, 행정문서라고 한다.<sup>608)</sup> 따라서 위의 문서도 武帝 시기 행정문서의 일부로 추측되는데 문서 중의 ‘大農田官’, ‘議陵 佐’ 등의 표현도 이 문서가 행정문서임을 뒷받침한다.

문서는 고용노동자에 지급한 임금[賃庸]과 그 券書에 관한 것이다. 권서를 발급한 주체는 大農의 田官으로 기록되어 있다. 大農은 大農令 혹은 大司農의 약자로, 景帝가 治粟內史를 대농령으로 개칭한 뒤 무제가 다시 대사농으로 개칭한 일은 잘 알려져 있다.<sup>609)</sup> 田官은 국가 소유 田地를 주관하는 관서로, 秦은 縣에 田官을 설치하여 공전 경작을 독려하였고<sup>610)</sup> 전한 무제는 하

노동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sup>607)</sup> 『湖南出土簡牘選編(伍)』(鄭曙斌 編, 長沙: 岳麓書社, 2013) 簡2, “□將大農田官移賃庸出券, 券三. 其一, 錢四千七百廿一. 素繪五尺五寸, 直錢卅九. 錢六百五十六. 一, 錢五千一百廿五. 絢繪四匹, □直錢千九百七十. 一, □繡繪二匹二寸, 直千一百卅九. 緹繪三丈五尺, 直錢四百五十五. • 三年三月乙丑四月丙申丙午□□議陵佐□沅陽□”(표점은 필자가 표시함)

<sup>608)</sup> 鄭曙斌 編, 『湖南出土簡牘選編(伍)』, 2013, pp.267-268.

<sup>609)</sup> 『漢書』 卷19上 『百官志上』, p.791, “治粟內史, 秦官, 掌穀貨, 有兩丞. 景帝後元年更名大農令, 武帝太初元年更名大司農.”

<sup>610)</sup> 秦縣의 田官은 公田 경작을 주관한 부서로 여겨진다. 秦 遷陵縣에는 경작 관련 부서인 ‘田’과 ‘田官’이 존재했는데, 田官守가 ‘官田自食薄(簿)’에 대해 보고한 것(『校釋(一)』 8-672, “卅年二月己丑朔壬寅, 田官守敬言□□ 官田自食薄(簿), 謁言秦守府□□之. □”)은 田官과 공전 경작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선행 연구 역시 田官嗇夫는 공전 및 漆園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戶曹에 통속된 田嗇夫는 민전의 생산을 관리,

서사군에 전관을 두어 둔전을 경작하도록 했다.<sup>611)</sup> 그렇다면 ‘大農田官’은 공전을 경영하는 대사농의 속관이며, 위의 문서는 대사농의 전관이 공전 경작에 인력을 투입한 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한 증명서와 관련될 것이다. 3개의 증명서에 표시된 임금 액수는 錢 기준 5,426전, 7,095전, 1,604전으로 각각 3월 을축일에서 4월 병신일까지 29일치 노역에 대한 임금으로 추측되나, 잔결된 부분이 많아 몇 명이 어느 기간 동안 노역하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 문서를 통해 국가가 경작에 민간인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위 문서는 대사농 전관의 민간인 고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인 동시에 국가의 고용 임금 지급을 보여주는 사료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국가가 인력을 고용한 기록이 존재해도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용 노동의 실재를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僦人의 경우와 달리 일반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 기록은 적은 편인데, 위의 走馬樓西漢簡牘을 제외하면 최근 출간된 『懸泉漢簡(壹)』의 取庸 기록이 확인된다.

고용노동자[傭] 89인을 취함 49인은 여자, 인당 27(錢?)  
30인(40인?)은 남자, 인당 45(錢?)  
8石 9斗를 먹임. 斗당 12(錢?)”<sup>612)</sup>

懸泉置 遺址에서 발견된 이 문서에는 총 89인을 고용한 사실과 성별 고용 인원이 기재되었는데 아쉽게도 이들이 어떠한 노동에 고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여자 49인은 일 27전, 남자 40인<sup>613)</sup>은 일 45전을 받아 남녀 임금은 5:3

독려하는 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이해했다. (李成珪, 『秦帝國 縣의 組織과 機能-遷陵縣 古城遺址 出土 里耶秦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第 53輯 1號, 2014, p.29)

611) 『漢書』 卷24下 『食貨志下』 p.1173, “初置張掖·酒泉郡, 而上郡·朔方·西河·河西開田官, 斥塞卒六十萬人戍田之.”

612) 『懸泉漢簡(壹)』 I 90DXT0112①:23, “取庸八十九人 其卅九人女子人廿七 卅人男子人卅五 食八石九斗=十二”

613) 문면대로라면 고용한 인원은 총 89인인데 이 중 여성이 49인, 남성이 30인으로 표기되어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성별 인원에 착오가 있었거나 총 인원내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傭에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식량의 총량이 8石 9斗이므로 총 인원 89인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1인당 지급된 식량은 정확히 1斗가 된다. 따라서 필자는 성별 인원이 잘못 서사된 것이고, 이 중 “卅人男子”가 “卅人男子”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의 비율로 책정되었으며, 지급한 식량은 8석 9두이다. 즉 피고용자 1인이 1두를 식량으로 받은 셈인데, 居延都尉府의 少吏·戍卒이 1일 기준 약 1.1두의 식량을 수령한 것<sup>614</sup>)으로 보아 일 1두는 官의 법정 식량 지급량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명시된 고용노동자들은 관에서 1일간 노역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이 문서는 1일 노역에 지급한 임금·식량의 小計로 추정된다.

이상 前漢 중, 후기 물자의 운송, 건설, 공전 경작에 민간인을 유상 고용한 현상을 살펴보았다. 縣官이 고용한 노동자가 반드시 통행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지시나 大司農 中丞이 고용 인력을 주관한 기록은, 전한이 체계와 원칙에 따라 민간인을 고용하였으며 인력 고용이 결코 일회적 시책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즉 전한 중기 이후 고용노동자[傭]는 국가와 민간사회 양쪽에서 중요한 인력으로 이용된 것이다.

### 3) 官屬·吏의 개별적 인력 고용

인력 이용에 대한 국가의 관념 변화는 국가의 직접 고용뿐 아니라 官屬이나 吏가 인력을 고용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관 소속의 특수 직무 담당자인 司御가 자신의 대역을 고용하거나 吏가 보조 인력을 고용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官屬과 吏는 국가에 직속하는 존재일 뿐 국가 그 자체는 아니므로, 官屬·吏와 피고용인 사이의 계약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계약이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점은 이 계약의 피고용자가 종사한 업무가 국가의 운송이나 말단 행정에 관계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官屬·吏의 고용 계약은 국가의 승인 없이 체결될 수 없었을 것인데, 이 현상을 기록한 다수의 행정문서는 곧 국가가 이러한 고용 계약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먼저, 懸泉置 출토 司御 고용 관계 문서를 중심으로 司御가 대역을 고용하는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司御란 官의 말과 마차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주요 직능은 사람·물자의 운송<sup>615</sup>)과 말의 사육<sup>616</sup>)이었다. 秦의 司御는 전

614) 居延都尉府의 少吏와 戍卒은 月食으로 粟 3石 3斗 3升을 받았다. (李天虹, 『第三章: 廩食·穀物』, 『居延漢簡簿籍分類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2003)

615) 夏侯嬰이 沛縣 廐의 司御였던 시절에 使客을 보내고 돌아올 때마다 泗水의 亭에 들러 劉邦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일화는 司御의 職掌이 운송임을 보여준다. (『漢書』 卷41 『夏侯嬰傳』, p.2076, “夏侯嬰, 沛人也。爲沛廐司御, 每送使客, 還過泗上亭, 與高祖語, 未嘗不移日也。”)

616) 懸泉置에서 출토된 II T0215③:332 간독은 司御가 말의 사육,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

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로서 임명[除] 절차를 거쳐 배치되었으며, 그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습을 받아 기술을 연마할 필요가 있었다.<sup>617)</sup> 즉 사어는 정식 절차를 거쳐 선발되었고, 임명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고과가 산정되었다. 또한 진의 사어는 僕, 養처럼 吏가 공무상 이동할 때 할당되고, 필요한 경우 운송뿐 아니라 취사도 담당하는 등<sup>618)</sup> 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秦은 사어를 국가의 운송 담당 인력으로서 철저히 관리하였다.

前漢의 司御 역시 秦의 사어와 마찬가지로 임명 절차를 거쳤다. 昭帝 元鳳 4년(BCE 77) 尉史 眞이 사어 3인의 임명[除]을 기록한 세 첩의 문서<sup>619)</sup>가 그 근거이다. 그렇다면 전한의 사어 역시 縣級 기관 이상의 승인을 받아 임용되어 비교적 장기간 근무한 官屬임이 분명하며, 원칙상 임명과 시험을 거친 자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 사료는 당시 사어 인력 관리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1) 元帝 初元 4년 무인일이 삭일인 6월 갑신일에 效穀縣 高義里의 薄子林이 같은 현 執適里의 重富昌에 고용되어 6월의 司御 (직무)를 함. 價錢은 700전. 이전에 470전을 주었고, 나머지…… 二斗 (VT1311③:109<sup>620)</sup>)

실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永光 2년 정월에 司御 肥常가 평소 사육하던 말이 병이 나서 죽은 내역을 보고하자, 懸泉置의 廐佐인 賀가 이를 증빙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I T0215③:332, “永光二年正月癸亥朔甲戌, 懸泉廐佐賀敢言之, 爰書: 司御肥常告曰, 所葆養傳馬一匹, 驛, 乘, 左剽, 齒十一歲, 高六尺, 名曰赤兔. 乃十二月戊申病中, 效涕出, 飲食不盡度. 馬醫萬年診治不能偷, 日益篤, 今死. 即與司御房益壽等雜診, 馬死, 身完, 毋兵刃木索迹, 病死審, 皆證之. 它如爰書. 敢言之.” (張俊民, 『懸泉漢簡傳馬病死爰書及其他』, 『簡牘學論稿』, 蘭州: 甘肅教育出版社, 2014, p.475에서 인용)

617) 御에 임명된 지 4년이 되었는데 車를 능히 운전하지 못하면, 그를 가르친 자는 賞 1盾에 처하며 본인은 면직되어 4년간 徭戍함으로써 죄를 갚아야 했다. (『睡虎地秦簡』「秦律雜抄」, 簡3, “• 駕驪除四歲, 不能駕御, 賞教者一盾; 免, 賞(償)四歲繇(徭)戍.”)

618) 『嶽麓秦簡(伍)』 簡257-258, “• 令曰: 諸乘傳、乘馬、傳(使)馬傳(使)及覆獄行縣官, 留過十日者, 皆勿食縣官, 以其傳稟米, 段(假)鬻飡炊之, 圜【有】圜、僕、司御偕者, 令自炊. 其毋(無)走、僕、司御者, 縣官段(假)人爲炊. 而皆勿給薪采. 它如前令. • 內史曹會令”

619) 『肩水金關漢簡(壹)』 73EJT10:311+260, “牒書除爲司御三人, 人一牒 元鳳四年四月甲寅朔甲寅, 尉史眞敢言之. 牒書[除]爲司御者三人□□ 詣署敢言之” (두 문서의 연결은 姚磊, 『《肩水金關漢簡(壹)》綴合(九)』 <簡帛網>, 2017.9.21. 참고)

620) “初元四年六月戊寅朔甲申, 效穀高義里薄子林爲同縣執適里重富昌, 庸六月司御, 賈錢七百. 前入四百七十, 餘□ (정면) 二斗 (배면)” (張俊民, 『懸泉漢簡中有明確紀年的物價資料』, 『敦煌懸泉置出土文書研究』, 2015, p.23)

(2) …段柱가 같은 縣 大穰里의 任을 위해 正月의 司御로 거함.  
價錢은 600전. 20일까지 (錢을) 다 치러야 함. 沽酒旁二斗. 旁人은  
呂少孫. (ⅡT0115③:63<sup>621</sup>)

效穀縣은 돈황군의 속현이므로, (1)의 계약 당사자는 모두 돈황군의 民이다. (1)의 重富昌은 薄子林을 6월 한 달간 司御로 고용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簡 배면의 ‘二斗’는 당시 계약서에 흔히 등장하는 상투어 ‘沽酒旁二斗’의 흔적으로<sup>622</sup>) 위 문서가 실제 계약 문서의 일부임을 암시한다. (2)는 (1)과 서식이 거의 같으나 ‘庸’을 표기한 곳에 ‘居’를 표기한 점이 다르다. (2)의 ‘居’는 ‘(司御로서) 있다’ 혹은 ‘居作하다’라는 의미일 텐데, 표현은 다소 달라도 價錢과 지급 기한을 명시했고 ‘沽酒旁二斗’와 旁人(입회자)의 정보까지 기록한 점으로 보아 이 문서 역시 司御 고용 계약서일 것이다. 이 외에도 元帝 初元 2년에 效穀縣의 사람이 價錢 1,300전에 고용되어 御를 대신한 계약 문서<sup>623</sup>)도 보인다.

위 문서들은 사적 계약을 담고 있으나 공문서와 함께 현천치 유지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발표된 현천치 출토 간독 중 司御가 代役을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司御가 사적으로 고용한 타인에 자신의 직을 대신하도록 하는 일은 불법이 아니었으며 국가도 이러한 관행을 인정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점은 주목할 만한데, 전술한 것처럼 사어는 정식으로 임명되어 관부의 운송 업무를 담당한 官屬이기 때문이다. 정식으로 임명되어 직접 직무에 종사해야 할 특수 직무 담당자가 대역을 고용하고, 국가가 이를 승인한 것은 해당 직무에 투입되어야 할 노동 총량만 충족된다면 다른 점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관념이 깔려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가의 기준에 맞는 인력이 반드시 직접 복무해야 한다는 관념은 이전보다 희박해진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관념의 변화’는 ‘吏葆’에서도 드러난다. 河西四郡의 행정문서에는 ‘葆’, ‘所葆’로 명명된 민간인이 吏의 보조자로서 吏 출장 보조,

621) “□段柱爲同縣大穰里任, 居正月司御賈錢六百, 期廿日畢. 沽酒旁二斗, 旁人呂少孫.” (張俊民, 『敦煌懸泉置出土文書研究』, 2015, p.96)

622) 張俊民, 『敦煌懸泉置出土文書研究』, 2015, p.23.

623) 敦煌懸泉置漢簡 I T0116②:146, “初元二年□月□□朔庚申, 效穀宜禾里石廣宗爲……一月, 御賈錢千三百, 今餘九百錢. 月十五日畢” (張俊民, 『敦煌懸泉置出土文書研究』, 2015, p.22)



행정 잡무에 종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葆는 保의 通假字로<sup>624)</sup> 타인에 고용된 사람을 ‘保(葆)’로 지칭하는 현상은 문헌 사료와 출토 사료에서 모두 보인다. 먼저, 문헌 사료에는 保, 保傭, 傭保가 보이는데, 이때 ‘保’는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컨대 季布가 齊에서 酒家の 保가 된 것<sup>625)</sup>이나 秦王 암살이 실패로 돌아간 후 高漸離가 타인의 庸保가 된 예<sup>626)</sup>를 볼 수 있다. 특히 전한 초 江都國 易王의 아들이 무호적자를 保로 삼아 타인을 살해한 사실<sup>627)</sup>은 ‘保’가 ‘傭’보다 강한 예측성을 가지는 피고용자임을 짐작하게 한다.<sup>628)</sup>葆가 다른 사람에게 收養되어 잡역에 종사하는 피고용자라는 지적<sup>629)</sup>은 바로 이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최근 출간된 秦의 출토 사료에도 葆庸이 보이는데, 이때 葆庸은 관소를 넘어 물건을 적재할 때 고용되는 인력을 뜻한다.<sup>630)</sup> 특히, 진간의 보용은 문헌 사료의 보용과 달리 원거리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하 서술할 하서사군의 보용과도 매우 유사하다.<sup>631)</sup>

624) 湖南省 長沙市에서 출토된 후한 간독에 ‘葆任’과 ‘保任’이 혼용된 것은 漢簡의 葆가 保의 通假字임을 보여준다. 『五一廣場(貳)』 441(木兩行2010CWJ1③:204) “永元十七年四月甲申朔十二日乙未書佐胡寶敢言之：願葆任效功亭長胡詳。不桃亡。寶手書。敢言之。”; 526+534(封檢2010CWJ1③:261-3+261-13), “辟報戶曹史棋莫詣曹。願保任 回 守史張普。不逃亡徵召，可得以屎印爲信”

625) 『史記』 卷100 「樂布列傳」, p.2733, “樂布者，梁人也。始梁王彭越爲家人時，嘗與布游。窮困，質傭於齊，爲酒人保”；『漢書』 卷37 「樂布列傳」, p.1980, “樂布，梁人也。彭越爲家人時，嘗與布游，窮困，賣庸於齊，爲酒家保。”

626) 『史記』 卷86 「刺客列傳」, pp.2536-2537, “其明年，秦并天下，立號爲皇帝。於是秦逐太子丹·荊軻之客，皆亡。高漸離變名姓爲人庸保，匿作於宋子。”

627) 『漢書』 卷15上 「王子侯表第三上」, p.437, “元鼎五年，侯聖嗣，坐知人脫亡名數，以爲保，殺人，免。”

628) 保와 傭의 구분은 『九章算術』에도 나타난다. 『九章算術』 중 傭의 임금을 계산하는 算題는 일수를 기준으로 한 반면, 保의 임금 계산 算題는 1년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賈麗英은 이 차이를 保가 장기간의 피고용자로 상당한 예측성을 가졌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간주했다. (賈麗英, 「西北漢簡“葆”及其身分釋論」, 『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1(5), 2014, p.73)

629) 裘錫圭, 「新發見的居延漢簡的幾個問題」, 『古文字論集』, 北京: 中華書局, 1992; 林愛清, 「漢代“葆”身分補正」, 『南都學壇』 27(6), 2007.

630) 『嶽麓書院藏秦簡(伍)』 簡45-47, “●諸取有臯零(遷)輪<輸>及處蜀巴及取不當出關爲葆庸，及私載出扞關、漢陽關及送道之出蜀巴(界)者，其葆庸及所私載、送道者亡及雖不亡，皆以送道亡故徵外律論之。同船食、敦長、將吏見其爲之而弗告劾，論與同臯。弗見，賞各二甲而除其故令。●廿四”

631) 참고로 秦律 중에는 ‘葆子’라는 존재가 보인다.葆子是 현재 『睡虎地秦墓竹簡』의 秦律十八種, 法律答問에만 보이는데, 이들은 죄에 저촉되었을 때 법률적 우대를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睡虎地秦墓竹簡』의 整理小組는 葆子を 漢의 任子로 추론하였다.

한편, 保에는 ‘담보하다’, ‘보증하다’라는 字義도 존재한다.<sup>632)</sup> 특히 하서사군의 행정문서에 보이는 ‘葆’는 이 의미에 더 가까운 듯하다.

(3) 吏가葆한 자의 이름, 縣, 爵, 里, 年, 姓은牒(의 내용)과 같다. 문서가 도착하면...<sup>633)</sup>

(4) 始建國 3년 庚午日이 삭일인 5월, 壬辰日에 肩水守城尉인 萌이 肩水金關으로 문서를 이송함. 吏가葆한 자의 이름은牒(의 내용)과 같습니다. 문서가 도착하면 출입하게 해 주십시오. 律令(의 규정)대로 해 주십시오.<sup>634)</sup>

(3),(4)에는 ‘吏所葆’라는 어구가 등장한다. ‘所’의 뒤에는 서술어가 자리해야 하므로, 이때 ‘葆’의 품사는 동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3),(4)의 ‘葆’는 ‘보증하다’, ‘담보하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데, (3)의 ‘吏所葆’ 이후에 名, 縣, 爵, 里, 年, 姓이 뒤따르는 것으로 보아 ‘吏所葆’는 사람, 특히 민간인을 의미한다. 즉 ‘吏所葆’는 ‘吏가 보증한 사람’으로 읽어야 한다. 그런데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유형의 기록은 關所 출입을 위해 작성한 문서 중 일부이다. 즉 이 문서의 작성 목적은 吏가 누군가의 신원을 보증하고, 관련 문서를 보내 통행증을 발급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吏는 왜 특정인을 보증하여 관소를 출입하도록 한 것일까? 아래에 인용한 사료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5) 元康 2년 무술일이 朔日인 6월, 신해일에 佐昌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佐인 常을 郡의 將轉으로 삼아 거연으로 輸하도록 하는

---

(수호지진묘죽간정리소조 엮음, 윤재석 옮김, 『수호지진묘죽간 역주』, 소명출판, 2010, p.178) 동일한 ‘葆’가 포함되어 있으므로葆子와葆庸의 관계성을 추측할 수도 있으나, 漢簡의葆는 令史 등 속리가 고용한 자들로 위의任子制와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수호지진간과 마찬가지로 전국-통일 진의 법률문서인 악록진간에 이미葆庸이 보이고, 악록진간의葆庸이 관소를 넘어 물건을 나를 때의 피고용인인 점이 명확한 이상, 漢簡의葆庸은葆子보다는 악록진간의葆庸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632) 李均明, 『漢代屯戍遺簡“葆”解』, 『文史』 第38輯, 北京: 中華書局, 1994.

633) 『肩水金關漢簡(參)』 73EJT24:525, “吏所葆名縣爵里年姓如牒. 書到”

634) 『肩水金關漢簡(伍)』 73EJF3:155 “始建國三年五月庚寅朔壬辰, 肩水守城尉萌移肩水金關. 吏所葆, 名如牒. 書到, 出入. 如律令.”

데, 葆인 같은 縣 安國里 소속 15세 徐奴와 함께 家가 신고한 畜馬 1필, 輶車 1대를 타고 갑니다. 삼가 살펴보니, 徐奴는 官의 獄徵事가 없으니 通行증[傳]을 받을 만합니다. 지나는 縣, 邑에 (문서를) 보내어…………해 주시기 바랍니다.<sup>635)</sup>

(6) 居攝 2년 갑신일이 朔日인 3월, 계묘일에 居延縣 庫의 守丞 仁이 卅井縣 索關·肩水金關에 문서를 보냅니다. 都尉史曹解掾의 葆가 官의 大奴 杜同과 함께 태수부에 장부를 보내러 갑니다. 이름은 牒(의 내용)과 같습니다. 문서가 도착하면 출입하게 해 주십시오. 율령(의 규정)대로 해 주십시오.<sup>636)</sup>

(5),(6)에는 ‘所葆(보증한 자)’ 대신 ‘葆’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所葆’의 약칭으로 보인다. 위의 문서에서 吏는 官의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간인을葆로 삼은 후, 직접 동행하거나 혹은 다른 관서에 파견하였다. (5)에서 佐인 常은 將轉이 되어 居延으로 물자를 수송할 때 같은 縣 출신 徐奴를葆로 삼아 동행했는데, 이때 徐奴는 常의 물자 수송을 보조하였을 것이다. 한편 (6)에서 葆와 관노 杜同은 태수부로 장부를 이송하기 위해 거연현을 출발하여 관소를 거친 후 남쪽의 牒得縣으로 향하였다. 將轉이 지휘하는 물자의 운송과 태수부로의 장부 이송은 모두 官의 업무에 해당한다. 즉 두 사례 모두 吏가 민간인葆를 행정 보조자로 이용한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위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sup>637)</sup>은 당시 吏가 민간인을 고용하고 관부의 인력과 함께 이용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졌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사례는 吏에 고용된葆가 공무를 수행하는 현상을 보여주지만,葆 중에는 吏, 民의 개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도 존재하였다.<sup>638)</sup> 따라서 전한

635) 『肩水金關漢簡(肆)』 73EJH2:54A, “元康二年六月戊戌朔辛亥, 佐昌敢言之。遣佐常爲郡將轉輸居延, 與葆同縣安國里徐奴年十五歲, 俱乘家所占畜馬一匹輶一乘。謹案, 奴毋官獄徵事, 當得取傳。謁移過所縣邑……”

636) 『肩水金關漢簡(壹)』 73EJT8:51, “居攝二年三月甲申朔癸卯, 居延庫守丞仁移卅井縣索·肩水金關。都尉史曹解掾葆, 與官大奴杜同, 俱移簿大守府。名如牒。書到, 出入。如律令。”

637) 유사한 사례로 哀帝 建平 원년 9월에 通行증 발급을 요청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문서 중 官大奴 杜는 장부를 이송하기 위해 五官掾 石博의 葆와 함께 태수부로 이동한다고 진술했다. 『肩水金關漢簡(肆)』 73EJT37:780, “建平元年九月庚寅朔丁未, 掾音敢言之。官大奴杜勝自言: 與都尉五官掾石博葆俱移簿大守府。願已令取傳。謁移過所縣道河津關, 毋苛留。如律令。敢言之。”

638) 예컨대 吏가 자신의 葆에 私市 등 개인적인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73EJD:43), 민간인이葆를 이용해 개인 업무를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73EJT33:40)를 볼 수 있다. 『肩水

중, 후기에 주로 원거리를 이동하며 심부름하는 피고용인을 ‘葆’, ‘所葆’로 칭했고, 민간인이葆에 심부름을 시키는 것처럼 吏도葆에 보조, 행정 잡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吏는 (5)의 예처럼 同縣 거주민 혹은 기존에 거느리고 있던 私從者, 私屬<sup>639)</sup>을葆로 삼았을 것인데, 전자의 경우 고용과 보증의 과정을, 후자의 경우 보증의 과정을 거친 후葆로서 통행증을 발급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吏가 개인적으로葆를 이용하였을 뿐 국가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葆는 관부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자연히葆 관련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吏葆 관련 문서는 전한 중기 이후 吏가 개인적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행정 보조에 이용하는 일을 국가가 인정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태수부로 장부를 이송하거나 官錢을 수령하는<sup>640)</sup> 등, 상당한 신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도葆가 동행한 것으로부터 당시 吏의 출장 시葆의 이용이 보편적, 필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葆는 吏의 보증을 받았으나 관부에 직속한 존재는 아니므로, 이들의 인력이 굳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관부로서는 장부·官錢의 운송에葆를 투입할 유인을 찾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吏는 출장 시葆의 보조를 필요로 했으며, 관부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葆는 민간인이지만 사실상 吏僕, 官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吏가 보조 인력을 유상으로 고용하는 현상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後漢 和帝 시기의 출토 사료에서 吏가 從者인 ‘少’를 고용하는 현상<sup>641)</sup>을 찾아볼 수

金關漢簡(伍)』73EJD:43, “建始四年十一月癸卯朔癸丑, 廣地候仁移肩水金關. 遣葆, 爲家私市酒泉郡中. 書到, 出入. 如律令. 皆十二月癸未出 張掖廣地候印”; 『肩水金關漢簡(肆)』73EJT33:40, “永光二年五月辛卯朔己未, 都鄉嗇夫禹敢言之. 始樂里女子惠青辟自言: 爲家私使之居延. 與小奴同·葆同縣里公乘徐毋方偕. 謹案, 青辟·毋方更賦給, 毋官獄事, 當得取傳. 敢言之.”

639) 軍吏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私從者나 私屬을 대동하는 일은 居延漢簡에도 보인다. 또한 ‘葆從者’의 신상이 기록된 문서가 존재하므로(張麗萍·張顯成, 『西北屯戍漢簡中的“庸”“葆”“就”及相互關係考辨 - 兼論“作者”的含義』, 『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19(3), 2019, p.6) 私從者·私屬를 거느린 경우 이들을葆로 신고한 후 보조 업무를 맡겼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640) 73EJT37:1491간은 居延縣 倉의 令史가 上河農都尉에 錢을 받으러 갈 때 居延縣 사람을葆로 삼아 동행한 사실을 전한다. 『肩水金關漢簡(肆)』73EJT37:1491, “[ ]寅朔己酉都鄉嗇夫武敢言之. 龍起里房則自言, 願以令取傳, 爲居延倉令史徐譚葆, 俱迎錢上河農. 謹案戶籍嗇鄉者, 則爵上造, 年廿歲, 毋它官獄徵事, 當得以令取傳, 與譚俱. 謁移過所縣道河津關毋苛留止. 如律令. 敢言之.”

641) 『五一廣場(貳)』523 2010CWJ1③:260-5, “年不處月日爲廣亭長, 債醴陵男子夏防爲少, 月

있으며, 崔寔의 『政論』도 후한 말 吏가 보조 인력을 자력으로 충당해야 했던 상황을 전한다.

비록 長吏는 崇約하려 해도 從者 1인을 데리고 있어야 하니, 만일 奴가 없다면 또한 客을 취해야 한다. 客庸에 1개월 1,000錢(의 임금이 들고), 芻와 膏肉으로 500錢, 薪炭·鹽菜로 다시 500錢(이 든다.)<sup>642)</sup>

崔寔은 당시 長吏가 月俸으로 粟 20斛과 2,000錢을 받아도 從者를 거느리는 데 드는 비용이 매달 2,000전에 이른다고 했다. 다소의 과장은 있겠지만 상당한 거금이다. 그런데도 ‘家奴가 있다면 그를 종자로 부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客傭(고용노동자)을 유상으로 고용해야만’ 하였다면, 당시에는 長吏마저 자력으로 보조 인력을 조달해야 한 것이다. 그렇다면 吏牒 문서가 보이는 宣帝 元康 연간부터 후한 말까지 吏가 사적으로 보조 인력을 조달하는 현상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진·전한 초의 양상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전술한 것처럼 秦은 隸臣을 吏를 보조 업무에 활용하였다.<sup>643)</sup> 아울러 前漢이 秦制를 계승했다는 역사적 평가나 秦律과 二年律令의 높은 상관성을 상기한다면, 적어도 呂后 시기까지는 前漢도 주로 隸臣을 행정 보조에 동원하였을 것이다.<sup>644)</sup> 그러나 吏牒 문서가 보이는 宣帝 元康~居攝 연간까지 하서사군의 吏는 보조 인

值六百.”

642) 『群書治要』 卷45 『政論』, “夫百里長吏, 荷諸侯之任, 而食監門之祿, 請舉一隅, 以率其餘. 一月之祿, 得粟二十斛·錢二千. 長吏雖欲崇約, 猶當有從者一人. 假令無奴, 當復取客. 客庸一月千, 芻·膏肉五百, 薪炭鹽菜又五百.”

643) 秦은 僕(잡무 담당), 養(취사 담당), 走(문서 전달)를 일정 질급 이상의 吏에 할당하여 吏를 보좌하도록 했다. 僕·養·走는 사실상 隸臣이 전담했는데, 그 근거는 嶽麓秦簡 秦律 중 “隸臣이 적어 僕·養에 충당하기 부족하다면 居賞贖債를 충당하도록 한다”(『嶽麓秦簡(肆)』 簡165. “隸臣少, 不足以給僕·養, 以居賞贖責(債)給之.”)라는 규정 및 里耶秦簡 作徒簿의 통계에서 찾을 수 있다. 里耶秦簡에 보이는 隸臣과 행정 잡역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김동오, 『秦帝國 縣의 徒隸 운용 - 『里耶秦簡』 作徒簿를 중심으로』, 2016를 참고할 수 있다.

644) 二年律令에는 隸臣과 僕·養·走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人行書律 중 공무차 이동하는 吏에게 僕이 없는 경우 郵가 해당 吏를 위해 취사하도록 하고, 僕이 있는 경우 취사 도구 등을 빌려주어 취사하도록 한 규정이 보인다. 僕이 없는 吏를 위해 官署의 일종인 郵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吏의 출장 시 국가가 원칙적으로 보조 인력을 할당해야 했음을 의미한다. (『張家山漢簡』 「二年律令」 簡267, “吏有縣官事而無僕者, 郵爲炊; 有僕者, 段器, 皆給水漿.”)

력을 직접 고용, 보증하고 있었다. 즉 전한 중기에 吏의 보조 인력을 둘러싸고 일련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에서 기인한 것일까? 관련 사료의 부재로 인해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우나, 보조 인력의 사적 고용은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조 인력을 얻지 못한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여겨진다. 秦의 예처럼 吏의 보조 인력을 대개 남성 도예가 담당하고 있었다면 문제 13년의 형벌 개혁 이후 해당 직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상당히 감소했을 것이다. 더욱이 전한 후기 郡縣의 기능 증대 및 屬吏 조직의 확대<sup>645)</sup>에 의해 吏의 수가 증가하며 모든 吏에 종전과 같은 수의 보조 인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전술한 ‘吏葆’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吏가 고용한 보조자로 여겨진다.

이상 살펴본 司御의 대역 고용과 吏의 보조자 고용은 전한 중기 이후 고용 노동에 대한 국가의 시각 변화, 더 나아가 국가의 인력 자원 이용 방식상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래 司御와 吏의 보조자는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무’로, 해당 업무에 걸맞은 인력만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었다. 전술했듯이 사어는 정식 절차를 밟아 임용되었고 정기적으로 그 자격을 평가받았다. 秦代 吏의 보조는 주로 隸臣이 담당하였고 신분상 동급이라도 여성 도예인 隸妾은 吏의 보조 업무를 맡을 수 없었다.<sup>646)</sup> 隸臣이 부족한 경우에는 居貲贖債만이 吏 보조에 동원될 수 있었고, 예신보다 무거운 형벌에 처해져 상시 신체적 구속을 받은 城旦, 鬼薪은 吏 보조 업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인력 자원이 가진 속성은 특정 직무에 인력을 배치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국가는 이를 감안해 직무마다 최대한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려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전한 중기 이후 司御 대역 및 吏葆의 고용은 고용 노동의 확대뿐 아니라 인력 이용에 대한 국가의 관념 변화를 보여준다. 즉 진-전한 초까지는 특정 직무에 특정 인력을 배치하는 체계가 존재했다면, 전한 중기 이후로는 어떤 직무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적당한 민간인을 고용해 노동 수요를 충당해도 무방하다는 관념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업무에

<sup>645)</sup> 金秉駿, 『漢代 太守府 屬吏組織의 變化와 그 性格: 江蘇省 連雲港 出土 尹灣漢簡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研究室 編, 『古代中國의 理解』 3, 지식산업사, 1997, pp.320-321.

<sup>646)</sup> 『嶽麓秦簡(肆)』 簡165, “●倉律曰: 毋以隸妾爲吏僕、養、官[守]府.”

특정 인력을 배치하고 유지하는 기존의 방식은 사라지고,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필요한 때 한하여 고용하는 방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 소 결

이상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秦-前漢 초기 제국은 도예를 활용함으로써 齊民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필요한 인력을 충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량의 예속 인력은 곧 커다란 재정 지출을 의미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각종 잡비를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성인 도예 1인 유지에 드는 年 지출은 약 900~1,100전(남성), 700~1,000전(여성)에 상당하였다. 강제 노동이라는 특성상 도예의 사역은 도망과 사망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했고, 일거리가 없어도 유지비를 지출하게 되어 적자가 날 위험성도 존재하였다. 대가가 없는 강제 노동의 특성상, 도예 노동은 생산성을 提高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秦은 도예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그 수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을 것이다. 문제 13년 肉刑·無期 勞役刑의 폐지는 도예 노동 일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인력 이용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肉刑·無期 勞役刑의 폐지와 함께 시행된 入粟授爵, 戍卒令 폐지, 그리고 徙民實邊은 각기 다른 부문에서 실시되었으나 그 목적은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이 시행된 결과 徒隸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민영 운송업이 확대되었으며 수줄을 적게 징발할 수 있게 되어, 국가가 보유, 관리할 인력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예가 소멸한 이후 국가는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노동 수요를 보충하였다. 인력 고용에는 필연적으로 노동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일견 고용 노동이 도예 노동이나 노비 노동보다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인력 고용은 도예나 노비를 유지할 때 드는 고정적 비용(의식주 비용과 각종 관리비용)이 들지 않고, 필요한 때만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유향 노동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하였다.

한편 전한 중기~후한 초기 민간사회의 인력 고용이 증가하고 前漢 중기 이후 客民이 증가하며 노동시장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전한 중기 이후 국가가 민간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이는 전한 중기 이후

국가의 인력 이용 방식의 변화로 이어졌다. 민간인력의 이용은 특히 운송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공전 경작이나 국가의 시설물 건설에도 민간인력을 고용하였다. 한편 국가가 인력을 고용하는 현상으로부터 인력 이용 방식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다면, 官屬과 吏의 인력 고용을 살펴봄으로써 인력 이용에 대한 국가의 관념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인력 이용 방식은 후한 초기까지 이어졌다. 만일 도예의 감축 및 민간 인력의 고용이 단순한 ‘姑息之計’에 불과하거나 혹은 적합하지 않은 제도였다면, 자연히 이전의 인력 이용 방식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몇 차례의 肉刑 부활 논의<sup>647)</sup>에도 불구하고 후한 말까지도 肉刑과 무기 노역형은 끝내 부활하지 않았고, 秦과 같이 국가가 대규모의 예속 인력을 소유하는 양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부터 고용 인력을 병용하는 방식이 한동안 잘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국가의 인력 이용은 대개 후한 초기까지 나타나며, 후한 중기 이후로는 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고용 노동을 대체한 인력 이용 방식은 어떠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章을 바꾸어 논의하도록 하겠다.

---

<sup>647)</sup> 後漢-魏晉南北朝 시기의 肉刑 부활 논의에 대해서는 沈家本, 『歷代刑法考』 刑法分考五『議復肉刑』, 中華書局, 1985를 참고.



### Ⅲ. 後漢 末期~三國 初期 인력 자원의 再掌握과 職役의 등장

#### 1. 後漢 中기 이후 인력 운용 방식의 변화 배경

##### 1) 人力 雇傭이 가지는 한계

前漢 中기 이후 帝國은 물자 운송·건설·경작에 인력을 고용하는 한편 官屬·吏가 대역이나 보조자를 고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후한 중기 이후 상황은 변화하여 제국이 업무·노동에 인력을 고용하는 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편 공전 경작에 빈민을 사역하거나 기층행정의 잡역에 백성을 給事하는 현상이 등장한다. 따라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고용 노동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전까지 국가가 각종 부문에 인력을 활발히 고용한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변화상은 후한 중기 이후 인력 고용이 유효한 인력 이용 방식으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선행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고용 노동의 감소 원인을 주로 후한의 시대적 특징에서 찾았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 후한 이후 국가 재정의 악화를 들었는데, 임금의 지급이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결국 인력 고용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는 당시 피고용자에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大司農에서 少府로 변화한 것과 관부가 職人을 고용해 기물을 만들게 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현상<sup>648)</sup>에 주목하여 後漢이 인력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출하는 일이 점차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두 번째 원인으로 새로운 인력 자원인 弛刑徒와 하층 吏·卒의 존재를 들었다. 후한 시기 官廳은 많은 수의 弛刑徒와 下層의 吏·卒을 대거 사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인력을 고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 자연스럽게 인력 고용은 퇴화하였다는 것이다.<sup>649)</sup>

<sup>648)</sup> 『群書治要』卷45『政論』, “今官之接民, 甚多違理, 苟解面前, 不顧先哲. 作使百工, 及從民市, 輒設計加以誘來之, 器成之後, 更不與直. 老弱凍餓, 痛號道路, 守關告哀, 終不見省. 歷年累歲, 乃纔給之, 又云逋直, 請十與三.”

<sup>649)</sup> 石洋, 『秦漢經濟史研究-財政制度と基層社會』, 2014, pp.119-120.

필자는 첫 번째 원인, 즉 後漢의 재정난이 인력 고용의 감소를 불러왔다는 지적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무제가 집권한 시기 후한의 호적 등록 인구는 前漢 平帝 시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한동안 계속되었다.<sup>650)</sup> 호적에 등재된 인구의 감소는 곧 세역 징수의 곤란 및 재정 악화를 의미하는데, 후한이 초창기부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린 것은 建武 6년에 縣을 통폐합하고 관부의 수와 吏員을 감축한<sup>651)</sup> 사실로부터 엿볼 수 있다.

단, 후한이 弛刑徒와 吏·卒을 사역하였으므로 고용 노동을 이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두 번째 근거에 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먼저, 弛刑의 제도는 전한 중기 이후부터 꾸준히 존재했으므로 후한에 이르러 弛刑徒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후한은 이형도를 戍邊에 주로 투입하였으므로<sup>652)</sup>, 그 외의 국가 노동·업무에서 이형도가 고용 노동을 대체할 정도로 큰 비중을 점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전한 중기 이후 이형도, 유기 도예, 관노비가 존재하는 와중에도 국가는 고용 노동을 이용했으므로, 이형도의 사역만으로 후한 고용 노동의 감소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吏·卒의 사역은 후한 중기 이후 증가하였으므로 吏·卒의 사역을 고용 노동 감소의 원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용 노동의 감소(혹은 방기)가 吏·卒의 사역을 가져왔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유념해야 할 것은, 어떤 인력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단지 그 수량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예의 감소가 비용 및 효용성에 의해 결정된 것처럼 고용 노동의 감소 또한 효용성의 각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한이 인력을 고용한 사례가 감소하였다면, 그 원인을 단지 시대적 특징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고용 노동에 내재한 한계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앞서 II장에서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提高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는데, 비용 이외의 지점, 특히 강제 노동의 장점인 使役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용 노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졌다. 첫째, 고용 노동은

650) 葛劍雄, 『中國人口發展史』, 1991, pp.118-119.

651) 『後漢書』卷1下「光武帝紀」p.49, “六月辛卯, 詔曰:『夫張官置吏, 所以爲人也. 今百姓遭難, 戶口耗少, 而縣官吏職所置尚繁, 其令司隸·州牧各實所部, 省減吏員. 縣國不足置長吏可并合者, 上大司徒·大司空二府.』於是條奏并省四百餘縣, 吏職減損, 十置其一.”

652) 林甘泉 主編, 『中國經濟通史·秦漢經濟卷』, 北京: 經濟日報出版社, 1998, p.756.

계약에 따라 고용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제성이 낮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업무를 제때 완수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컸다. 예컨대 五一廣場 後漢 簡牘에 보이는 요역 대역 사건은 고용 노동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歆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채무를 진 男子 胡應에 雒陽까지 委輸를 운송하는 일을 대신하도록 했다. 위수는 지방 군국에 비축된 물자를 수도로 운송하는<sup>653)</sup> 요역의 일종으로 백성에 부과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胡應은 채무를 이행하는 대신 歆의 요역을 대신하기로 계약한 후 도망하였고, 그 결과 歆은 8일의 요역을 고의로 피한[逋] 셈이 되었다.<sup>654)</sup> 이 사례는 민간 사이의 고용 계약이지만 계약의 불이행은 국가-민간 사이의 고용 노동에서도 존재하였다. 和帝 永元 15년 (103)에 일어난 ‘王皮 사건’은 고용 노동의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

永元 15년 丙寅日이 삭일인 閏月(閏正月) 8일 癸酉日, 武陵太守府 伏波營軍의 守司馬 郢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말씀드리기를, ‘船師인 王皮가 마땅히 彭孝의 남편 文의 錢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皮가 배에 官米를 싣고 막 떠나려던 때에 孝의 家人이 皮로부터 錢을 받아내려 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郢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드립니다.

皮는 배에 米 4,500斛을 싣는 重任을 맡아 (배를 떠날 수 없었기에) 孝는 (錢을 받는 일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번 달 6일에 屯長 王于를 보내 皮를 縣으로 보내는 일에 대하여 孝와 상의하였는데, (皮가) 저항하여 (縣廷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薛姓의 亭長이 皮를 잡아 亭에 구류하였습니다. 생각건대 군량미 운송은 매우 중요한 일로, 皮는 僦米 630斛을 받았고 마땅히 米를 둔영까지 이르게 해야 하나, 지금 皮가 잡혀 구금되었기에 빈 배는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亭은 적재된 배를 며칠간 지체시켜 출발하지 못하게 하니 밤을 지낼 때 災異가 있어도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을까 걱정입니다. 郢은 客吏로 태수부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파견되었으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장사)태수부가 재결하여 급히 재촉하여 임상현이 밤중에라도 皮를 대신하여 배를 관리할 자를 파견하시길 바라며 郢은 (그가) 출발하는 것

<sup>653)</sup> 渡邊信一郎, 『漢代の財政運營と國家的物流』,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2011, p.56.

<sup>654)</sup> 『五一廣場(貳)』 321(木兩行2010CWJ1③:156), “辭皆曰: 尤以吏次署視事, 歆前他坐, 論債男子胡應自代免引委輸到雒陽, 今年四月七日詔書下, 應亡還, 歆逋八日未竟, 歆復債.”

을 기다리겠습니다. 皮는 소송이 끝나면 양손에 형구를 채우고 部吏가 전송하여 武陵 臨沅의 保人宮으로(?) 보내십시오. 朱郢은 진심으로 황공해하며 머리를 조아려 감히 말씀드립니다.”

閏月 10일 乙亥日 장사태수부가 문서를 보내 일을 처리하고, 大守丞인 虞가 임상현에 이름. “문서를 베껴 이송함. 임상현은 皮가 雇賃을 받아 적재물을 保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盛春에 皮를 구류하고 또한 孝家를 보내어 대금을 받지도 못하게 하였는데 서로 일이 어그러졌으니 어째서인가? 이 문서가 도착하면 곧바로 처리하고 기일에 맞게 보고하라. 急疾함이 율령과 같다.” 掾廣·卒史昆·書佐喜가 기록함.

지금 말씀드립니다. 皮를 구류한 자를 소환하였습니다. 윤월 11일에 개봉함.<sup>655)</sup> (밑줄은 필자가 표시함)

‘王皮 사건’은 『湖南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發掘簡報』에 실린 J1③:325-1-140번 목록에 기록되어 있다.<sup>656)</sup> 王皮는 선박을 운전하는 기술자인 船師로 斛米를 받고 武陵郡 伏波營에 군량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船師 왕피의 개인적 문제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군량이 도착하지 못한 사건으로, 국가가 민간인의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변수가 뒤따를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서는 臨湘縣이 伏波營에 보낸 군량이 아직 임상현을 출발하지 못하였다고 武陵郡 伏波營의 守司馬 朱郢이 長沙郡에 처리를

655) 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湖南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發掘簡報』, 『文物』 2013(6), 2013, p.15, p.22, “永元十五年閏月丙寅朔八日癸酉, 武陵大守伏波營軍守司馬郢叩頭死罪, 敢言之. 前言船師王皮當償彭孝夫文錢, 皮船載官米, 財(纔)遣, 孝家從皮受錢. 郢叩頭叩頭死罪死罪, 皮船載米四千五百斛, 已重, 孝不成. 今月六日遣屯長王于將皮詣縣與孝誼(議), 詆(抵)未到, 亭長姓薛不知名奪收捕皮(系)亭. 案: 軍糧重事, 皮受斛米六百卅斛, 當保米致屯營, 今收(系)皮, 空船無攝護者. 亭重船稽留有日, 不得發, 恐宿夜災異, 無誰詭責. 郢客吏, 被蒙府厚恩發遣, 正營流汗, 唯長沙府財(裁), 吏馬嚴臨湘晨夜遣當代皮攝船者詣, 郢須進道. 皮訟決, 手械, 部吏傳詣武陵臨沅, 保入官. 朱郢誠惶誠恐, 叩頭叩頭死罪死罪, 敢言之. 閏月十日乙亥, 長沙大守行文書事·大守丞虞謂臨湘: 寫移, 縣知皮受斛當保載, 而盛春徇(拘)留皮, 又不遣孝家受取直, 更相推移何? 書到, 亟處言會. 急疾如律令. 掾廣·卒史昆·書佐喜. 今白. 誰收皮者召之. 閏月十一日開.”

656) J1③:325-1-140 목록은 발굴 보고서(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湖南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發掘簡報』, 『文物』 2013(6) 2013)에만 실렸으며, 이후 발간된 『選釋』이나 『五一廣場』에는 아직 실리지 않았다. 본 연구는 『湖南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發掘簡報』의 釋讀과, 이 목록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표점하였다. ‘王皮 사건’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로는 劉國忠, 『長沙東漢簡所見王皮案件發微』, 『齊魯學刊』 2013(4), 2013; 魏斌, 『古人堤簡牘與武陵蠻』,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85(1), 2015; 劉樂賢, 『長沙五一廣場出土東漢王皮木牘考述』, 『中山大學學報』 2015(3), 2015 등이 있다.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군량 운송을 전담한 선사 王皮가 文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文의 부인인 彭孝가 제기한 채무 소송에 휘말리면서 군량을 적재한 船이 그대로 발이 묶여버린 것이다. 王皮 사건과 관련된 다른 문서에 ‘皮買船, 直未畢’<sup>657)</sup>라는 彭孝의 진술이 적힌 것으로 보아, 사건의 발단은 王皮가 외상으로 船을 구매한 후 대금을 모두 치르지 않은 데 있었다. 그런데 朱郢은 王皮가 군량미 4,500斛을 복파영에 운송하는 대가로 僦米 630斛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王皮는 吏나 軍屬이 아니라 관에 고용된 민간인임이 분명한데, 운송의 대가로 630斛에 달하는 僦米를 받은 것으로 보아 여러 船人을 고용하여 전문적인 조직을 갖춘 운송업자로 이해된다.

본래 물자 운송은 제국이 민간인을 가장 활발히 고용한 부문 중 하나였다. 전문 기술인을 고용하는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용 노동의 이용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물자의 운송만큼은 민간인을 고용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인의 고용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는데, 피고용인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 시 문제가 일어나도 관이 상황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즉각 해결하거나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왕피는 팽효에 진 채무로 인해 임상현을 떠나지 못했는데, 이후 소송을 위해 縣廷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저항하다 결국 亭에 구류되었다. 이로 인해 군량이 적재된 선박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로 며칠간 방치되었다. 만일 관리가 물자를 운송하였다면 개인적인 채무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구류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관부에 연락을 취함으로써 더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왕피 사건으로 돌아가면, 閏月 6일에 薛姓 亭長은 왕피를 구류하였는데 朱郢이 문서를 보낸 8일까지도 이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즉 적어도 이들이 지나는 동안 臨湘縣廷은 사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I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前漢의 수운 조직에는 선박을 총괄하는 船齋夫가 존재하고 그 휘하에는 실무를 주관하는 吏와 船師, 船人, 徒가 편제되었다.

657) 『選釋』 65(木兩行CWJ1③: 325-4-46), “未敢擅付. 又次妻孝自言, 皮買船, 直未畢. 今郢言, 恐皮爲姦詐, 不載. 辭訟, 當以時決皮. 見左書到, 亟實核姦詐, 明正處言, 會月十七日. 烹·福·元叩頭死罪死罪.”

따라서 水沒溺死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船齧夫 이하 吏에 책임을 물었으며 선박 내의 실무를 담당한 船人 역시 선박 내의 위치·소속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했다.<sup>658)</sup> 이렇듯 계통과 책임 소재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설사 船師나 船人에 문제가 생겨도 물자가 방치되거나 상부가 보고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문서 중에는 군량을 운송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吏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나 王皮를 감독하는 吏에 대한 정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朱郢이 ‘임상현이 밤중에라도 皮를 대신하여 배를 관리할 자를 파견하도록’ 장사군의 裁決을 요청했듯이 배와 물자의 관리는 오직 왕피가 주관하였고 그 외의 책임자는 부재하였다. 물론 전한 중기 하서사군이 물자 운송에 僦人을 이용할 때 이들을 관리하는 將轉, 將漕를 두었기 때문에 모든 고용 노동에서 책임자 부재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책임자가 존재한다 해도 관리자와 실무자가 명확히 조직된 관의 체계에 비하면 고용 노동의 체계는 상대적으로 느슨했고, 민간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지거나 신속히 업무 연락을 주고받기 어려웠다. 바꾸어 말하면, 고용 노동은 관부 소속의 사람을 직접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대응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둘째, 고용 노동은 필요한 노역에 적합한 인력을 신속히 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수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 노동의 특성은 비용의 측면에서는 분명 유리하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고용 노동의 이러한 특성은 필요한 인력을 때마다 채용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업무에 꼭 맞는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예컨대 I 장에서 분석한 진의 인력 이용 방식을 생각해 보자. 秦은 예속 인력을 관영수공업 생산, 경작, 행정 보조, 건설, 물자 운송 등의 업무에 배치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강요하였다. 이 방식은 큰 비용을 요하지만 각 인력 자원은 주어진 업무에 반복적으로 종사한다는 점에서 숙련도와 높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658) 『張家山漢簡』『二年律令』簡6-8. “船人渡人而流殺人，耐之，船齧夫·吏主者贖耐。其殺馬牛及傷人，船人贖耐，船齧夫·吏贖遷。其敗亡粟米它物，出其半，以半負船人，舳舻負二，徒負一；其可紐轂(繫)而亡之，盡負之，舳舻亦負二，徒負一，罰船齧夫·吏金各四兩。”

고용 노동의 이러한 약점은 앞서 논한 ‘葆’의 고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葆는 민간인 중 吏에 고용되어 장거리를 이동하며 잡무를 돕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할 때마다 고용주인 吏는 관부에 고용을 신청하고, 통행증을 발급받기 위해葆가 세역을 체납한 적이 없는지, 獄徵事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반면, 동일 상황에서 秦代의 吏는 고용 절차나 보증 절차 없이 관부 소속의 隸臣을 僕·養·走로 받았다. 고용 노동은 장기적으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적절한 인력을 때마다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번거로운 방식이기도 했다.

이상의 한계점은 직역마다 특정 인력을 이용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재정 수입의 감소가 더해지며 후한 중기 이후 국가의 인력 이용 방식은 民 일부를 강제로 장악, 사역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秦代와 같은 대규모의 관노비나 도예를 보유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세역을 부담하지 않는 관노비의 보유는 더욱 큰 재정 지출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결과, 후한 중기 이후 제국은 백성 중 장악할 수 있는 자들을 장악, 편제하는 선택을 취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상 중의 하나는 貧民이었다. 章帝 이후 貧民을 공전의 개간, 경작에 동원하는 현상은 경작 인력 확보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 郡·國은 田이 없으면서 풍족하고 기름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하여, (이동을) 허락, 보증하도록 하라. 현재 있는 지역에서는 公田을 賜給하고 耕傭(의 값을) 치러 준다. 종자와 양식을 대여하고 농기구를 빌려주며, 5년간 田租를 거두지 말고 3년간 算賦를 면제해준다. 그러한 후, 本鄉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금지하지 말라.<sup>659)</sup>

(2) 지금 기름진 田이 여전히 많은데, 아직 개간하지 않았다. 그 땅을 모두 貧民에 주고 양식과 종자를 지급하여 힘써 지력을 다하도록 하며 일없이 놀리지 않도록 하라. (황제가) 지나간 縣과 邑은 올해 전조를 절반만 내도록 허락하여, 이로써 농부가 힘쓰는 바를

659) 『後漢書』卷3『肅宗孝章帝紀』, p.145, “二月甲戌, 詔曰: 「(…)其令郡國募人無田欲徙它界就肥饒者, 恣聽之. 到在所, 賜給公田, 爲雇耕傭, 賃種餉, 貰與田器, 勿收租五歲, 除算三年. 其後欲還本鄉者, 勿禁.」”

권하도록 하라.<sup>660)</sup>

(1)은 章帝 元和 원년(84), (2)는 章帝 元和 3년(86)의 기록이다. (1)의 조서는 공전을 ‘賜給’하라고 하여, 마치 공전의 소유권을 빈민에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sup>661)</sup> 뒤의 ‘爲雇耕傭’은 당시의 조치가 공전 소유권의 전이가 아닌, 공전의 일시적 ‘假作’임을 보여준다. ‘耕傭’은 경작에 종사하는 피고용인[傭]을 의미하며, ‘雇’는 ‘고용하다’, 혹은 ‘값을 치르다’<sup>662)</sup>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爲雇耕傭’은 ‘경작에 대한 (고용값)을 쳐 준다’라고 읽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공전의 ‘賜給’ 역시 실제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전을 佃作하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빈민이 공작을 경작하도록 한 정책은 前漢 昭帝, 宣帝, 元帝, 平帝에 의해서도 시행되었는데, 그 목적은 각각 流民의 귀환 및 생계 안정에 있었다. 예컨대 선제는 타향을 떠도는 流民이 귀환하는 조건으로 본적지 군현 내의 공전을 빌려주며 종자와 요역을 면제하도록 하였고<sup>663)</sup> 원제는 初元 원년 三輔·太常과 각 군국의 공전 및 苑 중 일부를 자산 1,000전 미만의 빈민에 경작하도록 하였다.<sup>664)</sup> 이처럼 빈민의 공전 假作이 전한 시기에 이미 시행되었다면 후한 시기 빈민이 공전을 경작한 일은 그다지 특별한 일로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한의 공전 假作이 빈민 정착·구휼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 후한의 공전 경작은 빈민의 정착과 공전의 개발을 모두 유도하는 정책이었으므로 양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먼저 (1)에 따르면, 각 郡國의 관부는 경작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중 본적지를 떠나 타지에서 경작하려는 자를 직접 모집하고, 그의 통관을 허가·보증해야 했다. 빈민의 이동을 허락했다는 점에서 (1)은 前漢 成帝 陽朔, 鴻嘉 연간에 재해가 들자 조서를 내려 백성들이 다른 군현으로의 이동을 허락한 예

660) 『後漢書』 卷3 『肅宗孝章帝紀』, p.154, “今肥田尙多, 未有墾闢. 其悉以賦貧民, 給與糧種, 務盡地力, 勿令游手. 所過縣邑, 聽半入今年田租, 以勸農夫之勞.”

661) 예컨대 柳春藩은 “其令郡國募人無田欲徙它界就肥饒者, 悉聽之. 到在所, 賜給公田.”까지만 인용한 후, 이를 공전의 소유권의 획득으로 설명했다. (柳春藩, 『論漢代“公田”的“假稅”』, 『中國史研究』 1983(2), 1983, p.47)

662) 『後漢書』 卷4 『孝和帝陽帝紀』, p.192, “夏四月, 遣三府掾分行四州, 貧民無以耕者, 爲雇犁牛直.”

663) 『漢書』 卷8 『宣帝紀』, p.249, “流民還歸者, 假公田, 貸種·食, 且勿算事.”

664) 『漢書』 卷9 『元帝紀』, p.279, “以三輔·太常·郡國公田及苑可省者振業貧民, 貲不滿千錢者賦貸種·食.”



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빈민의 통관을 윤택한 것과 경작을 원하는 빈민을 모집한 후 他地로 이동하도록 보증한 것을 동일 선상에 두기 어려우며, 1~2년의 전조가 아닌 5년의 전조를 면제한 것 역시 비일상적 특혜이다.

빈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공전을 假作하도록 한 조치는, 경작 인력이 부족하거나 현재 경작, 개발되지 않은 대규모의 국유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무의미했을 것이다. 따라서 元和 원년의 조서는 빈민의 노동력을 이용해 미개발·미경작 공전을 경작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황제가 조서를 반포하며 ‘몇 년 전 牛疫이 퍼져 곡식 수확이 적어졌음에도 刺史, 二千石官이 걱정하지 않는다’<sup>665)</sup>고 비판한 사실 역시 (1)이 농업 생산량의 振作과 밀접히 관계되었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의도는 (2)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2)는 元和 3년의 조서로, 그 내용은 제국이 소유한 토지를 빈민이 개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었다. 같은 해 정월에 章帝는 북쪽을 순행하였는데, 순행으로부터 돌아온 후 常山國·魏郡·清河國·鉅鹿郡·平原郡·東平國의 太守와 相에 (2)의 내용을 지시했다. 즉 순행한 지역에서 발견한 많은 미개발 경작지를 빈민에 개발, 경작하도록 하여 농업 생산을 게을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조서가 내려진 시점에는 기근이 들거나 별다른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2)도 단순히 빈민 구제책으로만 간주하기 어렵다.

예컨대 개간할 만한 땅을 빈민에 경작하도록 한 安帝 永初 3년의 詔書는 동년 3월 京師에 발생한 대기근에 대한 조치였으므로<sup>666)</sup> 빈민 구제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같은 빈민의 公田 경작이라도 구휼의 차원에서 진행된 苑圃, 公田의 개방 조치에는 勸農, 振業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한편, (2)의 조서 중 ‘勿令游手’, ‘勸農夫之勞’ 등의 표현이 보이는 점은 (2)에서 규정한 빈민의 토지 개발이 경지 확대와 농업 생산성 증대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물론 빈민에 공전을 대여한 많은 사례가 구휼의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그 목적이 빈민의 생활 안정, 더 나아가 이들을 郡縣의 체제에

<sup>665)</sup> 『後漢書』卷3『肅宗孝章帝紀』, p.145, “二月甲戌, 詔曰: 『王者八政, 以食爲本, 故古者急耕稼之業, 致耒耜之勤, 節用儲蓄, 以備凶災, 是以歲雖不登而人無飢色. 自牛疫已來, 穀食連少, 良由吏教未至. 刺史二千石不以爲負.』”

<sup>666)</sup> 『後漢書』卷5『孝安帝紀』 pp.212-213, “(永初三年) 三月, 京師大飢, 民相食. (….) 己巳, 詔上林·廣成苑可墾闢者, 賦與貧民.”

재편입하는 데 있었음을<sup>667)</sup>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章帝가 내린 조서의 내용은 후한 중기 이후 빈민의 공전 가작이 인력 편제의 측면에서도 실시되었음을 시사한다.

후술하겠지만 유사한 현상은 삼국 뒤편에서도 나타났다. 뒤편의 給事 戶에는 下品, 下品之下의 호가 다수 나타나며, 吏 子弟가 질병에 걸리거나 도주하여 그 役을 담당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향의 下戶民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뒤편에서도 빈민의 戶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동원, 배치할 수 있는 인력 자원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산이나 産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를 관에 예속시키는 일은, 그렇지 않은 자들을 예속시키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였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후한 중기, 특히 章帝 시기 빈민의 공전 가작은 국가의 인력 활용을 염두에 두고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後漢의 행정 담당 인력 수요 확대

後漢은 행정에 필요한 인력을 편제하는 데도 매진하였다. 秦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관료제와 문서 행정은 後漢代에도 제국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존재하였다. 문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관부에 도착해야 했으며, 담당자는 문서의 열람 및 안건의 처리에 대해 꼼꼼히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을 남겨야 했다. 五一廣場 출토 後漢 簡牘에 반영된 후한의 문서 행정은 진, 전한의 문서 행정과 비교할 때 다소 이완된 듯 보이기도 하지만<sup>668)</sup> 문서 행정에 요구된 원칙 대부분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다.

문서 행정 체제에서 각 기관이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문서를 주고 받아야 했으므로 문서 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屬吏와 행정 잡역

667) 山田勝芳은 漢代 공전 경영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각 형태에 따라 국가의 목적 역시 상이하다고 논했다. 즉 곡물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빈농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들을 군현제 내에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후한의 공전 경영은 대개 후자에 속한다는 것이다. (山田勝芳, 『漢代の公田—經營形態を中心として—』, 『集刊東洋學』 25, 1971)

668) 이를테면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書信에 사용하던 어구나 표현(‘惶恐’, ‘叩頭死罪’)이 상투적으로 반복되는 점이나(高村武幸, 『中國古代文書行政における書信利用の濫觴』, 『秦漢簡牘史料研究』, 東京: 汲古書院, 2015) 문서 전달자의 정보 및 문서를 받은 일시가 생략되는 점을 들 수 있다.

담당자가 필요하였고 관부는 적절한 인력 자원을 배치해 이상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켜야 했다. 秦이 僻地에 위치한 천릉현에 104인이라는 吏員을 유지한 것<sup>669)</sup>은 제국의 외연을 확보하기 위한 ‘낭비’<sup>670)</sup>라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행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인원이 반드시 요구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령 前漢 哀帝 元壽 2년에 堂邑縣이 吏員 113인, 三老官屬員을 53인<sup>671)</sup>을 둔 사실은 縣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특히 전한 말~후한 초에 군현 조직이 확대되며 속리의 수요가 높아졌다. 전한 말에 이르러 군은 현에 대한 감찰과 勸農을 담당하며 민정 기관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군이 과거보다 많은 행정 업무를 담당한 결과 太守府의 정원 외 屬吏가 증가한 사실은 선행 연구도 지적한 바 있다.<sup>672)</sup> 여기에 중앙 관부가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왕망 시기와 후한 초기에 郡縣으로 이관되며 군현의 조직은 일층 확대되었다.<sup>673)</sup> 왕망이 縣官에 酤酒, 鹽과 鐵器 판매, 동전 주조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縣은 犧和의 지휘하에 이상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현 내의 조직도 확대되었을 것인데, 후한 이후에는 대사농 소속의 鹽官, 鐵官이 모두 군현에 직속되는 변화가 나타났다.<sup>674)</sup> 이러한 변화는 군의 재정권 확대를 가져왔지만<sup>675)</sup>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행정 인원의 수요 증가를 불러왔다. 게다가 廩犧와 같이 자체 吏를 가지지 않고 소속 군현의 吏를 받아 일을 처리하거나<sup>676)</sup> 工官, 水官처럼

669) 『校釋(二)』 9-633, “遷陵吏志: 吏員百三人.”

670) 李成珪, 『秦帝國 縣의 組織과 機能-遷陵縣 古城遺址 출토 里耶秦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2014, p.143.

671) “吏員百一十三人 三老官屬員五十三人”(M147:25-1) (青島市文物考古研究所等, 『山東青島土山屯墓群四號封土與墓葬的發掘』, 『考古學報』 2019(3), 2019, p.428)

672) 金秉駿, 『漢代 太守府 屬吏組織의 變化와 그 性格: 江蘇省 連雲港 出土 尹灣漢簡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東洋史學研究室 編, 『古代中國의 理解』 3, 지식산업사, 1997, pp.320-321.

673) 『漢書』 卷69中 『王莽傳中』, p.4118, “初設六筭之令. 命縣官酤酒, 賣鹽鐵器, 鑄錢, 諸采取名山大澤衆物者稅之. 又令市官收賤賣貴, 賒貸予民, 收息百月三. 犧和置酒士, 郡一人, 乘傳督酒利.”

674) 『後漢書』 志卷26 『百官志三·大司農』, p.3590, “右屬大司農. 本注曰: 郡國鹽官·鐵官本屬司農, 中興皆屬郡縣.”

675) 山田勝芳, 『田租·芻稟稅』, 『秦漢財政收入の研究』, 1993, p.124.

676) 『漢官六種』 漢官一卷, “廩犧. 丞一人, 三百石. 員吏四十人, 其十一人斗食, 十七人佐, 七人學事, 五人守學事, 皆河南屬縣給吏者.”

本吏를 두지 않고 군현에서 파견된 吏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서도 존재하였으므로<sup>677)</sup> 군현은 속리 증치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건국 초기, 光武帝가 군현을 병합하고 吏員을 감축하며 吏職의 10%가 감소했다는 기록<sup>678)</sup>은 후한의 郡縣 수와 吏員이 전한의 수치를 밑돌았다고 이해하게 한다. 실제로 前漢 平帝 시기까지 존재한 103개의 郡國은 광무제 시기 93개만 남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후한의 황제들이 다시 군을 증치하며 후한 말기에 이르면 군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明帝 시기 1개 군을, 章帝 시기 2개 군을, 和帝 시기 3개 군을 설치하였고, 安帝 시기 잠시 군국의 통폐합이 시도되었지만, 이후 다시 군이 분화되면서 순제 때에 이르면 105개의 군이 존재하게 되었다.<sup>679)</sup> 또한 광무제의 조서에 따라 후한 초 吏員이 감소하였으나, 후한의 문헌, 간독 중 전한 후기에 설치된 속리가 여전히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감축된 吏員은 어느 시점에 일부 증치된 것으로 여겨진다.<sup>680)</sup>

후한 하남윤의 員吏 구성 역시 군현 속리 조직의 확대와 속리 및 행정 잡무 담당 인력의 수요 증가를 잘 보여준다.

河南尹의 員吏 927인, 12인 百石. 諸縣 有秩吏 35인, 官屬掾史 5인, 四部督郵吏部掾 26인, 案獄仁恕 3인, 監津渠漕水掾 25인, 百石卒史 250인, 文學守助掾 60인, 書佐 50인, 脩行 230인, 幹·小史 231인.<sup>681)</sup>

677) 『後漢書』 志卷28 「百官志」, p.3625, “本注曰: 凡郡縣出鹽多者置鹽官, 主鹽稅. 出鐵多者置鐵官, 主鼓鑄. 有工多者置工官, 主工稅物. 有水池及魚利多者置水官, 主平水收漁. 在所諸縣均差吏更給之, 置吏隨事, 不具縣員.”

678) 『後漢書』 卷1下 「光武帝紀」, p.49, “六月辛卯, 詔曰: 「夫張官置吏, 所以爲人也. 今百姓遭難, 戶口耗少, 而縣官吏職所置尙繁, 其令司隸·州牧各實所部, 省減吏員. 縣國不足置長吏可併合者, 上大司徒·大司空二府.」 於是條奏併省四百餘縣, 吏職減損, 十置其一.”

679) 『東漢會要』 卷37 「方域上」, p.394, “前書地理志, 承秦三十六郡, 縣邑數百, 後稍分析, 至于孝平凡郡國百三, 縣邑道侯國千五百八十七, 世祖中興, 推官多役煩迺命併合, 省郡國十, 縣邑道侯國四百餘所, 至明帝置郡一, 章帝置郡國二, 和帝置三, 安帝又命屬國別領比郡者六, 又所省縣, 漸復分置至于孝順凡郡國百五, 縣邑道侯千一百八十.”

680) 紙屋正和, 「兩漢時代における郡府·縣廷の屬吏組織と郡·縣關係」, 『漢時代における郡縣制の展開』, 京都: 朋友書店, 2009, pp.564-565.

681) 『後漢書』 志第28 「百官五」, p.3621, “漢官曰: 「河南尹員吏九百二十七人, 十二人百石. 諸縣有秩三十五人, 官屬掾史五人, 四部督郵吏部掾二十六人, 案獄仁恕三人, 監津渠漕水掾二十五人, 百石卒史二百五十人, 文學守助掾六十人, 書佐五十人, 脩行二百三十人, 幹小史二百三十一人.”

河南尹은 後漢의 京師 지역이므로 다른 군보다 많은 吏員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예컨대 전술한 廩犧처럼 자체적으로 吏를 보유하는 대신 하남윤의 속현에서 파견된 吏를 이용하는 기관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숫자를 이용한 분석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는 있다. 다만 하남윤이 京師라고 해서 무한대로 吏員과 屬吏를 늘릴 수는 없었을 것이며, 長吏와 屬吏 사이에도 일정 비율이 유지되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하남윤의 특수성에 유념할 필요는 있으나, 여기에 보이는 屬吏의 수는 後漢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屬吏 증가 현상을 대체로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하남윤은 927인을 모두 員吏로 기재하여 소수의 吏員 외의 리를 모두 속리로 처리한 尹灣漢簡의 사례와 대조를 이루는데, 이러한 현상은 『續漢書』 「百官志」의 都水掾, 水曹掾에서도 나타난다.<sup>682)</sup>

선행 연구는 尹灣漢簡 東海郡吏員考績簿의 태수부 구성과 하남윤의 吏員을 비교함으로써 後漢 이래 권농 업무 및 유학 관련된 인원을 增置하고 다수의 卒吏를 두는 변화상이 나타났음을 밝혔다.<sup>683)</sup> 이는 곧 郡의 각종 曹 업무가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데, 군의 관할 업무 증가는 屬吏뿐만 아니라 長吏와 屬吏를 보필한 下吏 혹은 하급 행정 인력에도 영향을 끼쳤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河南尹에 百石 卒吏 250인이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脩行 230인, 幹·小史 231인이 소속하였다고 한다. ‘書佐-脩行-幹·小史’의 기재 순서에서 볼 수 있듯이 脩行과 幹·小史는 斗食吏 미만의 書佐보다 낮은 직급의 행정 인력이었다. 여기에 보이는 속리, 하급 행정 인력은 이전 史料에 나타난 적 없는 수량을 자랑하는데, 이는 바로 郡의 업무 확대 및 屬吏 증가의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속리에 대한 수요와는 반대로 민간사회에는 속리에 대한 천시와 속리직의 회피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후한 후기에 학식을 가진 자들이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리를 담당하고 이를 부끄러워한 기록은 적어도 식자층 사이에서 속리가 선호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馮良은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尉의 佐가 되었는데, 檄을 받들고 督郵를 맞이하려 가다 자신이 廝役に 있는 것에 분개하여 수레를 부수어 馬를 죽이고 衣冠을

682) 金秉駿, 「漢代 太守府 屬吏組織의 變化와 그 性格: 江蘇省 連雲港 出土 尹灣漢簡의 분석을 중심으로」, 1997, p.328.

683) 金秉駿, 「漢代 太守府 屬吏組織의 變化와 그 性格: 江蘇省 連雲港 出土 尹灣漢簡의 분석을 중심으로」, 1997, p.327.

짚은 후 犍爲郡으로 달아나 杜撫에게 학문을 배웠다고 한다.<sup>684)</sup> 趙曄<sup>685)</sup>과 范冉<sup>686)</sup>이 도망친 경위도 대동소이하다. 이들은 젊은 시절 縣吏, 小吏로 檄을 받들고 督郵를 맞이하는 일을 하였으나, 그 직을 부끄럽게 여겨 마침내 도망쳐 떠났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後漢 安帝 재위기 이후의 인물로, 당시 속리 담당을 부끄러워하는 현상이 식자층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전한 시기의 사료에서는 속리의 천시 경향이 후한 만큼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sup>687)</sup> 속리 임용을 피하게 된 계기가 적어도 후한 초, 중기에 나타났다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속리직 회피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경향은 후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後漢시기 속리 회피 경향이 나타난 첫 번째 원인은 俸祿 지급에 있었다. 국가재정의 불안정성은 俸祿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질급이 낮을수록 재정 결핍으로 인한 俸祿의 감소, 연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前漢 宣帝 재위기에 100석 이하 吏의 봉록을 증액한 것에서<sup>688)</sup> 알 수 있듯이 하급 속리를 대상으로 한 대한 경제적 배려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王莽 시기 화폐제도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며 국가재정이 부족해져 모든

684) 『後漢書』卷35「周燮列傳」, p.1743, “良字君郎. 出於孤微, 少作縣吏. 年三十, 爲尉從佐. 奉檄迎督郵, 即路慨然, 恥在廨役, 因壞車殺馬, 毀裂衣冠, 乃遁至犍爲, 從杜撫學. 妻子求索, 蹤迹斷絕.”

685) 『後漢書』卷79下, 「儒林列傳·趙曄」, p.2575, “趙曄字長君, 會稽山陰人也. 少嘗爲縣吏, 奉檄迎督郵, 曄恥於廨役, 遂弃車馬去. 到犍爲資中, 詣杜撫受韓詩, 究竟其術.”

686) 『後漢書』卷81「獨行列傳·范冉」, p.2688, “范冉字史雲, 陳留外黃人也. 少爲縣小吏, 年十八, 奉檄迎督郵, 冉恥之, 乃遁去. 到南陽, 受業於樊英. 又遊三輔, 就馬融通經, 歷年乃還.”

687) 前漢 成帝 때 朱博은 가난 때문에 縣의 亭長이 되었고(『漢書』卷83「朱博傳」, p.3398, “朱博字子元, 杜陵人也. 家貧, 少時給事縣爲亭長, 好客少年, 捕搏敢行.”), 翟方進은 23세에 아버지를 여윈 후 태수부의 小吏로 일했다. (『漢書』卷84「翟方進傳」, p.3411, “翟方進字子威, 汝南上蔡人也. 家世微賤, 至方進父翟公, 好學, 爲郡文學. 方進年十二三, 失父孤學, 給事太守府爲小史, 號遲頓不及事, 數爲掾史所詈辱.”) 따라서 전한 후기에 이미 식자층이 생계를 위해 군현의 小吏가 되는 일은 존재했다고 여겨지나, 이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괴로움을 표현한 예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양한 교체기의 인물인 王霸는 獄吏가 되었지만 늘 분개하며 그 職을 탐탁지 않게 여기자, 아버지가 이를 기이하게 여겨 長安으로 보내 학문을 배우게 하였다고 한다. (『後漢書』卷20「王霸列傳」, p.734, “王霸字元伯, 潁川潁陽人也. 世好文法, 父爲郡決曹掾, 霸亦少爲獄吏. 常慷慨不樂吏職, 其父奇之. 遣西學長安.”) 즉 적어도 양한 교체기까지 屬吏가 되는 일이 크게 기피되거나 수치스럽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상의 점으로 보아 속리에 대한 전한, 후한의 사회적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고 판단된다.

688) 『漢書』卷8「宣帝紀」, p.263, “秋八月, 詔曰:「吏不廉平則治道衰. 今小吏皆勤事, 而奉祿薄, 欲其毋侵漁百姓, 難矣. 其益吏百石以下奉十五.”

吏에 동전으로 봉록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주지하듯이 武帝 이후 봉록은 半錢半穀의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사실상 하급 속리들은 月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곡물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곡물마저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작황에 연동되었기 때문에 실제 봉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sup>689)</sup> 後漢은 建武 26년에 俸例를 세우고 半錢半穀의 방식으로 봉록을 지급하였으나<sup>690)</sup> 후한의 국가재정은 봉록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百官의 봉록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sup>691)</sup>은 바로 재정 위기를 타개하려는 방책이었다.<sup>692)</sup> 그 결과 일부 吏는 기본적인 노동의 대가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상의 문제는 특히 하급의 속리에 더욱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小吏는 賞賜에서 제외되었으므로<sup>693)</sup> 감축된 봉록을 벌충할 다른 경제적 수단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小吏의 月俸은 종종 연체되기도 하였는데, 居延漢簡·居延新簡의 月俸 수령 기록에 따르면 甲渠候官 소속 100석 이하 하급 속리의 月俸은 고질적으로 연체되었다. 월봉 연체 기록 중 가장 흔히 보이는 吏는 각 봉수대를 담당한 隧長과 佐史, 候史 등인데, 昭帝 元鳳 3년의 한 기록은 佐史의 월봉이 최대 8개월까지 밀린 정황을 보여준다.<sup>694)</sup> 반면 長吏인 候의 월봉 체불 기록은 두 사례만 보이며 임금 지급이 연체된 기한도 비교적 짧아, 張掖郡에 재정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장리의 월봉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695)</sup> 물론 이 기록들은 전한 중, 후기의 張掖郡이라는 특정 시공간의 기록이므로 이로써 하급 속리의 경제적 고난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봉록을 지급할 錢이나 帛이 부족한 경우 長吏의 월봉을

689) 辛聖坤, 『魏晉南北朝時期 吏役之戶의 등장 배경』,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分裂과 統合—中國 中世의 諸相—』, 서울: 지식산업사, 1998, p.23.

690) 『後漢書』『百官志』 pp.3632-3633, “百官受奉例: 大將軍·三公奉, 月三百五十斛. 中二千石奉, 月百八十斛. 二千石奉, 月百二十斛. 比二千石奉, 月百斛. 千石奉, 月八十斛. 六百石奉, 月七十斛. 比六百石奉, 月五十斛. 四百石奉, 月四十五斛. 比四百石奉, 月四十斛. 三百石奉, 月四十斛. 比三百石奉, 月三十七斛. 二百石奉, 月三十斛. 比二百石奉, 月二十七斛. 一百石奉, 月十六斛. 斗食奉, 月十一斛. 佐史奉, 月八斛. 凡諸受奉, 皆半錢半穀.”

691) 『後漢書』卷6『順帝紀』, p.273, “甲辰, 減百官奉.”

692) 辛聖坤, 『魏晉南北朝時期 吏役之戶의 등장 배경』, 1998, pp.21-24.

693) 黃惠賢·陳峰, 『中國俸祿制度史』,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1996, pp.56-60.

694) 『居延漢簡(壹)』 303.5, “出河內廿兩帛八匹一丈三尺四寸大半寸, 直二千九百七十八, 給佐史一人元鳳三年正月盡九月積八月少半日奉”

695) 李周炫, 『俸錢 문제를 통해 본 漢代 居延지역의 小吏—居延漢簡의 俸錢 未得 기록을 중심으로—』, 『서울大 東洋史學科論集』 36, 2012, p.18.

먼저 지급하였다고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인 만큼, 甲渠候官 일대의 소리 월 봉 체불 사태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속리 회피 현상의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속리가 부담한 공적·사적 吏徭를 들 수 있다. 秦代 吏의 徭使는 리의 공적인 업무만을 의미하였으나<sup>696)</sup> 漢代에 이르러 吏徭는 공적인 吏徭와 개인적인 吏徭를 모두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상급의 吏가 하급의 吏에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예도 나타났다.<sup>697)</sup> 예컨대 『建武三年甲渠侯粟君所債寇恩事』에서 候官 소속의 속리인 令史 華商과 尉史 周는 粟君이 공적인 吏徭를 부과하려 하자 사재를 내면서까지 이를 완곡히 거절하였다. 이후 이들 대신 고용된 僦人 寇恩이 속군의 처를 위해 봉사하고 수레를 꾸민 것을 보면, 공적인 吏徭를 담당할 때도 상관으로부터의 사적인 吏徭와 추가적 부담이 강요되었을 것이다.<sup>698)</sup>

후한 중기 이후 나타나는 천시 경향으로 인해 하급 속리 임용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속리의 효과적 충원은 기층 행정과 직결되었던 만큼 제국은 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해야 했다. 그렇다면 속리를 회피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동시에 행정 담당 인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관은 어떻게 속리를 충원하려 했을까? 여타 노역과 달리 속리의 직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한정적이었다. 주지하듯이 속리의 직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실무 능력과 유관 법령에 관한 지식, 문서 해독과 計數 능력은 물론, 상급자에 대한 공경, 공정성 등도 요구되었기 때문이다.<sup>699)</sup> 특히 각 曹史를 임용할 때는 문서 해독 능력을 각별히 중시하였는데, 이를테면 ‘尉史 張尋은 문서 독해에 문제가 없으니[文母害] 補任할 수 있다’는 기록은<sup>700)</sup> 문서 해독 능력이 史 임용의 필수 요소였음을 잘 보여준다.

696) 『嶽麓秦簡(伍)』簡30-32, “廿六年正月丙申以來, 新地爲官未盈六歲節(即)有反盜, 若有敬(警), 其吏自佐史以上去繇(徭)使私謁之它郡縣官, 事已行, 皆以彼(被)陳(陣)去敵律論之. 吏遣許者, 與同臯. 以反盜敬(警)事故. 繇使不用此令. ●十八”

697) 『漢書』卷77 『蓋寬饒傳』, pp.3243-3244, “先是時, 衛司馬在部, 見衛尉拜謁, 常爲衛官繇使市買. 寬饒視事, 案舊令, 遂揖官屬以下行衛者. 衛尉私使寬饒出, 寬饒以令詣官府門上謁辭. 尚書責問衛尉, 由是衛官不復私使候·司馬. 候·司馬不拜, 出先置衛, 輒上奏辭, 自此正焉.”

698) 金秉駿, 『漢代 太守府 屬吏組織의 變化와 그 性格: 江蘇省 連雲港 出土 尹灣漢簡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研究室 編, 『古代中國의 理解』3, 지식산업사, 1997, p.337.

699) 李成珪, 『秦의 地方行政組織과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31, 1989, pp.69-70.

700) 『居延漢簡(貳)』110.22, “尉史張尋 文母害 可補□”



그렇다면 문서를 읽고 쓸 수 있는 식자층이나 지역 유력자는 종종 속리의 업무에 강제로 동원되었을 것이다. 후한 桓帝 延熹 2년(159)에 제작된 張景碑는 吏職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장악하려던 후한 말 官府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은 碑文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太守府가 宛縣에 고함. 남자 張景이 記하여 말했다. “태수부 남 문 밖에서 (하는) 권농 의례에 쓸 土牛는……(이를 만들기 위해?) (매년) 14개 鄉의 正을 징발하여 서로 부림해 만드는데, 그 功費가 6, 70만 전으로 사람들의 功力을 몹시 고되게 하고 吏와 正이 괴로워하니, 바라건대 家錢으로 의로운 일삼아 土牛를 만들고 瓦屋, 欄楯, 기물을 만들어 올리고자 합니다. 이를 매년 만들면, 縣吏, 列長, 伍長으로 삼거나, 小繇에 징발하지 말아 주십시오.” 張景이 말한 내용이 확실하니, 면제해주고 (이를) 그 자손까지 전하도록 하라.<sup>701)</sup>

張景碑는 南陽郡이 宛縣에 지시한 내용을 새긴 것이다. 당시 張景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자산을 이용해 남양군의 권농 의례에 필요한 토우와 건물, 기물을 헌납하자 남양군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각종 특권을 부여하였다. 의례에 이용된 토우는 본래 남양군 소속의 鄉 중 당해 연도에 임무가 할당된 14개 향이 부담해야 했다. ‘功費 6~70만 전을 대기 위해 賦斂한다’는 표현은 각 향이 錢을 내어 토우 제작자를 고용해야 한 상황을 보여주는 데,<sup>702)</sup> 이때 장경이 비용을 대신 부담, ‘義作’함으로써 향은 ‘省賦斂’할 수 있었다. 사재 6~70만 전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그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南陽의 豪族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장경이 ‘義作’의 대가로 요구한 사항은 縣

701) 『金石萃編』 卷5, “【府告宛, 男】子張景記言, 府南門外勸【農】土牛, □□□□調發十四鄉正, 相賦斂作治, 并土人犁耒廿簷屋, 功費六七十萬, 重勞人功, 吏正患苦, 願以家錢, 義作土牛上瓦屋欄楯什物, 歲歲作治, 乞不爲縣吏列長伍長, 徵發小繇, 審如景【言】施行復除, 傳後子孫, 明檢匠所作務, 令嚴, 事畢成言, 會廿□府君教, 大守丞印, 延熹二年八月十七日甲申起八月十九日丙戌, 宛令右丞懼告追鉞賊曹掾石梁, 寫移□遣景, 作治五駕瓦屋二間, 周欄楯拾尺, 於匠務令功堅, 奉□畢成言, 會月廿五日, 他如府記律令. 掾趙述□□府告宛言, 男子張景以家錢義於府南門外守□□□瓦屋, 以省賦斂, 乞不爲縣吏列長伍長小繇□□” 張景碑의 표점과 추가적인 考釋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永田英正 編, 『漢代石刻集成(本文篇)』, 同朋舍, 1994, pp.104-105.

702) 李成珪, 『前漢 更卒의 徵集과 服役 방식—松柏漢簡 47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2009, pp.76-77.

吏, 列長, 伍長의 임용 면제 및 각종 요역의 면제였고, 남양군이 이를 승인한 결과 장경과 그 후손은 縣吏, 列長, 伍長 임용과 요역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당시 吏를 둘러싼 두 가지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의 재지 세력자에 縣吏의 임용이 결코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官府가 재지 세력자에 吏職을 강요하였다는 점이다. 후한의 재지 세력자가 지역 내 입지를 이용해 官에 진출하고자 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정작 장경은 縣吏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 심지어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신과 후손이 縣吏의 임용에서 제외되는 사실을 비석에 새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점은 당시의 재지 세력자에게 縣吏의 직이 사실상 役과 크게 다를 바 없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위에서 縣吏는 列長・伍長과 병렬되었고 小繇의 징발 면제와 함께 거론되어, 당시 縣吏의 위상이 상당히 내려가 있었으며 그 직을 담당하는 일은 이익이 아닌 부담, 요역으로 간주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6~70만 전의 거액을 바쳐 縣吏, 列長, 伍長의 면제를 얻어내고 그 내용을 비석에 명시하게까지 한 사실은 여전히 국가가 지역 유력자에 吏職을 강제하였음을 반증한다. 만일 장경이 거액을 기부하지 않았다면 縣吏, 列長, 伍長에 종사하는 일을 피할 수 없던 것이다. 따라서 장경비는 사재를 이용해 각종 역에서 면제되려 하는 후한 말 호족의 입장과 행정에 필요한 인력을 편제하려는 관부의 입장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유력자를 吏로 삼지 못하는 경우, 민간인을 吏職에 給事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후한의 사료에 다수 보이는 ‘給事’는 바로 민간인을 이용해 吏를 충원하는 방법이었다. 문헌 사료 중의 ‘給事’는 吏가 임시로 타 기관에 파견되는 것을 의미하지만<sup>703)</sup> 후한 이후 민간인이 ‘給事縣官’, ‘給縣官事’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吏 신분이 아닌 사람이 官에 給事하는 경우 노동에 대한 약간의 대가를 받을 뿐 祿秩은 받을 수 없었으나<sup>704)</sup> 財貨를 얻기 위해 給事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집안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縣에 給

<sup>703)</sup> 예컨대 광광의 아버지가 縣吏로서 平陽侯家에서 給事한 것을 볼 수 있다. 『漢書』 卷 68 『霍光傳』, p.2931, “霍光字子孟, 票騎將軍去病弟也. 父中孺, 河東平陽人也, 以縣吏給事平陽侯家, 與侍者衛少兒私通而生去病. 中孺吏畢歸家, 娶婦生光, 因絕不相聞.”

<sup>704)</sup> 侯旭東, 「長沙走馬樓三國吳簡所見給吏與吏子弟-從漢代的“給事”說起」, 『中國史研究』 2011(3), 2011, p.26.

事해 亭長이 되었다는 술한 기록은<sup>705)</sup> 文識이 있으나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민간인이 주로 吏職에 급사한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後漢書』에 등장하는 給事者들은 대개 學者나 書生이나, 출토 사료에 따르면 給事의 주체는 이들에 한정되지 않았다.

(3) 董은 良家子로, 縣에서 給事하여 獄의 書佐로 充任되었습니다.<sup>706)</sup>

(4) 通은 고용 노동과 판매하는 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通의 同産 兄인 育은 태수부에서 給事하였는데, 올해 5월 10일에 徒를 받아서...<sup>707)</sup>

(3),(4)에서 볼 수 있듯이, 良家子和 일반 民도 書佐나 太守府에 給事하였다. (3)의 董은 獄의 書佐에 給事하였는데, 급사의 시점은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간독의 말미에 ‘永初 元(年)’이 보이므로 和帝 말 혹은 安帝 초로 추정할 수 있다. 良家子는 일반 家戶보다 家格이 높은 집안의 자손을 뜻하는데, 거연한간의 良家子が 軍馬를 자급한 기록<sup>708)</sup>이나 李廣利가 良家子로서 종군하여 胡와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sup>709)</sup>이 보이며, Ⅱ장에 인용한 『鹽鐵論』 「禁耕」은 良家子が 운송 의무를 지닌 사실을 전한다.<sup>710)</sup>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前漢은 良家子를 전투나 운송에 이용하였는데, 桓帝 말에 良家子를 羌의 전

705) 『後漢書』 卷18 「吳漢列傳」, p.675, “吳漢字子顏, 南陽宛人也. 家貧, 給事縣爲亭長.”; 『後漢書』 卷83 「逸民列傳·逢萌」, p.2759, “逢萌字子康, 北海都昌人也. 家貧, 給事縣爲亭長. 時尉行過亭, 萌候迎拜謁, 既而擲楯歎曰: 「大丈夫安能爲人役哉!」 遂去之長安學, 通春秋經.”; 『後漢書』 卷62 「陳寔列傳」, p.2065 “陳寔字仲弓, 潁川許人也. 出於單微. 自爲兒童, 雖在戲弄, 爲等類所歸. 少作縣吏, 常給事廨役, 後爲都亭佐. (….) 家貧, 復爲郡西門亭長, 尋轉功曹.”

706) 『五一廣場(壹)』 126(木兩行CWJ1①:113), “董. 良家子, 給事縣, 備獄書佐. 不處年中, 良給事縣. 永初元”

707) 『五一廣場(壹)』 63(木兩行CWJ1③:325-4-37), “□便因緣. 都, 解止通舍數日. 債代南山鄉正, 隨佐區盱在鄉. 到九年九月中復還解. 通以庸債·販賣爲事. 通同産兄育給事府, 今年五月十日受遣將徒”

708) 『居延漢簡(壹)』 40.6, “坐從良家子自給車馬爲私事論疑也□□書到, 相二千石以下從吏毋過品刺史禁督且察毋狀, 各如律令”

709) 『漢書』 卷54 「李廣利傳」, p.2439, “孝文十四年, 匈奴大入蕭關, 而廣以良家子從軍擊胡, 用善射, 殺首虜多, 爲郎, 騎常侍.”

710) 주석 478) 참고.

투에 투입한 것<sup>711)</sup>을 보면 그 이용은 후한에서도 계속되었으며 (3)에서 볼 수 있듯이 양가자는 군사 업무뿐 아니라 縣 속리직에 給事되기도 하였다. 한편 (4)는 일반 백성도 給事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4)에 등장하는 通은 고용 노동과 장사를 하여 생계를 꾸렸다. 이 점은 通이 경작에서 유리된 민이었음을 암시하는데, 通의 친형인 育은 太守府에서 給事하였다. (3),(4)가 수록된 五一廣場 출토 간독에는 행정 처리 능력을 지닌 故吏가 給事に 동원되는 예도 보이지만<sup>712)</sup> 育이 태수부에서 給事한 것은 給事의 대상이 반드시 故吏나 良家子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給事하는 경우 약간의 月俸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民 중에도 給事を 원하는 자들은 존재하였을 것이다. 후한의 많은 ‘給事’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給事, 특히 郡縣 小吏에 給事하는 일은 점차 제도화하였다. 전한의 給事が 吏를 임시로 파견하고 기한이 지나거나 업무가 끝나면 다시 원 기관으로 귀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후한 이후에는 임시로 파견된 관리가 해당 관부에 계속 머무르거나 상황에 따라 해당 관부의 관리로 편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sup>713)</sup> 이처럼 給事が 관리를 충원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면, 급사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식자층이나 양가자는 단기간 속리 직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장기적으로 ‘吏職’에 동원되었을 것이며 점차 국가의 인력 자원으로서 파악, 편제되어 갔을 것이다.

## 2. 後漢 末~三國 初 특수 戶의 설정과 職役의 등장

고용 노동의 내재적 문제, 행정 담당 인력의 수요 확대는 後漢의 인력 운용 방식이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후한의 민간 사회에서 다양한 고용 노동의 사례가 발견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인 고용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바로 관부가 인력을 고용하는 현상이 退縮하였음을 암시한다.

711) 『漢書』 卷72 『董卓傳』, p.2319, “桓帝末, 以六郡良家子爲羽林郎, 從中郎將張奐爲軍司馬, 共擊漢陽叛羌, 破之, 拜郎中, 賜縑九千匹.”

712) 『五一廣場(壹)』 90(木兩行CWJ1①:94), “近知習, 各以田作爲事. 貪·社·熊以故吏給事縣. 熊元興元年十二月不處日, 署長賴亭長. 社延平元年十月廿日, 貪其年十二月十日各署視事. 陽·陶前各給桑鄉小史.”

713) 侯旭東, 『長沙走馬樓三國吳簡所見給吏與吏子弟-從漢代的“給事”說起』, 2011, p.33.

여기에 후한 말 정치 지형에 변화가 나타나며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졌다. 주지하듯이 建安 연간에 魏·蜀·吳를 위시한 지방 정권이 성립하고, 建安 23년(219)에 이르면 魏·蜀·吳의 三國이 사실상 천하를 삼분하였다. 삼국이 패권을 두고 벌인 경쟁상은 正史의 기록과 후대의 소설에도 생생히 묘사되어 있으나, 패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대량의 인력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대단위의 인력은 치열한 전투에서 효과적이었을 뿐 아니라 생산·운송·건설 등 각종 업무에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秦이 전국시대에 도예 신분을 만들어 인력 자원을 장악하고 律令과 軍功爵을 이용해 耕戰之士를 양성한 것은 戰時 인력 확보 방식의 일례이다.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삼국은 秦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력을 결집해야 했다. 삼국 역시 이 점을 간파하고 있었으므로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국가의 각종 업무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에 귀속한 인구 자체를 증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종 이민족의 회유, 정복이 시도되었는데, 가령 建安 25년 蜀漢 劉備의 군사가 吳 영역 내의 武陵蠻을 공격한 후 사신을 보내 인장을 수여하고 封賞하자 일대의 무릉만이 일시적으로 蜀에 귀의한 사건<sup>714)</sup>을 볼 수 있다. 또한, 吳는 무릉만이나 山越을 여러 차례 토벌, 진압하였다. 孫策은 山越 중 일부를 진압하였고 孫權도 산월을 공격하여 사로잡은 자를 兵으로 삼거나 戶를 보충하는 데 이용하였다.<sup>715)</sup> 출토 사료 중에도 ‘夷生口’, 즉 이민족 포로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이들 중 일부는 吳의 군대에 편입되거나 大屯이라는 기관에서 勞作하기도 하였다.<sup>716)</sup>

두 번째는 이미 국가에 귀속된 인구 중 일부를 집결하여 특정 기구에 예속시키고 해당 기구의 특정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것이다. 당시는 戰時 상황이었던 만큼, 三國은 확보된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역하려고 하였

714) 『三國志』 卷47 『吳主傳』, p.1122, “是歲, 劉備帥軍來伐, 至巫山·秭歸, 使使誘導武陵蠻夷, 假與印傳, 許之封賞. 於是諸縣及五谿民皆反爲蜀.”

715) 『三國志』 卷58 『吳書·陸遜傳』, p.1344, “會丹楊賊帥費棧受曹公印綬, 扇動山越, 爲作內應, 權遣遜討棧. 棧支黨多而往兵少, 遜乃益施牙幢, 分布鼓角, 夜潛山谷間, 鼓譟而前, 應時破散. 遂部伍東三郡, 彊者爲兵, 羸者補戶, 得精卒數萬人, 宿惡盡除, 所過肅清, 還屯蕪湖.”; 『三國志』 卷39 『吳書·太史慈傳』, p.1188, “是時, 策已平定宣城以東, 惟涇以西六縣未服. 慈因進住涇縣, 立屯府, 大爲山越所附.”

716) 凌文超, 『吳簡與吳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9, p.154.

을 것이다. 따라서 업무를 분업화하거나 특정 기구에 인력을 편제한 후 특정 노동에 장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삼국은 인근의 이민족을 흡수하고, 영내의 백성을 戶로 편제해 각종 노동에 편제하였다. 이러한 인력 이용 방식은 특히 屯田 경영에서 나타났다. 屯田은 魏·蜀·吳에서 두루 시행되었으나, 특히 魏와 吳가 둔전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양자는 軍屯과 民屯을 함께 두었는데, 둔전의 범위는 매우 넓었고 둔전에서 노동한 사람들의 수도 상당한 수에 이르러 당시 국가의 경제에서 둔전이 차지한 비중은 상당히 컸다고 평가된다.<sup>717)</sup>

삼국이 백성을 屯田에 사역하는 현상은 建安 원년(196) 이후 확대되었다. 이때 曹操는 屯田을 설치하고 任峻을 典農中郎將으로 삼았는데, ‘백성을 모집하여 屯田 경작을 허락한 이후 곡식 백만 斛을 얻자 郡國마다 모두 田官을 두어 수년 동안 쌓인 粟으로 倉廩이 가득하였다’<sup>718)</sup>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둔전의 경작자는 大司農 田官에 소속되었다. 즉 魏의 둔전 경작 戶는 일반 민호와 달리 郡縣에 소속되지 않고, 둔전을 총괄하는 전관에 소속된 것인데, 이는 둔전민이 ‘둔전 경작’이라는 특수 업무로써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晉書』 『食貨志』에 따르면 이들은 田客戶이나 租牛客戶로 명명되었으며 소속뿐 아니라 負役의 측면에서도 일반 민호와 구분되었다.

魏는 公卿 이하에 租牛客戶를 지급하였는데, 그 수량에는 (등급에 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후 하층의 백성들은 役을 기피하여 租牛客戶가 되기를 즐기니, 權勢之門에는 걸핏하면 수백 호(의 租牛客戶)가 있었다. 또 太原의 여러 部는 匈奴 胡人을 田客으로 삼았는데 많은 경우 수천에 이르렀다.<sup>719)</sup>

위 인용문에 따르면 하층의 백성은 役을 피하여 官의 租牛客戶가 되기를 즐겼고, 그 결과 국가로부터 많은 客을 받을 수 있는 權門은 수많은 租牛客

717) 蔣福亞, 『《竹簡》所見吳國前期屯田』, 『走馬樓吳簡經濟文書研究』,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12, p.144.

718) 『三國志』 卷16 『魏書·任峻傳』, “是時歲飢旱, 軍食不足, 羽林監潁川襄祗建置屯田, 太祖以峻爲典農中郎將, 募百姓屯田於許下, 得穀百萬斛, 郡國列置田官, 數年中所在積粟, 倉廩皆滿.”

719) 『晉書』 卷93 『王恂傳』, p.2412, “魏氏給公卿已下租牛客戶數各有差, 自後小人憚役, 多樂爲之, 貴勢之門動有百數. 又太原諸部亦以匈奴胡人爲田客, 多者數千.”

戶를 거느렸다고 한다. 즉 당시의 租牛客戶가 役에서 면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는 魏 屯田을 경작한 戶가 국가의 租, 調, 徭役을 모두 면제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屯田의 경작 호가 실제 국가의 ‘私客’과도 같은 성격을 지녔음을 지적하였다.<sup>720)</sup> 즉 둔전의 성행과 함께 民이 담당할 의무의 일부 혹은 전체를 면제받는 대신 주어진 職役에만 종사하는 戶가 나타난 것이다. 稅役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정해진 국가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秦·漢 시기 徒隸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비록 인용문 중 租牛客戶가 되기를 자원한 자들을 ‘小民’으로 지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삼국의 둔전 경작 戶는 의연히 民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관에 예속된 존재로서 正戶와 구분되었다.

따라서 魏의 屯田으로부터 三國의 정립과 함께 국가가 인력을 이용하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즉 秦~前漢 初에 성행한 도예를 이용한 강제 노동도, 前漢 중기-後漢 중기에 발전한 고용 노동도 아닌, 일부 民戶를 국가 소속 인력 자원으로 사역하는 방식이 나타난 것이다. II장에서 논증한 국가의 인력 고용을 일종의 노동 외주화(outsourcing)라고 한다면, 삼국 초의 인력 이용 방식은 노동 내주화(insourcing)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단, 위에서 밝혔듯이 삼국 초의 인력 이용 방식은 진~전한 초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우선 두 시기 인력 자원의 성격이 상이한데다 특정 백성을 특정 업무에 사역하고 둔전호의 예처럼 둔전 경작 이외의 의무를 경감하는 인력 이용 방식은 삼국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삼국 이후의 인력 이용 방식은 진~전한 초의 ‘내주화’와는 구분되는 ‘再 내주화(re-insourcing)로서 독특한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삼국에서 모두 나타났으나, 그 一端을 보여주는 현존 사료는 『三國志』의 일부 기록과 중국 長沙에서 출토된 三國 吳의 행정문서로 한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吳를 중심으로 후한 말~삼국 초 인력 운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吳의 국가 업무를 육체노동(수공업·경작·운송·관의 잡역)과 행정·군사 업무로 二分한 후, 전자에 배치된 특수 호와 후자에 배치된 吏·卒이 담당 업무와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sup>720)</sup> 唐長孺, 『魏晉南北朝時期的客和部曲』, 『唐長孺文存』, 上海古籍出版社, 2006, p.466; 宮崎市定, 『部曲から佃戶へ (上): 唐宋間社會變革の一面』, 『東洋史研究』 29(4), 1971, p.32.

## 1) 肉體勞動과 特殊 職役 戶

後漢 말~三國 초에 이르면 일부 戶가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三國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료는 매우 적지만 다행히 1990년대 이후 출토된 吳의 행정문서를 통해 그 一端을 확인할 수 있다. 1996년 湖南省 長沙에서 출토된 走馬樓三國吳簡(이하 走馬樓吳簡으로 약칭)<sup>721)</sup>은 吳 臨湘侯國의 행정문서로 현재까지 약 20년 가까이 정리와 출간 작업이 이어졌다. 주마루오간의 대부분은 조세 납부 기록과 吏民簿로 대부분 흩어진 상태에서 출토되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문서를 분류하고 帳簿를 복원함으로써 당시 戶마다 부담한 役, 租稅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하 三國 吳가 戶를 관영수공업, 둔전 경작, 운송, 잡역 등에 사역하는 현상을 항목별로 살펴볼 것인데, 여기에서는 臨湘侯國의 鄉이 작성한 吏民簿를 중심 사료로 삼아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嘉禾 6년 廣成鄉이 작성한 吏民簿의 제목간(‘廣成鄉謹列嘉禾六年吏民人名年紀口食爲簿’)에서 알 수 있듯이 吏民簿는 향이 소속 吏民의 수, 이름, 연령 등을 기록한 장부이다.<sup>722)</sup> 그 구성을 살펴보면, 제목간 이하 각 戶의 호주·호주의 가족·호별 내역을 기록한 簡이 나열되고 마지막에는 里 내지는 鄉을 단위로 집계한 각종 내역이 뒤따른다.<sup>723)</sup> 특히 里를 단위로 한 집계는 특정 里의 口數, 戶數뿐 아니라 戶別 부담 役, 役 담당 여부도 포함하므로<sup>724)</sup> 里別 집계를 확인함으로써 吳의 인력 편제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임상후국 都鄉이 작성한 吏民簿의 里別 집계를 통해 당시 戶가 役을 담당하는 戶와 각종 특수 직역호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721) 長沙出土走馬樓三國吳簡은 J22에서 발굴된 大木牘을 정리한 『嘉禾吏民田家籍』과 이후 출간된 竹簡으로 대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자의 구분을 위해 전자를 吏民田家籍로, 후자를 走馬樓吳簡 竹簡으로 지칭하였다. 주마루오간 죽간은 2020년 현재도 출간 중이며 필자가 참고한 주마루오간의 죽간은 1-8권이다. 簡文은 『長沙出土走馬樓三國吳簡·竹簡(壹)-(捌)』(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等編, 北京: 文物出版社, 2003-2017)을 참고하였으며, 사료를 직접 인용할 때는 죽간별 卷號와 권호 내의 編戶를 제시했다. (이하, 『走馬樓吳簡(壹)』-『走馬樓吳簡(捌)』로 약칭)

722) 谷口建速, 『長沙走馬樓吳簡の研究』,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2016, p.304.

723) 谷口建速, 『長沙吳簡にみえる佃客と限米』, 伊藤敏雄·窪添慶文·關尾史郎 編, 『湖南出土簡牘とその世界』, 東京: 汲古書院, 2015, p.144.

724) 關尾史郎, 『簿籍の作成と管理からみた臨湘侯國』, 伊藤敏雄·窪添慶文·關尾史郎 編, 『湖南出土簡牘とその世界』, 東京: 汲古書院, 2015, p.106.



集凡常遷里魁黃春領吏民五十戶口食四百廿<sub>三</sub>人 (『走馬樓吳簡(柒)』 5454)  
 其十四人前後被病物故 (『走馬樓吳簡(柒)』 5453)  
 二百六十二人男  
 定領見人四百<sub>八</sub>人 其 一百卅六人女 (『走馬樓吳簡(柒)』 5452)  
 其四戶郡縣吏 (『走馬樓吳簡(柒)』 5451)  
 其一戶縣卒 (『走馬樓吳簡(柒)』 5450)  
 其二戶私學帥客 (『走馬樓吳簡(柒)』 5477)  
 其一戶劉口驛兵 (『走馬樓吳簡(柒)』 5492)  
 其五戶貧羸老頓不任<sub>役</sub> (『走馬樓吳簡(柒)』 5491)  
 定領事役民卅七戶 (『走馬樓吳簡(柒)』 5513)  
 魁 黃 春 主 (『走馬樓吳簡(柒)』 5512)

위는 臨湘侯國 都鄉 吏民簿 중 常遷리의 집계 내역을 복원한 것이다.<sup>725)</sup> 상천리의 집계간은 役을 담당하는 인원, 남녀 비율을 기록한 전반부와 戶別 담당 役을 기록한 후반부로 양분할 수 있다. 상천리는 본래 50개 호 422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질병으로 사망한 14인을 제외하면 실제 役을 부담한 자는 408인이다. 리의 총 인원 408인은 다시 호를 기준으로 분류되었는데, 그 서식을 살펴보면 첫 5줄은 ‘其×戶 ○○’을, 말단에는 ‘定領事役民卅七戶’를 기록하였다. ‘其×戶 ○○’는 모두 들여쓰기를 하였으나 ‘定領事役民卅七戶’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其×戶 ○○’가 ‘定領見人四百<sub>八</sub>人’에 포함되지만 ‘定領事役民卅七戶’ 항목과는 구분된 것을 의미한다.

‘定領事役民卅七戶’는 현재 役을 부담하는 民戶[事役民戶]가 37호라는 의미인데 다른 里計簡은 ‘定應役民×戶’로도 기록했다.<sup>726)</sup> ‘其×戶 ○○’로 기록된 호는 郡縣吏(4), 縣卒(1), 私學帥客(2), 劉口驛兵(1)의 여덟 호로, 모두 일정한 직역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의 ‘其五戶貧羸老頓不任役’은 빈궁·연로함을 이유로 役이 면제된 다섯 호를 가리킨다. ‘事役民戶’, ‘其×戶 ○○’, ‘貧羸老頓不任役’를 합산하면 정확히 50호이므로, ‘其×戶 ○○’로 표시된 郡縣吏, 縣卒, 私學帥客, 劉口驛兵의 戶는 ‘事役民戶’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725) 臨湘侯國 都鄉 吏民簿 리별 집계간의 정리와 복원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連先用, 『吳簡所見臨湘“都鄉吏民簿”里計簡的初步復原與研究—兼論孫吳初期縣轄民戶的徭役負擔與身份類型』, 鄔文玲 主編, 『簡帛研究二〇一七·秋冬卷』,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8, pp.287-288.

726) 『走馬樓吳簡(捌)』 151, “<sub>定</sub>應役民廿一戶”; 『走馬樓吳簡(捌)』 3672, “定應役民卅戶”

다. 그런데 ‘羸老頓不任役’으로 분류된 다섯 호가 문면 그대로 ‘빈궁·연로를 이유로 役이 면제된 호’를 의미한다면, 이들은 免老, 罷癯, 鰥寡孤獨 등으로 구성된 면제 戶일 것이다. 즉 ‘羸老頓不任役’에 보이는 ‘役’은 백성에 부과되는 일반적인 役을 가리킬 것이며, 자연히 ‘事役民戶’는 역이 부과되는 일반 민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常遷里의 ‘事役民戶’에 포함되지 않은 郡縣吏戶, 縣卒戶, 私學帥客戶, 劉口驛兵戶는 일반 民戶와 구분되는 특수 戶에 해당한다.

事役戶에 속하지 않는 戶를 郡縣吏, 縣卒, 私學帥客, 劉口驛兵 등의 특정 지위나 직역으로 표시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해당 직역을 전담하는 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특수 호로서 정해진 업무에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대신 役 일부를 면제받았을 것인데, 만일 이들이 특정 직역과 役을 동시에 부담하였다면 굳이 이들의 정보를 ‘事役民戶’로부터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역 담당 호, 특수 직역 호, 면역호는 상호 구별되었으며<sup>727)</sup> 특수 호는 뭇가 부과한 고유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경작, 운송 등 육체노동에 배치된 戶 외에 吏·卒戶 역시 기본적으로 특수 호에 속하였다.

#### [수공업]

秦이 상공업의 발전에 의한 빈부의 격차를 방지하는 한편 관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官營 手工業을 지지한 사실은 전술한 바 있다. 이후 전한 문제 시기에 弛山澤의 조치를 시행하여 物産의 독점, 관영수공업의 우월적 지위가 일시적으로 후퇴하기도 하였다.<sup>728)</sup> 그러나 무제 때 鹽鐵 전매가 시행되며 관영수공업의 명맥은 계속 이어졌다. 전한 중기 이후 국가의 업무, 노동 중 많은 분야에 인력이 고용되었으나 수공업 분야만큼은 민간 인력의 고용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前漢과 後漢은 적어도 관영 수공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숙련된 관 소속 인력을 유지, 이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필요한 노동을 ‘再 내주화’하였던 후한 말·삼국 초에도 관부가 수공업 기술자를 대거 보유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727) 谷口建速, 『長沙吳簡にみえる佃客と限米』, 2015, p.149; 連先用, 『吳簡所見臨湘“都鄉吏民簿”里計簡의初步復原與研究』, 2018, p.297.

728) 『史記』卷129 『貨殖列傳』, p.3261, “漢興, 海內爲一, 開關梁, 弛山澤之禁, 是以富商大賈周流天下, 交易之物莫不通, 得其所欲, 而徙豪傑諸侯彊族於京師.”

三國이 재정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鐵器 물자를 관할, 통제한 것은 기존의 연구도 지적한 바 있다.<sup>729)</sup> 『宋書』 「百官志」 중 ‘江南의 여러 郡縣에는 鐵者가 있어 冶令을 두거나 丞을 두었는데 대부분은 吳가 설치하였다’는 기록은<sup>730)</sup> 吳가 관영수공업 조직을 둔 사실을 전한다. 吳의 수공업 조직은 주마루오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특히 鐵器 제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철기의 제조는 農器具, 兵器 생산의 측면에서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前漢 鐵官이 농기구를 민간인에 판매한 것<sup>731)</sup>처럼 吳 정권도 철기 농기구를 제작, 판매하였는데 가령 주마루오간의 鍔賈錢, 官鍔錢, 鍔錢은 농기구인 鍔를 백성에 판매한 대금으로 관부의 雜錢 수입으로서 관리되었다.<sup>732)</sup>

그러나 鐵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兵器의 생산이었으므로, 魏·蜀漢과 대립하는 동시에 武陵蠻·山越과도 전투를 벌이던 吳에게 수공업 생산 인력은 반드시 장악해야 할 인력이었다.

(1) 鐵作部 師佐의 부모, 처자를 모았더니 총 42×인(?)<sup>733)</sup>

(2) (李)嵩이 監作部都尉 散(?)으로부터 (문서를) 받음. 嘉禾 2년 11월 29일……給□□軍<sup>734)</sup>

(1)은 吳가 鐵作部, 즉 철기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관영수공업 조직을 보유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師佐란 수공업 기술자인 工師, 工佐를 가리키므로 鐵作部 師佐란 冶鐵에 종사하는 기술자일 것이다. (1)에서 주목할 부분은 吳가 鐵作부에 속한 기술자 본인뿐 아니라 그 부모, 처자에도 통제를 가한 사실이다. 문서의 뒷부분이 보이지 않지만 아마 마지막 글자는 ‘人’일 것인데,

729) 凌文超, 『鍔賈錢簿記與官營鐵官』, 『吳簡與吳制』, 2019.

730) 『宋書』 卷39 「百官志」, p.1232, “江南諸郡縣有鐵者或置冶令, 或置丞, 多是吳所置.”

731) 『居延新簡』 E.P.T52:15의 내용은 鐵官이 없는 北邊 지역의 郡民이 墾田에 이용할 농기구를 구하기 어려우니 內郡이 북변의 細民에 농기구를 싸게 판매함으로써 豪富吏民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는 前漢 중기 이후에도 철제 농기구의 제작, 공급이 상당 부분 관영수공업에 의존하였음을 보여준다. 『居延新簡』 E.P.T52:15, “狼田以鐵器爲本, 北邊郡毋鐵官, □器內郡. 令郡以時博賣予細民, 毋令豪富吏民得多取販賣細民.”

732) 凌文超, 『鍔賈錢簿記與官營鐵官』, 『吳簡與吳制』, 2019, pp.238-239.

733) 『走馬樓吳簡(柒)』 4308, “草言府: 攝鐵作部師佐父母妻子合男女人四百廿□□”

734) 『走馬樓吳簡(貳)』 3940, “嵩被監作部都尉散(?)嘉禾二年十一月廿九日……給□□軍……”

그렇다면 수공업 기술자의 가족을 통제함으로써 기술자가 도주하는 것을 막거나 기술자의 가족에도 수공업 직무를 강제하기 위해 그 가족의 수까지 보고하였다고 이해된다. 게다가 (2)는 監作部都尉의 존재를 전하는데, 監作部都尉는 그 명칭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수공업 조직인 作部를 감시하는 관서로<sup>735)</sup> 수공업 생산을 관리하고 기술자의 인신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뜻은 철기 제작 외의 수공업 생산을 담당한 기술자도 철저히 관리하였다. 비록 (1)에는 鐵作部 師佐의 부모, 처자에 관한 정보만 보이지만, 주마루오간 중에는 수공업 기술자 일반을 의미하는 師, 佐, 作部工師 및 그 가족에 관한 帳簿가 존재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수공업 기술자의 종류는 대단히 많은데 ‘師’로는 乾段師, 治師, 鑪師, 鑠師, 剛師, 觚慰師, 皮師, 貫連師, 貫田師, 模師, 綽師가 보이고, ‘佐’로는 乾段佐, 鑪佐, 鑠佐, 剛佐, 鎗佐, 錢佐, 綃白佐, 綿佐, 別佐, 洝(洝)佐<sup>736)</sup>가 보인다.<sup>737)</sup> 위의 師佐 명칭을 근거로 뜻의 수공업 기술 부문을 ①금속을 제련한 병기 제작(治, 剛, 鑪, 洝), ②동전 제작(貫連, 錢, 洝) ③의복 제작 및 수예(綃, 綃白, 綿, 皮)로 大分할 수 있는데, 정작 가장 자주 등장하는 乾段師나 觚慰師의 직무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다만 ‘乾段’은 鍛造의 의미로 추측되므로 그 업무는 ①이나 ②와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sup>738)</sup>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수공업 기술자를 둔 분야는 상당히 다양하였으며 고도로 분업화되었다. 예컨대 금속으로 병기를 제조하는 각 공정에 따라 금속을 녹이는 기술자, 제련하는 기술자, 형태를 제작하는 기술자가 따로 두어진 것이다.

수공업 기술자인 師佐를 관리하는 양상은 師佐와 그 妻子를 기재한 장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선행 연구는 師佐 관련 죽간의 순서를 복원하고 해당 죽간들이 “兵曹徙作部工師及妻子簿”라는 장부의 일부였음을 밝혔다.<sup>739)</sup>

735) 凌文超, 「銀賈錢簿記與官營鐵官」, 『吳簡與吳制』, 2019, p.240.

736) 凌文超는 주마루오간 1권의 洝와 洝는 字形이 매우 비슷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3권 2559간의 도판에는 ‘洝’가 명확히 보인다고 하였다. 그는 이에 근거하여 洝佐를 洝佐로 읽는 한편, 洝佐가 금속 물질을 녹이는 일을 하는 기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凌文超, 「兵曹徙作部工師及妻子簿與征討武陵蠻」, 『走馬樓吳簡采集簿書整理與研究』,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5, p.277)

737) 韓樹峰, 「長沙走馬樓三國吳簡所見師佐籍考」, 『吳簡研究(第一輯)』, 武漢: 崇文書局, 2004, p.167.

738) 韓樹峰, 「長沙走馬樓三國吳簡所見師佐籍考」, 2004, pp.176-181.

739) 凌文超, 「兵曹徙作部工師及妻子簿與征討武陵蠻」, 『走馬樓吳簡采集簿書整理與研究』,

복원한 서식에 따르면 師佐의 관할 부서는 우선 살아 있는 師佐와 그 가족의 현황<sup>740)</sup>을 기록한 후 뒤이어 사망한 師佐와 그 가족의 현황<sup>741)</sup>을 기록하였다. 師佐의 가족은 남성 가족(父, 子男, 男弟)과 여성 가족(母, 妻, 子女), 그리고 戶下奴婢로 구성되었는데, 장부 중에는 이들의 신상명세뿐 아니라 징발 여부도 기록되어 있다.

鍾佐인 醴陵縣 蔡員 55세. 징발됨[見]<sup>742)</sup>

員의 妻인 汝 45세. 징발됨[見]<sup>743)</sup>

員의 딸인 汝 14세. 本縣에 있음. 징발되지 않음[留]<sup>744)</sup>

員의 아들인 阿 6세. 징발됨[見]<sup>745)</sup>

인용문은 ‘兵曹徙作部工師及妻子簿’ 중 鍾佐 蔡員 일가 기록의 복원안이다.<sup>746)</sup> 師佐의 가족이 징발되었다면 그 연령 뒤에 ‘현재 (作所에) 있다’는 의미의 ‘見’을, 징발되지 않았다면 연령 뒤에 ‘(향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의미의 ‘留’와 ‘在本縣’를 적어 넣어<sup>747)</sup> 현재 상태를 구분하였다. 징발되지 않은 가족이 本縣에 있는 것으로 적혀 있다면 당시 징발된 師佐 및 가족은 현을 떠나 郡에 있던 셈이 되는데, 징발된 師佐 가족에 대해 ‘지금 (郡으로) 이송되었다[今送]<sup>748)</sup>고 기재한 것도 보인다. 인용문 중 蔡員의 가족은 14세인 딸을 제외한 전원이 징발되어 郡에 있는 상태로, 여기에는 6세에 불과한 아들 阿도 포함되어 있었다.

뜻가 師佐의 가족을 ‘見’과 ‘留’로 구분한 것은 이들이 언제든 국가에 의

2015, p.263.

740) 師佐에 가족이 없는 경우는 『走馬樓吳簡(壹)』 簡5963처럼 ‘單身’으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走馬樓吳簡(壹)』 簡6046과 같이 가족 구성원의 현재 상황과 소재지를 기재하였다. 『走馬樓吳簡(壹)』 5963, “【乾】鍛佐建寧黃□年卅四 單身 見”; 『走馬樓吳簡(壹)』 6046, “【乾鍛師下雋】□□【子男】□年卅二在本縣 【留】”

741) 예컨대 다음의 서식으로 기록되었다. 『走馬樓吳簡(壹)』 5956, “物故乾鍛佐醴陵文理妻婢年卅四在本縣”

742) 『走馬樓吳簡(壹)』 6681, “鍾佐醴陵蔡員年五十五 見”

743) 『走馬樓吳簡(壹)』 6742, “員妻汝年卅五 見”

744) 『走馬樓吳簡(壹)』 6669, “員子女汝年十四在本縣 留”

745) 『走馬樓吳簡(壹)』 6729, “□【員】子男阿六歲 見”

746) 문서의 복원은 凌文超의 복원안을 따랐다. 凌文超, 『兵曹徙作部工師及妻子簿與征討武陵蠻』, 『走馬樓吳簡采集簿書整理與研究』, 2015, p.211.

747) 韓樹峰, 『長沙走馬樓三國吳簡所見師佐籍考』, 2004, p.171.

748) 『走馬樓吳簡(壹)』 5907, “其十四人師佐弟妻子廿一人見今送”

해 이용될 수 있는 인력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한다. 師佐 가족의 신상명세 및 현 상태가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설사 현재는 징발되지 않은 ‘留’의 상황일지라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이들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강제 노동 대상자를 파악하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예컨대 I 장에서 살펴본 作徒簿를 참고할 수 있다. 작도부에는 사역 중인 도예의 노동 내용, 일수, 관할 부서뿐 아니라, 사역 중이지 않은 도예의 성명, 이유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었다.<sup>749)</sup> 질병 발생·파견·연소 등의 이유로 작도부를 작성한 부서가 실제 도예를 사역하지 않아도 해당 내용을 적은 것인데, 그 목적은 전체 인력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당장 사역이 불가능한 상태라 해서 해당 도예를 기재하지 않으면 인력의 관리가 어려워지므로 秦은 부서별 도예 현황을 계속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점을 상기하면 뭇 師佐의 가족 역시 언젠가 사역할 인력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인용문의 員의 딸은 14세로 징발되지 않고 本縣에 머무르는 상태로 기재되었으나 장부에 의해 소속 縣과 신상명세를 파악하였으므로 언제든지 縣을 통해 징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되듯이 뭇 수공업 기술자와 그의 戶 구성원을 가용 인력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징발하였다. 심지어 師佐가 사망한 후 妻子가 여전히 징발되는 예도 눈에 띈다.

禿 35세. 嘉禾 3년 3월 6일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징발되지  
않음[留]<sup>750)</sup>  
禿의 처 汝 32세. 징발됨[見]<sup>751)</sup>

죽간이 잔결되어 禿의 직역은 알 수 없으나 서식으로 보아 이 문서가 師佐簿의 일부인 것은 분명하다. 禿은 이미 사망하여 非 징발 대상인 ‘留’로 분류되었으나 그의 처는 징발되었다. 師인 戶主 禿이 사망한 후 그 처가 여전히 징발된 것은 禿의 戶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뭇 사망한 師佐

749) 里耶秦簡 作徒簿 중 도예가 病으로 노역하지 못한다는 기록은 다수 나타나는데, 다 음의 8-2011簡처럼 전체 보유한(혹은 받은) 도예의 신분과 인원수를 적고 병이 난 도예의 이름과 그 수량을 다시 적었다. 『校釋(一)』 8-2011, “卅一年五月壬子朔壬戌, 都鄉守是徒簿(簿) 受司空城旦一人·倉隸妾二人 一人捕獻 二人病 〇”

750) 『走馬樓吳簡(壹)』 6754, “〇禿年卅五 以嘉禾三年三月六日被病物故 留”

751) 『走馬樓吳簡(壹)』 5938, “禿妻汝年卅二 見”

의 처자, 형제 인원을 따로 조사하였는데<sup>752)</sup> 師佐簿 전체를 복원한 서식에 따르면 사망한[物故] 사좌의 妻子는 다시 ‘징발 및 郡 이송된’ 처자와 ‘징발되지 않아 本縣에 머무르는’ 처자로 분류하였다.<sup>753)</sup> 그런데 이처럼 사좌가 사망한 후 妻子가 여전히 징발되었다면, 사좌의 직무는 그 戶를 기준으로 세습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기술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까지 강한 통제를 가한 것은 곧 그 지역의 강제와 세습을 의미한다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뒀는 기술력의 이탈을 막는 한편, 관영수공업에 필요한 인력을 수월하게 징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 [公田・屯田의 경작]

뒀는 특정 인력을 경작에 투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走馬樓吳簡의 吏民簿와 곡물 入出 기록에는 公田 혹은 屯田을 전문적으로 경작하는 자가 다수 나타난다. 그런데 吏民簿와 곡식 입출 기록은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이 중에는 屯田의 경작을 전담하는 특수 戶, 토지를 경작하는 吏民, 형벌로서 토지 경작을 강요받은 범죄자 등 다양한 경작자들이 등장한다. 따라서 둔전 경작에 동원되는 인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어떠한 田地가 둔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마루오간의 곡식 입출 기록에 따르면 당시 납입된 실물 田租는 ‘稅米’, ‘租米’, ‘限米’로 분류되었는데, 이 명칭은 해당 곡물이 각기 ‘稅田’, ‘租田’, ‘限田’으로 명명된 전지에서 수확된 데서 비롯하였다. 즉 특정한 ‘米’는 동일 명칭과 ‘田’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sup>754)</sup>

각 田地의 구체적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지만 적어도 限米가 稅米·租米와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의 租稅였음은 분명하다. 첫째, 限田의 畝당 징수율은 조전, 세전보다 높으나 그 대신 限田 경작 戶는 限米 이외 다른 稅目を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sup>755)</sup> 반면 租田, 稅田의 경작자는 추

752)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들 수 있다. 『走馬樓吳簡(壹)』 5909, “右領物故師佐兄弟妻子十八人”

753) 凌文超, 『兵曹徙作部工師及妻子簿與征討武陵蠻』, 『走馬樓吳簡采集簿書整理與研究』, 2015, p.263.

754) 谷口建速, 『長沙走馬樓吳簡の研究』, 2016, pp.222-223.

755) 일반 리민의 경작지에는 布와 錢이 함께 부과되어, 米, 布, 錢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限田에는 포와 전이 과세되지 않았다. (于振波, 『略論走馬樓吳簡中的戶品』, 『走馬樓吳簡續探』, 臺北: 文津出版社, 2007, p.71; 谷口建速, 『長沙走馬樓吳簡の研究』, 2016,

가로 錢, 布를 납부해야 했다.<sup>756)</sup> 둘째, 주마루오간의 죽간과 吏民田家菑은 限田의 경작자가 일반 吏民과 구분되는 특정 계층임을 보여준다. 예컨대 嘉禾 5년 이후 吏民田家菑 기록의 州吏, 郡吏, 縣吏, 軍吏, 郡卒과 백성은 모두 무당 1斛 2斗의 稅米를 납입했다.<sup>757)</sup> 바꾸어 말하자면, 대부분의 吏民이 납부한 田租는 稅米로 명명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限米의 납부자 중에는 특수한 존재들이 다수 눈에 띄는데, 현재까지 보이는 限米의 납부자는 吏子弟, 帥子弟, 郵卒, 佃帥, 佃吏, 佃卒, 衛士, 新還民, 新吏, 金民, 私學, 叛吏, 叛士, 習射, 吏帥客, 吏客, 帥客, 司馬, 屯田司馬, 屯田民이다.<sup>758)</sup>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통제, 관리를 받는 이들(郵卒, 新還民, 叛士, 佃吏, 佃卒, 吏子弟 등)이 한미의 납부자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귀의자<sup>759)</sup> 혹은 귀환자로 추정되는 ‘新還民’이나 도망죄를 지은 ‘叛士’가 한미를 납부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망친 叛吏와 叛士는 大屯에서 강제 노역에 종사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비교적 무거운 죄를 지은 吏·士가 한전을 경작하였다면 한전의 경작은 일반적인 田地의 경작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限米의 납부자 중에는 屯田司馬가 보이며<sup>760)</sup> 더 나아가 ‘屯田民限米’라는 납입 기록이 존재하는 점<sup>761)</sup>은 限田·限米가 둔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하면 限田이 바로 둔전의 일부였거나 혹은 적어도 限田의 경작이 국가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는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p.223)

756) 戴衛紅 著, 이주현 譯, 『간독과 문서로 본 중국 中古 시기 지방 정세 체계—長沙 走馬樓 출토 三國 吳簡을 중심으로—』, 『木簡과 文字』 21, 2018.

757) 韓樹峰, 『論吳簡所見的州郡縣吏』, 長沙簡牘博物館·北京吳簡研討班 編, 『吳簡研究(第二輯)』, 武漢: 崇文書局, 2006, p.46.

758) 走馬樓吳簡의 곡물 납입간에는 限米의 납입 명목이 적혀 있는데, 이는 ‘납입한 자의 신분+限米’의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限米를 부담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보이는 限米의 납입 명목은 다음과 같다. ‘郵卒限米’, ‘佃帥限米’, ‘佃吏限米’, ‘佃卒限米’, ‘衛士限米’, ‘新還民限米’, ‘新吏限米’, ‘金民限米’, ‘私學限米’, ‘叛士限米’, ‘習射限米’, ‘吏帥客限米’, ‘吏某客限米’, ‘帥某客限米’, ‘子弟限米’, ‘吏某子弟限米’, ‘帥某子弟限米’, ‘監池司馬鄧邵限米’, ‘屯田限米’, ‘郡屯田掾利焉限米’, ‘屯田司馬黃松限米’, ‘屯田司馬黃升限米’ (谷口建速, 『長沙走馬樓吳簡の研究』, 2016, p.214)

759) 孟彥弘, 『釋“還民”』, 『歷史研究』, 2002(4), 2002.

760) 『走馬樓吳簡(壹)』 3159, “入屯田司馬黃升黃龍二年限米卅四斛”; 『走馬樓吳簡(貳)』 365, “入屯田司馬黃松嘉禾二年限米一百五斛 | 嘉禾三年正月四日石淳丘帥謝詡關邸閣李嵩付倉吏黃諱史番慮”

761) 『走馬樓吳簡(壹)』 8961, “入嘉禾元年屯田民限米廿二斛六斗 中”



따라서 限米의 납부자는 대부분 糶의 공전 혹은 둔전 경작에 동원된 인력으로 여겨진다. 위에 나열한 한미 납입자는 대체로 ①客(吏帥客, 吏客, 帥客, 佃客) ②吏·帥 子弟 ③기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자들(新還民, 新吏, 金民, 私學, 叛吏, 叛士, 郵卒)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新吏, 金民, 私學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명칭이나 성격 등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하지만, ①,②는 관련 기록이 많거나 명칭에 직역에 분명히 드러나 당시 경작 인력의 이용을 살펴볼 때 참고할 만하다. 물론 이 중에도 납입 비율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한미의 납입자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존재는 吏客(혹은 吏帥客)이다.

吏客(吏帥客)은 국가에 예속되어 국가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客으로 보인다. ‘客’이라는 표현은 衣食客으로 대표되는 위진남북조 시기의 사적 예속민이나 晉의 給客制를 연상하게 하나, 魏가 둔전을 경작하는 백성을 租牛田客, 田客으로 명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부 소속의 客 역시 존재했다. 吏客과 유사한 표현으로는 吏帥客, 帥客이 보이는데 아마도 吏帥客은 吏客과 帥客을 통칭하는 표현인 듯하다. 帥는 吏와 병기된 것으로 보아<sup>762)</sup> 하급의 행정 인원인 듯한데, 屯田과 관련된 기록에도 등장하므로 둔전의 실무를 맡은 官屬으로 추측하고 있다.<sup>763)</sup>

명칭상 吏客(吏帥客)은 마치 특정 吏나 帥와 사적 관계를 맺은 客처럼 보이지만 정작 주마루오간 중 ‘吏(帥)+성명+客’의 표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은 吏客이나 帥客이 특정 吏·帥에 사적으로 예속된 자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게다가 전술하였듯이 吏客(吏帥客)은 限米를 납부하였는데, 만일 이들이 사적 예속민이라면 국가에 조세나 재화를 바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선행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국가가 예속 인력을 하급의 吏 혹은 官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 데서 吏客(吏帥客)의 명칭이 유래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sup>764)</sup> 즉 糶가 특정 인력을 관부에 예속한 후 이들의 동태를 관리하며 각종 업무에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吏帥客은 국가에 예속되어 업무·노동을 담당하는 非 正戶

762) 『走馬樓吳簡(壹)』 80, “入錢畢民自送牒還縣不得持還鄉典田吏及帥”; 『走馬樓吳簡(壹)』 101, “[ ] 【鄉】 典田吏及帥”

763) 蔣福亞, 「《竹簡》所見吳國前期屯田」, 『走馬樓吳簡經濟文書研究』,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12, p.172.

764) 蔣福亞, 「長沙走馬樓三國吳簡中的“客”」, 『中國經濟史研究』 2006(3), 2006, p.70.

民으로 추측하고 있다.<sup>765)</sup>

限田을 경작한 客의 성격을 살펴볼 때 주목할 점은 이들이 국가에 예속된 인력이지만 법률적으로는 民의 신분을 가지고 독자의 호를 구성한 사실이다.

(3) 夫秋里의 戶人인 (公?)乘인 吏客 這傳. 30세. 1算.<sup>766)</sup>

(4) 富貴里의 戶人인 公乘 吏客 監臈. 71세.<sup>767)</sup>

주인의 호적에 편입된 衣食客과 달리<sup>768)</sup> 吏客은 독자의 호를 구성할 수 있었으며 公乘의 작위도 가질 수 있었다. 公乘은 주마루오간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작위로 吏民 중 다수가 이 爵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sup>769)</sup> 따라서 인용문의 吏客이 公乘爵을 지닌 것은 이들의 법률적으로는 民의 지위를 유지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만 吏民簿의 기재 방식을 통해 吏客과 일반 民을 상호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吏民簿 중 民에 대한 기록은 대개 ‘里名+戶人+작위+성명+연령’의 방식으로 기재되었으나<sup>770)</sup> (3),(4)의 吏客 這傳와 監臈은 작위와 성명 사이에 ‘吏客’을 삽입하여 이들의 사회적 신분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기재 방식은 限米의 납부자인 私學<sup>771)</sup>, 還民<sup>772)</sup>의 호적에서도 보여, 吏客을 비롯한 限田의 경작자들이 법률상 民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일반적인 吏民과는 구별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가령 限田 경작자인 私學, 新

765) 沈剛, 『試論吳簡中的客』, 長沙簡牘博物館·北京大學中國古代史研究中心·北京吳簡研討班 編, 『吳簡研究(三)』, 北京: 中華書局, 2011, p.147.

766) 『走馬樓吳簡(捌)』 518, “夫秋里戶人乘吏客這傳 年卅 算一”

767) 『走馬樓吳簡(捌)』 2045, “【富】貴里戶人公乘吏客監臈 年七十一”

768) 『走馬樓吳簡(貳)』 1842(“竈弟仕伍黑年七歲 衣食客成年十五刑右足”)는 호적간의 일부인데, 호주의 弟인 ‘竈’ 뒤에 衣食客 ‘成’의 성명, 연령, 신체 상태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衣食客은 독자의 호를 구성하지 못하는 존재로 사적 예속민이었다. 당시 吳의 戶에는 戶下奴婢, 衣食客 등 예속민이 다수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孫聞博, 『走馬樓簡“吏民簿”所見孫吳家庭結構研究』, 卜憲群·楊振紅 主編, 『簡帛研究二〇〇七』,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0)

769) 楊振紅, 『吳簡中的吏·吏民與漢魏時期官·吏的分野—中國古代官僚政治社會構造研究之二』, 『史學月刊』 2012(1), 2012.

770) 예컨대 “富貴里戶人公乘郡吏文湛年六十”(『走馬樓吳簡(捌)』 356), 夫秋里戶人公乘吳夏年八十九“(『走馬樓吳簡(捌)』 1993) 등을 볼 수 있다.

771) 『走馬樓吳簡(捌)』 2506, “吉陽里戶人公乘私學區【勝】年卅六苦風病”

772) 『走馬樓吳簡(捌)』 2182, “夫秋里戶人公乘步侯還民這龍年八十一”

吏, 吏帥客이 部曲田曹掾가 ‘作’하는 대상으로서 병렬된 것<sup>773)</sup>은 이들이 법률적 신분과 무관하게 국가의 강한 통제를 받는 존재였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吏客의 戶 역시 특수 호에 편성되었다. 리별 집계 중 吏客戶 기록으로 ‘그중 3개 호는 吏客의 戶[其三戶吏客]’<sup>774)</sup>, ‘그중 17개 호는 佃帥吏客으로 限米를 出함’<sup>775)</sup> 등이 보인다. 里別 집계 문서는 특수 호를 기재할 때 ‘其×戶 ○○’의 방식으로 호의 숫자와 직역의 종류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기재된 吏客 역시 역 대신 경작만을 담당하는 특수 호로 인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吏客이 누군가의 사적인 예속민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특수 인력이자 사회적으로 인식된 특정 계층이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吏客(吏帥客) 외에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인력에 限田 경작을 강제하였다. 吏·帥의 子弟가 바로 그들이다. 吏帥客, 佃客 등이 吏에 예속된 限田 경작의 주요 인력이었다면, 限田의 경작에 상급 吏의 子弟를 동원하였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子弟에 限田 경작을 강요받은 吏·帥는 하급의 행정 인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점은 吏에서 吏 내의 분화가 존재하여 상급의 吏와 하급의 吏가 구분되어 하급의 吏家는 경작을 비롯한 각종 役을 지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즉 하급의 吏와 그 가족은 국가의 통제를 받고 吏와 무관한 업무에도 동원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吏役 부분에서 다시 상세히 서술하겠다.

## [운송]

Ⅱ장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운송은 민간 인력 고용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분야였다. 居延漢簡, 五一廣場 출토 簡牘에 보이는 僦人, 僦師는 운송 수단인 수레, 우마, 선박을 지니고 官의 군량이나 錢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주마루오간 중에는 僦人·僦師나 僦值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

773) 『走馬樓吳簡(陸)』 “草言府列私學新吏吏帥客歲伍復作…… 閏 月□日部曲田曹掾五慈白”

774) 『走馬樓吳簡(捌)』 398, “其三戶吏客” 리별 집계 복원안에 따르면 『走馬樓吳簡(捌)』 398의 吏客戶는 都鄉 富貴里에 속한다. (連先用, 『吳簡所見臨湘“都鄉吏民簿”里計簡의 初步復原與研究』, 2018, pp.276-278)

775) 『走馬樓吳簡(捌)』 644 “□ 其十七戶佃帥吏客 【出】 限米”

아<sup>776)</sup> 당시 운송 인력을 운용함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오간 중 운송에 관여하는 인력으로 船師와 驛兵이 보인다. 전자는 선박을 이용해 직접 錢穀·布를 운송하는 역할, 후자는 驛站의 보조 인력으로서 운송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양자는 모두 특수 호로 편제되었다. 앞의 常遷里의 집계로부터 驛兵이 특수 호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상천리 외의 리도 營驛兵<sup>777)</sup>, 澇口驛兵<sup>778)</sup>의 驛兵 호를 특수 호로 편성하였다. 한편 아래의 리 집계 기록 복원안<sup>779)</sup>은 船師 역시 특수 호에 포함된 사실을 보여 준다.

集凡橫溪丘【魁】□□領吏民五十戶口食二百【八】十八人 (『走馬樓吳簡(捌)』 1392)

其廿一人被病物故 其一百一十五人男 (『走馬樓吳簡(捌)』 1273)

定領口食七百八十五人 其一百七十人女 (『走馬樓吳簡(捌)』 1187)

其二戶州卒 (『走馬樓吳簡(捌)』 1061)

其三戶縣卒 (『走馬樓吳簡(捌)』 883)

其一戶佃帥出限米 (『走馬樓吳簡(捌)』 718)

其一戶急州領船師 (『走馬樓吳簡(捌)』 748)

其二戶養官牛 (『走馬樓吳簡(捌)』 753)

【定】應役民【卅】一戶 (『走馬樓吳簡(捌)』 464)

魁 何 湛 主 (『走馬樓吳簡(柒)』 4838)

위 인용문의 서식은 앞서 살펴본 상천리의 집계 복원안과 완전히 동일하나 역을 면제받은 호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처음 집계간을 작성한 시점

776) 주마루오간 중 ‘地儼錢’이 보이거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이 地儼錢이 토지나 市肆를 빌리는 비용으로 파악하였다. (宋超, 『吳簡所見“何黑錢”, “儼錢”與“地儼錢”考』, 『吳簡研究(第一輯)』, 武漢: 崇文書局, 2004, pp.245-247; 王子今, 『長沙走馬樓竹簡“地儼錢”的市場史考察』, 『吳簡研究(第二輯)』, 武漢: 崇文書局, 2006) 물론 전한의 문헌 사료와 출토 사료에 보이는 ‘儼錢’이 ‘운송비’, ‘운송 임금’인 것이 분명하므로 ‘地儼錢’이 물자 운송과 관련되었음을 지적한 연구도 존재한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여전히 儼人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地儼錢이 운송비, 운송 임금에 해당한다는 강력한 증거도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점에서 地儼錢과 운송의 관계에 대해서 따로 부기하지 않았다.

777) 『走馬樓吳簡(柒)』 576, “其二戶營驛兵”

778) 『走馬樓吳簡(捌)』 1859, “其一戶澇口驛兵”

779) 連先用, 『吳簡所見臨湘“都鄉吏民簿”里計簡的初步復原與研究—兼論孫吳初期縣轄民戶的徭役負擔與身份類型』, 2018, pp.287-288.

에는 免役 戶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였으나 이후 죽간이 廢棄, 散亂하는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집계 기록 중 船師는 州卒, 縣卒, 佃師, 養官牛 戶와 함께 ‘其×戶 ○○’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이들이 모두 특수 호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사와 함께 특수 호로 묶인卒은 군사 업무에, 田師는 限田 경작의 업무에 동원되는 인력이었다. 후술하겠지만 養官牛는 문자 그대로 官牛를 목축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앞의 상천리 집계 기록과 위의 집계 기록은 특수 호가 모두 국가의 특정 직무를 전담하였음을 증명하므로, 船師 戶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船師는 수운을 담당하는 중요 인력으로 官府에 소속하였다. 수공업 기술자에게 붙인 ‘師’의 칭호를 수운 담당자에게 붙여 ‘船師’라 명명한 점은 이들이 선박 조종 기술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臨湘侯國에서는 湘江의 수계를 이용한 수운이 발달하였으므로 선사를 이용해 징수한 각종 조세를 州倉에 납입하였다. 다만 吏民田家菑이나 주마루오간 죽간 중에는 선사가 국가에 米·布·錢의 조세를 바친 흔적이나 경작에 종사하였다는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아 실제 선사의 존재 양태를 추측하기 쉽지 않은데, 아래의 기록을 통해 선사가 고유의 직무인 水運을 수행하는 대신 관으로부터 식량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5) “嘉禾 원년 11월 3일 을축일, 都尉가 監運掾 □這에 보낸 문서. (임상후국이) 거느린 師, 士 12인…”<sup>780)</sup>

(6) “都尉인 兒福과 倉曹掾 阮父가 (임상후국이) 거느린 師, 士 92인에게 嘉禾 원년 6월의 直(值)을 (지급함.) 이 중 卒 6인은 1인당 3斛. 22인은…”<sup>781)</sup>

(5)의 監運掾은 운송을 관장하였으므로 都尉가 監運掾에 보낸 문서 중 등장하는 師는 곧 船師를 지칭한다.<sup>782)</sup> (6)은 都尉와 倉曹掾이 師와 士 92인에

780) 『走馬樓吳簡(壹)』 2107, “都尉嘉禾元年十一月三日乙丑書給監運掾□這所領師士十二人 □□”

781) 『走馬樓吳簡(壹)』 1993, “都尉兒福倉曹掾阮父所領師士九十人嘉禾元年六月直 其卒六人人三斛廿二 【人】 □”

782) 凌文超, 『兵曹徙作部工師及妻子簿與征討武陵蠻』, 『走馬樓吳簡采集簿書整理與研究』, 2015, p.281.

식량을 지급하는 상황을 기록하였는데, 구체적 지급량이 명시된 ‘卒 6인’은 인당 3斛의 식량을 받았다. 수량상 대략 1인의 1개월 식량으로 보이며, 이때 식량의 지급 명목은 ‘直(值)’이다. 즉, 당시 관 소속으로 근무한 師, 士는 月食을 수령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비록 (6)에 ‘船師’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船師 역시 관 소속 기술자[師]의 일종으로 임상후국에서 식량을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師佐에 관한 기록이 풍부한 것과 달리 船師 관련 기록은 주로 곡식의 入倉 문서에 국한되기 때문에 선사를 둘러싼 구체적 정황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오가 船師 호를 특수 호로 편제한 점으로 보아 당시 운송을 담당하는 인력이 국가의 관리, 통제 아래에 있던 것은 분명하다. 오간 중 선사가 물자를 운송한 기록 중에는 建安 26년의 기록이 존재하므로,<sup>783)</sup> 늦어도 건안 26년 이전 못가 선사를 관부의 인력 자원으로 장악한 것으로 추측된다. 주마루오간 중 물품을 운송하는 船師로는 何春, 黃廉, 梅朋, 張蓋 4인이 주로 등장하는데, 한정된 인원의 선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 또한 당시 관 소속의 선사를 사역하여 안정적으로 물자를 수송하였음을 암시한다.

#### [官府의 잡역]

뜻는 특정 民戶를 이용해 관의 각종 잡무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해결하였다. 잡무의 종류는 매우 많고 세분되었다. 이를테면 官牛의 목축, 官府를 위한 樵炭의 공급<sup>784)</sup>, 困·園·驛·關의 관리 인력, 郡醫, 亭雜人 등이 발견된다. 앞서 살펴본 常遷里, 橫溪丘의 집계 기록에도 여러 잡무 담당 호가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其×戶 ○○’로 기재되었다. 이로 보아 관부의 잡무에 동원된 특수 호도 앞서 살펴본 師佐 戶, 吏客 戶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특정 업무를 전담하였을 것이다.

잡역을 담당한 특수 호의 기록은 산발적으로 존재하므로 우선 비교적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養官牛 戶를 살펴보자. 官牛 목축[養官牛] 담당 호는 앞의 橫溪丘의 집계 기록에 등장하나, 주마루오간 죽간 4, 5권에는 官牛의

783) 『走馬樓吳簡(柒)』 1509, “• 其卅六斛一升吏備船師【梅朋】傳忠建安廿六年折咸米”

784) 『走馬樓吳簡(捌)』 2069, “其 田 田 戶官樵民”; 『走馬樓吳簡(捌)』 797, “其十二戶府縣樵炭民”

담당자가 목축 상황을 기록한 문서가 대거 수록되어 있다. 죽간에 편철한 흔적이 남아 있고 제목간(‘臨湘謹列官領(?)牛頭數齒色養者數簿’)이 함께 출토 되었으므로 해당 문서는 臨湘侯國이 官牛의 정황을 보고하기 위해 기록한 장부의 일부일 것이다.<sup>785)</sup> 각각의 문서는 ‘官牛의 색+종류+수량+나이+빨의 길이+사육자’의 서식으로 기록되었고, 사육자에 대해서는 모두 ‘民+성명+養’으로 표기하였다.<sup>786)</sup> 嘉禾 6년 廣成鄉 吏民簿에는 官牛를 기르는 민의 호적이 포함되어 있는데<sup>787)</sup> 호적 중에도 ‘養官牛’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sup>788)</sup> 이는 관부가 官牛의 목축을 임의로 아무에게나 맡긴 것이 아니라 일부 민호에 이를 비교적 장기간 전담토록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부의 잡역을 담당한 특수 호가 叛走하거나 질병, 사망 등으로 그 직역을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民戶로 하여금 직역에 임시로 ‘給事’하도록 하였다. 이는 후술할 給吏와도 유사한데, 기층 행정[吏], 군사[卒] 업무에 給事하는 경우 給吏, 給卒로 기재한 것처럼 특정 업무에 어떤 戶를 투입할 때는 ‘給+직역’로 기재하였다. 吏民簿 중 ‘給+직역’으로 기록된 호는 바로 직역에 임시로 給事하는 특수 호를 의미한다.

그중 1개 戶는 朝丞에 給(事).<sup>789)</sup>

그중 2개 戶는 郡園父에 給(事).<sup>790)</sup>

- 그중 5개 戶는 尫羸·老頓·貧窮·女戶.<sup>791)</sup>

- 마땅히 役을 (담당)하도록 정해진 民戶는 20개 戶.<sup>792)</sup>

위는 嘉禾 6년 廣成鄉 廣成里 집계 기록의 복원안이다.<sup>793)</sup> 여기에는 ‘給朝

785) 凌文超, 『官牛簿與牛耕』, 『吳簡與吳制』, 2019, p.317.

786) 이하 『走馬樓吳簡(肆)』의 養官牛 문서 중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두 문서를 인용했다. 『走馬樓吳簡(肆)』 1388, “黃牯牛一頭齒二歲一月日左角長一尺 民婁道養”; 1390, “黃【牯】牛一頭齒四歲二月□日左角長六寸 民謝佑養”

787) 關尾史郎, 『長沙吳簡吏民簿の研究(上)——「嘉禾六(二三七)年廣成鄉吏簿」の復元と分析——』, 『人文科學研究』 第137輯, 2015, pp.59-60.

788) 『走馬樓吳簡(貳)』 1887, “【民】男子蔡典年卅六養官牛 典妻大女針年□”; 1956, “民男子蔡【棠】年廿【五】盲左目養官牛 □母婁年六十三”

789) 『走馬樓吳簡(貳)』 1702, “其一戶給朝丞”

790) 『走馬樓吳簡(貳)』 1701, “其二戶給郡園父”

791) 『走馬樓吳簡(貳)』 1705, “●其五戶尫羸老頓貧窮女戶”

792) 『走馬樓吳簡(貳)』 1704, “□ ●定應役民廿戶”

793) 嘉禾 6년 廣成鄉 廣成里의 집계 기록 복원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했다. 侯旭東, 『長沙

丞'과 '給郡園父'가 보이는데, 문서 형식상 給朝丞·給郡園父의 호는 '定應役戶'와 구분되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吏客, 船師 등의 특수 戶에서도 공통되는 현상으로, 給事 戶 역시 특수 호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직능이나 의미는 불분명하나 '給朝丞'과 '給郡園父'는 하급의 吏·官屬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유사한 사례로 '給困父'<sup>794)</sup>, '給驛兵'<sup>795)</sup>, '給三州倉父'<sup>796)</sup> 등이 발견된다. 대개 관의 시설이나 관청에서 근무하는 官屬의 칭호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해당 관속의 부재 등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給事が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給事 戶는 상당히 다양한 부문에서 고르게 나타나는데, 이를 업무별로 분류해보면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走馬樓吳簡에 보이는 給事의 종류

특정 官屬의 업무	官의 잡무	수공업 기술	경작
給朝丞 (2, 1702)			
給郡園父 (2, 1701)			
給困父 (2, 1686)	給亭雜人	給鍛佐 (1, 5429)	給佃帥 (6, 809)
給三州倉父 (1, 5435)	(4, 2042)	給笥公師 (7, 2673)	給縣帥 (4, 2071)
給習射 (4, 2043)	給養官牛	給官瓦師 (2, 1657)	給家種客 (4, 2525)
給監鹽兵 (4, 2632)	(2, 2498)		給限田客 (3, 1787)
給關夫 (4, 1924)			
給郡醫 (4, 2666)			

\*출처는 『走馬樓吳簡·竹簡』의 卷號, 각 권호별 정리번호로 표시

주마루오간은 현재 정리, 출간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지만 아직 일부 구간이 공표되지 않았고 給事 戶 기록도 상당히 산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사료만으로 給事 비중이 높은 분야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표 10]은 다양한 官, 官屬의 업무에 민호를 급사하였음을 명시한다. [표 10]은

走馬樓吳簡《竹簡》[貳]“吏民人名年紀口食簿”復原的初步研究, 『中華文史論叢』 2009(1), 2009, p.78.

794) 『走馬樓吳簡(貳)』 1686, “【民】男子周車年五十三腹心病給困父”

795) 『走馬樓吳簡(貳)』 1778, “民男子楊明年八十六給驛兵 明妻大女敬年六十二”

796) 『走馬樓吳簡(壹)』 5435, 其一戶給三州倉父下品之下



특정 관속의 명칭이 나오는 給事 戶와 官의 잡무에 동원된 給事 戶를 구분 하였으나, 양자의 본질은 모두 관의 잡무에 해당한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官屬은 吏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즉 吳 행정 말단의 잡역, 육체노동 중 적지 않은 부분이 ‘給事’의 방식으로 일부 민호에 부과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民戶가 주로 給事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異論이 존재하지만, 給事 戶 중 빈곤한 호가 상당히 존재한 사실은 이에 대해 단서를 제공한다. 吳는 吏民의 호를 上品, 中品, 下品, 그리고 下品之下로 파악하였는데, 현재 발견되는 給事 戶는 대부분 下品이나 下品之下에 해당한다.<sup>797)</sup> 따라서 세역을 부담할 수 없는 빈곤한 호를 복역하게 하고, 그 대신 부세를 감면해주는 구제책으로서 給事를 이해하기도 한다.<sup>798)</sup> 그러나 給事하는 戶人 중 66세(給亭雜人)<sup>799)</sup>, 62세(給驛兵)<sup>800)</sup>, 68세(給養官牛)<sup>801)</sup>, 심지어 86세(給驛兵)<sup>802)</sup>인 노인이 포함된 사실을 상기하면 給事が 빈민을 위한 우대 조치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선행 연구는 給事が 국가 차원의 시혜가 아니라 생계를 꾸리기 위한 민호의 고육지책에 해당한다고 보거나<sup>803)</sup>, 임상후국이 일방적으로 일부 호를 징발해 잡역을 부담하도록 강제하였다고 보기도 한다.<sup>804)</sup>

물론 下品戶가 스스로 타인을 위해 給事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타인에 고용되어 누군가의 직무에 給事하였다면 해당 정보를 문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自願의 방식으로 給事 호를 결정했다면 86세의 노인을 선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限田客에 給事되었던 자들이 叛走한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것<sup>805)</sup>을 보면 당시의 給事が

797) 『竹簡(壹)』-『竹簡(肆)』 중 戶品이 병기된 ‘給戶’ 기록 전체를 살펴보면 上品인 給戶는 0개 사례, 中品인 給戶는 2개 사례만 나타나, 대부분의 ‘給戶’가 下品戶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韓樹峰·王貴永, 『孫吳時期的“給吏”與“給戶”—以走馬樓吳簡爲中心』, 長沙簡牘博物館·北京大學中國古代史研究中心·北京吳簡研討班 編, 『吳簡研究(三)』, 北京: 中華書局, 2011, p.107)

798) 于振波, 『略論走馬樓吳簡中的戶品』, 『走馬樓吳簡續探』, 2007, pp.67-71.

799) 『走馬樓吳簡(肆)』 2042, “嘉禾四年廣成里戶人公乘朱萇年六十六刑左足給亭雜人”

800) 『走馬樓吳簡(貳)』 1903, “民男子蔡喬年六十二給驛兵 橋妻大女典年卅八【筭】”

801) 『走馬樓吳簡(貳)』 2498, “□□蒸勤年六十八苦腹【心】病給養官牛”

802) 『走馬樓吳簡(貳)』 1778, “民男子楊明年八十六給驛兵 明妻大女敬年六十二”

803) 韓樹峰·王貴永, 『孫吳時期的“給吏”與“給戶”—以走馬樓吳簡爲中心』, 2011, p.107.

804) 凌文超, 『吳簡與吳制』, 2019, p.137.

과연 ‘선택’의 영역에 있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𡵓의 給事는 관부가 하층민을 장악하여 각종 잡무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등장하였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𡵓는 행정·군사 업무, 경작 노동, 수공업 노동, 운송 노동, 官의 잡다한 노동에 이용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正戶와 구분되는 특수 호를 편성한 후, 필요한 업무 및 노동에 이들을 배치했다. 吏民簿 중 都鄉 常遷里의 집계에 나타나는 특수 호는 총 8호로 전체의 16%에 해당하며 다른 리의 특수 호는 적게는 6%에서 많게는 24%로, 평균치는 15% 내외이다. 應役戶(혹은 事役戶)는 평균 67.4%의 비중을 점하고 있었으므로<sup>806)</sup> 수치로만 본다면 특수 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담당한 직역은 토지의 경작, 잡무로부터 행정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고 국가 운영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이용된 특수 호는 관부의 관리와 감시를 받았다. ‘客’은 戶를 구성하고 戶籍을 소유한 점에서 관노비라고 볼 수 없지만, 직역을 선택할 자유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𡵓의 인력 이용 방식은 秦의 인력 이용 방식과 매우 유사하며, 반대로 민간인을 유상 고용하는 전한 중기-후한 초기 인력 이용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2) 행정·군사 업무와 吏·卒 戶

행정 업무와 군사 업무(전투·수비)는 帝國의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로, 그 중요성은 I 장에서 이미 서술한 바 있다. 따라서 행정·군사의 수요를 채우는 吏·卒의 인력 수요 역시 꾸준히 존재하였다. 특히 후한 말~삼국 초 국가는 충분한 수량의 吏·卒을 확보하여 기층사회의 안정을 꾀하려 하였다. 吏·卒은 下級の 행정·군사 인력으로서 위진남북조 이후 성행한 吏役과도 밀접히 관계된다. 따라서 𡵓의 기층 행정·군사 업무에 투입된 인력을 확인하기에 앞서 魏晉南北朝 시기의 吏役과 吏役之戶의 존재에 대해 살펴보도록

<sup>805)</sup> 예컨대 다음의 기록을 들 수 있다. 『走馬樓吳簡(參)』 3080, “□男姪[南]年卅三 給限佃客 以嘉禾四年八月十一日叛走”; 『走馬樓吳簡(參)』 3039, “□【子男】□【年廿一】給【限田客】以嘉禾三年十一月十五日叛走”

<sup>806)</sup> 連先用, 『吳簡所見臨湘“都鄉吏民簿”里計簡的初步復原與研究』, 鄔文玲 主編, 『簡帛研究二〇一七·秋冬卷』,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8, p.304.

하자.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品秩 官員, 小吏, 刀筆吏 이외에 별개의 ‘吏’가 존재하였다. 이 ‘吏’는 그 명칭과 달리 실상 관부에 필요한 각종 雜役に 복역하는 존재였다. 이들은 사회적 지위, 대우, 업무 등의 측면에서 吏員에 포함된 정규의 관리와 엄격히 구분되어,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들을 役吏, 吏戶, 吏民, 吏家, 服役吏로 지칭하기도 한다.<sup>807)</sup> 국가의 각종 업무가 분화하고 職役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각 업무의 담당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특히 관부의 雜役은 民戶와 별도로 설정된 ‘吏’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은 官府 隸屬民으로서 별도의 호적에 편성되어 관의 잡무, 즉 吏力을 전담하였으므로 그 의무는 ‘吏役’으로, 해당 의무를 짊어진 ‘吏’는 ‘吏役之戶’로 명명되었다.<sup>808)</sup>

당시 史料의 ‘吏僅’<sup>809)</sup>이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吏役之戶는 관노비처럼 국가의 각종 잡역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이들은 官府의 ‘遣散’ 없이 소속 지역이나 관서를 떠날 수 없었으며 일반 民戶와 엄격히 구별되었다.<sup>810)</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별도의 호적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그 役은 세습되었으며 吏役之戶에서 방면되어야 비로소 民戶로 돌아갈 수 있었다.<sup>811)</sup> 吏役之戶의 단서는 후한 말에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는데<sup>812)</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後漢代 하층의 屬吏는 長吏에 종종 부림을 당한 데다 무거운 직무와 役이 더해졌기 때문에 당시 민간 사회에는 속리가 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결과 吏의 충원은 마치 役의 일종처럼 변화하였고, 吏戶는 編戶와 구분되는 특수 戶로 구성되었다. 즉 ‘吏役’은 후한 말에 그 단서가 나타나 위진 시기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었고 南北朝에서 가장 뚜렷해졌으며 그 결과 唐의 色役 중에는 과거 吏役이 변화, 발전한 요소도 존재하였다.<sup>813)</sup>

807) 辛聖坤, 『魏晉南北朝時期 吏役之戶의 종류와 職役』, 『慶尙史學』 16, 2000, p.3.

808) 辛聖坤, 『魏晉南北朝時期 吏役之戶의 등장 배경』, 1998, p.20.

809) 『宋書』 卷6 『孝武帝紀』, p.118, “壬午, 內外官有田在近道, 聽遣所給吏僮附業.”; 『宋書』 卷61 『江夏列傳』, p.1650, “三年, 省兵佐, 加領中書監, 以崇藝·昭武·永化三營合四百三十七戶給府, 更增吏僮千七百人, 合爲二千九百人.”

810) 高敏, 『試論漢代“吏”的階級地位和歷史演變』, 『秦漢史論集』, 河南: 中州出版社, 1982, p.213.

811) 辛聖坤, 『魏晉南北朝時期 吏役之戶의 종류와 職役』, 2000, p.3.

812) 唐長孺, 『魏晉南北朝時期的吏役』, 『江漢論壇』 1988(8), 1988; 辛聖坤, 『魏晉南北朝時期 吏役之戶의 등장 배경』, 1998.

813) 唐長孺, 『魏晉南北朝時期的吏役』, 『江漢論壇』 1988(8), 1988, p.62.

吏役, 吏役之戶의 탄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前節 중 언급한 행정 담당 인력에 대한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吏의 분화이다. 위진남북조의 吏가 세 개의 계층, 즉 入仕하는 官府의 大吏, 官府에서 사무와 행정을 담당하는 小吏, 그리고 사실상 노동자에 가까운 役吏와 給吏로 분화되어 있었고,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의 吏 일부는 齊民이나 軍戶로부터 충원되었다는 주장<sup>814)</sup>은 吏의 분화와 吏役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표명한다. 단, 그 단서는 後漢에 존재하였다고 여겨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前漢 말 郡 태수부의 기능 확대로 다수의 하급 행정 인력이 필요해지며<sup>815)</sup> 後漢 이후 식자층에 하급 속리의 職을 강요하거나 給事의 방식으로 民을 행정에 임시 충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民의 吏職 給事는 기존의 인력으로 필요한 행정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 방책이었다. 秦이 守官할 인력이 없는 경우 有爵者에 守官하도록 하되, 해당 관부의 屬吏인 佐·史의 守官을 금한 것<sup>816)</sup>에서 볼 수 있듯이 본래 吏의 업무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맡길 수 있었다. 그러나 후한 시기 ‘給事’, ‘給吏’ 기록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이미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吏職에 給事하는 民과 하급 吏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지며 자연히 하급 리의 사회적 지위는 점차 하락하였을 것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상급 리와 하급 리 사이의 구분은 더욱 분명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漢舊儀』의 後漢 河南尹 員吏 기록은 後漢시기 吏의 범위가 넓어지며 吏 내부의 분화가 나타났음을 잘 보여준다. 편의상 앞서 인용한 기록을 재차 인용하겠다.

河南尹의 員吏 927인, 12인 百石. 諸縣 有秩吏 35인, 官屬掾史 5인, 四部督郵吏部掾 26인, 案獄仁恕 3인, 監津渠漕水掾 25인, 百石卒史 250인, 文學守助掾 60인, 書佐 50인, 脩行 230인, 幹·小史 231인.<sup>817)</sup>

814) 汪征魯, 『魏晉南北朝選官體制研究』,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95, pp.85-126.

815) 金秉駿, 「漢代 太守府 屬吏組織의 變化와 그 性格: 江蘇省 連雲港 出土 尹灣漢簡의 분석을 중심으로」, 1997, pp.320-321.

816) 『睡虎地秦簡』 「秦律十八種」 簡161, “官嗇夫節(即)不存, 令君子毋(無)害者若令史守官, 毋令官佐·史守. 置吏律”

817) 『後漢書』 志第28 「百官五」, p.3621, “漢官曰: 「河南尹員吏九百二十七人, 十二人百石.

흥미로운 점은 百石에도 미치지 못한 행정 보조 인력인 脩行, 幹·小史가 ‘員吏’로 기재된 것이다. ‘하남운 員吏 927인’은 脩行과 幹·小史를 포함한 인용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원을 더한 수치이므로, 『漢舊儀』는 脩行과 幹·小史까지 吏의 범주에 넣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그들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吏에 비견할 수 없었다. 脩行은 縣 佐史와 함께 ‘文少한 자’<sup>818)</sup>로 치부되었고, 翟方進이 태수부에서 小史로 給事할 때 기민하지 못하여 掾史에 매번 수모를 당했다는 것<sup>819)</sup>이나 後漢 明帝가 帛을 나누어 줄 때 官府의 吏에 5필을 주고 書佐·小史에는 3필을 주었다는 기록<sup>820)</sup>에서 볼 수 있듯이 小史는 사실상 吏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본래 吏의 범주에 속하지 않던 하급의 문서 담당 인력인 脩行, 幹, 小史는 어느 시점부터 ‘吏’로 명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脩行, 幹, 小史를 員吏로 파악한 것이 이들에 대한 실제 대우에 영향을 준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脩行이 230인, 幹과 小史가 231인에 달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아졌다면 그 지위가 상승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脩行, 幹, 小史 등은 吏로 기록되어도 현실에서는 하급의 행정 인력으로서 屬吏에 봉사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후한 이후 吏는 ‘吏祿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되는 상급의 吏’와 給事·강제적 수단으로 충원되는 ‘하급의 吏·행정 보조 인력’으로 나뉘었을 것이다. 여기에 삼국 초 長吏가 하급 리를 사적으로 부리는 경향이 더해지면서<sup>821)</sup> 吏 내부의 분화가 활발하게 나타났고, 하급의 吏나 이들을 보조하는 행정 보조 인력은 일종의 役으로 轉化하였다. 후술할 주마루오간의 ‘給吏’는 民을 給事함으로써 리를 충원하는 방식인데 이때의 ‘吏’는 물론 하급의 리에 해당할 것이다. 아울러, 限田의 경작에 동원되어 限米를 바쳐야 했던 新吏, 佃吏, 帥 역시 실제로는 하급의 吏였을 가능성이 크다.

諸縣有秩三十五人, 官屬掾史五人, 四部督郵吏部掾二十六人, 案獄仁恕三人, 監津渠漕水掾二十五人, 百石卒史二百五十人, 文學守助掾六十人, 書佐五十人, 脩行二百三十人, 幹小史二百三十一人.”

818) 『論衡』 卷12 『程材』, “一縣佐史之材任郡掾史, 一郡脩行之能堪州從事. 然而郡不召佐史, 州不取脩行者, 巧習無害. 文少德高也.”

819) 『漢書』 卷84 『翟方進傳』, p.3411, “方進年十二三, 失父孤學, 給事太守府爲小史, 號遲頓不及事, 數爲掾史所詈辱.”

820) 『後漢書』 卷2 『明帝紀』, p.119 “賜天下男子爵, 人三級. 郎·從官[視事]二十歲已上帛百匹, 十歲已上二十匹, 十歲已下十匹, 官府吏五匹, 書佐·小史三匹.”

821) 辛聖坤, 『魏晉南北朝時期 吏役之戶의 등장 배경』, 1998, p.16.

두 번째는 魏晉 이후 각 지방 官長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인데, 이는 특히 南朝에서 두드러진다. 당시 중앙 조정이 지방 관부를 강하게 장악하지 못하였고 지방의 都督이 지방의 재정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중앙은 제한된 재정밖에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앙 조정은 官員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私力’으로서 吏役之戶를 지급하여 이들을 일종의 봉록처럼 이용하였다.<sup>822)</sup>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吏役, 吏役之戶의 등장은 後漢 때부터 그 前兆가 보이며, 魏晉 시기를 지나며 제도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자연히 後漢의 小吏와 魏晉 이후의 吏役之戶 사이에도 일정한 차이가 엿보이는데, 가령 後漢 이후 小吏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吏의 업무가 마치 ‘勞役’처럼 과중했다거나 小吏 일가가 모두 특정 役을 강요받았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후한의 사료에 ‘吏役’이라는 표현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소리가 분화되는 와중에도 아직 소리가 役의 단계로 하락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三國의 史料 중에는 ‘吏役’의 표현이 보여, 삼국 초를 기점으로 吏役, 吏役之戶의 단초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7) 顏斐는 黃初 연간 초에 黃門侍郎으로 옮겼고, 이후 京兆太守가 되었다. (….) 또한 府下에 菜園을 만들어 吏役으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하였다.<sup>823)</sup>

(8) 또한 高陽에 劉類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宰守를 지냈다. 苛慝함이 더욱 심하였으나 人事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폐해지지 않았다. 嘉平 연간에 弘農太守가 되었는데 (그가 관할하는) 吏 200여인에 휴가도 주지 않고 마음대로 不急한 일에 使役하였다.<sup>824)</sup>

두 인용문 모두 『三國志』 주석에 인용된 『魏略』의 일부이다. 顏斐는 黃初 연간(220~226)의, 劉類는 嘉平 연간(249~254)의 인물인데, 두 사람 모두 太守로서 吏를 사역하였다. (7)은 그가 太守로서 지역 개발에 매진한 기록 중 일

822) 辛聖坤, 『魏晉南北朝時期 吏役之戶의 종류와 職役』, 2000, p.7.

823) 『三國志』 卷16 『倉慈傳』, p.513, 【魏略曰: 顏斐字文林. 有才學. 丞相召爲太子洗馬, 黃初初轉爲黃門侍郎, 後爲京兆太守. (….) 又於府下起菜園, 使吏役閒鋤治.】

824) 『三國志』 卷15 『梁習傳』, p.470, 【魏略苛吏傳曰: (….) 又有高陽劉類, 歷位宰守, 苛慝尤其, 以善修人事, 不廢於世. 嘉平中, 爲弘農太守. 吏二百餘人, 不與休假, 專使爲不急.】

부지만 ‘吏役으로 하여금[使吏役]’이라는 표현이 명확히 드러나, 관부의 업무에 吏役을 동원한 정황을 전한다. 劉類는 吏 200인을 자의적으로 사역하였다고 하는데, 이 일화가 『魏略』 「荀吏傳」에 실려 있었던 점과 동원한 吏에 대한 학대가 보이는 것으로부터 사역을 당한 吏들은 하급의 吏로 추측된다.

즉 三國 이후 점차 하급의 吏 및 행정 인력을 편제, 활용하는 양상이 보이는 것인데 더 나아가 南朝는 吏役之戶의 구성원에 해당 吏役의 업무를 강제하고 그 직을 세습하도록 하였다. 劉宋의 武吏는 특수 戶로서 구성원 모두가 같은役に 종사하였으며 武吏의 자손은 그 직을 세습해야 했다.<sup>825)</sup>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吏役’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는 특정 업무의 강제와 戶 구성원내의 업무 전가·세습이다. 업무의 세습과 강제는 吏의 사회적 신분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반대로 吏의 사회적 신분이 하락하면서 업무의 세습과 강제가 더욱 심화하였을 수도 있다. (7),(8)에서 볼 수 있듯이 文獻 史料는 三國이 잡역에 하급 吏를 이용한 것을 보여주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시에 吏役의 세습이 출현하였는지, 그리고 吏의 戶에 속한 가족들에 잡역이 강제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반면 走馬樓吳簡에는 吳의 다양한 하급 吏와 卒, 그리고 父兄·子弟로 지칭되는 吏 가족이 관부에 의해 사역되고 役이 강제, 세습되는 현상이 나타나, 三國時期에 사실상 吏役이 존재하였고 이 役이 戶를 근거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吳의 吏役은 ‘後漢 말 소리 지위의 降下’와 ‘魏晉 이후 예속호인 吏役之戶의 등장’ 사이에 위치하는, 일종의 과도적 형태로 이해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吏와 卒을 중심으로 吳가 행정 업무, 군사 업무(전투·수비)에 동원하는 인력을 배치, 통제하는 방식과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마루오간에 보이는 吏·卒의 직무, 종류는 後漢의 吏·卒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장악 정도가 높고 吏·卒에 충당되는 인력의 수량은 많아, 후한 말 이전 인력 편제 방식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먼저, 走馬樓吳簡에 보이는 吏·卒에 대해 살펴보자. 吳의 吏는 소속에 따라 鄉, 縣, 郡, 州로 분류할 수 있는데, 鄉 소속 吏로는 주로 ‘鄉吏’, ‘鄉典田掾’, ‘鄉勸農掾’이 보인다. 주, 군, 현 단위의 吏는 州吏, 郡吏, 縣吏로 통칭하였는데, 직무나 소속 관서를 摘示하는 경우에는 倉吏, 庫吏, 田曹史, 軍吏, 佃吏 등으로 명명하였다. 이를테면 吏民田家茹에 縣吏로 기록된 鄭黑은 倉

<sup>825)</sup> 唐長孺, 『魏晉南北朝時期的吏役』, 1988, pp.63-65.

의 출납 기록에는 三州倉吏로 기록되었다.<sup>826)</sup> 이러한 분류 방식은卒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보통 행정 단위를 기준으로 州卒, 郡卒, 縣卒 등으로 명명하였으나 직무나 관서로 특정할 때는 軍卒, 佃卒, 郵卒 등으로 표현하였다. 단,卒은 吏와 달리 직무로 호칭한 사례가 적는데, 이는 吏의 업무가卒의 업무보다 多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吏·卒은 어떻게 관리, 충원되었을까? 아래에서는 세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오가 행정·군사 인력으로서의 吏·卒을 편제한 방식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세 가지 자료는 곧 앞서 살펴본 常遷里의 집계 기록, 주마루오간 죽간의 給吏·給卒 기록, 그리고 吏 父兄子弟의 현황을 기록한 J22-2546 木牘이다.

첫째, 상천리의 집계 기록으로부터 吏·卒이 특수 호로 분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인용한 상천리 집계 기록으로 다시 돌아가면, 郡縣吏의 戶와卒의 戶는 각각 ‘其四戶郡縣吏’, ‘其一戶縣卒’의 방식으로 기재된 것을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其×戶 ○○’라 기재된 호는 ‘定領事役民의 戶’와 구분되었다. 따라서 전자는 특수 호라 지칭하였는데 이 분류에 따르면 吏·卒의 호는 모두 특수 호에 속하였다.

里의 집계 기록은 吏의 백성 일반을 기록한 吏民簿의 일부이고, 바로 여기에 吏·卒 戶가 기록되었으므로, 吏·卒의 호가 위진 이후의 吏役之戶처럼 民戶와 전혀 다른 계통으로 관리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里의 통계에서는 분명히 應役戶(혹은 事役戶)와 吏·卒의 호를 따로 집계하였으며, 이때 吏·卒의 호는 수공업 기술자, 공전·둔전 경작자, 운송 담당자, 관부 잡역 담당자의 호와 함께 ‘其×戶 ○○’로 기재되었다. 다시 말해, 吏·卒의 업무는 일종의 특수 직역으로, 吏·卒의 호는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戶로 파악된 것이다.

그렇다면 吏·卒의 戶를 특수 호로 편제한 까닭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수공업 기술자[師佐]의 戶는 위 질문에 단서를 제공한다. 전술하였듯이 오는 수공업 기술자 戶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였고, 호의 구성원들을 종종

826) 『長沙走馬樓三國吳簡·吏民田家劄』 4.403, “湛龍丘縣吏鄭黑, 佃田十町, 凡廿九畝, 皆二年常限. 其八畝旱不收, 畝收布六寸六分. 定收廿一畝, 爲米廿五斛二斗. 畝收布二尺. 其米廿五斛二斗, 四年十二月廿日付倉吏李金. 凡爲布二匹二丈四分. 准入米三斛六斗三升一合, 五年十二月廿日付倉吏番慮. 其旱田畝收錢卅七, 其熟田畝收錢七十. 凡爲錢一千五百, 准入米九斗三升, 五年閏月十二日付倉吏□□. 嘉禾五年三月三日, 田戶曹史趙野·張惕陳通校.”



정발하였다. 즉 戶를 근거로 수공업 기술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기술 업무에 동원한 것이다. 그렇다면 吏와 卒의 戶를 특수 호로 구성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뭇 吏·卒의 가족도 행정·군사 업무에 동원하기 위해 吏·卒의 호를 특수 호로 편제하였을 것이다.

吏와 卒의 가족이 행정·군사 업무와 기타 의무에 복역해야 했던 것은 給吏·給卒 기록과 J22-2546 木牘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漢官儀』 중 廩犧令 관련 내용<sup>827)</sup>에서 볼 수 있듯이 ‘給吏’란 吏가 본래 소속한 기관 및 관장 업무를 떠나 다른 기관에서 임시로 업무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급리란 ‘吏로서 給事하는 것’인데, 예컨대 衛靑의 부친 鄭季가 縣吏로서 平陽侯의 家에서 給事하다 위청을 낳았다는 일화<sup>828)</sup>를 볼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후한에 이르면 縣 내의 給吏, 給卒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는데, 이는 장·단기의 행정 공백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sup>829)</sup>

給吏의 字義나 前漢 시기의 史實를 보면, 급리는 일종의 임시 근무처럼 이해된다. 그런데 주마루오간 중 급리·급졸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뭇의 급리·급졸은 사실상 행정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된 듯하다. 吏民簿 중 급리·급졸 기록은 아래와 같다.

(9) 宜陽里的 戶人인 公乘 謝達. 26세. 1算. 縣吏에 給.<sup>830)</sup>

(10) 高遷里的 戶人인 公乘 文□. 46세. 1算. 縣卒에 給.<sup>831)</sup>

(11) 吉陽里的 戶人인 公乘 逢□. 32세. 1算. 郡吏에 給.<sup>832)</sup>

(9)~(11)은 鄉에서 작성한 戶籍簡의 일부로, 여기에는 급리·급졸의 대상이 된 자의 소속 里, 爵, 연령, 稅役 부과 여부, 그리고 ‘給事’하는 직역이 순차

827) 『後漢書』『百官志三』, p.3590, “又有廩犧令, 六百石, 掌祭祀犧牲鴈鶩之屬。”【漢官曰: 丞一人, 三百石. 員吏四十人, 其十一人斗食, 十七人佐, 七人學事, 五人守學事, 皆河南屬縣給吏者.】

828) 『漢書』卷55『衛靑傳』, p.2471, “衛靑字仲卿. 其父鄭季, 河東平陽人也, 以縣吏給事侯家. 平陽侯曹壽尙武帝姊陽信長公主. 季與主家僮衛媼通, 生靑.”

829) 侯旭東, 「長沙走馬樓三國吳簡所見給吏與吏子弟-從漢代的“給事”說起」, 2011, p.33.

830) 『走馬樓吳簡(壹)』7777, “宜陽里戶人公乘謝達 年廿六 算一 給縣吏”

831) 『走馬樓吳簡(壹)』10056, “高遷里戶人公乘文□ 年卅六 算一 給縣卒”

832) 『走馬樓吳簡(壹)』10169, “吉陽里戶人公乘逢□ 年卅二 算一 給郡吏”

적으로 기록되었다. 급리·급졸 현황은 호적간 외 리의 집계 기록에도 등장하는데, 예컨대 “그중 1개 戶는 州卒에 給事 중[其一戶給州卒]”<sup>833)</sup>, “그중 3개 戶는 縣吏에 給事 중[其三戶給縣吏]”<sup>834)</sup>으로 기록된 문서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吏·卒의 직무에 차출되면 리는 그 내용을 호적에 명기하였고, 鄉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 리·졸에 급사하는 호를 파악할 수 있었다. 급리·급졸 사실로서 어떤 戶를 파악하고 그 현황을 리의 집계 기록에 까지 적었다면, 급리·급졸의 근무는 실제로 단기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吏·卒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吏·卒의 직무에 給事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임시로 吏·卒이 되어 복역하는 일반 백성이고 두 번째는 吏·卒의 子弟이다. 전자는 본래 吏·卒과 무관하지만 관부에 징발되어 임시로 吏·卒의 업무에 동원된 자들이었다. 民과 吏·卒 給事 사이의 관계는 眞吏, 給吏 기록의 차이에서 짐작할 수 있다. 주마루오간 죽간의 眞吏, 給吏의 연령을 비교하면 眞吏는 적게는 12~13세에서 많게는 81세에 이르는 한편, 급리는 20세에서 44세 사이로 나타난다.<sup>835)</sup> 실제 직역을 가진 吏인 眞吏가 최대 81세까지 ‘眞吏’로서 파악되고 있었던 점은 당시 吏가 마치 ‘役’을 수행하듯이 평생 吏의 업무에 묶여 있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반면 給吏는 44세 이전의 청년층이 대부분이며 노년의 給吏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선행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給吏는 役을 담당하는 연령층의 民이 吏職에 동원된 것으로 간주하였다.<sup>836)</sup>

또한, 동일 인물이 때로는 吏로, 때로는 民으로 등장하는 현상은 民이 吏에 給事한 사실을 보여준다.<sup>837)</sup> 吏民田家劄 중에는 嘉禾 5년 3월 9일에 布와 錢을 납부한 下伍丘 소속의 州吏 嚴追라는 사람이 보인다.<sup>838)</sup> 이듬해인 嘉禾

833) 『走馬樓吳簡(肆)』 294

834) 『走馬樓吳簡(肆)』 296

835) 韓樹峰, 『走馬樓吳簡中的“眞吏”與“給吏”』, 長沙簡牘博物館·北京吳簡研討班 編, 『吳簡研究(第二輯)』, 武漢: 崇文書局, 2006, pp.25-28.

836) 위의 글, p.27; 韓樹峰·王貴永, 『孫吳時期的“給吏”與“給戶”—以走馬樓吳簡爲中心』, 長沙簡牘博物館·北京大學中國古代史研究中心·北京吳簡研討班 編, 『吳簡研究(三)』, 北京: 中華書局, 2011.

837) 楊振紅, 『吳簡中的吏·吏民與漢魏時期官·吏的分野—中國古代官僚政治社會構造研究之二』, 『史學月刊』 2012(1), 2012, p.29.

838) 『吏民田家劄』 4.28, “下伍丘州吏嚴追, 田三町, 凡十畝, 皆二年常限. 旱敗不收, 畝收布六寸六分. 凡爲布六尺六寸, 四年十一月九日付庫吏番有. 畝收錢卅七, 凡爲錢三百七十,

6년 2월 22일에 米를 납부한 기록에 嚴追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때 그의 신분은 下伍丘의 男子로 적혀 있다.<sup>839)</sup> 약 50호 정도가 속한 丘에 동명이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두 기록 사이의 시차가 1년이 채 안 되는 것을 보면, 두 기록의 嚴追는 동일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현상은 吏民田家劄의 다른 기록에도 보인다. 嘉禾 5년 모 丘의 남자 黃諱는 米, 布를 납부하였는데<sup>840)</sup>, 吏民田家劄의 기년 미상 목독에는 石下丘 소속의 縣吏 黃諱가 米를 납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841)</sup> 동일 인물이 때로는 吏로 때로는 民으로 기록된 것은 위의 두 사례 외에도 상당수 존재한다. 더욱이 嚴追의 예처럼 1년을 두고 신분이 다르게 기록되었다면 民이 給吏에 의해 吏役을 담당한 증거로 볼 수 있다.

吏의 子弟는 給吏·給卒에 동원되는 또 다른 인력이었다. 吏 子弟는 吏의 아들과 남동생, 즉 남성 가족을 의미한다. 이들은 吏·卒 직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일종의 ‘吏·卒 예비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리·줄 자체와 급리·급줄 사이의 관계는 아래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2) 縣吏 黃諱 64세. 諱의 妻인 大女 州, 50세. 諱의 아들 原 29세, 縣吏에 給.<sup>842)</sup>

(13) 郡吏 郭愼 38세. 愼의 남동생 水 24세, 吏에 給. 水의 남동생 寶, 10세.<sup>843)</sup>

四年十一月九日付庫吏番有. 嘉禾五年三月十日, 田戶經用曹史趙野·張惕·陳通校.”

839) 『吏民田家劄』 5.16, “下伍丘男子嚴追, 佃田八町, 凡廿一畝百卅…步, 皆二年常限. 其十畝百六十步早敗不收布. 定收十畝二百廿步, 爲米十三斛一斗, 畝收布二尺. 其米十三斛一斗, 五年十一月七日付倉吏張曼·周棟. 凡爲布二丈二尺, 准入米一斛二斗六升, 五年十一月廿日付倉吏張曼·周棟. 其旱田不收錢. 熟田收錢畝八十, 凡爲錢八百七十, 五年十一月廿日付庫吏潘愼. 嘉禾六年二月廿日, 田戶曹史張惕校.”

840) 『吏民田家劄』 4.571, “□□丘男子黃諱, 佃田卅五町, 凡卅…七畝, 皆二年常限. 其卅七畝旱, 畝收布六寸六分. 定收十畝, 畝收米一斛二斗, 爲米十二斛. 畝收布二尺. 其米十二斛, 四年一月十一日付倉吏鄭黑. 凡爲布一匹四尺四寸……付倉吏鄭黑. 其旱田畝收錢卅七, 其熟田畝收錢七十. 凡爲錢二千六十九錢, 准米一斛三斗, 四年十二月十日付倉吏鄭黑. 嘉禾五年三月十日……史張惕……”

841) 『吏民田家劄』 0.12, “石下丘縣吏黃諱, 佃田卅二町, 凡卅二畝, 皆二年常限. 其二畝……定收卅畝……准入米……”

842) 『走馬樓吳簡(陸)』 1066, “縣吏黃諱年六十四 諱妻大女州年五十 諱子男原年廿九 給縣吏”

843) 『走馬樓吳簡(捌)』 3560, “【郡吏郭愼】年卅八 【愼】男弟水年廿四 給【吏】 【水】男弟寶年十歲”

(14) 軍吏 李曾 39세. 曾의 남동생 貢 23세, 郡吏에 給. 貢의 남동생 親, 21세.<sup>844)</sup>

(12)에 따르면 縣吏 黃諱의 아들 原은 ‘給縣吏’ 중이며, (13) 郡吏 郭愼의 남동생 水와 (14) 軍吏 李曾의 남동생 貢은 각각 ‘給吏’, ‘給郡吏’ 중이다. 吏 본인의 소속 행정 단위(주, 군, 현)나 직무가 급리 중인 子弟의 소속 행정 단위, 직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吏 남성 가족이 吏로 급사한 점은 분명하다. 리·졸 자제를 급리·급졸한 조치는 보편성을 지니고 운용된 제도였던 듯한데, 永安 元年(258)에 景帝 孫休가 내린 詔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諸吏의 家は (일가족) 5인 중 3인이 兼重하여 役을 담당하는데, 父兄은 도성에 있고 子弟는 郡縣의 吏에 給事하면서 限米를 납입하고 전쟁이 나면 또 종군하니, 家事를 經護하는 자가 없다. 짐은 이를 심히 불쌍히 여긴다. 5인 중 3인이 役을 담당하는 경우, 父兄이 (자제를) 남겨두기를 원하면 허락하여 1인을 남겨두고 限米를 면제해주며 전쟁에도 종군하지 않도록 한다.”<sup>845)</sup>

이에 따르면 吳의 吏 子弟는 ①郡縣 吏職에 給事 ②限米의 납부 ③종군의 세 가지 의무를 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직무가 너무나 과중해 정작 一家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吳 景帝는 5인의 가족 중 3인이 吏(혹은 吏 자제)로서 役을 담당하는 경우 1인의 役을 면제해 집안을 돌보도록 명령하였다. ②의 限米는 오의 吏 자제가 납부하는 稅目이었다. 즉 吏의 남성은 기본적으로 생산(경작), 군사 업무에 종사할 의무를 지녔으며, 여기에 더하여 행정 업무에도 종사한 것이다. 특히, 황제가 ‘郡縣에서의 給吏’를 가장 먼저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吏 자제의 給吏가 정규 의무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 가지 의무 중에서도 給吏(행정 업무) 종사가 가장 중시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조서에 卒 자제의 給卒은 등장하지

844) 『走馬樓吳簡(捌)』 3650, “軍吏李曾年卅九 曾男弟貢年廿三 給郡吏 貢男弟親年廿一”

845) 『三國志』 卷48 『吳書·三嗣主傳第三』, p.1157, “諸吏家有五人三人兼重爲役, 父兄在都, 子弟給郡縣吏, 既出限米, 軍出又從, 至於家事無經護者, 朕甚愍之. 其有五人三人爲役, 聽其父兄所欲留, 爲留一人, 除其米限, 軍出不從.”

않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졸의 자제와 급졸이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면 졸의 자제 역시 郡縣 給卒의 의무를 지녔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급리·급졸은 리·졸의 자제의 중요한 의무였다. 급리·급졸을 제도화함으로써 뜻는 리·졸의 자제를 행정·군사 업무에 종사할 인력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즉 리·졸의 자제는 정규의 리가 되기 이전에도 급리·급졸에 의해 국가의 각종 업무를 실제 담당할 것인데, 이러한 인력 충원 방식은 결과적으로 吏·卒職의 강제 및 세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吏·卒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鄉은 吏子弟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감시, 보고하였는데 주마루오간 중 吏父兄子弟의 현황을 기록한 木牘은 그 一端을 잘 보여준다.

廣城鄉의 勸農掾 區光가 말씀드립니다. 書를 받아 州吏 父兄子弟의 伙處, 人名, 年紀를 조목별로 나열하여 장부를 작성하였습니다. 곧 鄉 내를 隱劾하였더니 州吏는 7인이고 (州吏의) 父兄子弟가 모두 합쳐 23인입니다. 이 중 4인은 刑腫·蠱·頤病을 앓고 있고, 1인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4인은 직접 근무지에 보내졌거나 혹은 本主를 따라 宮에 있습니다. 12인은 연소합니다. 1인은 限佃 중입니다. 1인은 앞서 縣吏로 給하였습니다. 人名·年紀를 隱劾한 바 상응하여 遺脫함이 없으니 만약 이후 다른 관에 의해 (상응하지 않거나 遺脫한 점) 발각되면 光은 스스로 坐罪하겠습니다. 嘉禾 4년 8월 26일, 破劾保據.<sup>846)</sup>

위의 走馬樓吳簡 J22-2546 木牘은 嘉禾 4년 8월 26일에 廣城鄉의 勸農掾 區光이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성향 내 州吏 7인의 父兄子弟 23인에 대한 현황 보고이다. 吏의 父兄子弟는 문자 그대로 吏의 남성 가족인 아버지, 형, 동생, 자식을 지칭한다. 광성향 외에 都鄉과 東鄉도 동일 날짜에 동일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당시 임상후국이 吏民簿를 작성하는 시점에 맞추어 각 향에 각종 吏父兄子弟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을

846) J22-2546木牘, “廣城鄉勸農掾區光言, 被書條列州吏父兄子弟伙處人名年紀爲簿. 輒隱劾鄉界, 州吏七人, 父兄子弟合廿三人. 其四人刑腫·蠱·頤病. 一人病物故. 四人眞身已送及隨本主在宮. 十二人細小. 一人限佃. 一人先出給縣吏. 隱劾人名·年紀相應, 無有遺脫. 若後爲他官所覺, 光自坐. 嘉禾四年八月廿六日, 破劾保據.”(宋少華, 『長沙走馬樓J22發掘簡報』, 『文物』, 1995(5), 1995, p.19에서 인용)

알 수 있다.<sup>847)</sup> 또한, 都郷과 東郷이 작성한 吏民簿 중에는 州吏<sup>848)</sup>·軍吏<sup>849)</sup>의 父兄子弟에 대해 조사한 문서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당시 각 향이 해당 향에 호적을 둔 각종 吏(州吏·郡吏·縣吏·軍吏)의 남성 가족 현황을 종류별로 정리, 보고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J22-2546 목독의 서사 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父兄子弟의 총인원을 적고 카테고리 별로 현 상태를 기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장애·질병이 있거나 병으로 사망한 자 ②본인이 직접[眞身] 부임지에 보내졌거나 호주를 따라 현재 ‘宮’(혹은 ‘官’)에 있는 자<sup>850)</sup> ③연소한 자 ④限佃하고 있는 자 그리고 ⑤給吏 중인 자로 분류되었다.<sup>851)</sup> 문서 말미에는 吏 父兄子弟의 인명·연령이 상응함을 재차 확인한 후 혹 이후 누락된 점이 발각될 경우 작성자인 권농연이 스스로 그 죄에 ‘坐’하겠다는 내용을 기록하여, 조사와 집계가 철저히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현, 후국은 향으로부터 보고된 吏 父兄子弟 관련 정보를 취합 후 그 내역을 정리해 郡에 상계했는데, 그 증거는 『走馬樓吳簡(參)』 簡3017이다. 죽간의 가운데에는 ‘…10인 父兄子弟 19인, 이 중 2명은 병으로 사망, 1명은 叛走’와 같이 吏 父兄子弟의 현 상황이 기록되었고<sup>852)</sup> 간의 가장 윗부분에는 ‘臨湘’이 적혀 있다. 縣級 미만의 기관이 함부로 현·후국의 명칭을 적었다고

847) 關尾史郎, 『簿籍の作成と管理からみた臨湘侯國』, 伊藤敏雄·窪添慶文·關尾史郎 編, 『湖南出土簡牘とその世界』, 東京: 汲古書院, p.106.

848) J22-2543木牘, “東郷勸農掾殷連, 被書條列州吏父兄子弟人名年紀爲簿. 輒隱劾郷界, 州吏三人, 父兄二人刑踵, 叛走. 以下戶民自代. 謹列年紀, 以審實, 無有遺脫, 若後爲他官所覺, 連自坐. 嘉禾四年八月廿六日, 破劾保據” (宋少華, 『長沙走馬樓J22發掘簡報』, 1995, p.19에서 인용)

849) 목독 번호 불명, “都郷勸【農】掾郭宋, 被書條列軍吏父兄子弟人名年紀爲簿. 輒隱劾郷界, 軍吏【八人】. 父兄【子】弟各十一人. 其一人被病物故, 四人叛走. 定見六人, 其三人跣踵, 二人守業, 已下戶民自代, 一人【給吏】. 隱劾人名年紀死叛, 相【應】. 無有遺脫, 若爲他官所覺, 宋自坐. 嘉禾四年八月廿六日, 破劾【保據】” (徐暢, 『走馬樓吳簡竹木牘의 刊布及相關研究述評』,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第31輯, 2015, p.41에서 인용)

850) 여기에서 ‘宮’이 지칭하는 대상은 불분명한데, 혹자는 州都에 존재한 武昌宮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谷口建速, 『長沙走馬樓吳簡の研究』,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2016, p.314) 吳 景帝의 永安 원년(258) 조서에 따르면 吏의 父兄 중에는 ‘都’(建鄴)에 있는 자들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隨本主在宮’은 호주를 따라 수도 혹은 州都에 파견된 자들을 지칭할 수도 있다.

851) 谷口建速, 『長沙吳簡にみえる佃客と限米』, 伊藤敏雄·窪添慶文·關尾史郎 編, 『湖南出土簡牘とその世界』, 東京: 汲古書院, 2015, p.151.

852) 『走馬樓吳簡(參)』 3017, “【臨湘】□□□□□□□□□□十人父兄子弟十九人其二人被病物故一人叛走□”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 문서는 임상후국에서 작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임상후국 내 吏 父兄子弟 현황은 기층의 里, 鄉으로부터 縣(侯國)을 거쳐 長沙郡으로까지 보고된 것인데, 이는 여타 현, 후국에서도 동일하였을 것이다.

뜻는 吏의 남성 가족을 단지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J22-2546 목독의 吏 부형자제는 23 인이나 이 중 17인은 장애인·사망자·연소자이므로 실제 가용 인력은 6인이다. 이 중 현재 직접 吏로 근무 중이거나 호주인 吏를 따라 宮(혹은 官)에 있는 자가 4인, 限佃하는 자가 1인, ‘給縣吏’ 중인 자가 1인이다. 호주와 함께 宮(혹은 官)에 있는 子弟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해당 항목은 근무지에 보내져 직접 근무[眞身已送] 중인 子弟와 병렬되어 있으므로 宮(혹은 官)에 있는 자제 역시 특정 행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이다.<sup>853)</sup> 한편, ‘限佃’은 限田의 경작을 가리키는데 ‘子弟限米’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限田의 경작 및 限米의 생산은 吏 子弟가 부담한 稅目이었다.<sup>854)</sup>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 가능한 吏 부형자제 6인은 모두 행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행정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경작 생산에 동원되었다.

게다가 吏 父兄子弟가 질병, 叛走를 이유로 限田 경작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의무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래의 J22-2543 목독을 살펴보자.

東鄉의 勸農掾 殷連이 書를 받아 州吏 父兄子弟의 伙處, 人名, 年紀를 조목별로 나열하여 장부를 작성하였습니다. 곧 鄉 내를 隱劾하였더니 州吏는 3인이고 그 父兄 2인인데 刑踵을 앓거나 叛走하여 下戶民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삼가 年紀를 나열하였는데 확실하여 遺脫함이 없습니다. 만약 이후 다른 관에 의해 (잘못된 점이) 발각되면 連은 스스로 죄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嘉禾 4년 8월 26 일, 破茹保據.<sup>855)</sup>

853) 孟彥弘, 『吳簡所見的“子弟”與孫吳的吏戶制——兼論魏晉的以戶爲役之制』, 武漢大學三至九世紀研究所 編, 『魏晉南北朝史資料』 24, 2008, p.9.

854) 侯旭東, 『長沙走馬樓三國吳簡所見給吏與吏子弟-從漢代的“給事”說起』, 2011.

855) J22-2543木牘, “東鄉勸農掾殷連, 被書條列州吏父兄子弟人名年紀爲簿. 輒隱劾鄉界, 州吏三人, 父兄二人刑踵, 叛走. 以下戶民自代. 謹列年紀, 以審實, 無有遺脫, 若後爲他官所覺, 連自坐. 嘉禾四年八月廿六日, 破茹保據”(宋少華, 『長沙走馬樓J22發掘簡報』, 1995, p.19)

위 문서의 서식은 J22-2546 목독에 적힌 문서와 대체로 일치하나 吏의 父兄이 刑踵, 叛走로 인해 역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刑踵은 잔질, 叛走는 도망쳐 소속 지역에 부재한 상태로<sup>856)</sup>, 鄉은 해당 子弟에 대해 따로 장부를 작성<sup>857)</sup>하는 한편 下戶民에 그 役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하호민이란 호의 등급이 下品, 下品之下에 해당하는 빈민 호를 의미한다. ‘하호민으로 대신하였다’는 표현으로 보아, 鄉(혹은 해당 吏戶)은 吏 子弟를 대신할 빈민을 구해 와야 했다. 이는 負役의 당사자인 吏 子弟가 부재하거나 役을 담당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子弟의 역이 소멸하지 않은 사실을 보여준다. 오간에 보이는 ‘給子弟’<sup>858)</sup>는 문자 그대로 ‘子弟에 給事하는 것’, 즉 吏 자체의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일 것이다.

정리하자면, 吳는 행정·군사 업무에 吏·卒을 이용하였고 원활한 인력 투입을 위해 吏·卒의 남성 가족을 행정·군사 업무에 給事하였다. 吏·卒 업무에 給事하는 것은 給吏, 給卒로 명명되었으며, 永安 원년 이전에 이미 吏·卒 子弟의 대표적인 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물론 문헌 사료의 많은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선대의 業을 이어 자손이 吏가 되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사자나 집안의 선택에 따라 吏職을 이어가는 것과 국가로부터 吏職의 계승을 강요당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前漢·後漢의 吏에게 給事가 단순 파견 근무였던 것과 달리 吳의 吏戶에게 있어서 給吏·給卒은 명백한 의무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리·졸의 남성 가족은 실제 吏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도 각종 행정, 군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인력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였다.

과중한 의무가 세습되는 상황에서 吏·卒 및 그 父兄子弟는 소속을 떠나 도망치기도 하였다. 앞의 J22-2546, J22-2543 목독이 吏 자체의 叛走를 언급한 것은 이들에 부과된 役이 상당한 부담이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856) 沈剛, 『走馬樓三國吳簡所見“叛走”簡騰義』, 『江漢考古』 2009(1), 2009.

857) 예컨대 다음의 두 문서는 叛走한 吏 형제를 기록한 장부의 제목간과 刑踵·叛走로 인해 下戶民으로 대신한 내역에 대한 제목간일 것이다. 『走馬樓吳簡(壹)』 3849, “[諸]鄉[謹列]郡縣吏兄弟叛走人名簿”; 『走馬樓吳簡(參)』 3003, “戶人【見】一人任吏□□【刑踵叛走】以下戶民自代□□□□人名年紀爲簿”

858) ‘給子弟’하는 民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 서식으로 기록되었다. 『走馬樓吳簡(貳)』 1818, “【民】大女郭思年八十三 思子公乘□年六十一給子弟”; 『走馬樓吳簡(貳)』 1904, “•【張父】公乘濟年六十五給子弟 賸妻大女舉(?)年五十四踵右足”



뭇는 이들을 최대한으로 장악하려 노력하였는데, 吏子弟의 도망 내역을 帳簿에 꼼꼼히 적은 것은<sup>859)</sup> 행정 인력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였다. 뭇는 叛走한 吏·卒·士를 叛吏, 叛卒, 叛士로 분류하여 限米 납입을 강제하였고<sup>860)</sup> 때로는 가산을 몰수하거나<sup>861)</sup> 大屯으로<sup>862)</sup> 이송해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sup>863)</sup> 물론 전통 시대에 稅役을 피해 도망하는 일은 흔히 나타나며 주마루 오간 죽간 7권 중 도망한 백성[叛民]에 관한 짧은 기록도 보인다.<sup>864)</sup> 그러나 오간 전체에서 叛走한 吏·卒·士가 더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것은 분명 특기할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吏의 지위 하락과도 관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뭇의 吏·卒과 그 가족은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이는 戶가 존재하는 이상 세습되었다. 眞吏의 연령이 12~13세에서 81세까지 분포하는 사실 역시 주목할 점이다. 어린 나이의 吏가 존재하는 것은 당시 吏의 신분이 세습되었음을 의미하며, 81세 吏가 존재하는 것은 고령에 이르러서도 사실상 吏의 직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sup>865)</sup> 이 점으로 인해 적지 않은 연구자들은 이미 뭇 시기에 사실상 吏役과 吏戶가 존재하였고, 이를 단위로 民과 구분되는 특수한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보았다. 즉 뭇의 吏戶는 魏晉南北朝 시기 吏役之戶의 전 단계로 볼 여지가 있다는

859) 『走馬樓吳簡(壹)』 3825, “【右】□鄉郡縣吏兄弟合十五人前後各叛走□趣劉陽吳昌醴陵”

860) ‘叛士限米’, ‘叛吏限米’는 도망친 吏와 士가 限米를 납부한 사실을 보여준다. 『走馬樓吳簡(貳)』 2099, “領叛士限米五十斛”; 6117, “入中鄉嘉禾五年叛士限米二斛□□”; 『走馬樓吳簡(參)』 1371, “其廿斛五斗黃龍二年叛吏限米”; 1849, “入船師張陸備沒溺三州倉嘉禾元年叛吏限米卅斛”

861) 『走馬樓吳簡(參)』 6869, “□□隱核叛吏區蘇家財□傳送□□”

862) 大屯이 어떤 기관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生口(포로), 叛吏와 그 가족, 죄인이 보내진 것으로 보아 일종의 강제 노동이 행해진 장소로 여겨진다. 于振波는 주마루 오간 죽간 2권을 근거로 大屯이 범죄와 관련된 부서라고 추측하였으나 屯田과의 연관성은 부정하였다. (于振波, 『長沙走馬樓三國吳簡·竹簡(貳)』 신자료 소개, 『木簡과 文字』 1, 2008) 반면 凌文超는 大屯이 屯田과 관련된다고 이해했으나 그에 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凌文超, 『走馬樓吳簡采集簿書整理與研究』, 2015, p.167) 大屯의 정체 및 그 統屬 관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리 작업 중인 吳簡 등 다른 史料를 기다려야 할 듯하다.

863) 叛吏가 大屯에 보내진 기록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走馬樓吳簡(參)』 3461, “□□【叛】士胡成胡堅□傳送大【屯】□”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叛吏의 가족까지 大屯에 보내지기도 하였다. 『走馬樓吳簡(陸)』 579, “草言府遣吏潘勇傳送叛吏鄭邁妻率邁男弟□弟早子男□與男弟南等四人詣大屯 乞請致書事 閏月一日中賊曹史利豫白”

864) 『走馬樓吳簡(柒)』 4453, “草言府逐捕叛民鄭□……事”

865) 楊振紅, 『吳簡中的吏·吏民與漢魏時期官·吏的分野—中國古代官僚政治社會構造研究之二』, 2012, p.34.

것이다.<sup>866)</sup>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 주요 근거는 첫째, 吳가 吏의 戶만을 따로 편성한 吏籍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둘째, 吏의 사회적 지위가 民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sup>867)</sup> 실제로 吳簡 중에는 吏·卒戶의 사회적 신분 하락이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고,<sup>868)</sup> 吳 景帝가 吏 일가의 부담을 일부나마 감축한 사실은 비록 부담하는 役이 무거웠음에도 당시 吏의 사회적 신분이 아직 위진 이후 吏役之戶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吏·卒의 戶가 특수 호로 편제되고, 吏·卒 호 내의 남성 가족에 吏·卒에 급사할 의무와 限米의 경작이 강요된 것은 분명하다. 리의 자제에 給 吏, 給卒을 강제함으로써 리의 남성 가족은 행정·군사 업무에 동원되었고, 해당 업무는 호를 근거로 세습되었다. 그렇다면 吳의 吏·卒은 이미 吏役을 담당하고 있었고 인력 자원으로서 강한 통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삼국 吳가 행정, 군사 업무에 인력을 편제하는 방식은 후대의 吏役, 吏役之戶와 밀접히 연관되며, 강제성·세습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 前身을 이루었다고 여겨진다.

## 소 결

後漢~魏晉 시기의 肉刑 부활 논의에도 불구하고 肉刑은 부활하지 않았다. 자연히 秦과 같이 국가가 거대한 徒隸 집단을 보유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도예 後漢 말~三國 초기에 이르러 제국은 다시 특정 업무·노동과 특정 인력을 연동시키는 방침을 세웠다. 단 이 시기의 인력 이용은 개개인이 아닌 戶를 단위로, 徒隸나 官奴婢가 아닌 吏民을 장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즉 이 시기에는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필요한 노동 수요를 채우는 대

866) 孟彥弘, 『吳簡所見的“子弟”與孫吳的吏戶制——兼論魏晉的以戶爲役之制』, 2008, pp.13-20.

867) 黎虎, 『“吏戶”獻疑』, 『歷史研究』 2005(3), 2005.

868) 楊振紅은 비록 吳의 吏, 吏子弟가 吏職에 給事하였으나, 그 보상으로 算事와 요역, 부세를 면제받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 직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吏들은 현실적으로 지역 내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楊振紅, 『吳簡中的吏·吏民與漢魏時期官·吏的分野——中國古代官僚政治社會構造研究之二』, 2012, p.34)

신 일부 民에 특정 업무를 세습, 강제하는 방식이 운용되었다. 本 研究은 인력 이용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인력의 고용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거나 민간인이 介在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존재하거나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한, 상비 인력을 편제한 상태가 아니므로 제국은 노동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인력을 찾아 고용해야 했으므로 使役의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기술 관련 업무의 경우 숙련도를 보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게다가 後漢의 재정 문제는 국가가 유상으로 인력을 고용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둘째, 고용 노동과 별개로 행정 관련 인력 수요가 증대하며 屬吏와 행정 보조자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전한 말 郡 기능의 확대로 屬吏·행정 보조 인력의 수요가 확대되었으나 屬吏·행정 보조 인력의 낮은 사회적 지위·인식으로 인해 위 인력의 수급을 맞추는 일은 쉽지 않았다. 屬吏, 그중에서도 斗食의 小吏는 俸祿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吏徭에 시달리기도 하였기 때문에 후한에 이르러 屬吏 임용을 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屬吏·행정 인력을 충원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므로 後漢은 강제적 수단이나 임시 방법을 동원하였다. 즉 재지 세력자에 縣吏가 강요되는 상황이나 문서 독해 능력을 지닌 民을 임시로 吏로 ‘給事’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즉 秦代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임용’되던 縣 屬吏는 이제 民으로 적당히 ‘충당’된 것이다. 後漢의 給事는 吳의 給事·給吏로 이어져 하급의 吏나 행정 보조자, 잡역 담당자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三國 吳는 民을 戶로 편성한 후 50개 戶를 里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50개의 호는 應役戶(혹은 事役戶)와 특수 호로 구분되었는데, 특수 호는 役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戶 고유의 직역에 종사하였다. 특수 호는 국가의 주요 업무(관영수공업·둔전 경작·운송·관부 잡역)에 동원되는 戶와 吏·卒 戶로 구성되었다. 전자가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였다면 후자는 행정과 군사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여기에 보이는 吏는 후한 이후 吏層의 분열 결과 나타난 하급의 吏로 여겨진다. 특수 호의 직역은 戶主 본인에만 부과되지 않고 그 구성원에도 부과되어 대대로 세습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관영수공업 기술자인 師와 吏·卒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吳는 師의 가족을 주기적으로 징발하였고 징발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 소재지와 연령, 상태를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이들을 관리하였다.

吏·卒의 남성 가족인 ‘子弟’는 限田을 경작해 限米를 납부하였고 전쟁마다 종군하였으며 給吏·給卒해야 했다. 給吏·給卒은 후한의 給事에서 보았듯이 정식의 吏나 卒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職을 임시로 수행하는 것이다. 민이 給吏하는 경우도 존재하였으나 황제의 조서 중 給吏가 吏戶의 대표적 의무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吏·卒의 자제가 給吏·給卒을 부담한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후한의 給事が 민에 錢을 주고 행정 공백을 메꾸는 것이었다면 給吏·給卒은 다분히 강제적, 세습적 성격을 띠었다. 하급의 吏와 그 가족에까지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을 특수한 戶로 분류한 것은 이 시기의 吏가 秦 혹은 前漢시기의 吏와는 사뭇 다른 존재였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後漢 말·三國 초의 인력 편제 방식은 魏晉南北朝 이후 官府隸屬民과 상당히 유사하다. 관영수공업·둔전 경작·운송·관부 잡역을 담당하는 戶는 北朝의 雜戶를, 하급의 吏·卒 호는 魏晉의 吏役, 吏役之戶를 연상하게 한다. 물론 三國 魏의 단계에서는 이들 특수 호를 賤役戶로서 民戶와 구분하지는 않았다. 특수 호는 吏民簿에 편제되었고 그 구성원은 公乘 爵을 지니기도 하는 등 여전히 民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魏가 民의 인력을 ‘특수 戶’에 가두어 정해진 직무를 전담하도록 한 것이 職役戶로 나아가는 시작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三國에서 이미 雜戶, 吏役之戶의 단서가 출현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 결 론

本 研究는 秦에서 三國時期까지 제국이 주요 업무·노동에 인력을 이용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세 가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국가의 인력 동원을 살펴보았다. 첫째, 신분·제도의 틀이 아닌 ‘인력의 수요’에 입각하여, 제국 운영에 필요한 업무·노동을 중심으로 각종 인력 자원을 활용한 방식을 검토하였다. 둘째, 前漢 초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된 民營 産業, 民間 人力의 활용이 국가의 인력 이용 방식에도 영향을 주어, 전한 중기 이후 국가의 민간인 고용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각 시대의 국가 이용 인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추이와 변천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秦, 兩漢, 三國의 역사적 연결성을 살펴보았다. 秦이 職務마다 예속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면, 前漢 중기~後漢 초기의 국가인력은 민영 산업, 민간인의 인력을 유상으로 고용하여 일종의 ‘노동 外注化’가 나타났고, 後漢 말~三國에서는 각종 육체노동과 행정·군사 업무에 특수 戶와 하급의 吏·卒 戶를 편제하는 ‘노동 再外注化’가 등장하였다.

中國 古代의 국가는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업무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인력을 동원하였다. 이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관영수공업 생산, 公田(혹은 屯田) 경작, 행정 잡무, 군사 업무, 건설, 운송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戰國時代 이래 秦의 인력 자원 이용은 각 예속 인력에 대한 강한 장악과 체계적 배치로 요약할 수 있다. 秦은 업무의 특성과 각 인력의 노동 계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마다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였다. 秦이 이용한 인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단연 徒隸였다. 肉刑과 無期 勞役刑(身分刑)이 결합하여 탄생한 徒隸는 상당한 수량을 자랑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의 업무·노동에 가장 먼저 동원되었다. 물론 徒隸 이외에도 관부 소속으로 노역하는 居貲贖債가 존재하였다. 또한, 黥首는 병역·요역에 동원되어 군사·공전 경작·행정 잡역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운송과 邑中·田部 시설물의 건설과 보수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里耶 秦簡 중 거자속채의 사역 기록이 도예의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은 도예가 거자속채보다 먼저, 자주 동원되었음을 의미한다. 秦은 邑中·田部가 검수의

생활 공간임을 들어 해당 공간의 건설·수리 의무를 검수에 부과하였으나, 기타 건설과 운송 노동의 경우 徒隸와 縣官의 車牛를 먼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秦의 각종 업무·노동은 대량의 徒隸 인력이 존재하였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단위의 예속 인력을 국가가 직접 장악하는 방식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였다. 대부분의 도예는 독자적 생활 기반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도예 사역을 위해 국가는 의복·식량(穀食, 鹽菜)·주거 비용을 지출해야 했으며, 기타 도예의 감시와 관리를 위한 비용 지출이 수반되었다. 도예의 사역은 필요한 노동에 인력을 바로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었으나, 상당한 비용 지출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경제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강제 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자칫 잘못하면 노동 비용이 노동생산성보다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秦·漢 제국은 도예의 인력을 조절하려 하였다.

국가는 사역 중이지 않은 도예를 민간에 대여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도예를 방출·매각하였고, 赦免令을 내려 한꺼번에 도예의 수량을 감축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肉刑과 無期 勞役刑이 존재하는 이상 도예의 재생산은 계속 되었으므로 이러한 시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었다. 결국, 前漢 文帝 13년에 肉刑과 無期 勞役刑이 폐지되며 무기한 노역하는 도예는 소멸하였다. ‘도예의 소멸’이라는 당시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 13년의 개혁은 법률 체계뿐 아니라 인력 이용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형벌 개혁의 결과 남은 예속 인력으로는 有期 徒隸, 官奴婢, 卒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인력은 과거 도예가 충족한 노동 수요를 상쇄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였을 것이다. 가령 검수를 卒로 징발하는 제도는 이미 秦 이래로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卒의 징발 횟수와 기간은 漢初 이후 감소하였으므로 卒로 노동 공백을 채우는 일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유기 도예는 노역 기간이 끝나면 歸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그 인력의 수량은 무기한 복역하는 문제 13년 이전의 도예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成帝 河平 연간, 급히 황하를 치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후 보상을 하면서까지 인근 郡縣의 卒을 급박히 동원하거나, 昌陵을 조영할 때 고용 노동자를 동원한 사실은 남은 국가 예속 인력만으로는 국가의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 13년을 轉機로 전한은 새로운 인력 이용

방식을 모색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전한 중기 이후의 史料에 다수 나타나  
는 민간인력의 고용은 인력 이용의 새로운 방식이었을 것이다.

민간사회의 고용 노동은 戰國時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전한 중기 이  
후 크게 확대되었다. 인력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려 할 때 인력을 고용하면  
노비의 사역과는 달리 초기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인력 고용의 수요는 꾸준히 존재하였는데, 여기에 前漢 初~武帝 재위기까지  
인구가 증가하고 전한 宣帝 이후 移動 원칙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각지를 옮  
겨 다니며 고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량도 증가했다. 즉,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용 노동의 공급도 유지될 수 있었다. 민간  
의 고용 노동은 경작, 잡역, 수공업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었지만 전한 중기  
이후에는 특히 병역·요역의 대역을 위해 타인을 고용하는 일이 증가하였다.  
中國 甘肅省에서 출토된 前漢代 簡牘 중 수졸의 정보를 담은 문서는 적어도  
前漢 武帝 이후로 타인을 고용해 대역하는 현상이 보편화하였음을 보여준  
다. 동시에 요역의 대역도 허가되며 민간사회의 인력 고용은 확대되었다. 민  
간사회의 고용 노동은 후한 초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는데, 인력 고용이 증  
가하며 다양한 형태의 고용 노동이 나타나고, 고용노동자 사이에도 분화가  
나타났다. 이는 인력 이용 방식으로서의 고용 노동이 사회 전반에서 일상화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데, 고용 노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노동시장에 투  
입되는 인력이 많아지며 국가는 각종 노동에 민간인을 고용하기 시작하였  
다.

前漢 중기 이후 인력을 유상으로 이용하는 현상은 군사 업무와 국가의 일  
반 업무(생산·행정 보조·건설·운송) 양쪽에서 모두 나타났다. 군사 부문에서  
는 백성의 병역·요역의 징발 기간이 감소하였고, 徙民과 募兵을 병행하는 호  
름이 이어졌다. 또한, 국가는 운송·건설·공전 경작에 민간인을 고용했고, 특  
히 운송 부문의 고용이 두드러졌다. 武帝 때부터 민영 운송업자 혹은 민간  
의 운송 수단을 유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河西四郡의 행정문  
서는 관부가 ‘僦人’을 고용해 정기적으로 관의 물자를 운송한 사실을 보여준  
다. 국가는 僦人을 관리하는 吏를 두었으며 적재량과 이용한 수레의 臺數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였다. 아울러 국가는 건설·보수와 공전 경작에도 민  
간인을 고용하였다. 민간인의 고용은 전술한 成帝 昌陵의 조영에서도 나타  
나, 황릉 조영과 같은 국가의 중요 업무에도 고용 노동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가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현상으로부터 인력 이용 방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면, 官屬과 吏의 사적 인력 고용은 인력 이용에 대한 국가의 관념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전한 중기 懸泉置의 司御는 월 단위로 대역을 고용했고, 吏는 상계 장부나 錢을 수송할 때 민간인을 보조자로 고용했다. 이들이 종사한 업무는 말단의 잡역이지만 엄연히 국가의 관할 하에 있었는데, 秦~漢初까지 司御와 吏의 보조자가 관부 소속으로서 강한 통제를 받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司御·吏의 사적 고용이 행정문서에 적시된 것으로 보아 이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만일 국가가 고용 노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현상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전한 중기 이후 司御 대역, 吏葆의 고용을 통해서도 특정 인력을 특정 직무에 편제한다는 국가의 기존 관념이 상당히 희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前漢 중기~後漢 초기까지 고용 노동은 활성화되었으나 국가의 인력 이용 양상은 後漢 중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後漢 중기 이후 국가의 인력 고용은 감소하고, 三國時代에 이르면 職役마다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를 강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바꾸어 말하자면 後漢 말기부터 이전과 같이 인력을 다시 장악, 편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상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본 연구는 고용 노동의 한계점과 특정 인력에 대한 국가의 수요 확대가 인력 이용의 변화상을 이끌었다고 보았다.

첫째, 전한 중기 이후 성행한 고용 노동의 한계점이다. 고용 노동은 경제적으로는 이점을 가지지만, 체계성이 약하거나 민간의 인력이 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려우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녔다. 長沙 出土 五一廣場 後漢 簡牘이 기록한 後漢 永元 연간의 ‘王皮 사건’은 민간 운송업자인 王皮의 개인적인 문제로 군량의 발송이 지연된 사건이다. 조직의 책임자, 담당 관리, 실무자가 함께 배치된 관부의 조직과 비교할 때 민간인을 이용한 고용 노동은 官府와 신속히 연락을 취하기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재빨리 대처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가졌다. 게다가 직역별로 인력을 편제하는 체계 하에는 반복적인 업무로 노동에 숙달된 인력이 존재하여 곧바로 그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한편, 고용 노동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때마다 인력을 찾고 신원을 확인한 후에야 노동



에 투입할 수 있어, 번거롭고 안정성이 낮다는 한계점이 나타난다.

둘째, 後漢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가의 해당 인력을 장악하려 하였다. 전한 후기 이후 태수부의 직능 확대 및 속리층의 증가는 잘 알려져 있으나, 後漢 이후에도 郡縣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屬吏·행정 보조 인력의 충원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속리에 대한 국가의 수요가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후한 사회에서는 속리가 되기를 꺼리거나 그 직무를 천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원인은 속리의 사회적 대우에 있었다. 後漢 이후 재정난으로 인해 소리의 月俸은 종종 삭감되었고 때로는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기도 하였다. 게다가 전한 말, 후한의 속리에는 공적인 吏僚뿐 아니라 사적인 吏僚도 부과되어 그 부담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속리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 張景碑처럼 재지 세력자는 속리 임용을 마치 徭役과 같이 여겨 私財를 내서라도 속리에 임명되지 않으려 하였다. 屬吏 職을 담당할 수 있는 식자층이나 지역 유력자가 속리 임용을 회피하자, 관은 吏職을 강제로 부과하거나 가난한 書生 혹은 良家子를 이용해 吏職에 ‘給事’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給事는 본래 吏의 임시적인 파견을 의미하였으나, 『後漢書』는 당시 吏職의 給事된 사람들이 약간의 행정 처리 능력을 지닌 일반 民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魏·蜀·吳가 정립되고 三國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며 인력의 수요는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특정 업무에 인력을 편제하는 경향이 일층 강화되었다. 魏가 屯田 경작을 전담하며 다른 役을 부담하지 않은 ‘客’을 보유한 일은 주지의 사실인데, 동일 현상은 三國 뒤편에서도 나타났다. 吳는 戶를 단위로 인력을 편제하였으며 마치 과거 秦이 국가의 주요 업무·노동에 隸臣妾, 城旦舂, 鬼薪白粲 등을 배치한 것처럼 관영수공업·공전(둔전) 경작·운송·관부의 잡역과 행정·군사 업무에 해당 지역의 특수 戶를 배치하였다. 走馬樓吳簡의 吏民簿는 특수 호를 별도로 기재하였으며 특수 호를 그 담당 업무로서 명명하였다. 예를 들어 관영수공업에 종사한 기술자의 호는 ‘~師 戶’, 공전(둔전)을 경작하는 戶는 ‘吏帥客 戶’와 ‘佃客 戶’, 운송을 담당한 船師 호는 ‘船師 戶’로 불리었으며, 관부의 잡역을 담당한 호는 그 잡역, 호는 그 잡역에 ‘給事’한다는 의미에서 ‘給××戶’로 불리기도 하였다. 한편 행정과 군사를 담당한 吏·卒은 ‘~吏 戶’, ‘~卒 戶’로 명명되었다.

吳의 인력 편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하급의 吏·卒이 특수 호로 편

제되고, 여기에 소속한 남성 가족은 ‘吏(혹은 卒) 子弟’로서 몇 가지 의무를 지닌 것이다. 하급 吏와 그 남성 가족은 소위 ‘吏父兄子弟人名年紀簿’라고 부르는 특수 장부에 기록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吏 父兄, 子弟의 연령과 질병 유무, 役 담당 여부이다. 이 장부는 鄉이 기록하였고, 縣·侯國을 거쳐 郡으로까지 발송되었다. 장부에 따르면 吏의 子弟는 限田을 경작할 의무가 있었고, 吏에 입시로 결원이 생긴 경우 吏職에 ‘給事’해야 했다. 吏의 子弟가 병에 걸리거나 도주하여 경작이나 給事に 동원할 인력이 비면 해당 戶는 같은 향의 貧民戶로 하여금 그 직역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뭇가 吏뿐 아니라 그 남성 가족에 경작, 행정 업무를 부과하고, 이들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감시, 보고한 것은 吏를 세습화함으로써 그 인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三國의 인력 장악은 戶를 단위로 하였다. 사실상 편호제민체제가 방기되어 개개의 民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民을 戶로 묶어 직역을 부과하고 그 내부에 존재한 인력을 파악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戶와 그 구성원은 戶主의 직무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러한 인력 이용 방식은 곧 職役의 세습을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하급 吏·卒의 子弟는 정식의 吏·卒이 되기 전부터 給吏·給卒해야 했으며, 수공업 기술자인 師佐의 가족은 장부에 기재되어 수공업 생산에 투입되었다. 吏·卒 子弟가 도망친 경우에도 그 職이 소멸하지 않거나, 師佐가 사망한 이후에도 관부가 여전히 해당 戶의 구성원을 장악·동원한 사실은 직무의 세습을 잘 보여준다. 요컨대 職役에 戶로 편제된 인력을 동원하고 職役을 세습하게 하는 것이 三國 뭇의 인력 이용 방식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인력 이용은 이후 魏晉南北朝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北朝의 雜戶와 魏晉南北朝의 吏役之戶는 각각 뭇의 특수 戶, 吏·卒 戶의 성격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北朝는 관부의 각종 특수 노동을 전담하는 雜戶를 설정하였다. 잡호는 工戶, 屯戶, 樂戶, 驛戶 등으로 구성되어 해당 노역에 종사하는 官府隸屬民으로서 民戶와는 철저히 구분되었다. 뭇의 특수 직역 담당 戶는 아직 民의 범주에 속하였다는 점에서 雜戶와 조금 다르지만, 특정 직역에 종사하도록 강제당하고 일반 戶와 구분된 것을 보면 雜戶의 단서가 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sup>869)</sup>

<sup>869)</sup> 韓樹峰·王貴永, 「孫吳時期的“給吏”與“給戶”—以走馬樓吳簡爲中心」, 2011, p.108.

한편 役吏, 吏戶, 服役吏 등으로 불리는 魏晉南北朝의 吏役之戶는 관부의 잡역, 職田 경작, 官長 개인의 私役 등에 동원되었다.<sup>870)</sup> 본문에서 살펴본 듯이 魏의 하급 吏·卒 戶는 구분되었으며 그 子弟는 경작, 종군, 吏·卒의 給事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後漢시기 吏의 분화와 하급 吏·행정 담당 인력의 지위 하락은 吏役을 담당하는 戶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三國時代에 吏役이라는 관념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魏가 편성한 吏·卒의 호는 위진 이후의 지역지호의 前身으로 볼 수 있다. 실제 魏의 太守가 지역의 吏를 집단으로 사역하고 이를 ‘吏役’으로 칭한 것은 後漢에서 시작된 吏의 분화가 三國을 거쳐 吏役, 吏戶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마루오간의 吏·卒 戶는 바로 하급의 吏와 천역인 吏役之戶 사이에 위치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秦~三國의 인력 편제 방식은 ‘예속 인력 이용→민간인력 고용→일부 民의 예속 인력화·사역’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인력 운용 방식은 각 제국의 인력 자원 수요에 의해 결정되었다. 전국시대 秦이 각 업무와 연동된 신분을 만들고 여기에 인력을 편성한 것이나, 삼국 魏가 경작에 동원되는 客 신분을 만들고, 戶를 기준으로 民을 편제한 것은 국가의 노동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前漢 중기~後漢 초기의 민간인력 고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조망할 수 있다. 통치가 궤도에 오르며 전환은 과거와 같은 인력 수요를 느끼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잉여 인력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출에 주목하였을 것이다. 이는 예속 인력을 조절하고자 하는 수요로 이어졌고, 그 결과 도예를 삭감하고 필요한 때에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아울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각 시기의 인력 이용 방식이 단지 當代의 상황뿐 아니라 이전 시기로부터 이어져 온 인력 이용 방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秦~三國時代의 인력 이용 방식은 이전에 이용된 방식의 變容 및 再現 혹은 反響으로 나타났다. 즉 때로는 과거의 인력 운용 방식에 나타나는 장점을 취하거나 혹은 이전 시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한 것이다. 후대의 사례이기는 하나 隋·唐 제국의 인력 운용도 이러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北朝의 雜戶는 北周 建德 6년(577)에 폐지되었으나, 隋에서 다시 番戶라는 명칭으로 부활하여 唐에서는 官戶로 그 명맥이 이어졌다. 단

870) 辛聖坤, 「위진남북조시기 吏役之戶의 종류와 직역」, 2000, pp.10-31.

唐에서는 官奴婢를 속면한 후 官戶·雜戶로 삼았기 때문에 唐의 官戶·雜戶는 위진남북조의 雜戶나 吏役처럼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북조의 遺制를 계승하는 측면에서 唐이 雜戶를 최소한으로만 유지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871)</sup> 흥미로운 점은 開元 연간 이후 雜戶에 納資를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잡호를 특정 업무에 복역하도록 하는 대신, 잡호로부터 일종의 代役錢을 받아 그 업무에 和雇를 이용하였다.<sup>872)</sup>

唐이 雜戶에 納資를 허락한 것은 ‘특정한 지역에 종사하는 인력’이라는 잡호의 존재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것과 지역과 통제라는 위진남북조 시기의 인력 이용 방식이 소멸을 의미하였다.<sup>873)</sup> 물론 위의 현상은 唐代 고용 노동의 발전으로 뒷받침된 것이지만, 초창기부터 唐이 잡호를 최소화하고 별다른 직능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戶를 단위로 한 인력 편제가 필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 문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향후 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 秦-兩漢-三國의 연결성을 검토하려 시도한 것처럼 國家의 人力 利用을 중심으로 三國時代 이후 魏晉南北朝를 거쳐 隋·唐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조망하고 더 나아가 中國 古代와 中世를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871) 堀敏一, 『北朝雜戶制の再考察』, 『中國古代の身分制－良と賤－』, 1987, p.317.

872) 辛聖坤, 『雜戶 신분의 變遷과 그 性格』, 1987, pp.177-179.

873) 張維訓, 『略論雜戶“賤民”等級的消亡』, 『江西社會科學』 1982(4), 1982, pp.89-95.

## 參考文獻

### 1. 資料

#### (1) 문헌사료

『史記』(中華書局 標點校勘本)

『漢書』(中華書局 標點校勘本)

『後漢書』(中華書局 標點校勘本)

『三國志』(中華書局 標點校勘本)

『晉書』(中華書局 標點校勘本)

『宋書』(中華書局 標點校勘本)

『春秋左傳』(楊伯峻 編著,『春秋左傳注』,北京:中華書局,1981)

『管子』(黎翔鳳 撰,『管子校注』,中華書局,2004)

『九章算術』(劉徽 註,李淳風 註釋,北京:中華書局,1985)

『群書治要』(魏徵 輯,北京:中華書局,1985)

『論衡』(黃暉 撰,『論衡校釋』,北京:中華書局,1990)

『東觀漢記』(劉珍 等 撰,吳樹平 校注,『東觀漢紀校注』,北京:中華書局,2008)

『東漢會要』(徐天麟 撰,北京:中華書局,1991)

『北堂書鈔』(續修四庫全書編輯委員會 編,『續修四庫全書』,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5)

『荀子』(王先謙 撰,『荀子集解』,中華書局,1988)

『商君書』(蔣禮鴻 撰,『商君書錐指』,中華書局,1986)

『說文解字』(段玉裁 注,『說文解字注』,上海古籍出版社,1981)

『拾遺記』(王嘉 撰,北京:中華書局,1991)

『鹽鐵論』(桓寬 撰,王利器 校注,『鹽鐵論校注』,北京:中華書局,1992)

『潛夫論』(王符 撰,北京:中華書局,1985)

『太平經』(王明 編,『太平經合校』,北京:中華書局,1988)

『漢舊儀』(應劭 撰, 孫星衍 校集, 周天游 點校, 『漢官六種』, 北京: 中華書局, 1990)

『韓非子』(王先慎 撰, 鍾徹 點校, 『韓非子集解』, 北京: 中華書局, 2003)

『九章算術』(劉徽 注, 李淳風 注釋, 北京: 中華書局, 1985)

## (2) 簡帛·簡牘·石刻 資料

『居延新簡：甲渠候官』(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等編, 北京: 中華書局, 1994)

『居延漢簡(壹)』(簡牘整理小組 編,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14)

『居延漢簡(貳)』(簡牘整理小組 編,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15)

『居延漢簡(參)』(簡牘整理小組 編,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16)

『居延漢簡(肆)』(簡牘整理小組 編,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17)

『居延漢簡釋文合校』(謝桂華·李均明·朱國炤 編, 文物出版社, 1987)

『肩水金關漢簡(壹)』(甘肅簡牘保護研究中心 等編, 上海: 中西書局, 2011)

『肩水金關漢簡(貳)』(甘肅簡牘保護研究中心 等編, 上海: 中西書局, 2012)

『肩水金關漢簡(參)』(甘肅簡牘保護研究中心 等編, 上海: 中西書局, 2013)

『肩水金關漢簡(肆)』(甘肅簡牘保護研究中心 等編, 上海: 中西書局, 2015)

『肩水金關漢簡(伍)』(甘肅簡牘保護研究中心 等編, 上海: 中西書局, 2016)

『散見簡牘合輯』(李均明·何雙全 編, 北京: 文物出版社, 1990)

『敦煌漢簡』(甘肅省考古文物研究所 編, 北京: 中華書局, 1991)

『敦煌漢簡校釋』(白軍鵬 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8)

『睡虎地秦墓竹簡』(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編, 北京: 文物出版社, 1990)

『里耶秦簡(壹)』(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北京: 文物出版社, 2012)

『里耶秦簡(貳)』(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 北京: 文物出版社, 2017)

『里耶秦簡牘校釋(第一卷)』(陳偉 主編,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2)

『里耶秦簡牘校釋(第二卷)』(陳偉 主編,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8)

『里耶秦簡博物館藏秦簡』(里耶秦簡博物館 等 編, 上海: 中西書局, 2016)

『嶽麓書院藏秦簡(參)』(朱漢民·陳松長 主編,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2)

『嶽麓書院藏秦簡(肆)』(朱漢民·陳松長 主編,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5)

『嶽麓書院藏秦簡(伍)』(陳松長 主編,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7)

『嶽麓書院藏秦簡(陸)』(陳松長 主編,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9)

『二年律令與奏讞書』(彭浩·陳偉·工藤元男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編著, 北京: 文物出版社, 2001)
- 『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選釋』(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等編, 上海: 中西書局, 2015)
- 『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壹)』(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等編, 上海: 中西書局, 2018)
- 『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貳)』(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等編, 上海: 中西書局, 2018)
- 『長沙走馬樓三國吳簡·嘉禾吏民田家券』(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等 編著, 北京: 文物出版社, 1999)
- 『長沙出土走馬樓三國吳簡·竹簡(壹)』(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等 編著, 北京: 文物出版社, 2003)
- 『長沙出土走馬樓三國吳簡·竹簡(貳)』(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等 編著, 北京: 文物出版社, 2007)
- 『長沙出土走馬樓三國吳簡·竹簡(參)』(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等 編著, 北京: 文物出版社, 2008)
- 『長沙出土走馬樓三國吳簡·竹簡(肆)』(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等 編著, 北京: 文物出版社, 2011)
- 『長沙出土走馬樓三國吳簡·竹簡(陸)』(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等 編著, 北京: 文物出版社, 2017)
- 『長沙出土走馬樓三國吳簡·竹簡(柒)』(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等 編著, 北京: 文物出版社, 2013)
- 『長沙出土走馬樓三國吳簡·竹簡(捌)』(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等 編著, 北京: 文物出版社, 2015)
- 『河西簡牘』(馬建華 主編, 重慶: 重慶出版社, 2003)
- 『懸泉漢簡(壹)』(甘肅簡牘博物館等編, 上海: 中西書局, 2019)
- 『懸泉漢簡研究』(郝樹聲·張德芳, 甘肅文化出版社, 2009)
- 『湖南出土簡牘選編(伍)』(鄭曙斌 編, 長沙: 岳麓書社, 2013)
- 『金石萃編』(王昶 撰, 清嘉慶十年刻同治錢寶傳等補修本)
- 『隸釋』(洪适 撰, 上海: 上海書店, 1985)

(3) 발굴 보고서 및 기타

始皇陵秦俑坑考古發掘隊, 「秦始皇陵西側趙背戶村秦刑徒墓」, 『文物』, 1982(3), 1982.

青島市文物考古研究所等, 「山東青島土山屯墓群四號封土與墓葬的發掘」, 『考古學報』 2019(3), 2019.

荊州博物館, 「湖北荊州紀南松柏漢墓發掘簡報」, 『文物』 2008(4), 2008.

2. 研究書

수호지진묘죽간정리소조 편, 윤재석 역주, 『수호지진묘죽간 역주』, 서울: 소명출판, 2010.

李成珪, 『中國古代帝國成立史研究—秦國齊民支配體制的 形成』, 서울: 일조각, 1984.

\_\_\_\_\_, 『數의 帝國 秦漢 : 計數와 計量의 支配(대한민국학술원 학술연구총서 14)』, 서울: 大韓民國學術院, 2019.

葛劍雄, 『中國人口發展史』,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91.

唐長孺, 『唐長孺文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凌文超, 『走馬樓吳簡采集簿書整理與研究』,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5.

\_\_\_\_\_, 『吳簡與吳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9.

白軍鵬, 『敦煌漢簡校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8.

北京吳簡研討班 編, 『吳簡研究(第一輯)』, 崇文書局, 武漢: 2004.

北京吳簡研討班·長沙簡牘博物館 編, 『吳簡研究(第二輯)』, 武漢: 崇文書局, 2006.

北京吳簡研討班·北京大學中國古代史研究中心·長沙簡牘博物館 編, 『吳簡研究(三)』, 北京: 中華書局, 2011.

孫聞博, 『秦漢軍制演變史稿』,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6.

沈家本, 『歷代刑法考』, 北京: 中華書局, 1985.

沈 剛, 『秦漢時期的客階層研究』,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3.

楊生民, 『漢代社會性質研究』,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3.

王彥輝, 『秦漢戶籍管理與賦役制度研究』, 北京: 中華書局, 2016.



- 汪征魯,『魏晉南北朝選官體制研究』,福州:福建人民出版社,1995.
- 王煥林,『里耶秦簡校詁』,中國文聯出版社,2007.
- 廖伯源,『秦漢史論叢』,臺北:五南圖書出版公司,2003.
- 于振波,『走馬樓吳簡續探』,臺北:文津出版社,2007.
- 俞偉超,『中國古代公社組織的考察』,北京:文物出版社,1988.
- 李鄂權 主編,長沙簡牘博物館 編,『湘水流過—湖南地區出土簡牘展』,長沙簡牘博物館,2016.
- 李天虹,『居延漢簡簿籍分類研究』,北京:科學出版社,2003.
- 蔣福亞,『走馬樓吳簡經濟文書研究』,北京:國家圖書館出版社,2012.
- 張俊民,『敦煌懸泉置出土文書研究』,蘭州:甘肅教育出版社,2015.
- 陳夢家,『漢簡綴述』,北京:中華書局,1980.
- 黃今言,『秦漢軍制史論』,南昌:江西人民出版社,1993.
-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簡牘研究班 編,『漢簡語彙 中國古代木簡辭典』,東京:岩波書店,2015.
- 高村武幸,『秦漢簡牘史料研究』,東京:汲古書院,2015.
- 谷口建速,『長沙走馬樓吳簡の研究』,東京:早稻田大學出版部,2016.
- 廣瀨薰雄,『秦漢律令研究』,東京:汲古書院,2010.
- 堀敏一,『中國古代の身分制—良と賤—』,東京:汲古書院,1987.
- 宮宅潔,『中國古代刑制史の研究』,京都:京都大學學術出版會,2011.
- 多田狷介,『漢魏晉史の研究』,東京:汲古書院,1999.
- 陶安あんど,『秦漢刑罰體系の研究』,東京:創文社,2009.
- 渡邊信一郎,『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東京:汲古書院,2011.
- 藤田勝久,『中國古代國家と郡縣社會』,東京:汲古書院,2005.
- 濱口重國,『秦漢隋唐史の研究』,東京:東京大學出版會,1966.
- 山田勝芳,『秦漢財政收入の研究』,東京:汲古書院,1993.
- 西嶋定生,『中國古代帝國の形成と構造』,東京:東京大學出版會,1961.
- 水間大輔,『秦漢刑法研究』,東京:知泉書館,2007.
- 永田英正 編,『漢代石刻集成:圖版·釋文編』,同朋舍,1994.
- 宇都宮清吉,『漢代社會經濟史研究』,弘文堂,1954.
- 伊藤敏雄·窪添慶文·關尾史郎 編,『湖南出土簡牘とその世界』,東京:汲古書院,

2015.

靱山明, 『中國古代訴訟制度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

滋賀秀三, 『中國法制史論集: 法典と刑罰』, 東京: 創文社, 2002.

重近啓樹, 『秦漢稅役體系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1999.

紙屋正和, 『漢時代における郡縣制の展開』, 京都: 朋友書店, 2009.

平中苓次, 『中國古代の田制と稅法-中國社會經濟史研究-』, 東京: 東洋史研究會, 1967.

Brian McKnight, *The Quality of Mercy: Amnesties and Traditional Chinese Justice*,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1.

Mark Edward Lewis, *The Early Chinese Empires: Qin and Han*,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C.Martin Wilbur, *Slavery in China During the Former Han Dynasty, 206 B.C.-25 A.D.*, New York: Russell & Russell, 1943.

### 3. 研究論文

金垆吾, 「古代 中國의 工匠과 技術 통제 - 分業 생산과 工官 조직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17, 2011.

\_\_\_\_\_, 「秦帝國시기 縣廷의 구조: 『里耶秦簡』 ‘令史’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6, 2014.

\_\_\_\_\_, 「秦帝國 縣의 徒隸 운용 - 『里耶秦簡』 作徒簿를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 40, 2016.

金秉駿, 「後漢 法律家の 活動과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 30, 1989.

\_\_\_\_\_, 「漢代 太守府 屬吏組織의 變化와 그 性格: 江蘇省 連雲港 出土 尹灣漢簡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研究室 編, 『古代中國의 理解』 3, 지식산업사, 1997.

\_\_\_\_\_, 「국가의 성립과 발전」, 『동아시아의 역사 I (자연환경-국제관계)』,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_\_\_\_\_, 「표지로서의 虛辭—秦漢시기 법률 속 ‘及’의 어법적 기능—」, 『中國古中世史研究』 48, 2018.

- \_\_\_\_\_, 「전한 무제시기 대외전쟁과 주도세력의 변화」, 『第38回(2019年) 東洋史學會 冬季研究討論會』, 東洋史學會, 2019.1.
- 金 燁, 「漢代の 병제 및 力役制에 관한 諸 研究에 대하여」, 『대구사학』 11, 1976.
- 金裕哲, 「중국사에서 隸屬民과 身分制」, 역사학회 편, 『노비·농노·노예 : 隸屬民의 比較史』, 서울: 一潮閣, 1998.
- 김중희, 「秦代 縣의 曹 조직과 地方官制—里耶秦簡에 나타난 遷陵縣의 토지 재정 운영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8, 2014.
- 朴健柱, 「중국 고대의 職役과 職官의 문제」, 『中國史研究』 87, 2013.
- \_\_\_\_\_, 「秦漢三國期 국가경제 운영상의 고용노동 활용과 賦·役制上的 변화」, 『中國史研究』 100, 2016.
- 戴衛紅 저, 이주현 역, 「간독과 문서로 본 중국 中古 시기 지방 징세 체계—長沙 走馬樓 출토 三國 吳簡을 중심으로—」, 『木簡과 文字』 21, 2018.
- 宋 眞, 「漢代 通行證 제도와 商人의 移動」, 『東洋史學研究』 92, 2005.
- \_\_\_\_\_, 「前漢時期 帝國의 內部 境界와 그 出入 管理」, 『東洋史學研究』 121, 2012.
- \_\_\_\_\_, 「戰國 秦~漢初 왕조교체와 流民의 존재 양상」, 『中國古中世史研究』 55, 2020.
- 辛聖坤, 「雜戶 신분의 變遷과 그 性格」, 『歷史學報』 115, 1987.
- \_\_\_\_\_, 「魏晉南北朝時期 吏役之戶의 등장 배경」, 서울大東洋史學研究室 編, 『分裂과 統合—中國 中世의 諸相—』, 서울: 지식산업사, 1998.
- \_\_\_\_\_, 「위진남북조시기 吏役之戶의 종류와 직역」, 『경상사학』 16, 2000.
- 吳峻錫, 「秦代 縣廷의 재정운용과 회계처리—里耶秦簡을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 45, 2017.
- 于振波, 「『長沙走馬樓三國吳簡·竹簡(貳)』 신자료 소개」, 『木簡과 文字』 1, 2008.
- 尹在碩, 「秦의 ‘新地’ 인식과 점령지 지배」, 『中國古中世史研究』 46, 2017.
- 李成珪, 「秦의 身分秩序構造」, 『東洋史學研究』 23, 1986.
- \_\_\_\_\_, 「秦의 山林藪澤開發의 構造—縣廷 畜夫組織과 都官의 分析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29, 1989.

- \_\_\_\_\_, 「秦의 地方行政組織과 그 性格」, 『東洋史學研究』 31, 1989.
- \_\_\_\_\_, 「戰國時代 國家와 小農民 生活」,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研究室 編, 『古代中國의 理解』, 서울: 지식산업사, 1994.
- \_\_\_\_\_, 「秦·漢의 形벌체계의 再檢討—雲夢秦簡과 <二年律令>의 司寇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85, 2003.
- \_\_\_\_\_, 「中國 古代 帝國의 統合性 提高와 그 機制—民·官의 移動과 ‘帝國意識’의 形成을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 11, 2004.
- \_\_\_\_\_, 「前漢의 大土地 經營과 奴婢 勞動-香港中文大學文物館所藏 簡牘 <奴婢廩食粟出入簿>의 分析을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 20, 2008.
- \_\_\_\_\_, 「前漢 更卒의 徵集과 服役 方式-松柏木牘 47호의 分析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09, 2009.
- \_\_\_\_\_, 「漢代 閏年の 財政收支와 兵·徭役의 調整」, 『震檀學報』 109, 2010.
- \_\_\_\_\_, 「計數化된 人間—古代中國의 稅役의 基礎와 基準—」, 『中國古中世史研究』 24, 2010.
- \_\_\_\_\_, 「前漢 內郡과 河西 4郡 간의 交易網 形成—肩水金關 出土 簡牘 通行證과 關出入者簿名籍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22, 2013.
- \_\_\_\_\_, 「秦 帝國 縣의 組織과 機能-遷陵縣 古城遺址 출토 里耶秦簡의 分析을 중심으로-」,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第 53輯 1號, 2014.
- 李周炫, 「俸錢 문제를 통해 본 漢代 居延지역의 小吏—居延漢簡의 俸錢 未得 기록을 중심으로—」, 『서울大 東洋史學科論集』 36, 2012.
- \_\_\_\_\_, 「漢代 河西四郡의 戍卒과 私物 賣買」, 『東洋史學研究』 128, 2014.
- \_\_\_\_\_, 「前漢 중기 이후 國家의 인력 이용 방식 변화—인력 고용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50, 2020.
- 林炳德, 「漢代의 刑法改革과 刑罰體系의 整備」, 『인문학지』 15, 1997.
- \_\_\_\_\_, 「秦·漢 시기의 城旦舂과 漢文帝의 刑法改革」, 『東洋史學研究』 66, 1999.
- \_\_\_\_\_, 「진한의 노역형 형벌체계와 한문제의 형법개혁」, 『中國史研究』 9, 2000.
- \_\_\_\_\_, 「秦·漢 交替期の 奴婢」, 『中國古中世史研究』 16, 2006.
- 任仲赫, 「秦漢律의 耐刑 —士伍로의 수렴 시스템과 관련하여—」, 『中國古中

- 世史研究』19, 2008.
- \_\_\_\_\_, 『秦漢律の庶人』, 『中國古中世史研究』22, 2009.
- 賈麗英, 『西北漢簡“葆”及其身分釋論』, 『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1(5), 2014.
- 高 敏, 『試論漢代“吏”的階層地位和歷史變遷』, 『秦漢史論集』, 中州書畫社, 1982.
- \_\_\_\_\_, 『從《嘉禾吏民田家劵》中的“諸吏”狀況看吏役制的形成與演變—讀《嘉禾吏民田家劵》札記』, 『鄭州大學學報』34(1), 2001.
- 高震寰, 『從《里耶秦簡(壹)》“作徒簿”管窺秦代刑徒制度』, 『出土文獻研究(第十二輯)』, 北京: 中華書局, 2015.
- \_\_\_\_\_, 『從勞動力運用角度看秦漢刑徒管理制度的發展』, 臺北: 國立臺灣大學文學院歷史系博士論文, 2017.
- 高 恒, 『秦律中“隸臣妾”問題的探討』, 『文物』1977(7), 1977.
- \_\_\_\_\_, 『秦律中的刑徒及其刑期問題』, 『法學研究』1983(6), 1983.
- 郭麗華, 『西北屯戍漢簡中的“就人”及其相關詞語考論』, 『中國社會經濟史研究』2016(2), 2016.
- 裘錫圭, 『新發見的居延漢簡的幾個問題』, 『古文字論集』, 北京: 中華書局, 1992.
- 凌文超, 『“眞吏”別解』, 『出土文獻研究』第12輯, 上海: 中西書局, 2013.
- 唐長孺, 『魏晉南北朝時期的吏役』, 『江漢論壇』1988(8), 1988.
- \_\_\_\_\_, 『魏晉南北朝時期的客和部曲』, 『唐長孺文存』, 上海古籍出版社, 2006.
- 馬代忠, 『長沙走馬樓西漢簡《都鄉七年墾田租簿》初步考察』, 『出土文獻研究』12, 中西書局, 2013.
- 馬增榮, 『秦漢時期的雇傭活動與人口流動』, 『中國文化研究所學報』54, 2012.
- 馬智全, 『肩水金關漢簡中的“葆”探論』, 『陝西大學學報』50(1), 2013.
- 孟彥弘, 『吳簡所見的“子弟”與孫吳的吏戶制——兼論魏晉的以戶爲役之制』, 武漢大學三至九世紀研究所 編, 『魏晉南北朝史資料』24, 2008.
- \_\_\_\_\_, 『吳簡所見的“吏戶”及吏戶問題研究——兼談如何進行學術評論并敬答李文才先生』, 『陝西師範大學學報』2019(3), 2019.
- 白軍鵬、汪雲龍, 『敦煌馬圈灣漢簡釋文訂補(六則)』, 鄔文玲 主編, 『簡帛研究二〇一七·秋冬卷』,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8.

- 謝桂華,「漢簡和漢代的取傭代戍制度」,『秦漢簡牘論文集』,蘭州:甘肅人民出版社,1989.
- ,「漢簡與漢代西北屯戍鹽政考述」,『漢晉簡牘論叢』,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2014.
- 徐 暢,「走馬樓吳簡竹木牘的刊布及相關研究述評」,『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第31輯,2015.
- 徐鴻修,「從古代罪人收奴刑的變遷看“隸臣妾”“城旦舂”的身分」,『文史』1984(5), 1984.
- 石 洋,「兩漢三國時期“傭”群體的歷史演變-以民間雇用為中心」,『中國史研究』2014(3), 2014.
- 宋 杰,「《九章算術》記載的漢代徭役制度」,『《九章算術》與漢代社會經濟』,首都師範大學出版社,1994.
- 宋少華,「長沙走馬樓J22發掘簡報」,『文物』,1995(5), 1995.
- 宋 超,「吳簡所見“何黑錢”,“僦錢”與“地僦錢”考」,『吳簡研究(第一輯)』,武漢:崇文書局,2004.
- 孫聞博,「走馬樓簡“吏民簿”所見孫吳家庭結構研究」,卜憲群·楊振紅 主編,『簡帛研究二〇〇七』,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2010.
- 沈 剛,「走馬樓三國吳簡所見“叛走”簡騰義」,『江漢考古』2009(1), 2009.
- ,「《里耶秦簡》(壹)所見作徒管理問題探試」,『史學月刊』2015(2), 2015.
- ,「徭使與秦帝國統治:以簡牘資料為中心的探討」,『社會科學』2019(5), 2019.
- 黎明釗·馬增榮,「漢簡集簿再探:以“戍傭作名籍”為例」,『中國文化研究所學報』53, 2011.
- 游逸飛,「里耶秦簡所見洞庭郡:戰國秦漢郡縣制個案研究之一」,『中國文化研究所學報』61, 2015.
- 楊振紅,「秦漢簡中的“冗”“更”與供役方式—從《二年律令·史律》談起」,卜憲群·楊振紅 主編,『簡帛研究二〇〇六』,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2006.
- ,「徭·戍為秦漢正卒基本義務說—更卒之役不是“徭”」,『中華文史論叢』2010(1)(總第九十七期), 2010.
- 黎明釗·馬增榮,「漢簡集簿再探:以“戍傭作名籍”為例」,『中國文化研究所學報』

53, 2011.

黎明釗·唐俊峰,「里耶秦簡所見秦代縣官·曹組織的職能分野與行政互動—以計·課為中心」,『簡帛』第十三輯,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6.

黎 虎,「“吏戶”獻疑」,『歷史研究』2005(3), 2005.

王子今,「秦漢時期的私營運輸業」,『中國史研究』1989(1), 1989.

——,「獨立的運輸業的形成與發展」,『秦漢交通史稿』,北京:中共中央黨校出版社,1994.

——,「關於居延“車夫”簡」,李學勤 主編,『簡帛研究』第二輯,1996.

王子今·申秦雁,「陝西歷史博物館藏武都漢簡」,『文物』2003(4), 2003.

王子今,「長沙走馬樓竹簡“地徭錢”的市場史考察」,『吳簡研究(第二輯)』,武漢:崇文書局,2006.

姚 磊,「《肩水金關漢簡(壹)》綴合(九)」,〈簡帛網〉,2017.9.21.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890](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890)

——,「《肩水金關漢簡(肆)》綴合(十七)」,〈簡帛網〉,2016.5.16.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545](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545)

連先用,「吳簡所見臨湘“都鄉吏民簿”里計簡的初步復原與研究—兼論孫吳初期縣轄民戶的徭役負擔與身份類型」,鄔文玲 主編,『簡帛研究二〇一七·秋冬卷』,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2018.

魏 斌,「古人堤簡牘與武陵蠻」,『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85(1), 2015.

劉國忠,「長沙東漢簡所見王皮案件發微」,『齊魯學刊』2013(4), 2013.

劉樂賢,「長沙五一廣場出土東漢王皮木牘考述」,『中山大學學報』2015(3), 2015.

柳春藩,「論漢代“公田”的“假稅”」,『中國史研究』1983(2), 1983.

李均明,「漢代屯戍遺簡“葆”解」,『文史』第38輯,北京:中華書局,1994.

李文才,「評長沙走馬樓吳簡“吏民”問題研究及其學術亂象——兼論大陸史學界“吏戶”問題研究60年」,『陝西師範大學學報』2018(3), 2018.

林劍鳴,「“隸臣妾”并非奴隸」,『歷史論叢』3, 1983.

林愛清,「漢代“葆”身分補正」,『南都學壇』27(6), 2007.

張金光,「關於秦刑徒的幾個問題」,『中華文史論叢』1985(1), 1985.

蔣丹丹,「五一廣場東漢簡牘所見流民及客—兼論東漢時期長沙地區流動人口管理」,鄔文玲 主編,『簡帛研究二〇一七·秋冬卷』,桂林:廣西師範大學

出版社, 2018.

張麗萍·張顯成, 「西北屯戍漢簡中的“庸”“葆”“就”及相互關係考辨—兼論“作者”的含義」, 『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19(3), 2019.

蔣福亞, 「長沙走馬樓三國吳簡中的“客”」, 『中國經濟史研究』 2006(3), 2006.

張亞偉, 「五一廣場東漢簡“左倉曹史朱宏·劉宮·卒張石·男子劉得本【事】”簡冊復原」, <簡帛網>, 2019.4.30.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3357](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3357)

張榮強, 「孫吳“嘉禾吏民田家笥”中的幾個問題」, 『中國史研究』 2001(3), 2001.

——, 「吳簡〈嘉禾吏民田家笥〉“二年常限”解」, 『歷史研究』 2003(6), 2003.

張維訓, 「略論雜戶“賤民”等級的消亡」, 『江西社會科學』 1982(4), 1982.

張政烺, 「秦律“葆子”釋義」, 『文史』 第9輯, 北京: 中華書局, 1980.

張俊民, 「簡牘文書所見“長安”資料輯考」, 『南越國遺跡與廣州歷史文化名城學術研討會暨中國古都學會2007年年會』, 2007.6.

——, 「懸泉漢簡傳馬病死爰書及其他」, 『簡牘學論稿』, 蘭州: 甘肅教育出版社, 2014.

田炳炳, 「肩水金關漢簡綴合兩則」, <簡帛網>, 2014.9.1.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066](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066)

周德貴, 「秦簡所見“更戍”和“屯戍”制度新解」, 『蘭州學刊』 2013(11), 2013.

——, 「嶽麓秦簡所見《戍律》初探」, 『社會科學』 2017(10), 2017.

陳侃理, 「北京大學藏秦代傭作文書初釋」, 中國文化遺產研究院 編, 『出土文獻研究』 14, 上海: 中西書局, 2015.

陳 爽, 「走馬樓吳簡所見“吏帥客”試解」, 長沙簡牘博物館·北京吳簡研討班 編, 『吳簡研究(第二輯)』, 武漢: 崇文書局, 2006.

陳松長, 「岳麓書院藏秦簡中的郡名考略」, 『湖南大學學報』 2009(2), 2009.

陳 偉, 「《岳麓書院藏秦簡(伍)》校讀(續)」, <簡帛網> 2018.3.10.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3006](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3006)

——, 「岳麓秦簡肆校商(三)」, <簡帛網>, 2016.3.29.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506](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506)

——, 「岳麓秦簡肆校商(四)」, <簡帛網>, 2016.11.30.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675](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675)

陳 直, 「關於兩漢的徒」, 『兩漢經濟史料論叢』,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0



- 平曜婧·蔡萬進,「里耶秦簡所見秦的出糧方式」,『魯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015(4), 2015.
- 何有祖,「里耶秦簡牘綴合(七則)」,〈簡帛網〉, 2012.5.1.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1679](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1679)
- \_\_\_\_\_,「讀里耶秦簡札記(一)」,〈簡帛網〉, 2015.6.17.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261](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261)
- \_\_\_\_\_,「讀里耶秦簡札記(三)」,〈簡帛網〉, 2015.07.01.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267](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267)
- \_\_\_\_\_,「讀里耶秦簡札記(五)」,〈簡帛網〉, 2015.7.15.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273](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2273)
- 韓連琪,「漢代的田租口賦和徭役」,『文史哲』1956(7), 1956.
- 韓樹峰,「長沙走馬樓三國吳簡所見師佐籍考」,『吳簡研究(第一輯)』,武漢:崇文書局, 2004.
- \_\_\_\_\_,「論吳簡所見的州郡縣吏」,長沙簡牘博物館·北京吳簡研討班 編,『吳簡研究(第二輯)』,武漢:崇文書局, 2006.
- \_\_\_\_\_,「走馬樓吳簡中的“真吏”與“給吏”」,長沙簡牘博物館·北京吳簡研討班 編,『吳簡研究(第二輯)』,武漢:崇文書局, 2006.
- 韓樹峰·王貴永,「孫吳時期的“給吏”與“給戶”—以走馬樓吳簡爲中心」,長沙簡牘博物館·北京大學中國古代史研究中心·北京吳簡研討班 編,『吳簡研究(三)』,北京:中華書局, 2011.
-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里耶秦簡中和酒有關的記錄」,吳榮增·王桂海 主編,『簡牘與古代史研究』,北京:北京大學出版社, 2012.
- 侯旭東,「長沙走馬樓吳簡《竹簡》[貳]“吏民人名年紀口食簿”復原的初步研究」,『中華文史論叢』2009(1), 2009.
- \_\_\_\_\_,「長沙走馬樓三國吳簡所見給吏與吏子弟—從漢代的“給事”說起」,『中國史研究』2011(3), 2011.
- 谷口建速,「長沙吳簡にみえる佃客と限米」,伊藤敏雄·窪添慶文·關尾史郎 編,『湖南出土簡牘とその世界』,東京:汲古書院, 2015.
- 關尾史郎,「簿籍の作成と管理からみた臨湘侯國」,伊藤敏雄·窪添慶文·關尾史郎 編,『湖南出土簡牘とその世界』,東京:汲古書院, 2015.

- \_\_\_\_\_, 「長沙吳簡吏民簿の研究(上)―「嘉禾六(二三七)年廣成鄉吏簿」の復元と分析―」, 『人文科學研究』 第137輯, 2015.
- 宮崎市定, 「部曲から佃戸へ (上): 唐宋間社會變革の一面」, 『東洋史研究』 29(4), 1971.
- 宮宅潔, 「漢代官僚組織の最下―「官」と「民」のはざま―」, 『東方學報』 87冊, 2012
- \_\_\_\_\_, 「秦代遷陵縣志初稿―里耶秦簡より見た秦の占領支配と駐屯軍―」, 『東洋史研究』 75(1), 2016.
- \_\_\_\_\_, 「秦代徵兵制度の現在―基本史料の解釋をめぐって」, 『歴史と地理: 世界史の研究』 256, 東京: 山川出版社, 2018
- \_\_\_\_\_, 「秦代の「徭」と「戍」―その字義をめぐって―」,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共同研究班 秦代出土文字史料の研究>, 2019.4.1.
- <http://www.shindai.zinbun.kyoto-u.ac.jp/archive.html>
- 金秉駿, 「樂浪郡初期の編戶過程」, 『古代文化』 61-2, 2009.
- \_\_\_\_\_, 「中國古代南方地域の水運」, 藤田勝久・松原弘宣 編, 『東アジア出土資料と情報傳達』, 東京: 汲古書院, 2011.
- 大櫛敦弘, 「秦漢國家の陸運組織に關する一考察―居延漢簡の事例の検討から」, 『東洋文化』 68, 1988.
- 飯島和俊, 「秦漢交替期の雇用關係-「江陵張家山漢簡『奏讞書』」案例22に見えるの「它縣人來乘庸」を手がかりとして」, 『唐代史研究』 3, 2000.
- 山田勝芳, 「漢代の公田―經營形態を中心として―」, 『集刊東洋學』 25, 1971.
- 石 洋, 「兩漢傭價變遷考證」, 『東洋史研究』 71(2), 2012.
- \_\_\_\_\_, 「秦漢經濟史研究-財政制度と基層社會」, 京都: 京都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 石原遼平, 「秦漢時代の「徭」」, 『東洋文化』 99, 2019.
- 小林文治, 「里耶秦簡よりみた秦邊境における軍事組織の構造と運用」, 早稻田大學長江流域文化研究所 編, 『古代史論文集: 政治・民族・術數』, 東京: 雄山閣, 2016.
- 鈴木直美, 「漢代フロンティア形成者のプロフィール―居延漢簡・肩水金關漢簡にみる卒の年齢に着目して―」, 高村武幸 編, 『周緣領域からみた秦漢帝國』, 東京: 六一書房, 2017.

- 若江賢三,「秦漢時代の勞役刑—ことに隸臣妾の刑期について」,『東洋史論』第1集,1980.
- 鷹取祐司,「漢代戍卒の徵發と就役地への移動」,『古代文明』49(10),1997.
- ,「漢代長城警備體制の變容」,宮宅潔 編,『多民族社會の軍士統治:出土史料が語る中國古代』,京都:京都大學出版會,2018.
- 李周炫,「漢簡からみた國家の物資輸送と雇傭勞動」,伊藤敏雄・關尾史郎 編,『後漢・魏晉簡牘の世界』,東京:汲古書院,2020.
- 初山明,「秦の隸屬身分とその起源—隸臣妾問題に寄せて」,『史林』65(6),1982.
- 張建國,「前漢文帝刑法改革とその展開の再検討」,『古代文化』48(10),1996.
- 齋藤道子,「古代中國における身體障害者—「境界者」として性質のをめぐって—」,『中國史學』第28卷,京都:朋友書店,2018.
- 「秦代出土史料の研究」班,「嶽麓書院所藏簡《秦律令(壹)》譯註稿 その(一)」,『東方學報』92,2017.
- 土口史記,「里耶秦簡にみえる秦代縣下の官制構造」,『東洋史研究』73(4),2015.
- A.F.P.Hulsewé, “The Ch'in Documents Discovered in Hupei”, *T'oung Pao*, Second Series, Vol.64, 1978.
- David Keightley, “PUBLIC WORK IN ANCIENT CHINA: A STUDY OF FORCED LABOR IN THE SHANG AND WESTERN CHOU”, Dissertation of Columbia University, Ph.D., 1969
- Mark Edward Lewis, “The Han Abolition of universal military service”, Hans Van de Ven edited, *Warfare in Chinese History*, Leiden: Brill, 2000.

## **Abstract**

#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Manpower in Ancient Chinese Empires

Lee, Joohyun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ffective management of manpower is pivotal in creating and maintaining power. The rulers of ancient empires in China were aware of this fact and focused on organizing the manpower in their empires early on. They assigned the appropriate manpower to each area of production, administration,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o govern their vast lands and many subjects effectively. As the number and types of available manpower were affected by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the management of manpower in ancient Chinese empires changed by time. It wa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governing ideologies of the state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management methods of manpower changed from the Warring States Period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ancient China. Chapters I, II, and III of this paper each examined the following three periods in China: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 reign of Emperor *Wen* (文帝) of the Former *Han* dynasty, and the end of the Later *Han* dynasty. *Qin*'s management methods of assuming complete control over its manpower changed dramatically after the thirteenth year of Emperor *Wen*'s reign. Later, the state began to "outsource" manpower, while "re-insourcing," the reorganization of manpower, began the end of the Later *Han* dynasty."

The *Qin* dynasty set the tasks and labor essential for state management and assigned State-owned labor forc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ask or labor. An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and law during the *Qin* dynasty showed that there were six types of essential tasks and labor: the state-owned handicraft industry, farming, administrative chores, military tasks,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e *Qin* government assigned manpower to the tasks mentioned above, according to laborers' labor capacity, which was based on the laborers' social status, sex, age, and physical fitness.

State slaves were assigned to work in the state-owned handicraft industry, farm state-owned lands, and transport goods. When there was a deficiency of state slaves, and more manpower was needed, soldiers and peasants were drafted. First, in most parts, manpower put to work in the state-owned handicraft industry consisted of workers with skills. State slaves with hand-craftsmanship were attached to state offices and classified as artisans even after being freed. It could be presumed that peasants with hand craftsmanship were also attached to state offices and were managed under a system different from the general public, which showed how the *Qin* government aimed to control hand-craftsmanship and industry in extension, the trade, and the industry. At the same time, this showed how meticulous the *Qin* government was in managing its manpower. Second, the *Qin* dynasty also mobilized a considerable amount of State-owned labor forces for cultivating and farming state-owned land. While some soldiers were also mobilized, the state slaves were central as manpower for farming the state-owned land. State slaves were also mobilized for most of the construction works and the transportation of goods. Peasants were obligated to construct or fix fortifications and infrastructures in their hometowns and farming lands. They also had to participate in statute labor by transporting goods on a regular and irregular basis. However, this was only possible when certain conditions were met, and the law stipulated that the state slaves should be used first in the case of irregular transportation of goods. Such examples showed that the *Qin* dynasty prioritized using its state slaves when demands for physical labor arose.

For administrative tasks and military projects, the *Qin* government chose to use specific manpower instead of extensively mobilizing its state slaves. Although state slaves were able to meet the labor demand for administrative tasks, only the *Lichen* (隸臣) and no other state slaves were allowed to serve as assistants to the officials or run errands. This was because the *Lichen* was a social class created for household slaves or servants who were in charge of menial tasks for the state. Since the state slaves did not have to serve in the military or take part in any statute labor, the military tasks were assigned to the peasants. While the *Qin* government was meticulous in its planning of manpower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sks and labor, the state slaves accounted for the most substantial portion of its manpower. State slaves were at the core of the *Qin* manpower and were the first to be mobilized for most tasks except for the military projects.

However, *Qin's* method of managing its manpower was fundamentally based on the subjugated class that did not have any basis for independence. The state had to pay for the food, clothing, and other expenses to maintain the state slaves, which led to higher government expenditure. Because statute labor did not yield any compensation, the high productivity of the forced labor provided by the state slaves could not always be guaranteed. Moreover, while slave labor was needed during wartime or at the beginning of the dynasty, when more manpower was needed for the war campaigns and construction works, state slaves became increasingly redundant as the regime became stable. A number of decrees of amnesty were issued from the *Qin* dynasty to the early days of the Former *Han* dynasty to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However, amnesty could not become the solution for reducing the number of state slaves as long as the punishments of physical mutilation or compulsory labor, which reproduced state slaves, were imposed.

As physical mutilation and compulsory labor were abolished as punishments during Year 13 (BCE 167) of Emperor *Wen's* reign during the Former *Han* dynasty, permanent state slaves disappeared. The state slaves that existed after Year 13 of Emperor *Wen's* reign served as state slaves for a limited time and

received amnesty after they completed their time. They were distinguished from the state slaves that existed before Year 13 of Emperor *Wen*'s reign. Manpower controlled by the Former *Han* naturally dropped after the change in the state policy. However, labor, including production, administration, menial tasks,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was essential to maintain the empire. It could thus be presumed that the demand for manpower maintained a certain level that was slightly lower than that at the beginning of the new empire. After the mid-Former *Han* period, the *Han* government attempted to meet the demand for labor by employing commoners instead of using state slave labor.

Employers did not have to cover the fixed costs of clothing, feeding, and housing for their slaves when they employed commoners. They were able to use as much manpower they needed when necessary, thereby minimizing the possibility of the idle labor force. The demand for employment in the commoner society during the Former *Han* dynasty led to a rise in the number of migrants who left their hometowns, which had helped maintain the supply of manpower. After the mid-Former *Han* period, employment became more common as more people began to employ agents for their military and compulsory labor services. By the Late-Former *Han* period, different types of people were working as employees in various fields. The expansion of employed labor in commoner society after the mid-Former *Han* period led to a rise in the number of employed workers. It also affected the state's decision to employ commoners for its projects.

Excavated documents showed that after the mid-Former *Han* period, government offices were directly employing manpower for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nd farming. First, evidence for employment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could be found in the activities of the *Jiuren* (僦人). *Jiuren* refers to the people who were employed by government offices and regularly transported goods. They received their salaries by the amount of load they delivered and were managed by public officials. Records of using employed labor to build the emperor's tomb and payrolls for commoners who were employed by government offices for farming showed that commoners were employed for construction and

farming projects. After the mid-Former *Han* period, public officials began to employ assistants, and public assistants also began to hire labor to work on their behalf. The principle that public assistant, whose main tasks were to serve as assistants or specialize in specific tasks, should be filled in by "suitable personnel" vetted by the government office had faded away. While there had been a system for allocating specific personnel to certain tasks until the *Qin* dynasty and the Early-Former *Han* dynasty, opinions changed after the mid-Former *Han* period. More officials believed that they could employ commoners for specific posts to meet the labor demand whenever necessary. A type of labor "outsourcing" began to appear after the mid-Former *Han* period.

The management of manpower established in the mid-Former *Han* period changed at the end of the Late *Han* dynasty and the beginning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employment rate of government offices decreased after the mid-Late *Han* period, and at the end of the Late *Han* dynasty, manpower was organized through compulsory labor tasks again. The dip in government employment and the new attempts made to reclaim the manpower may have been caused by the worsening financial condition of the Late *Han* dynasty, the shortcomings of employed labor, the increasing demand for low-level administrative workers, and the rivalry between the Three Kingdoms. This paper focused on the shortcomings of employed labor and the demand for low-level administrative workers. First, while the employment of manpower was efficient, it was more inconvenient for the state to assign tasks, and the continuity of work was also slow. Next, the demand for low-level administrative workers also affected the change. After the Late-Former *Han* period, the functions of the *Jun* (郡) were expanded, thereby increasing the demand for much low-level administrative manpower. However, few of the literati or members of influential families applied for administrative positions as the low-level administrative workers during the era were treated with disdain. With no choice but to staff the administrative positions, the Late *Han* government resorted to forceful measures and temporary means to fill low-level public posts or the lower administrative positions. Instead of using manpower at a cost, the government



began to take control of as much manpower as possible through "re-insourcing."

The management of manpower from the Late-Later *Han* dynasty to the early Three Kingdoms Period could be found in the *Zoumalouwujian* (走馬樓吳簡) and other historical documents. The records confirmed that the state took full control of its manpower by each household and forced each household to take part in a specific task and to pass it on within the household. There were mainly two types of households assigned with particular types of labor. First, some households were assigned various government-related tasks (state-owned handicraft industry, farming of state-owned lands, transportation of goods, menial labor in government offices). These households mainly engaged in physical labor, and skilled workers were assigned to tasks that require specific skills, such as the handicraft industry and transportation. For farming and menial labor in government offices, the state used *Ke*(客), who were mostly owned by government offices, runaways, and paupers. Second, some households served their duties as local administrative workers or soldiers. They became part of the low-level administrative manpower and engaged in administrative or military tasks. The male family members of these households were considered reservists who could work on administrative or military tasks. The brothers or sons of administrative workers paid a different type of tax, participated in wars, and were obligated to perform their duties as administrative workers even when they were not formally appointed. The current conditions of families with administrative duties were continuously reported to the state, and the duties assigned to each household did not disappear even when they turned ill or ran away.

The management of manpower from the *Qin* dynasty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could be summed up as follows: the process of "utilizing state-owned manpower (insourcing) → employment (outsourcing) → controlling and assigning duties by household (re-insourcing)." This paper found that the state authority's demand determined its method of using its manpower. This paper further confirmed that the manpower management method of a specific period was influenced not only by the situations of the time but also by the management

method used during the previous era.

**Key words : Empire, Manpower, State-owned labor forces, Organization,  
Government expenditure, Employ, Employee, Outsourcing,  
Re-insourcing, Liyi (吏役), Zhiyi (職役)**

***Student Number : 2011-30856***